

博士學位論文

# 제주도 전래 농기구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2002年 6月

# 제주도 전래 농기구 연구

指導教授 許 椿

金 東 燮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6月

金東燮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인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委 員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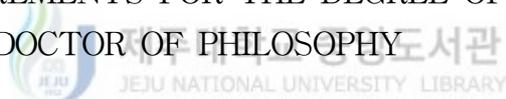
2002年 6月

A STUDY OF THE TRADITIONAL FARMING  
IMPLEMENTS IN JEJU ISLAND

KIM, DONG-SEOP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2002. 6.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과제	1
2. 선행 연구 검토	4
3. 연구 방법 및 자료	7
II. 제주도의 농업 환경-----	11
1. 농경지 특성	12
2. 재배 작물	17
3. 농경법과 수놓음	20
III. 전래 농기구의 성격과 내용 -----	24
1. 가는 연장	26
(1)쟁기 (2)따비 (3)벤줄레 (4)괭이 (5)씨레 (6)곰돌	
2. 씨뿌리는 연장	55
(1)멜망탱이	
3. 거름 주는 연장	58
(1)췌스랑 (2)거름착 (3)굴채 (4)오줌항 (5)오줌허벅	
4. 씨덮는 연장	76
(1)곰배 (2)갈레죽 (4)섬피 (5)남테	
5. 매는 연장	89
(1)굴갱이	
6. 거두는 연장	96
(1)호미	
7. 운반하는 연장	100
(1)산태 (2)지게 (3)배 (4)마차 (5)질메	
8. 곡식 터는 연장	115
(1)작대기 (2)덩드렁마께 (3)도께 (4)클 (5)클갱이	
9. 곡식 고르고 말리는 연장	129
(1)얼멩이 (2)술박 (3)푸는체 (4)명석 (5)당그네	
10.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	144
(1)남방에 (2)절구 (3)돌방에 (4)ㄱ레 (5)ㄱ레방석 (6)도고리 (7)체	
11. 저장하는 용구	167
(1)맥 (2)항 (3)뒤주 (4)말,뒤편,흙	
12. 기타	180
(1)갈웃 (2)정당벌립 (3)대패랭이 (4)우장 (5)낮	
결론 -----	195
부록 1. 제주도 재래농구 조사	201
부록 2. 주요 조사지 및 제보자	202
참고문헌	203
Summary	207

## 그림 목차

<그림 1> 조사지 위치도	10
<그림 2> 제주토양도	13
<그림 3> 쟁기	29
<그림 4> 뱃 뒷 모습	33
<그림 5> 멍	34
<그림 6> 쌍따비	38
<그림 7> 웨따비	41
<그림 8> 벤줄레	46
<그림 9> 팽이	50
<그림 10> 씨레	53
<그림 11> 곰돌	54
<그림 12> 뿔망텅이	57
<그림 13> 세발 쉼스랑	60
<그림 14> 두발 쉼스랑	60
<그림 15> 네발 쉼스랑	60
<그림 16> 쉼스랑	62
<그림 17> 거름착	63
<그림 18> 줄갱이굴채	66
<그림 19> 칩굴채	66
<그림 20> 대굴채	67
<그림 21> 쇠굴채	67
<그림 22> 걸렁지	69
<그림 23> 걸렁지	69
<그림 24> 오줌항	70
<그림 25> 오줌허벅	72
<그림 26> 곰배	77
<그림 27> 곰방매	78
<그림 28> 갈레죽	81
<그림 29> 종가래	82
<그림 30> 가래	83
<그림 31> 섬피	84
<그림 32> 남테	87
<그림 33> 줄갱이	90
<그림 34> 줄갱이	91
<그림 35> 간스메	95
<그림 36> 호미	97
<그림 37> 호미	97
<그림 38> 산태	101
<그림 39> 돌채	102



<그림 40> 지계	104
<그림 41> 지계	104
<그림 42> 바지계	106
<그림 43> 물지계	107
<그림 44> 배	108
<그림 45> 마차	110
<그림 46> 구라	111
<그림 47> 질매	113
<그림 48> 덩드렁 마께	118
<그림 49> 서답 마께	119
<그림 50> 도깨	121
<그림 51> 클	124
<그림 52> 보리클 날	125
<그림 53> 산뒤클 날	125
<그림 54> 흘태	126
<그림 55> 글쟁이	128
<그림 56> 얼맹이	130
<그림 57> 얼게미	132
<그림 58> 얼게미	132
<그림 59> 솔박	132
<그림 60> 솔박	133
<그림 61> 쇠죽바가지	134
<그림 62> 하꼬	134
<그림 63> 푸는체	135
<그림 64> 푸는체	135
<그림 65> 쟁이	137
<그림 66> 명석	139
<그림 67> 당그네	142
<그림 68> 미래	142
<그림 69> 남방에	145
<그림 70> 방에귀	146
<그림 71> 절구	149
<그림 72> 절구대	149
<그림 73> 도구통	149
<그림 74> 몰방에	152
<그림 74-1> 유수암리 몰방에 배치도	151
<그림 75> ㄹ래	156
<그림 76> 풀ㄹ래	156
<그림 77> ㄹ랫방석	161
<그림 78> 도고리	163
<그림 79> 함지	163



<그림 80> 체	165
<그림 81> 체	165
<그림 82> 씨부게	168
<그림 83> 맥	170
<그림 84> 향	172
<그림 85> 용기 가마분포도	173
<그림 86> 뒤주	175
<그림 87> 두ړ	176
<그림 88> 발뒤주	177
<그림 89> 말,뿔,흙	178
<그림 90> 귀말	178
<그림 91> 뒤약세기	179
<그림 92> 갈웃	182
<그림 93> 정당벌립	184
<그림 94> 대패랭이	185
<그림 95> 밀낭패랭이	186
<그림 96> 밀짚모자	186
<그림 97> 샷갓	186
<그림 98> 우장	188
<그림 99> 낫	191



## 사진 목차

<사진 1> 제주의 밭	12
<사진 2> 암갈색 토양	13
<사진 3> 농암갈색 토양	13
<사진 4> 흑색 토양	13
<사진 5> 산림질 농암갈색 토양	13
<사진 6> 질왓	14
<사진 7> 작지왓	14
<사진 8> 뜰밭	15
<사진 9> 바령밭	16
<사진 10> 보리	18
<사진 11> 피	18
<사진 12> 메밀	19
<사진 13> 고구마	19
<사진 14> 유채	19
<사진 15> 양파늘	20
<사진 16> 검질매기	22
<사진 17> 소 내리기	23
<사진 18> 파종후 모습	26
<사진 19> 밭갈이	27
<사진 20> 쟁기사용	27
<사진 21> 밭갈이	27
<사진 22> 입춘굿놀이에서의 쟁기	28
<사진 23> 손쟁기 사용	28
<사진 24> 쟁기	30
<사진 25> 쟁기	30
<사진 26> 양주머리 사용	31
<사진 27> 자귀	31
<사진 27-1> 성에 초별깎기	31
<사진 28> 보섭, 벧	32
<사진 29> 보섭 제작	33
<사진 30> 보섭 제작	33
<사진 31> 명예와 쟁기	34
<사진 32> 쟁기 사용	34
<사진 33> 접게 구라	35
<사진 34> 쟁기 사용	35
<사진 35> 쟁기 보관	36
<사진 36> 밭	36
<사진 37> 쌍따비 사용	37
<사진 38> 당계무클과 설칫	39

<사진 39> 따비쇠 뒷모습	39
<사진 40> 쌍따비 사용	39
<사진 41> 농경문청동기	40
<사진 42> 쌍따비 사용	41
<사진 43> 따비쇠	42
<사진 44> 따비쇠 측면	42
<사진 45> 웨따비	43
<사진 46> 웨따비	43
<사진 47> 쇠따비	43
<사진 48> 웨따비 사용	44
<사진 49> 쌍따비 사용	44
<사진 50> 벤줄레대	46
<사진 51> 벤줄레 지고 가는 모습	46
<사진 52> 벤줄레	47
<사진 53> 벤줄레	47
<사진 54> 벤줄레 사용	48
<사진 55> 산담 모습	48
<사진 56> 돌괘이	49
<사진 57> 목	50
<사진 58> 괘이	51
<사진 59> 목괘이	51
<사진 60> 섭목괘이	51
<사진 61> 섭괘이	51
<사진 62> 괘이	51
<사진 63> 약초괘이	51
<사진 64> 오일장 농기구 판매상	52
<사진 65> 씨레 몸통과 발	53
<사진 66> 붓줄채경	53
<사진 67> 소 가르치는 모습	54
<사진 68> 곰돌	54
<사진 69> 곰돌 사용	55
<사진 70> 곰돌	55
<사진 71> 소 가르치는 모습	55
<사진 72> 멜망텡이 사용	56
<사진 73> 멜망텡이 굽	57
<사진 74> 차룽 진 모습	57
<사진 75> 멜망텡이 사용	58
<사진 76> 듬북눌	58
<사진 77> 돛통	59
<사진 78> 웨스랑 사용	60
<사진 79> 호끄	61

<사진 80> 솔피낭 자루	61
<사진 81> 죽낭 자루	61
<사진 82> 똥장군	63
<사진 83> 거름 운반	64
<사진 84> 마차로 거름내는 모습	64
<사진 85> 거름	64
<사진 86> 퇴비	64
<사진 87> 거름착 사용	65
<사진 88> 골체 사용	66
<사진 89> 골체 손잡이	67
<사진 90> 에움낭	68
<사진 91> 골체 사용	69
<사진 92> 오줌항	70
<사진 93> 오줌항	71
<사진 94> 오줌항	71
<사진 95> 구덕 파는 모습	73
<사진 96> 물구덕 진 모습	73
<사진 97> 애기구덕	74
<사진 98> 바드랭이	74
<사진 99> 똥장군	74
<사진 100> 구덕 진 모습	75
<사진 101> 구덕 진 모습	75
<사진 102> 말테	76
<사진 103> 곰배 사용	76
<사진 104> 곰배	77
<사진 105> 곰배	77
<사진 106> 곰배	77
<사진 107> 곰배 사용	79
<사진 108> 곰배 사용	79
<사진 109> 갈레죽 사용	80
<사진 110> 갈레죽 사용	81
<사진 111> 삼	82
<사진 112> 삼사용	82
<사진 113> 가래	82
<사진 114> 돛통 디딜팡	83
<사진 115> 섬피 사용	85
<사진 116> 섬피	85
<사진 117> 섬피 사용	85
<사진 118> 끄개	86
<사진 119> 말테 모습	87
<사진 120> 발굽	88



<사진 121> 돌테	88
<사진 122> 남테	88
<사진 123> 남테 사용	89
<사진 124> 검질매기	89
<사진 125> 굴갱이	92
<사진 126> 굴갱이	92
<사진 127> 회미	92
<사진 128> 주굴갱이	92
<사진 129> 육지굴갱이	92
<사진 130> 일본호미	92
<사진 131> 검질매기	92
<사진 132> 물구럭굴갱이	93
<사진 133> 비누루굴갱이	93
<사진 134> 불미왕	93
<사진 135> 선호미	94
<사진 136> 제초기	94
<사진 137> 간스메	94
<사진 138> 굴갱이 사용	95
<사진 139> 보리베기	96
<사진 140> 나 테	97
<사진 141> 메호미	98
<사진 142> 일본호미	98
<사진 143> 중계호미	98
<사진 144> 낫	99
<사진 145> 호미 사용	99
<사진 146> 호미 사용	100
<사진 147> 신돌	100
<사진 148> 산태 사용	101
<사진 149> 산태 사용	101
<사진 150> 돌산태	102
<사진 151> 산태보관	103
<사진 152> 산태 보관	103
<사진 153> 지계 사용	103
<사진 154> 지계 사용	103
<사진 155> 지계 사용	104
<사진 156> 지계 사용	104
<사진 157> 세역	105
<사진 158> 지계	105
<사진 159> 지계사용	105
<사진 160> 지계발 걸기	106
<사진 161> 배	107



<사진 162> 짚	108
<사진 163> 신서란	108
<사진 164> 배 사용	109
<사진 165> 배 사용	109
<사진 166> 배 사용	109
<사진 167> 마차 사용	110
<사진 168> 체 보관	111
<사진 169> 마차 사용	111
<사진 170> 구라 사용	112
<사진 171> 마차	112
<사진 172> 손수레	112
<사진 173> 질메 사용	113
<사진 174> 질메	114
<사진 175> 질메 사용	114
<사진 176> 질메 사용	115
<사진 177> 맥타기 사용	115
<사진 178> 작대기	116
<사진 179> 작대기	117
<사진 180> 작대기	117
<사진 181> 작대기	118
<사진 182> 작대기 사용	118
<사진 183> 덩드렁 마개	118
<사진 184> 덩드렁 마개	119
<사진 185> 덩드렁 마개	119
<사진 186> 덩드렁 마개	119
<사진 187> 덩드렁 마개 사용	120
<사진 188> 도깨 사용	120
<사진 189> 돌레	121
<사진 190> 도깨든 모습	122
<사진 191> 도깨	122
<사진 192> 도리께	122
<사진 193> 도깨 사용	123
<사진 194> 도깨 사용	123
<사진 195> 도리께	123
<사진 196> 클 사용	124
<사진 197> 근대	124
<사진 198> 클 사용	125
<사진 199> 클 사용	126
<사진 200> 보리틀	126
<사진 201> 글쟁이 사용	127
<사진 202> 쇠글쟁이	128

<사진 203> 버림대	128
<사진 204> 쇠글쟁이 보관	128
<사진 205> 글쟁이 사용	128
<사진 206> 글쟁이 사용	129
<사진 207> 플라스틱 얼맹이	130
<사진 208> 얼맹이 사용	131
<사진 209> 얼게미	132
<사진 210> 플라스틱솔박	133
<사진 211> 솔박 사용	133
<사진 212> 대나무 푸는체	136
<사진 213> 푸는체 사용	136
<사진 214> 키	138
<사진 215> 쟁이질	138
<사진 216> 명석 사용	139
<사진 217> 명석 사용	139
<사진 218> 명석 부분	140
<사진 219> 갑바 사용	140
<사진 220> 명석 사용	140
<사진 221> 명석 보관	141
<사진 222> 당그네 사용	141
<사진 223> 당그네 사용	143
<사진 224> 미래 사용	144
<사진 225> 남방에 단면	144
<사진 226> 천과 돌혹자리	146
<사진 227> 돌혹자리	146
<사진 228> 돌방에 사용	147
<사진 229> 남방에 사용	147
<사진 230> 낭절구	148
<사진 231> 돌절구	149
<사진 232> 양념절구	150
<사진 233> 몰방에 사용	150
<사진 234> 세역	152
<사진 235> 좃둥이 좃둥이혹	153
<사진 236> 몰방에 사용	153
<사진 237> 몰방에왕	154
<사진 238> 몰방에 사용	154
<사진 239> 방에왕 지붕일기	155
<사진 240> ㄱ레 사용	155
<사진 241> 조쟁이 구멍	157
<사진 242> 혹	157
<사진 243> ㄱ레와 맷방석	158

<사진 244> ㄱ레 사용	158
<사진 245> 맷방석	161
<사진 246> ㄱ렛방석	162
<사진 247> ㄱ렛도고리	162
<사진 248> ㄱ렛도고리	162
<사진 249> 도고리	163
<사진 250> 쳇불	165
<사진 251> 체 사용	167
<사진 252> 체 보관	167
<사진 253> 씨부게 보관	168
<사진 254> 씨허벅	169
<사진 255> 맥사용	169
<사진 256> 맥	170
<사진 257> 맥등구미	170
<사진 258> 맥 보관	171
<사진 259> 맥 사용	171
<사진 260> 지세항	172
<사진 261> 항 팔기	173
<사진 262> 장항굽	174
<사진 263> 육지항	174
<사진 264> 고팡	174
<사진 265> 뒤주	175
<사진 266> 두ړ	176
<사진 267> 김치독	176
<사진 268> 웨	178
<사진 269> 홉	179
<사진 270> 저울	180
<사진 271> 저울추	180
<사진 272> 저울	180
<사진 273> 갈옷 사용	181
<사진 274> 갈적삼	181
<사진 275> 갈중의	181
<사진 276> 갈몸빼	182
<사진 277> 갈옷 만들기	182
<사진 278> 풋감	183
<사진 279> 정당벌립 만들기	184
<사진 280> 밀낭패랭이	185
<사진 281> 샷갓	186
<사진 282> 샷갓 사용	187
<사진 283> 우장 사용	188
<사진 284> 새	189



<사진 285> 우장 사용	190
<사진 286> 우장 내부	190
<사진 287> 도롱이	190
<사진 288> 우장	190
<사진 289> 낫	191
<사진 290> 낫 든 모습	191
<사진 291> 낫집	192
<사진 292> 낫호미	193



## 표 목차

<표 1> 선행 연구 검토	6
<표 2> 현지 조사	9
<표 3> 윤경	15
<표 4> 경지 면적의 변화표	16
<표 5> 농가당 경지 면적표	17
<표 6> 농경세시력	18
<표 7> 농기구 보유상황표	24
<표 8> 식량작물 생산량 변화	20
<표 9> 쟁기의크기 비교표	29
<표 10> 보섭 벧 크기 비교	33
<표 11> 쌍따비 비교	40
<표 12> 웨따비 비교	42
<표 13> 팽이 비교	51
<표 14> 곰돌 비교	54
<표 15> 웨스랑 비교	62
<표 16> 굴채 비교	68
<표 17> 곰배 비교	78
<표 18> 갈래죽 비교	81
<표 19> 굴쟁이 비교	95
<표 20> 호미 비교	99
<표 21> 지게 비교	106
<표 22> 도깨 비교	122
<표 23> 글쟁이 비교	129
<표 24> 체 비교	131
<표 25> 솔박 비교	134
<표 26> 푸는채 비교	137
<표 27> 푸는채와 키의 비교	138
<표 28> 당그네 비교	143
<표 29> ㄱ레 비교	160
<표 30> ㄱ렛방석 비교	161
<표 31> ㄱ렛도고리	162
<표 32> 도고리 비교	164
<표 33> 체 비교	166
<표 34> 씨부게	168
<표 35> 말 웨 홉 비교	179
<표 36> 낫 비교	192



# I. 서론

## 1. 연구 과제

언제부터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태풍의 길목인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sup>1)</sup>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火山灰)와 화산사(火山沙) 등이 지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쉽게 스며들어 눈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농경은 발농사를 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심한 바람에 파종한 씨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힘들여 키운 농작물도 태풍의 내습으로 잃어버릴 수 있어 언제나 가난하고 굶주림의 연속이었다.

제주도에서 수렵과 채집의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를 『高麗史』(地理志)의 ‘삼을나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 (중략)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동쪽 바닷가에 나무 상자가 떠올랐다. 함 속에는 돌 상자와 사자가 있었고, 돌 상자를 열자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중략)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잡치었다. 양을 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 일도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 이도라 하고,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 삼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해 갔다.(하략) ...<sup>2)</sup>

오곡의 종자를 갖고 내려와 농경신으로 좌정하는 내력담인 <세경본풀이>에서도 농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1) 金俊鎬, 『濟州島의 自然, 資源 그리고 人間』, 『濟州의 人文環境과 自然環境』, 濟州島硏究會·濟民日報社, 1992, pp. 15~28.에 의하면 제주도는 3단계의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제4기(약 100만 년 전)에 들어와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몇 번의 용암의 분출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2)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三姓神話硏究』, 濟州大學校, 1995, pp. 22-24 “. . . (中略) .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人及諸驅犢五穀種 . . . (下略)

...(중략) 자청비는 오곡 씨를 가져다가 뿌리다 보니 씨앗 한 가지를 잊어 버린 것을 알았다. 다시 하늘 옥황에 올라가서 받아 오고 보니 여름 과중 때가 이미 늦어 있었다. 그래도 그 씨앗을 뿌리니 다른 곡식과 같이 가을에 거두어들이게 되었다....(하략)(현용준, 1977:89)

이렇게 시작된 제주도에서의 농경은 식생활의 특이함은 물론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지니게 만들었다. 발작물 중심이라는 특징과 쉽게 물으로 오고 갈 수 없었던 교통문제 등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식생활 재료를 활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불편한 교통 여건은 외지와와의 인적·물적 소통을 쉽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을 자급자족해야만 했던 조건은 언제나 제주도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원진(李元鎭)은 “땅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함”을 탐라(耽羅)가 갖는 풍속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고려 문종 12년(서기 1,058년) 문화성(門下省)의 보고를 인용하고 주기의 생각을 보태어 탐라 사람들의 가난함을 설명하고 있다.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오직 목도 질로 해를 넘기면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보를 인용하고 토질이 푸슬푸슬하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면 반드시 많은 말을 몰아 밟아야 하며, 잇달아 2, 3년 농사를 지으면 이삭이 여물지 않아서 부득이 다시 새로운 밭을 개간해야 하니 노력은 배가 들어도 수확은 적다. 이것이 백성들이 가난하고 곤궁함이 많은 까닭이다.(金相助 역, 1991:7)

여기에 더하여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침범해 들어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였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지역적인 차가 있긴 하지만 표토층(表土層)은 암반이 깔려 있고 토질(土質)이 부박(浮薄)하거나 작은 돌멩이가 깔려 있어 경작 여건으로는 매우 나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되는 작물들도 대부분 이러한 조건에 알맞은 종자를 선택하였다. 옛 기록의 토산조(土産條)에는 벼, 조, 보리, 메밀, 콩 등이 산출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기후, 토양 등 제주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은 피, 기장, 조, 등의 잡곡류를 주작물로 하는 오랜 역사의 조엽수림문화권(照葉樹林文化圈)<sup>3)</sup>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나 보리

3) 李春寧, 『한국의 농학사』, 민음사, 1994. p.15

로 이루어진 주식(主食)을 제공하였던 농경 생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농기구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토양을 경양하여야 하였기에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곡물류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므로, 밭농사는 자연히 생업의 터전이 되었고, 합리적으로 경작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도 발달하였다.<sup>4)</sup> 크게는 노동 집약을 위한 협업 관행에서 작제는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기구의 이용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제주인들이 사용했던 전래 농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종류를 살펴보고 다른 지역의 농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농기구가 갖는 형태적인 특징과 이용모습을 밝힘으로써 제주도 전래 농기구 이해를 위한 체계를 세우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제주도의 기층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지역 어느 때 이러한 민속품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제주인이 사용해 왔던 민속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의 소장자료는 8,000여 점에 이른다. 이들 소장자료 중 농기구는 800여 점 50여 종으로 농경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들이 갖는 형태적 특징과 기능의 이해를 통해 그것을 만드는 기술, 사용해 온 방법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제주인의 전통적인 생활 지식과 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민속품의 형태와 기능의 이해를 통해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물질문화 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제주도 전래 농기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공시적(公示的)인 관점에서 제주도로 지역을 한정하고, 통시적(通時的)인 관점에서 전래의 것으로 시간을 제한한다. 농구(農具)라고도 했던 ‘농기구’라는 말은 농사에 쓰였던 기물을 의미하는 농기(農器)와 농사에 사용되었던 기계를 뜻하는 농기(農機)로 구분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함께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 대상을 전래 농기구로 제한한 것은 환금작물(換金作物)의 개발과 감귤의 보급을 통해 제주도 농경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1970년대 이전 시기에 전래 농경에서 사용되었던 농기구들<sup>5)</sup> 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4) 자급자족의 농경은 영세성을 면키 어려웠으나, 점차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금작물 재배 농경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특정작물 재배로 바뀌었다.

5) 강경선, 『農業』, 『濟州道誌』(2), 濟州道, 1993. pp. 649~654에 의하면 제주 지역 농업은 1970년대를 기점(起點)으로 자급적 농업형태에서 상업적 농업형태로 전환을 보여준다. 곡류(穀類), 맥류(麥類), 잡곡(雜穀) 중

날까지도 보리와 조 농사 등 전래 농경을 영위하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도 전래 농기구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제주도의 발농사<sup>6)</sup>에 이용되었던 농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이 연구는 제주도의 농경 문화 이해는 물론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더 나아가서는 농경을 오랜 세월동안 생업의 기본으로 선택하여 살아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농경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농경기술과 도구의 이용을 통해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던 점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구를 통해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환경이 갖는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느 농기구도 마찬가지로 지지만 농경에서의 효율적인 노동력의 공급과 함께 한계를 지니는 인간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주도 전래 농기구의 이해를 통해 발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주도의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기층문화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민속품이라고 하면 삶 속에서 필요에 의해 기술을 보태어 만들어 낸 일상의 도구들을 말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민속품이란 제주도를 삶의 터로 살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만들었거나, 외래에서 들여온 것으로 그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면서 그들에 의해 그 기능을 향상시켜 온 것들을 말한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전래 농기구를 다룬 선행 연구는 생업이나 민속품, 문화재를 다루는 분야에서 특히 향토자료실이나 박물관의 자료를 설명하는 부분이나, 지역어를 설명하는 분야, 민요 특히 노동요를 설명하는 분야, 그리고 속담이나 노동복 등을 설명하는 논문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

십이었던 식량작물 재배 중심에서 고구마, 유채, 맥주맥 등 이른바 경제작물 및 감귤 등의 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6) 濟州道, 『濟州道統計年報』, 濟州道, 1976에 의하면 남한의 일반적인 농업은 도작(稻作)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수도경작(水稻耕作)이 1.9%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발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제주도의 총면적 1820.02km<sup>2</sup>중 경지면적은 505.68km<sup>2</sup>이고 그 중에서 밭이 496.01km<sup>2</sup>이며, 논은 9.67km<sup>2</sup>로, 경지총면적의 1.9%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생업이나 민속품을 다루는 부분이나 농기구를 다루는 분야의 것으로는 다카하시 노보루<sup>7)</sup>, 이즈미세이이치<sup>8)</sup>, 석주명<sup>9)</sup>, 김영돈<sup>10)</sup>, 김광언<sup>11)</sup>,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보고서<sup>12)</sup>, 진성기<sup>13)</sup>, 고광민<sup>14)</sup>, 박대순<sup>15)</sup>, 박호석<sup>16)</sup>, 강창언<sup>17)</sup>, 인병선<sup>18)</sup>, 김동

- 7) 高橋昇(洪性穆), 『朝鮮半島의 農法과 農具』(濟州島篇), 濟州市愚堂圖書館, 2000.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는 1939년 5월, 6월 사이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조,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재배법과 농기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주도편’을 별도로 두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카하시는 사진과 그림을 덧붙여 따비, 벤줄레를 설명하였고, 도리께, 쇠스랑, 도끼, 도랑형구 등은 실측을 하고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는 농기구 조사표를 붙이고 39점의 농기구를 개관하고 있다.
- 8)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出版會, 1966 이즈미세이이치(泉靖一)는 갈웃, 농립, 우장, 구덕, 굴채, 차롱, 항을 설명하였고, 농구류 절에서는 다시 경작농구(耕作農具)로 쟁기, 비창, 광기, 따비, 곰배를, 제초 또는 수확용구(收穫用具)로 큰호미, 굴갱이, 호미, 도끼, 글갱이, 비를, 정맥용구(精麥用具)로 밀방에(연자마), 방아, 7레, 도구리를, 잡구로 나무그릇, 맥, 뒷박세기, 채, 가는채, 덩드렁, 덩드렁 마끼, 도치, 자귀, 호롱이, 뒤치기 안반, 안장을 들어 설명·소개하고 있다.
- 9)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pp. 144~157에서의 농업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호미’라고 하는 것은 육지 다른 지방에서는 ‘낫’을 의미하며, 육지에서 ‘호미’와 같은 것은 ‘굴개’, ‘굴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날의 폭이 좁아서 ‘갈고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10) 김영돈(金榮敦)은 돌하르방, 석미륵, 기타, 석구를 다루면서 석재 민속품들로 몰7레(연자마), 7레, 돌하리, 봉덕, 등관, 정주목, 돌방에, 도구통, 돌도고리, 상돌, 돌숯뚜껑, 돌혹, 등잔받침, 뽕돌, 돌갈과 돌도치를 조사 보고하였으며, 돛도고리, 덩드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11) 김광언, 『生業技術』,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財管理局, 1974, pp. 176~195에서 생산기술(生産技術)을 다루었다. 그 중 농경(農耕)을 기술할 부분에서 상산읍 수산2리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로 제주도 농기구를 살폈다. 피 조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의 보유량을 밝혔으며, 가는 연장, 삶는 연장 등 17개로 분류하고 각 농기구들에 대해 이름, 형태 등을 서술하고 있다.
- 12) 濟州大學國語教育科, 『民具』, 『海村生活調査報告書』(龍水里 및 吾照里), 濟州大學校國語教育科, 1978, pp. 80~84 의 제주대학교 학술조사 보고서에서는 ‘民具’ 혹은 ‘방언’(方言)관을 설정하여 지역어와 부분명칭, 곡물의 종류 등을 설명하고 있다.
- 13)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1), 悅話堂, 1979에서는 민속품을 설명하는 『濟州民俗의 멋』(1권)에서 굴갱이, 남방에, 대패랭이, 박세기, 쌍따비, 약돌기, 우장, 정당벌립, 채, 총배를 설명하고, 『濟州民俗의 멋』(2권)에서 남태 등 농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 14) 高光敏, 『제주도 쟁기의 형태와 발갈이 방법』, 『韓國의 農耕文化』(第2輯), 경기대학교박물관, 1988, pp. 95~132에서는 발의 물리적 약조건을 살피고 이 곳에서 사용되는 보습, 따비, 쟁기 등의 농기구들이 갖는 일반적 형태를 그림과 함께 서술하였으며 보리, 조, 메밀, 피, ‘산뒤’(발벼) 등의 잡곡경작에 따른 발갈이법을 소개하였다.
- 15) 박대순, 『농기구』, 대원사, 1990. pp. 44~108에서는 농기구의 형태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따비 등에 대해 개략을 설명하고 있다.
- 16) 박호석, 『한국의 재래농기구』, 농업기계화연구소, 1990에서는 한국 재래농기구를 같이연장, 삶기연장 등 17개로 분류하고 각 농기구를 방언, 용도, 성능, 종류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종류별에 따른 그림을 첨부하면서 따비, 팽이 등 제주도의 것도 일부 포함시켰다.
- 17) 강창언, 『농기』, 『濟州道誌』, 濟州道, 1995. pp. 1048~1077에서는 제주도 농기구를 같이구, 덮는구, 뽑는구, 거름구, 베는구, 타작구, 말림구, 운반구, 저장구 등 9개항으로 분류하고 남따비, 따비 등을 구분하면서 설명했다.
- 18) 인병선, 『우리 짚 풀 문화』, 현암사, 1995. pp. 440~526에서는 짚 풀을 활용한 놀, 정동벌립, ‘자골푸는체’ 등의 20여 점의 자료를 조사 보고하면서 푸는채, 구덕, 갈웃 등을 포함시켰다.

섭19) 등의 연구가 있다.

<표1> 선행 연구 검토

연구자	출전	조 사	농기구	장 점	단 점	비 고
高橋昇	朝鮮半島農法農民	1935	39	제주도 농경의 이해	간략보고	그림포함
泉靖一	濟州島	1935	34	제주도 이해	간략보고	
石宙明	濟州島 隨筆	1936	2	호미와 낫쟁이의 특징	너무 간략	사진
金光彦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編)	1973	37	농기구의 이해 용이	2개 마을에 한정	육지비교
濟州大學調團	조사보고서	1973~		현지명 이해 용이	명칭에 치우침	
진성기	濟州民俗의 멋	1979	11	관련 민속 등 이해 용이	일부에 한정됨	
고광민	제주도 쟁기와 발갈이	1988	5	쟁기와 발갈이 이해 용이	쟁기에 한정됨	
박대순	농기구	1990	1	한국 농기구와 따비 이해	따비에 한정됨	
박호석	한국의 채래 농기구	1990	2	따비, 팽이 등 이해 용이	일부에 한정됨	그림
강장언	濟州道誌(3)	1993	42	체계적 이해 용이	지역성 배제됨	
인병선	우리 짚 풀 문화	1995	20	짚풀 자료 이해 용이	일부자료에 한정됨	
金東燮	濟州道の 農機具	1997	58	체계적 이해 용이	일부자료 부족	도면

이 밖에도 동산문화재를 설명하면서 민속 자료편에서 남방아, 돌방에, 도구리, 연자마, 발뒤주, 꿩뒤주, 뒤주, 갈중이, 정당벌립, 털벌립, 씨부개기, 따비, 남태와 돌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sup>20)</sup> 일정분야에 치우쳐진 한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마을지<sup>21)</sup>에, 제주도 지역어를 다룬 곳<sup>22)</sup>에서, 민요를 다룬 곳<sup>23)</sup>에서, 속담을 다룬 곳<sup>24)</sup>에서, 복식을 다루는 곳<sup>25)</sup>에서도



19) 金東燮, 『濟州道の 農機具』,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7. 김동섭, 「남태와 돌태」, 『生活用具』(6호), 사단법인 짚풀문화연구회, 1998. 김동섭, 「보리의 農耕 民俗에 관한 一研究」, 『調查研究報告書』(9),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4. 김동섭, 「濟州島石材民俗品」, 『調查研究報告書』(10),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김동섭, 「濟州島 木材民俗品研究」, 『調查研究報告書』(11),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6. 김동섭, 「濟州島 鐵材民俗品研究」, 『調查研究報告書』(12),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7. 김동섭, 「濟州島 織材民俗品研究」, 『調查研究報告書』(13),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김동섭, 「돌 많은 제주에는 농기구도 별나다」, 『민속문화의 새 전통을 구상한다.』, 집문당, 1999. 김동섭, 「제주도의 농기구」, 『영주어문』(1), 영주어문연구회, 1999. 김동섭, 「삶을 개척한 농경과 농기구」, 『과파도학술조사보고서』,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2001. 김동섭은 환금작물인 감귤이 본격적인 자리를 잡기 전인 1970년대를 민속지적 현재로 설정하고 제주도 전래 농기구에 대해 산촌, 중산간, 어촌의 32개 마을을 현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했다.

20) 金奉玉외,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調查報告書),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1, pp. 278~339

21) 尙正尙,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調查報告書),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1, pp. 278~339

金玟奎, 『朝天邑誌』, 도서출판제주문화, 1991, pp. 385~400,

尹京老, 『郷土江汀』, 도서출판디딤돌, 2001, pp. 123~134,

고영기외, 『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80.

22)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精研社, 1962,

朴用厚, 『濟州方言研究』(資料篇), 1988, 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pp. 40~51,

농기구의 명칭 등을 보고하고 있어 이용됨을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기구를 다룬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폈다. 깊이 있는 개별적인 연구를 다루었으나 일부에 한정되었거나 자료의 부족 등을 보이고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라는 고유한 지정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고유한 농경과 그 속에서 탄생한 농기구를 다루면서 보편적인 이해에 이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및 자료

농기구에 대한 연구는 농학·농업사·농업경제학·문화인류학·민속학 등에서 나름대로의 관점과 목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경에 활용한 농기구를 대상으로 순기능과 보조기능을 살피고, 부분명칭을 살핌으로써 형태와 구성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용방법과 농경에서 활용모습을 살피고 문헌자료를 통해 일제시대 때의 모습과 사적인 검토도 아울러 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육지의 다른 지역에서 밭농사와 논농사에 이용하였던 농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제주도 전래 농기구의 고유성을 찾고자 한다. 농기구 사용자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농기구가 갖는 무게의 측정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농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제주도의 기본적인 생업문화인 밭농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만이 갖는 기층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출발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 강영봉, 『제주의 언어』(1), 圖書出版濟州文化, 1994. pp. 192~225,  
제주대학교국어국문과, 『方言』, 『國文學報』(第4輯-倉川里學術調査), 濟州大學校國語國文學科, 1974, pp. 98~101,  
濟州道農村振興院, 『濟州農事方言, 俗談集』, 濟州道農村振興院, 1991,  
濟州道,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 23) 좌혜경편, 『제주 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pp. 7~200,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좌혜경, 『제주여성과 민요』,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p. 139~156,  
조영배, 『우리고장 전래민요』, 도서출판예술, 1996
- 24) 高在奐, 『濟州島俗談研究』, 集文堂, 1993. pp. 161~240
- 25) 고부자, 『衣生活』, 『濟州道誌』(3), 濟州道, 1993. pp. 755~788,  
金義淑, 『濟州島 牧者服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첫째, 조사지로서 제주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 역사배경,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제주도가 갖는 농경의 특징으로 농경지의 특성, 재배 작물, 농경법과 수놓음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셋째, 밭농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사용되어온 농기구의 종류를 살피고자 한다. 각각의 농기구가 갖는 기능과 부분품의 구성 내용, 형태, 이용 재료를 살피고 다른 지역 농기구와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농기구가 갖는 고유성은 찾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촌, 중산간촌, 어촌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마을의 현지 조사를 통하여 농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농기구의 이해를 통한 생활문화 특히 민속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연구에 불과하다.

조사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기간은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를 시간대로 하였으며 주요 조사시점은 1970년대 초반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전래 농기구의 일부가 오래 전에 사용이 중단된 것도 있고,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것도 있는 상태였기에 시기를 소급하여 조사해야 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급속한 농업기술 변화에 따른 농기구의 변모 양상도 함께 조사하였다.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농경세시, 식생활 환경과 재배 작물의 이해를 통해 제주도가 갖는 농업 환경을 우선 살폈다. 이에 대한 주요 조사지는 다음과 같다.

<표 2> 현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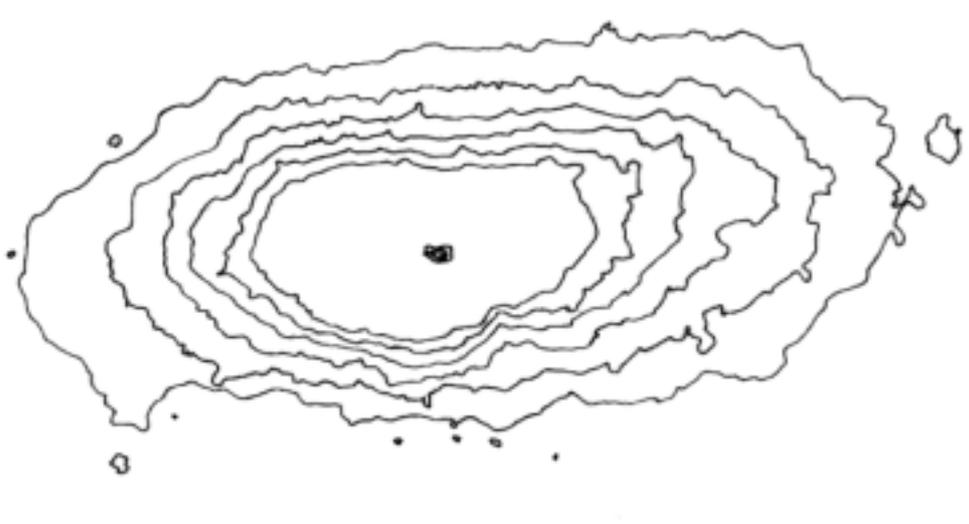
지역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제보자	비고
제주시	2001. 2. 8 등	오라 3동, 화북1동, 도련동, 월평동, 해안동, 아라1동 전래 농기구 보유현황 및 이용	박태형 등	
조천면	1996. 9. 19 등	함덕리, 교래리	오정웅 등	
구좌읍	1999. 1. 4 등	행원리, 하도리, 송당리	이계영 등	
성산읍	1996. 9. 11 등	삼달리	강씨모친	
표선면	1996. 8. 30 등	토산리, 성읍리, 표선리	안치호 등	
남원읍	1996. 9. 12 등	수망리, 태흥리	김평수 등	
서귀포시	1996. 9. 16 등	보목동, 토평동, 상호동, 하효동, 강정동	한재환 등	
안덕면	1996. 9. 4 등	덕수리, 사계리	송영화, 김용택 등	
대정읍	1996. 9. 12 등	무릉리, 가파리	양경팔 등	
한경면	2000. 3. 15 등	용수리	김한진 등	
한림읍	1996. 4. 9 등	귀덕리, 명월리	이경팔 등	
애월읍	1996. 9. 19 등	봉성리, 애월리, 유수암리, 소길리, 상가리, 광령리	홍시병 등	

제주도의 마을은 거의 집촌(集村)으로 되어 있었다. 섬의 해안을 따라 빙 돌아가며 밀집해 있고, 한라산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들 마을은 해안 마을, 중산간 마을, 산간 마을로 대별된다. 상기 조사 마을을 이렇게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안 마을은 해안선을 돌아가는 일주도로 연변부에 발달한 마을로 도시를 이룬 곳이 많은 편이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으며 해발 100m 이하에 형성된 곳이다. 이 지역의 밭은 좋은 편이다. 보리와 조를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곳은 그 중에서도 좋은 밭이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쉬어야 하는 밭들도 있다. 이런 지역은 혜택을 입은 곳 이어서 좁은 면적으로도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조사 지역인 제주시 화북1동, 도련2동, 도평동과 북군 조천면 조천리, 구좌읍 행원리, 남군 표선면 표선리, 남원읍 태흥리, 서귀포시 하효동, 보목동, 하예동, 강정동, 남군 안덕면 사계리, 남군 대정읍 무릉리, 가파리, 북군 한경면 용수리, 한림읍 귀덕리, 애월읍 애월리가 해안 마을에 속한다.

중산간 마을은 해발 100m에서 200m 사이의 구릉평야(丘陵平野)에 분포되어 있는 농촌형 마을이다. 주민이 주생업은 농업이며 부업으로 목축을 한다. 이 지역의 경작지는 번갈아 가며 자주 쉬어야 하는 곳이다. 이런 곳은 조, 보리의 단위 생산량이 적고 질도 좋지

못하다. ‘산뒤’<sup>26)</sup>(陸稻), 메밀류를 많이 갈게 된다. 조사 지역인 제주시 오라 3동, 월평동, 해안동, 아라1동과 남군 성산읍 수산2리, 삼달리, 표선면 토산리, 서귀포시 토평동, 상호동, 남군 안덕면 덕수리, 북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길리, 상가리, 광령1리가 중산간 마을에 속한다.



<그림 1> 조사지 위치도

산간 마을은 해발 300m 이상의 준평원지대(準平原地帶)에 분포한 반농반목(半農半牧)의 산촌형 마을이다. 토질이 각박하여 한 번 경작하면 두어 번씩 쉬어야만 하는 곳이다. 이 지대는 조 보리에는 적합치 않고 메밀, 감자, 피 등의 재배가 적합하다. 조사 지역인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북군 조천읍 교래리, 북군 구좌읍 송당리가 여기에 속하는 지역이다.

26) 밭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도’라고도 불렀다.

## II. 제주도의 농업 환경

농사일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농업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농경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단지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에 중국의 화북(華北)지방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조가 재배되었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조, 수수, 기장, 보리, 밀, 콩, 팥 등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초기 철기시대 삼양동 유적에서 보리, 콩, 벼의 탄화 곡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밭은 대부분 적은 양의 토양에 자갈이 깔려 있고, 강우량은 많지만 지질 관계로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어촌 마을 해안가에 이르러 솟아나기 때문에 자연히 논보다 밭이 많게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생산되는 식량 작물은 보리 종류에 나뭇, 대맥, 맥주맥 등이 있었고, 잡곡으로는 조(粟), 메밀이 있으며, 두류(豆類)에는 콩, 팥, 녹두가 있고, 고구마, 쌀 등이 있었다. 나뭇은 1970년대 초반까지도 제주도의 주요한 작물로서 도민의 주식량(主食糧)이었으며, 맥주맥은 환금작물로 재배되기도 했다. 조는 제주도 잡곡 중 주작물이었으며 동절기(冬節期) 도민의 주식량이 되어 왔다. 그러기에 도내 어디에서나 재배하였으나 환금작물인 고구마가 들어와 요사이는 거의 짓지 않게 되었다. 메밀, 산뽕, 팥, 피 등 잡곡은 주로 중산간촌에서 재배되었는데, 윤경법(輪耕法)이 없어지고 산촌에서의 경작이 줄어들면서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 가축의 사육 등 유기생명체를 대상으로 토지와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sup>27)</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고유성이 농경에 미친 영향으로 농경지의 특성, 재배 작물, 농경법과 수눌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27) 조재영외, 『한국농업개론』, 향문사, 1985, pp. 13~14.에서는 한국의 농업이 경종, 축산, 잠견(蠶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종부분에서도 식용작물이 62.7%, 공예작물이 4.2%, 원예작물이 6.8%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 1. 농경지 특성

이원진(李元鎭)의 『耽羅志』에 의하면 땅에 돌이 많고 본래 논이 없으며 오직 보리, 팥, 조가 날 뿐이고, 땅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전결(田結)조에서

이 섬은 척박하여 해마다 경작을 할 수 없으므로 비록 밭 경계선을 바로 정한다 할지라도 예전부터 질이 낮은 밭은 두 해에 한 해는 놀려 쉬게 하였으니 땅힘이 좋고 나쁜 것을 자세히 심사하여 대에 따라 농사를 짓게 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金相助 역, 199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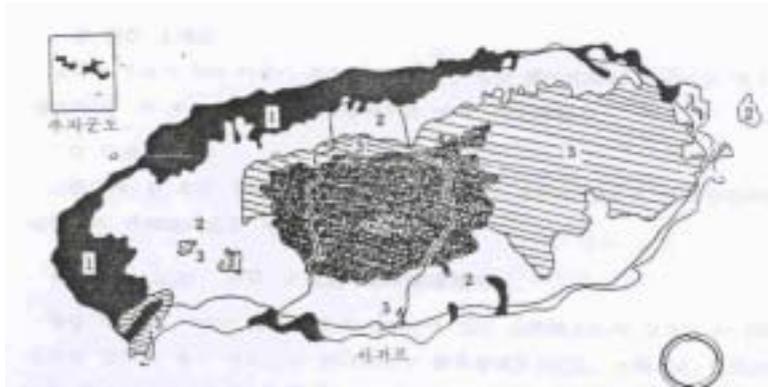
또 균량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었던 국둔전(國屯田)이 토지가 박하여 수확이 부실해 균졸과 수령에게 폐를 줌으로 폐지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金相助 역, 1991:87) 이렇듯 제주도의 경지는 척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도 생존산업이었던 농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대지에 관한 외경(畏敬)은 여느 지역과 같았다. “땅은 어머니다. 땅속에 가면 어머니가 키워준다.”(張壽根·權振肅, 1983:181)고 믿었다.



<사진 1> 제주도의 밭 (1980년대?)  
- 뿌리깊은나무 사진

제주도의 토질은 해변으로 갈수록 비옥하고 중앙의 한라산으로 갈수록 각박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의 북부 지방이 토질이 좋고 남부지방은 좋지 못하다. 따라서 생산된 곡물의 양과 질에도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가 나타난다.

28) 황철산, 「과거 우리나라 경작관습의 몇 가지에 대하여」, 『북한의 민속학』, 역사비평사, 1989, pp. 92~93.에서는 경지면적으로 볼 때 15세기경에 논 면적이 50%를 넘는 도는 없었다. 17세기 중엽에 와서야 산남 지방이 50%에 달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화산회토가 아닌 황해도, 강원도 이북지방도 밭농사지대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2> 제주도 토양도

제주도의 토양도를 나타낸 것이다. 크게 4개로 나뉘는데 1. 암갈색 토양, 2. 농암갈색 토양, 3. 흑색 토양, 4. 산림질 농암갈색 토양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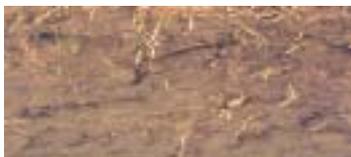
<사진 2> 암갈색 토양

비화산회토로 동귀, 구업, 용흥 토양군으로 북제주군 서북쪽 해안 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암갈색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고 자갈함량이 35% 미만으로 전체 토양의 17.02%를 차지한다.



<사진 3> 농암갈색 토양

중문, 오라, 구좌 토양 군으로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고 있는 농암갈색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고 바위 혹은 둥근 바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4> 흑색 토양

화산재 혹은 화산사 등이 퇴적된 토양으로 평대, 행원, 민악 토양군으로 동남부 중산간 및 해안부에 많이 분포된 흑색(화산재)토양은 배수가 양호하여 초지 조성지로 이용가능한 편이다.



<사진 5> 산림질 농암갈색 토양

흑악, 노로, 적악 토양 군으로 해발 700고지 이상인 산림 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산림질 농암갈색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고 둥근 바위 및 자갈이 있는 토양이다.(김인탁, 1994:34~54.) 이러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밭의 종류에는 질  
 왓, 작지왓, 뜬밭이 있다.<sup>29)</sup>

29) 濟州道,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p. 158에 의하면 ‘들진밭’이라고 하여 “달이 떨어진 밭”이라는 뜻으로 넓고 기름진 밭을 뜻한다. 이 연구에 쓰인 제주도 지역어에 대한 설명은 본 서에 따랐다. 따라서 앞으로



질왓과 작지왓의 차이는 대체로 토양 중 돌의 함량에 따라 구분한다. 질왓은 습기 유지가 쉬워 건해(乾害)방지에 유리한 밭으로 보리(大麥)의 재배에 유리하고, 1일 소 한 마리로 500~1000평의 밭갈이가 가능하였다.

<사진 6> 질 왓

겉흙콩<sup>30)</sup>용인 대두(大豆)를 베어낸 후 밭갈이하여 흙을 덮어 부식시켜 지력의 회복을 꾀할 수 있었으나, 조(粟)의 재배 시에는 자해(滋害)에 약하여 마간이<sup>31)</sup>가 되지 않으며, 제초 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조의 발육이 저해되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질왓은 좋은 밭으로 취급한다.



<사진 7> 작지왓

작지왓(자갈밭, 작멜왓)은 토양 중 돌의 함량이 많은 밭을 말하는데 건해(乾害) 방지에 어려움이 많아 보리 재배에 불리하였다. 반면에 조의 재배에는 자해가 적어 마간이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돌 때문에 1일 소 한 마리의 밭갈이 면적이 300~800평 정도였으며, 흙을 뒤

집어 덮을 수 없어 겉흙콩(綠肥 : 大豆)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작지왓은 보통은 되는 밭이다.

질왓과 작지왓은 여름 쉬돌림 때에는 2~3회 밭갈이를 하였다. 이는 검질(잡초)의 구제 효과, 흙덩어리가 깨어져서 작은 알맹이가 많이 만들어지는 효과, 공초를 만드는 효과,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하고 유효 성분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병균이나 해충 등을 땅 속 깊이 묻거나 혹은 지표면에 내 놓아 일광에 쬐어 죽게 하는 효과 등을

제주도 지역어에 대한 설명의 출처는 생략한다.

30)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 땅 기운을 복돋기 위하여 휴경전(休耕田)에 콩을 갈아 거름으로 삼는 농경법(農耕法)의 하나이다.

31) 노형, 김녕, 조수, 등지에서 불렀던 지역어로 '마간이'라고도 하는데,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를 말한다. 南錫珍(1989:172~199)은 애월에서는 '마가지'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 파종 후 발아(發芽)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은 상태로 습해(濕害)를 입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제주도 지역어다. 반면 발아 이전에 비가 내려 종자의 발아와 함께 '검질'(잡초)이 무성하게 되고 조의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되면 이러한 조를 '마마진조'라 한다. 이와 달리 어음에서는 마가지 파종 한 후에 예상 못했던 비가 내려 '김'이 많이 솟아나 조 농사를 망치게 되었을 때 '몰마가지'라고 했다고 한다.

기대한 작업으로 보인다. 작지왓의 경우 밭에 우마를 넣어 우마의 똥이나 오줌을 통한 시비의 효과를 기대한 경우도 있었다.



<사진 8> 뜯 밭

뜯밭은 해밭 200m 이상의 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미개간지를 이르는 밭의 명칭으로 산성화된 토양이며 토심이 얕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좋지 않은 밭으로 잘 활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산뒀(陸稻), 메밀, 조 등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농민이 바라던 것은 이 밭을 쉬지 않고 경작하여 춘, 추곡을 계속 수확해내는 일이었지만, 금비(金肥)가 보급되지 않던 1937년경에는 계속 경작할 수 있는 밭이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밭은 수회 경작에 반드시 몇 번씩 쉬어 줘야만 했다. 그리고 도민의 주식(主食)이었던 보리와 조를 춘추에 번갈아 가며 계속 경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그리하면 수확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작물을 자주 바꾸어 갈아야 했다.

<표 3> 윤 경(輪耕)

구 분	1년째		2년째		3년째		비 고
	夏作物	冬作物	夏作物	冬作物	夏作物	冬作物	
해안마을	조	보리	조	보리	조	보리	
	거름콩	보리	조	휴	목화	보리	
	고구마	보리	콩	보리	조	휴	
	조	휴	고구마	보리	조	휴	
중산간마을	메밀	휴	陸稻	휴	고구마	휴	
	산뒀(陸稻)	휴	조	휴	콩	휴	
산간 마을	조	휴	휴	보리	조	휴	
	피	휴	메밀	휴	산뒀(陸稻)	휴	
	감자	휴	휴	휴	메밀	휴	

<표 3>은 윤경(輪耕)의 예를 보인 것이다. 윤경이 매우 심한 데는 산뒀(陸稻)나 피, 팥 등을 한번 갈고 수 년씩 놀리는 데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윤경을 하는 이유는 토질이 나쁜 데다 비료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 농민들은 모든 잡초, 짚뿐 아니라, 외양간의 거름까지도 돛통(변소)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것이 돼지 똥과 혼합되어 훌륭한 거름이 된다. 돼지거름이 많을수록 생산량은 보장되지만, 일년간 생산된 돼지거름만으로는 다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윤경(輪耕)을 함으로써 유희지(遊休地)를 만들어 토질의 회

복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윤경 지역은 1930년대에는 전도 면적의 거의 반에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농업은 기상, 지세, 토양 등의 자연 조건 때문에 논농사가 극히 적고 밭농사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경작지로서의 토지의 이용, 주요 농작물 및 경작법 등은 상당한 변화를 거듭해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4~50년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 9> 바령밭 1971:14).

1970년대 말 제주도 통계에 따르면 도 총면적 181,957ha중 경지면적은 28.3%에 해당하는 51,446ha인데, 그것은 밭이 50,438ha로 27.7%, 논이 1,008ha로 0.6%라 한다. 이 경지면적은 농가 세대당 평균 0.93ha에 해당되는 것이다(제주도,

그런데, 1937년 선조에이조(善生永助, 1937:14)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지 면적은 총면적의 49%에 해당하는 91,440정보나 되며, 이것은 밭이 48.6%, 논이 0.4%로 되어 있다. 이 경지 면적은 농가 세대당 평균 2.51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36년 전의 이 통계와 오늘날의 것을 비교할 때 논 면적은 겨우 0.2%가 늘어났을 뿐,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밭의 면적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 당시는 제주도 총면적의 거의 반을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비해, 1970년대는 약 4분의 1정도밖에 경작하지 않았다.

<표 4> 경지 면적의 변화표

구 분	1999		1970		1937		비 고
	면적(km <sup>2</sup> )	비 율	면적(ha)	비 율	면적(정보)	비 율	
총면적	1,845.92	100	181,957	100	107,860.2	100	
경지면적	541.62	29.3	51,446	28.3	91,440	49	
밭	347.62	18.8	50,438	27.7	90,084.4	48.6	
과수원	185.68	10.1	-	-	-	-	
논	8.32	0.5	1,008	0.6	895.4	0.4	
농가호수	40,329		55,558		38,254		
호당 경지면적	1,343m <sup>2</sup> (406평)		0.645(1,935평)		2.51(7,530평)		

『통계연보』(11호)에 의하면 인구는 남자 175,193명, 여자가 190,329명으로 총 가구수

82,992호, 총인구 365,522명이다. 이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농가(農家)가 55,558, 비농가(非農家)가 27,434로 66.9% 가량의 가호(家戶)에서 농업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제주도,1971:14.)

1969년도 통계에 의하면 3반보(300평) 미만인 농가가 10,316호, 5반보 미만인 경우가 11,046호, 1정보(3,000평) 미만인 경우가 17,624호, 2정보 미만의 농가가 15,926호, 3정보 미만인 농가가 2,537호, 3정보 이상의 농가가 641호로 나타나 <표4>와 같이 3,000평 미만을 보유한 농가가 67.11%에 해당될 만큼 영세성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었다.

<표 5> 농가당 경지 면적표

구 분	호수	비율	비고
3반보 미만	10,316	17.75	
3반보 이상 5반보 미만	11,046	19.02	
5반보 이상 1정보 미만	17,624	30.34	
1정보 이상 2정보 미만	15,926	27.42	
2정보 이상 3정보 미만	2,537	4.37	
3정보 이상	641	1.10	
계	58,090	100	

## 2. 재배 작물

이원진(李元鎭)은 『濟州風土錄』의 기록을 인용하여 소주가 애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벼가 극히 적어서 토호(土豪)들은 육지에서 사다 먹지만 힘이 부족한 자들은 발곡식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어 옛부터 밭작물을 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토산조(土産條)에서도 ‘메벼’, ‘메기장’, ‘피’, ‘기장’, ‘콩’, ‘녹두’, ‘보리’, ‘밀’, ‘메밀’ 등의 농작물을 들고 있어(李元鎭(金相助역),1991,p.8) 제주에서의 재배 작물에 논벼가 들어 있지 않고 잡곡(雜穀)이었음을 말해준다.<sup>32)</sup>

얼마 전까지의 전래 농경에서도 주곡인 보리와 조, 메밀, 산뉘, 피, 수수 등과 대두(大豆), 소두(小豆), 녹두, 면화, 참깨, 들깨, 무 등이 주를 이루었다.

32) 황철산, 앞의 책, p. 90에 의하면 『農事直說』과 『世宗實錄』 지리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주요 작물로 논벼, 산뉘, 기장, 조, 피, 수수, 콩, 팥, 녹두, 보리, 밀, 메밀, 참깨, 들깨, 삼, 목화 등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표 6> 농경 세시력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1	2	비고	
동작물	보리			수확											
	감자	파종			수확										
하작물	조					파종	파종		수확	수확					
	산뒤			파종						수확					
	밀						파종		수확						
	콩				파종	파종		수확	수확						
	팥					파종	파종		수확						
	녹두					파종	파종		수확						
	고구마		파종												
	면화		파종						수확	수확					
	참깨				파종			수확							보리후
						파종			수확						보리후
	무					파종				수확	수확	수확			
	배추						파종			수확					

대부분의 곡물은 식량 자급을 위하여 생산되었다. 주식물은 1일 보리쌀 4되(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는 아침 점심을 함께 짓고 저녁밥은 별도로 짓는다.) 보리 수확 후는 1일 보리쌀 7되, 좁쌀 3되 정도를 이용하였다. 팥 또는 콩, 혹은 이 둘을 앞의 주식(主食)에 섞는 수가 있는데 그 때엔 ‘보리’, ‘조’의 8되에 대해 ‘팥’ 또는 ‘콩’은 2되씩, 혹은 ‘팥’과 ‘콩’을 섞어 2되의 비율로 섞기도 하였다. 산뒤은 일반적으로 매매용이며 제사 때 먹을 뿐이었다. ‘물보리’는 덜 익은 보리이다. 보리는 보리의 알곡 이용뿐만 아니라, 보릿대는 땀감으로, 보리 ‘ㄴ시락’(이삭)은 모기불의 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sup>33)</sup>



<사진 10> 보리(북군 한경면 고산리, 2000)



<사진 11> 피(북군 애월읍 해안동, 2001. 6)

33) 보릿대가 다 떨어지면 말뚱, 소똥을 주워서도 썼다. 성냥도 귀해서 동네에 불을 담으러 다니기도 했다.



<사진 12> 메밀  
(남군 대정읍 무릉리, 2001. 8)

전래 농경에서 절기(節氣)로 소만(小滿 : 5월 20~23일)이 되면 ‘산뒤’를 파종한다. 하지(夏至)가 되면 ‘조’를 파종하게 되는 데 이때를 전후하여 밭갈이를 먼저 해 두면 농사가 쉽다.소서(小暑 : 7월 6~8일)가 되면 하절기(夏節期) 작물을 파종하는 일로 눈코 뜰 사이가 없게 된다. ‘메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작물은 이때 파종해야 되기 때문이다. 9월절을 전후해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밀’과 ‘보리’의 파종을 준비해야 하고, 10월절이 되면 농가에서는 ‘뚝통’이나 ‘쉐왕’(우마간)에서 ‘진거름’이라 부르는 거름을 꺼내어 보리를 파종할 밭에 뿌리거나 파종할 보리씨를 묻어 두기도 했다. 보리 파종이 끝나면 1년 농사가 다 끝났다고 한다. 이때부터는 지붕을 일고 빨감을 하는가 하면, ‘멕청’을 차려 ‘멕’을 짜거나 농기구 등을 보수하는 데, 다음해 음력 정월부터 여자들의 ‘보리밭 검질(잡초) 매기’가 시작되어 다시 한 해가 시작된다.



<사진 13> 고구마(1980년대?)  
- 뿌리깊은나무 사진



<사진 14> 유채(1980년대?) - 뿌리깊은나무 사진

제주의 재배 작물 중 특이한 것은 보리보다 다양한 종류의 ‘조’를 재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의 종류는 크게 ‘차조’와 ‘메조’로 나뉜다. 다시 ‘차조’에는 흰돌화리, 불근돌화리, 강돌화리, 맞시리가 있고, ‘메조’에는 쇠머리시리, 개발시리, 노랑휘린조, 대극휘린조, 터럭휘린조 등이 재배되었다는 점이다. 이같이 여러 종류가 재배되었다는 것은 조의 보급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34)</sup>

이러한 재배 작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식량작물의 변화와 경제작물

34) 현용준, 『제주도 기층문화에 관한 일고찰』, 『일본민족문화과 그 주변』(역사, 민족편), 신일본교육도서주식회사, 1980. pp. 591~592

의 확대를 살필 수 있다. <표 7>이 보이는 바와 같이 1970년대는 고구마류 생산량이 43.93%로 단연 우위를 점하고, 다음이 맥류로서 31.30%가 되며 잡곡과 두류가 4.07%, 2.86%로서 비슷비슷하다.

<표 7> 식량작물 생산량 변화<sup>35)</sup>

구 분	1998		1970		1937		비 고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미곡(米穀)	633	1.0	2,702.9톤	1.79	26,922	4	
맥류(麥類)	11,798	19.0	47,272.4	31.30	339,463석	47	
잡곡(雜穀)	108	0.2	6,147.3	4.07	313,555	43	
두류(豆類)	6,996	11.3	4,324.5	2.86	45,105	6	
서류(薯類)	27,430	44.1	66,330.3	43.93			
소채류(蔬菜類)	15,249	25.4	24,229.8	16.05			
계	62,214	100	151,007.2	100		100	



<사진 15> 양파밭(1980년대?)-뿌리깊은나무 사진

이에 비하여 1937년 당시에는 보리와 잡곡이 식량작물로서 주도적이었으며 그 생산량도 47%, 43%로 비등하다. 이는 보리, 잡곡의 농업에서 맥류, 서류의 경작농업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도민의 주식량도 맥류 위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제작물로의 전환은 금비(金肥)의 공급으로 가능해졌다. 금비의 보급은 윤경(輪耕)의 농업기술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중산간 마을까지 윤번(輪番) 경작함으로써 제주도 면적의 반 가까이 미쳤던 경지면적을 마을주변으로 축소시켜 약 4분의 1로 줄어들게 하였다.

### 3. 농경법과 수놓음

밭의 크기, 소나 말의 소유, 인력의 양 등에 따라 농경은 달라지는데 보리(겉보리)와 조의 이모작(二毛作)이 대중을 이루었고, 산뒀, 메밀, 고구마, 콩, 팥 등의 잡곡이 조금씩 재배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밭과 소나 말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샅 노동에 의해 생활하여

35) 1937년 생활상태조사통계에는 고구마, 감자를 '소채(蔬菜)로 취급 통계하고 있다.

야만 했다.

초겨울에는 주로 보리를 파종하였고 보리 수확이 끝난 여름에는 조를 파종했는데, 특히 조는 새가 쪼아먹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파종 후에 마소를 이용하여 일일이 밟아줘야 했다. 몇 번의 김매기(5~6회)가 끝나고 이삭이 피어 여물이 익으면 일단 낮으로 베어서 보리는 40cm(둘레) 정도로 묶고 조는 130cm 정도로 묶은 다음 마소로 옮겼는데 보리는 소등에 30'뭇'(단), 조는 6'뭇'(단) 정도를 심는다. 이렇게 한 번 심는 것을 1바리라고 하며 보리나 조의 수확량을 흔히 몇 바리 했다고 한다. 집으로 옮겨온 곡식을 마당에 죽 깔아놓고 우마로 밟거나 사람이 도끼로 타작을 하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장만할 수 있는 분량은 한 섬 정도다. 산뉘는 도끼를 이용하거나 '거상치기'라 하여 맷돌을 가운데 놓고 산뉘를 내리쳐 탈곡(脫穀)하였다. 타작이 끝나면 햇볕에 잘 말려 툄방아에 놓고 3~4시간 이상을 빗자루로 쓸어 올리면서 쪼아야 된다. 특히 보리는 '물방아'(연자마)에서 물을 추겨 주어야 만이 밥을 지어먹을 수 있었다. 만일 날씨가 나빠 잘 말리지 못하면 쉽게 쉬어버려 그 보리쌀을 다 먹을 때까지는 쉼새가 나는 밥을 먹게 된다. 그런데도 쌀보리보다 걸보리(대맥)가 많이 재배됐던 까닭은 타작이 쉬었고 걸보리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드리고 멸구가 심할 때는 경작자별로 논밭에 나가 제사를 지내는 게 고작이었다. 다만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김매기를 열심히 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9번 김을 매면 9되를 수확한다는 말이 정석처럼 들리곤 했다. 그러나 일제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극심한 공출로 여러 가지 여건이 순조롭지 못해 여러 밭을 방치하여 풀밭이 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유채와 고구마가 보리 다음 가는 환금 작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보리(쌀보리) 재배는 순조로운 편이나 수확 과정이 까다로워 많은 양을 재배하기 어려운 반면 유채와 고구마는 수확 과정이 수월하고 환금성(換金性)이 높아 많이 재배하게 됐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3,000평의 밭에 보리농사를 지었을 경우 11인에서 25인의 인력이 필요하다. '검질'(잡초)을 매는데 하작물을 재배한 후의 뿌리와 쉬돌림하는 밭의 차이가 인력에 영향을 주며, 탈곡에도 다른 작물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조는 '검질'매기와 동시에 숙아내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마로 잡초가 무성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sup>36)</sup>

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한 농사에 있어 남녀의 분업관계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자만 하는 일, 여자만 하는 일, 남녀 다 같이 하는 일이다.(현용준,1974:131.) 남자만 하는 일은 농기구의 제작 관리, 수리, 밧줄·새끼 꼬기, 우마의 관리, 밭 갈기, 씨뿌리기, 마소에 짐 싣기, 떡서리, 바구니 등 짜기, 짚신 삼기, 거름 내기 등이다. 여자만 하는 일은 물건기, 빨래, 취사, 멧돌 방아찜기, 탈곡하여 불리기, 양돈, 양계 곡물의 보관관리, 직조, 재봉, 기타 수공예 등이다.



<사진 16> '검질매기'(1960년대) - 泉淸 사진

남녀가 다 같이 하는 일은 밭갈이 후의 '병에'(흙덩이) 퍼기, 섬피 끌기, 풀치기, 김매기, 밭 밟기, 수확타작, 보리 훑기, 저 나르기, 풀 베기, 띠 베기 등 많다. 이런 일들은 노동 능력이 있는 가족은 남녀 구별 없이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한다. 그런데 흙덩이 부수기, 섬피 끌기, 밭 밟기 등은 남자가 밭을 갈 때에 동시에 하는 일이므로 주부나 그 외의 가족이

담당하게 마련이고, 여름철 내내 해야 하는 고된 김매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잘 견디어 내어 남자는 쉬고 여자들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농사작업에 있어 여성의 노동은 어찌 보면 남성보다 더 많고 그 역할이 큰 것이다. 남성은 힘드는 노동과 대외적 관계의 작업,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노동을 맡고, 여성은 힘이 덜 드는 모든 작업과 대내적인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 된다. 특히 곡물의 보관 관리, 가사경영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 내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의 비중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부자 집은 노동력을 빌려 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였으나, 농사를 작게 짓는 집의 노동 확보 수단은 수눌음과 접<sup>37)</sup>이었다. 수눌음이란 품앗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농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노동을 교환

36) 濟州道, 앞의 책, p. 15에 의하면 어음에서는 조의 파종법의 하나로 '가슬치기'가 있다. 지력(地力)을 북돋기 위하여 쉬워둔 밭에 조 파종기보다 조금 일찍 씨앗을 뿌린 후 밭을 갈고 간단하게 흙을 덮어줌으로써 파종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또 노형, 조수, 어도에서는 화전밭 같은 데 봄에 애벌갈이('번훅다'라고 한다.)로 일찍 가는 조를 일컫는 말로 쓰기도 한다.

137) '접'(계)은 계의 하나로 공동작업을 목표로 하여 조직한 노동교환 형태라는 점에서 수눌음과 구분된다. '뭇방에'(연자마)집, 그물집, 쌀집 등이 있다.

하는 형태이다. 즉 농경에 있어서의 제초, 수확, 탈곡, 우마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들 사이의 밀방에(연자마)를 이용하는 작업, 새로 지붕을 이는 작업 등 다양한 노동 교환이 존재하였다.

노동 교환은 샅 노동에 있어서와 같이 과제의 완수를 목표로 하여 교환되었다. 즉 하루 동안 도움을 받으면 하루를 갚은 형식이었다. 일의 종류나 시기 등도 구분하지 않았다. 즉 제초작업에서 도움을 받고 수확작업에서 갚기도 하고, 봄에 도움을 받고 가을에 갚기도 하였다.

농업 노동 성격상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일을 하여야 하고, 또한 사람에 따라 노동능률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인하여 일반적, 보편적인 노동능률과 그에 따른 노동투입 및 소요량을 계산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사진 17> 소 내리기(1980년대?)  
- 뿌리깊은나무 사진

농사에 쓰이는 축력(畜力)을 살펴보면 밭갈이에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가 쓰인다. 그러나 메밀<sup>38)</sup>의 경우 파종 전에 개간(開墾)하는데 2마리의 소가 투입되어야 했다. 파종에 밭 밟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조와산뒤의 경우 약 100평당 소 혹은 말 1마리가 필요하다. 그 외에 소나 말은 보리의 파종 때 쓰는 진거름의 제조에도 필요하며, 운반 작업에는 많은 소나 말이 필요했다. 특히 메밀의 파종에 3마지기 정도 메밀을 재배하려면 열흘을 다녀와야 한다고 하여 메밀 300평 파종에 10마리가 시비되며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밭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마리의 소와 10인의 인력이 쓰였다. 따라서 메밀 재배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메밀은 처서(處暑)가 지나면 ‘검질’(검)이 울며 돌아간다는 이야기에서처럼 처서(處暑)가 지나 파종되었기 때문에 제초 작업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콩, 팥은 잎이 무성하여 음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초 작업에 노동 투입량이 작았다. 면화는 소규모로 재배하면서 수시로 제초하여 집중적인 노동 투입이 있었다.

38) 高在奐, 『濟州島俗談研究』, 1993, 집문당, p. 211.에 의하면 “정칠월 메밀농사 두 바룻가민 늘어진 불 보젠 구쟁기 나온다.” 칠월 메밀농사 뒤에 바다에 가면 늘어진 불알 보러 소라 나온다는 속담을 보고하고 있다.

### Ⅲ. 전래 농기구의 성격과 내용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진 제주도의 농경은 밭농사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 부더가 본토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표 8> 농기구 보유상황표

구분		1970	1969	1968	1967	1966	비고
경운기	쟁기	37,227	38,175	38,280	33,904	18,822	
	동력경운기	236	192	121	66	6	
분무기	인력	4,928	4,049	3,831	2,489	1,566	
	동력	147	82	4	2	-	
살분기	인력	159	253	161	350	94	
	동력	290	234	-	-	-	
탈곡기	그네식	18,917	21,621	23,455	26,406	10,897	
	인력	228	209	282	274	182	
	동력	746	755	742	664	338	
조연기		16	29	14	10	16	
타면기		13	23	39	32	19	
동력분무살분겸용기		-	-	227	218	176	
풍구	인력	67	61	470	852	863	
	동력	245	390	424	571	203	
제승기	인력	225	133	191	167	90	
	동력	2	69	1	1	-	
가마니기	수직기	17	15	13	20	14	
	족남기	10	7	12	-	-	
	동력기	2	2	1	1	-	
양수기	인력	2	2	2	6	6	
	동력	20	19	14	11	3	
발동기		-	-	835	793	706	
절간기		7,895	7,707	7,613	7,472	7,735	
현미기		31	28	21	2	4	
정미기		414	603	436	463	447	
제분기		468	466	474	538	517	
제면기		35	29	24	32	32	

<표 8>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제주도의 농기구 보유 상황(狀況)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조사 시점인 1970년의 상황(狀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다. 경운기로 분류한 동력경운기와 구분하여 '쟁기'와 탈곡기로 분류하고 '그네식'이라고 구분한 '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미기, 정미기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 '뭍방에'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주정공장’의 원료로 재배하였던 고구마의 절간을 위해 상당량의 ‘절간기’가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소장자료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제주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았던 ‘풍구’가 상당량 이용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인력(人力)을 동력원(動力源)으로 하였던 전래 농기구에 기계력(機械力)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동력구들이 농경에 활용되기 시작했음도 알 수 있다.

다양하게 사용하였던 농기구의 이해를 위해 다카하시 노보루(1985)는 경운농구, 정지농구, 제초농구, 시비농구, 운반농구, 관수농구, 베어내기 탈곡 조제 저장농구, 농산가공용구, 양축기로 분류하였다. 물레와 베틀 등을 농산가공용구로, 독우리와 맑덩체를 양축기로 분류하였다. 관수농구로 허벅과 물구덕을 분류한 점이 특이하다.

이즈미세이이치(1960)는 경작농구, 제초 또는 수확용구, 정맥용구, 잡구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맥과, 뒷박세기 등을 잡구로, 비(빗자루)를 제초 또는 수확용구로 다른 점이 다른 분류와 구분된다.

김광언(1969)은 가는 연장, 삶는 연장, 씨뿌리는 연장, 거름주는 연장, 매는 연장, 거두는 연장, 터는 연장, 고르는 연장,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 운반연장, 갈무리연장, 농산제조연장, 기타연장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분류 항목은 있지만 분류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물대는 연장, 말리는 연장, 축산연장이 있으며 총 37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박호석(2001)의 분류에로 이어진다. 그리고 피조사자의 농기구 보유량을 밝혔으며, 날레군데, 남태, 돌태, 씨뿌게, 부게기, 오줌허벅, 거평, 연자매, 절구, 길마, 치계, 도롱이를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특수 농구로 밝히고 있다.

강창언(1995)은 갈이구, 덮는구, 뽑는구, 거름구, 베는구, 타작구, 말림구, 운반구, 저장구로 분류하여 42점의 농기구를 다루고 있다. 씨래 등의 도구로 포함한 것으로 보아 발농사 도구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꼭박’(바가지)과 ‘거평’을 거름구로 다른 점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농기구다.

김동섭(1998)은 파종구, 육성·수확구, 운반구, 탈곡구, 도정구, 저장구, 기타구로 분류하여 발농사에 쓰였던 전래 농기구 58점을 다룬 바 있다. .



<사진 18> 파종 후 모습  
(제주시 일도 2동, 1997. 3. 12)

분류는 체계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분류는 총체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너무 작은 항목은 기능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면서도 제주인의 관점에서 농경의 순서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제주도 농경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래 농기구를 가는 연장, 씨뿌리는 연장, 거름 주는 연장, 씨덮는 연장, 매는 연장, 거두는 연장, 운반하는 연장, 곡식 터는 연장, 곡식 고르고 말리는 연장,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 저장하는 용구, 기타로 분류하여 각 농기구의 기능을 살펴보겠다.

## 1. 가는 연장

농사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곳<sup>39)</sup>에서 농사를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악조건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했었다.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기구들이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며, 그 환경이 개혁되지 않는 한 농경을 위한 농기구의 이용도 계속되면서 전래 농기구에 위치하게 되었다.

우마(牛馬)가 풍부한 편이었던 제주도에서는 대부분의 밭은 ‘쟁기’로 갈았다. 그러나 자갈이 많았던 척박한 땅을 일구는 데 썼던 ‘따비’의 이용이 그렇고, 돌을 캐기 위해 사용하였던 ‘벤줄레’의 이용도 그렇다. 이밖에 흙을 올리거나 담 밑의 갈이에 이용하였던 ‘괭이’, ‘갈레죽’을 살펴보고자 한다. ‘쉐스랑’(쇠스랑)도 부분적이기는 하나 밭갈이에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거름주는 연장에서 다룬다.

### (1) 쟁기

밭갈이에 썼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귀덕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39) 흔히 제주도에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 돌이 없고, 바람이 없었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던 것보다 농경(農耕)에 적합하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원래 무기를 가리켰던 ‘잠개’라는 말이 ‘장기’로 바뀌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김광언, 1995(16) : 389) 제주도에서는 ‘잠대’(제주, 김녕, 성산, 창천, 저지, 애월), ‘잠데’(오라 3동, 대평, 덕수, 용수, 삼달, 사계, 무릉, 성읍, 감산), ‘장기’(무릉)라고 하는데 이들은 고어(古語)의 잔존형으로 보아진다.

쟁기는 소나 말의 힘을 빌려 밭갈이를 할 때 흙을 일구는 데 주로 썼다. 밭갈이 외에도 초가집을 지을 때 벽에 붙일 흙을 장만할 때도 썼다. 이 작업은 보통 마당에서 작업하였는데 흙벽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리짚을 섞어야만 했다. 흙과 보리짚이 잘 섞이도록 갈아 엮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쟁기’를 사용하였다.



<사진 19> 밭갈이(1960년대) 泉靖一 사진



<사진 20> 쟁기 사용  
(전남 보성군 벌교읍, 2001. 10. 23)



<사진 21> 밭갈이(1939년)  
- 高橋昇 사진

언제부터 ‘쟁기’를 밭갈이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에 502년경(지증왕 3년)부터 ‘소로 밭을 갈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sup>40)</sup> 소를 이용한 밭갈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이용은 이 보다도 더 후대로 보이거나,<sup>41)</sup> 제주도 농경신의 내력담인 <세경본풀이>에는 머슴 아홉에 소 아

40)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上), 乙酉文化社, 1994, pp. 68~89.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三月分命州郡主, 勸農, 始用牛耕 (3월에 각주 군주에게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고, 처음으로 소를 밭가는데 사용하였다.)

41) 高光敏, 『甘山里民具』, 제주대학교박물관, 1999. p.17에 의하면 서기 662년경에도 흙을 일구는데 소를 이용할 줄 모르고 철지파로 썼다는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에서의 쟁기의 이용은 그 후대로 보인다고 적고 있다.

흙마리를 이용해 밭갈이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고<sup>42)</sup> 또 옛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경과 관련된 ‘곳’에서도 이용된 듯하여, 제주도에서의 소를 이용한 밭갈이가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진 22> 입춘굿놀이에서의 ‘쟁기’  
(1910년경?) -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한편 ‘보섭’(보습)과 ‘벧’(벧)을 제외한 대부분을 나무로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1960년대 초반에 철재(鐵材)로 만든 ‘재건쟁기’가 보급되었다고 한다.(박호석, 1988:4) 또 ‘손쟁기’라 하여 수집된 것도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이 ‘손쟁기’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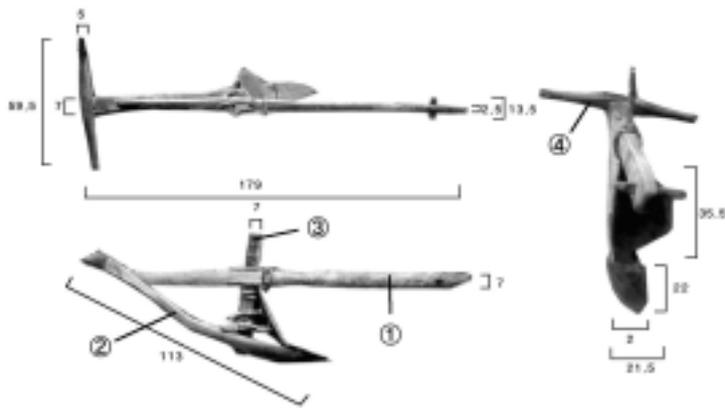


<사진 23> 손쟁기 사용  
(제주시 삼양2동, 1982. 11. 18)

제주도의 것과는 달리 ‘몽클’의 오그라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쟁기를 구분하여 ‘옥쟁기’(벗썩쟁기)라 하였으며, 경북지방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밭에 골을 타거나 파종 후 씨를 묻는 작업에 ‘손쟁기’를 이용하고 있다.(배영동, 2000:188.) 1974년 감산리에 경운기가 보급되는 등 산업화의 산물(産物)로 1970년대 초반부터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쟁기’도 점차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작은 밭이나 비탈진 곳 등의 밭을 갈 때는 쟁기를 이용하였다.

자갈이 많은 밭을 갈기 위해 제주도에서 사용한 쟁기는 구조도 견고하였다. 쟁기는 ‘성에’와 ‘몽클’, ‘설칫’, ‘양주머리’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납힌 ‘A’字형을 이루고 있다.

42) 玄容駿,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3, p.89에 의하면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정수남이’에게 밭을 얻어 먹을 곳을 가리키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 밭을 보아라, 머슴 아흙에 소 아흙을 거느리고 밭을 가는데가 있지 않느냐?” 고 쓰고 있다.



① ‘성에’는 휘어 있는 육지 ‘쟁기’의 ‘성에’와는 달리 곧게 뻗어 밭갈이를 할 때 지면(地面)과 평행을 이루도록 되었다. 소나 말의 힘을 ‘보섭’에 전달하는 곳으로 한쪽 끝에는 ‘돌벥이뿔’이 다른 쪽 끝은 ‘몽클’에 박혀있다. 넓고 좁은 긴 사각형으

<그림 3> 쟁기

로 깎아 만든 것으로, ‘설치구멍’이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두툼하며, 몽클에 박히는 부분은 더욱 좁은 편이다. ‘벧’(벧)을 설치할 때 ‘줄’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벧틀레’의 한쪽 끝을 묶기도 했다. 주로 ‘솔피낭’(쇠물푸레나무)이나 ‘가시낭’(가시나무), ‘굴무기’(느티나무) 등으로 만들었다.

‘질왓’이 많은 해변 지역에서 쓰는 것보다 ‘뜯땅’이 많은 산간에서 쓰는 ‘성에’의 길이가 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질’(잡초)의 뿌리가 상대적으로 ‘뜯땅’의 피석진 곳에서 깊게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센 뿌리에 걸리면 ‘쟁기’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이 ‘보섭’(보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표 9> 쟁기의 크기 비교표

구분	양주머리	성에	몽클	설치	비고
박물관	미확인	191	미확인	미확인	
"	미확인	183	미확인	미확인	
"	미확인	203	123	미확인	
"	59	193	125	미확인	
"	57	181	미확인	미확인	
"	미확인	193	130	미확인	
"	미확인	200	140	미확인	
"	62	180	123	미확인	
"	55	222	125	미확인	
성산 수산	미확인	193	132		김광언 조사
남원 수망	미확인	210	미확인	58	
표선 성읍	49	203	129	59	
애월 봉성	60	183	123	61.5	

<표 9>은 일부지역이긴 하지만 중산간 이상의 지역과 박물관 ‘쟁기’의 길이를 살핀 것이다. 남군 남원읍 수망리의 것이 210cm의 ‘성에’를 가져 가장 길고, 북군 애월읍 봉성리의 ‘쟁기’가 짧은 183cm의 ‘성에’를 가져 비교한 자료 중 짧은 편이었다.



<사진 24> 쟁 기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1996. 9. 19)



<사진 25> 쟁 기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1996. 9. 18)

② ‘몽클’은 땅 속으로 들어가 밭의 땅을 일구는 ‘보섭’을 끼우는 곳이며, ‘성에’와 ‘설칫’을 고정하는 곳으로 ‘쟁기’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육지 쟁기의 ‘쟁기술’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구좌, 영평, 수산, 서흥, 김녕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마르지 않으면서 통통하여 보기 좋은 것을 ‘몽클지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듯하다. 또 ‘몽클’(오라 3동), ‘뭉클’(구좌), ‘무클’(노형, 조수, 인성)이라고도 불렀다. 손잡이인 ‘양주머리’와, ‘보섭’이 양쪽에 꽂히도록 된 것으로 ‘성에구멍’<sup>43)</sup>과, ‘설칫구멍’을 내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이 더욱 통통한 편이다. 넓고 좁게 깎은 성에와는 달리 장방형(長方形)이 되도록 통통한 사각형으로 깎았다. 곧바르지 않고 중간부분에서 안쪽으로 20도 정도 휘어들도록 깎았으며 그 끝에 ‘보섭’을 끼울 수 있도록 뒷 부분 ‘들’은 편편하게 아랫부분 ‘볼기’는 오목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뽕족하도록 하였다. 강한 힘을 견뎌내야 했던 곳이기에 쉼 나무인 ‘솔피낭’(쇠물푸레나무)이나 가볍지만 질긴 ‘자귀낭’(자귀나무)으로 만들었다.

③ ‘설칫’은 ‘한마루’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형, 조수, 수산, 서흥, 가시 등지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설깃’(김녕)이라고도 불렀다. ‘성에’ 보다도 더 넓고 좁은 사각형으로 깎아 ‘성에’와 ‘몽클’의 각도를 유지하도록<sup>44)</sup> 설치한 것으로 ‘설칫뭇’(수산, 가시), 혹은 ‘설칫세

43) ‘비아뭇구멍’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다. 이는 ‘성에’ 중앙에 꽂히도록 된 설칫의 높이를 ‘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높이의 조절은 밭갈이 때 갈이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4) ‘성에’와 ‘몽클’이 이루는 각은 어느 정도 차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45도 정도를 이룬다. 그리고 몽클이 30도 정도로 안쪽으로 휘어져 있으므로 성에와 보섭이 이루는 각은 실제로 18도 밖에 되지 않는다.

역'(노형, 어도, 인성, 서흥, 가시), '가남세역'(조수), '베에뭇'(감산)을 쫓는 구멍이 '성에' 위쪽 부분에 나있다. 주로 '솔피낭'이나 '소리낭'(소리나무), '가시낭'(가시나무)으로 만들었다. 각도의 조절을 위해 '성에'와 '설칫뭇' 사이에 두 개의 막대기로 '설칫'을 감싸 맞대어 묶는 '뚝'이 이용되었다. '뚝'을 놓으면 각이 좁아져 얇게 갈리고, 놓지 않으면 깊게 갈린다.



<사진 26> 양주머리 사용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1980년대)  
고광민 사진

④ '양주머리'는 육지 쟁기에는 없는 것으로 '양지머리'(하호)라고도 불렀던 '쟁기'의 손잡이다.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원형의 나무로 만들었으며, 중앙부분에서 '몽클'에 'T'자형이 되도록 박혀 있다. 물론 이 부분이 더 두툼하다. '성에', '몽클', '설칫'이 쉰 나무인 '솔피낭'으로 만들어 무거우므로 주로 '양주머리'는 가벼운 나무인 '소낭'(소나무)으로 만들었다.



<사진 27> 자귀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2002. 5. 19)



<사진 27-1> 성에 초벌깎기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2002. 6. 17)

쟁기 제작 과정은 유수암에서 살폈다. 제작에는 이○○(남, 1933년생)이 맡았다. 그가 사용하는 도구는 '톱', '자귀', '클', '망치'가 전부였다. 재료는 속이 붉은 '솔피낭'으로 해발 500m정도에서 잘랐다. 한 달 전인 5월 중순에 베어 그냥 말린 다음 '초벌깎기'를

했다. '초벌깎기'가 끝나면 틀어지거나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정도 말린 다음 마무리를 한다. 주로 '자귀'를 이용해 '성에', '명에', '설칫', '양주머리'를 우선 깎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끌'을 사용하면서 맞춘다. 그리고 '벳바드랭이', '벳틀레', '벳칼'도 준비해

야 하며, ‘벧코’에 걸어 ‘벧’을 고정할 ‘벧줄’과 ‘벧바드랭이’를 묶을 끈으로 ‘너딩’도 준비해야 한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때는 3~4일 정도 걸리지만 완전히 말린 다음 깎을 때는 6~7일 걸린다.

‘보섭’과 ‘벧’은 불미왕에서 맞추어 쓰거나 5일장에서 구입해 썼는데 상당히 비쌌다. 1960년대 덕수리의 경우 ‘몽쿨’, ‘성에’, ‘설칫’, ‘양주머리’에 사용할 나무를 갖다주고, 맞추어 주는 데만도 보리 1말은 들었다고 한다. 한 번 만들면 적어도 20년은 사용하였다고 한다.

갈이를 위해서는 ‘몽쿨’ 끝 ‘불기’에 ‘보섭’을 끼우고 ‘벧’을 ‘설칫’에 세워 고정시켜야 한다. ‘보섭’은 ‘몽쿨’ 끝의 ‘불기’에 끼우면 되지만, ‘벧’은 설치하기가 복잡하다. 우선 ‘벧줄’을 2개의 ‘벧툽’에 각각 끼우고 거기에 ‘벧칼’을 물린 다음 팽팽해지도록 당긴다. 그리고 ‘벧틀레’로 의지시키고 ‘틀레’ 끝은 ‘성에’에 묶는다. ‘벧바드랭이’<sup>45)</sup>는 ‘벧’이 더 이상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으로 ‘ㄱ’字形이다. 그 한 쪽 끝을 ‘몽쿨’ 혹은 ‘설칫’에 박고, 한쪽은 ‘벧’에 댄다.

북군 구좌읍 송당에서는 ‘보섭’으로 갈이 깊이를 조정하였는데 ‘보섭’을 올리면 많이 갈리고 내리면 작게 갈렸다. 조정을 위해서 밭갈이 때는 ‘자귀’를 갖고 다니면서 조정을 했다. 밭과 소를 보아서 ‘보섭’과 ‘벧’을 잘 조정해야 사람과 소가 쉽게 작업할 수 있었다.

흙은 별로 없으면서 자갈이 많았던 밭의 흙을 일구고 김질의 뿌리나 줄기 등을 쉽게 자르기 위해서는 ‘보섭’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보섭’의 경우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다.<sup>46)</sup> 고광민에 의하면 ‘보섭’의 제작은 참봉제, 보섭덩이제작, 알만들기, 텅이손질, 쇳물붓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한다.(고광민, 1984:243~267)



<사진 28> 보섭, 벧

45) 보습 위에 댄 벧을 받침하는 한 마루에 꿰어진 나무로 ‘벧공쟁이’, ‘벧반이’, ‘벧공쟁이’라고도 한다. ‘벧줄’은 쟁기 몸체에 벧을 고정시킬 때 묶는 줄을 말하고, ‘베칼’은 쟁기의 벧에 묻은 흙을 긁어 내리는 데 쓰는 나무칼을 말한다. ‘벧툽’은 ‘벧자리’라고도 하는 것으로 쟁기에 벧 대가리가 의지하게 한 곳을 말한다. ‘벧틀레’는 쟁기에 벧을 단단히 틀어주는 나무 막대를 말한다. 박물관 소장(자료번호 1,670) 자료의 경우 2,949g 정도되었다.

46) 金尙憲(朴用厚 譯),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52.에 의하면 김상헌은 내가 밭을 가는 자를 보니 농기가 매우 좁고 작아 어린애 장난감과 같았다. 물어보니 말하기를 “흙 두어 치 속에 들어가면 다 바위와 돌이므로 이 때문에 깊이 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 29> 보섭 제작 : 싯물을 녹이는 과정  
(북군 안덕면 덕수리, 1996. 10.)



<사진 30> 보섭 제작 : 싯물을 붓는 과정  
(북군 안덕면 덕수리, 1996. 10.)

<표 10> 보섭 벧 크기 비교

구 분	보섭			벧		비고
	길이	폭	두께	길이	폭	
박물관	22	12		35.5	21.5	쟁기
박물관	24	12	6	38	22	쟁기
박물관	24	13	6	40	22	쟁기
전남 강진	34	19.2		35	20	쟁기
전남 진도	32	23		없음		따부쟁기



<그림 4> ‘벧’(벧) 뒷모습  
-고광민 그림

<표 10>는 제주 ‘보섭’의 폭이 육지의 것에 비해 65%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같이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보섭’의 형태가 산간지방에서는 두터우면서도 둥글고 길쭉하나, 호서, 호남지방에서는 길쭉하면서도 좁은 편이고, 경기지방에서는 끝이 뾰족하면서도 적은 것이 사용되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홍희유, 1989:126.) 더욱이 제주도의 ‘보섭’은 ‘날’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돌출된 지반(地盤)의 돌과 정면 충돌을 피하여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고광민, 1984:105~106)

일군 흙이 왼쪽으로 넘가도록 ‘보섭’ 위에 설치하는 것이 ‘벧이



<그림 5> 명  
(전남 해남군 하원면 영호리, 2001. 10. 24)



<사진 31> 명에와 쟁기(1960년대?)

다. ‘벧’은 ‘대패랭이’의 정면도를 세워놓은 듯한 형태로 왼쪽에 ‘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둥’(기둥)이 서있고, 오른쪽으로 ‘모자’ 모양의 ‘자락’이 둥그렇게 만들어졌다. ‘지둥’ 아래쪽을 ‘발’이라고하여 ‘보섭’위에 얹히도록 하였으며, 위쪽은 ‘마리’라는 홈이 있어 ‘설칫’에 걸리도록 되었다. 뒷면에는 ‘줄’을 걸 수 있는 네 개의 ‘코’가 있다.



<사진 32> 쟁기 사용 : 말로 발갈이  
(제주시 일도2동, 1980년대)

소의 축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에’를 사용하여야 했다. 소의 목에 얹는 ‘명에’는 ‘접게’로 목에 고정하며, 양쪽의 ‘명에턱’에 ‘등케’<sup>47)</sup>, ‘벌레’<sup>48)</sup>, ‘오리목’<sup>49)</sup>이 달린 ‘숨비줄’<sup>50)</sup>을 연결하여 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馬)의 힘을 이용할 때는 ‘접게’를 사용했는데, ‘접게’에 달린 ‘구살’에 ‘숨비줄’과, ‘등케’, ‘벌레’, ‘오리목’이 연결되어 이용하였다.

발갈이 하는 모습을 <세경놀이>에서는 “세경홍잠대 허영 번허여살 건디, 자, 흥낭버

- 47) ‘한테’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의 ‘명에’에 매어진 ‘숨비줄’(붓줄)이 아래로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의 등 위에 걸치도록 한 줄이다. ‘등켓줄’(김녕, 조수, 수산, 인성, 서흥), ‘등켓친’(조수), ‘등퀘’(감산) 이라고도 불렀다. 이 줄의 늘어지는 정도에 따라 발갈이의 깊이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 48) ‘물주리막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숨비줄’의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막대다. 양쪽 끝에 ‘턱’을 만들어 ‘숨비줄’과 ‘오리목’의 ‘코’가 걸리도록 하였다. 소의 오줌이 묻어도 쉽게 썩지 않도록 ‘등글레낭’, ‘솔피낭’(소리나무)을 재료로 만들었다.
- 49) ‘오리목’은 한줄과 같은 ‘존갱이’(으름줄)로 만들었다.
- 50) ‘붓줄’을 가리키는 것으로 노형, 조수, 인성, 서흥, 송당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리는 명칭이다. 또 ‘쉐줄’, ‘쉐한줄’, ‘손디줄’(대정), ‘한줄’(송당)이라고도 불렀다. 송당에서는 주로 ‘존갱이’(유름줄)로 만들었다. ‘존갱이’중에서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쓸 수 없었고, 땅으로 기는 것을 걷어다가 재료로 사용하였다. 잘 다듬어서 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적당히 말려서 사용하였다. 세 가닥으로 줄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공이 많이 들었다. 감산에서는 ‘소리낭’(소리나무)으로 만들어 썼다. ‘명에턱’에 연결한 부분이 ‘벌레’를 고정하는 쪽보다 가늘다.



<사진 33> 접게 구라

데에 뱃 보섭 출러 농곡 조은 부룽이에 동원 가린석, 서의 부림패로 동으로 서렐레 갈자. 어러칙칙. 어어 어 쪽쪽, 멋기께, 왕”같이 설명하고 있다.<sup>51)</sup>

밭갈이를 할 때 소의 양쪽 뿔에 묶어 양손에 나누어 쥐고 소를 곧바로 앞으로 가도록 하거나 쟁기를 들어 옮길 때 세우는 등에 사용하는 고삐를 ‘가린석’이라고 한다.<sup>52)</sup> 이 고삐는 ‘멍에’에 걸치고 ‘숨비줄’에

있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원형의 손잡이인 ‘코’를 ‘드래줄’(다래나무)로 만들어 붙여 손에 잡고 작업하거나 ‘양주머리’에 걸 수 있도록 하였다. 밭갈이 때 풀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 말(馬)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지만, 소의 입에는 ‘망울’<sup>53)</sup>을 씌워야만 했다.

‘쟁기’가 상하거나 ‘보섭’이 터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짐승인 소를 부려 곧고 바르게 밭의 흙을 일구어야 하는 것이 밭갈이었다. 돌이 많은 밭에서 이러한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보통 한 마리를 이용하여 밭갈이를 하지만, 아무리 센 소라 하더라도 생땀을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마리 소로 같이 하는 ‘저릿쇠’를 하게 된 것이다. 육지의 경우는 양옆으로 세우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앞뒤로 세운다. 그래서 앞 소의 ‘숨비줄’ 길



<사진 34> 쟁기 사용 : 소로 밭갈이 (제주시 일도 2동, 1980년대)

이가 곱이나 되고 하나의 ‘돌뺨이뿔’에 ‘오리목’을 함께 걸어야 했으므로 ‘돌뺨이뿔’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길다. 물론 ‘가린석’ 혹은 ‘후림패’(부림패)도 길어진다. 밭이 작거나 소나 말을 구할 수 없을 때 사람의 힘을 빌어 끌기도 했다.

가라고 할 때는 ‘쉬’ 혹은 ‘허’, 돌아라고 할 때는 ‘항--’, ‘황’이라고 하고, 조금 쉬라고 할 때는 휘파람 소리를 불어준다. 이렇게 한 다음 소와 사람이 잠깐 쉬게 된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양주머리’를 잡

51)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388.

52) 이를 구분하여 소머리의 오른쪽의 것을 ‘부림패’, 왼쪽의 것을 ‘가린석’이라고도 했다.

53) 전남지방에서는 ‘주등망’ 혹은 ‘부리망’이라 하여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짚계 품 特別展』, 광주시립박물관, 1993, p. 35.



<사진 35> 쟁기 보관 : 헛간의 들보에 걸어 보관  
(제주시 도평동, 1996. 8. 29.)

있는 양을 ‘한 쉼역’이라고 하는데 송당의 경우는 6~700평 정도이다. 돌이나 어육췌 뿌리가 없고 밭이 길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초불’을 갈아두면 씨를 드릴 때 하는 ‘두불갈이’ 때는 쉬워진다. 이때는 걸리는 게 없어 1,000평 정도를



<사진 36> 밭 : 파니  
(제주시 용담동, 2002. 5. 31.)

고 나가는데서 차이가 있었다. 같은 밭 같은 소라도 밭을 많이 갈고 덜 가는 것은 밭갈이를 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났다고 한다. 또 소가 2시간 정도 밭을 갈면 쉬게 하는데 이때 ‘물’이나 ‘여물’을 주었고, 점심 때에는 그늘에서 쉬게 하여야만 능률이 더 올랐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갈 수

같이 할 수 있다.<sup>54)</sup> 소나 ‘쟁기’가 없는 집에서 는 소나 ‘쟁기’를 빌어서 밭을 갈아야 했는데, 이때 품은 소도 하루, ‘쟁기’도 하루, 사람도 하루 품으로 값았다.

밭갈이에는 좌우 한 ‘고지’<sup>55)</sup>씩 두 개의 ‘고지’로 한 ‘두둑’을 만들어 가는 ‘양벧떼기’, 세 개의 ‘고지’로 한 ‘두둑’을 만드는 ‘세벧떼기’, 좌우 두 ‘고지’(거웃)씩 네 개의 ‘고지’로 한 ‘두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를 ‘네벧떼기’

라고 한다.<sup>56)</sup>

54) 加藤木保(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 역), 『조선의 재래농구』, 한국무속박물관, 1995, p.24.에 의하면 보통 하루에 호리 쟁기로 660~1,500평, 겨리 쟁기로 1,110~1,800평의 땅을 갈 수 있다. 또 홍희유, 앞의 논문, p. 127에 의하면 육지의 경우 많게는 한 필 소로 밭갈이를 하는 경우 1일간 600~700평, 두 필 소로는 1,200~1,800평정도 밭갈이를 할 수 있었다. 김광언, 앞의 책. p. 26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논은 500여평, 밭은 450평, 충북에서는 논 200평, 전남에서는 900여 평까지 갈 수 있었다.

55) 김녕, 노형, 조수, 인성 등지에서 ‘밭이랑’을 부르는 지역이다. 한 두둑과 그에 따른 고랑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조수, 노형, 인성, 김녕, 화순, 하원, 어도에서 불려지는 것으로 ‘파니’라고도 한다.

56) 고광민, 앞의 논문, pp. 127~131. 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南濟州郡 安徳面 倉川里』, 『濟州島部落誌』(3),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0, pp. 322~323에 의하면 유채, 보리를 파종할 때는 ‘웨벧지기’, 보리를 산파할 때는 ‘양벧지기’, 콩, 팥을 부종(付種)할 때는 ‘세벧지기’, 개간할 때는 ‘네벧지기’로 같이하기도

이렇게 밭갈이를 하면서 불렀던 소리로 <밭 가는 소리>, <마소 모는 소리>가 전해오고 있다.<sup>57)</sup> 또 “밭 갈러 갈 때 빈 허벅진 여인이 가로질러 가면 ‘벧’과 ‘보섭’이 깨어진다.”는 속담이 있어 이를 경계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58)</sup> ‘보섭’의 경우 2~3년 정도 쓸 수 있었으나, 잘못 쓰면 하루만에 깨어지는 수도 있었다.

제주도의 쟁기가 갖는 특징은 ‘양주머리’가 있다는 점과 ‘보섭’이 좁다는 데 있다. ‘양주머리’는 자갈이 많았던 밭에서 밭갈이를 할 때면 자주 돌에 걸리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쟁기를 들어올릴 때 편리하도록 장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섭’이 좁은 것도 흙은 얼마 없으면서 많은 자갈을 가진 밭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쉽게 밭갈이를 할 수 있도록 제주의 토양에 맞도록 변형시킨 특징을 지닌다. 또 하나 소들이 유순하여 ‘코뚜레’를 하지 않은 소를 같이 이용했음도 하나의 특징으로 살필 수 있다.

## (2) 따비

김녕, 용수, 삼달 고산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다비’(대평), ‘때비’(용수), ‘때비’(대정, 표선, 수산), ‘보섭’(고산), ‘담비’(하효), ‘쌍갈레’(오라 3동), ‘쌍벤줄레’(오라 3동), ‘가름따비’(서홍)<sup>59)</sup>라고도 불렀다.



<사진 37> 쌍따비 사용 :  
광종파는 모습(1960년대)  
- 홍정표 사진

척박한 땅을 개간(開墾)할 때나 ‘쟁기’로 갈 수 없는 거친 땅을 일굴 때 주로 썼다. 장사(葬事)가 났을 때 봉분(封墳)을 만들고 잔디를 입힐 때 거기에 쓸 잔디를 할 때도 썼다. 저지에서는 밭을 갈 때 돌을 골라낼 때나 ‘새’(茅)밭을 일굴 때 썼으나, 자갈과 돌이 많이 깔려 있어서 ‘쟁기’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곳이나 ‘쟁기’로 갈고 남은 후미진 곳이나 밭담 밑의 곳을 가는 데 ‘따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비’에 관한 기록은 『農事直設』에 ‘耒(鄉名 地寶)’, 『山林經濟』에 ‘地保’, 『海東農書』에

한다.

57) 조영배, 『우리 고장의 전래민요』, 도서출판예술, 1996. pp.172~176, p.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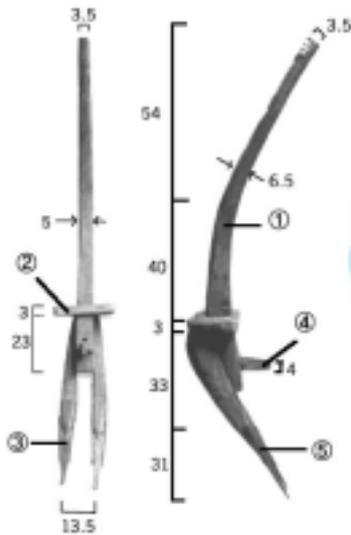
58) 濟州道農村振興院, 『濟州農事方言, 俗談集』, 濟州道農村振興院, 1991. p. 55

59) 高橋昇(洪性穆譯), 『朝鮮半島의 農法과 農民』(濟州島篇), 濟州市우당도서관, 2000, p. 78

‘長추(짜뽕)’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비’는 자주 쓰는 것이 아니고, 비싼 편이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구입하고 관리 하면서 사용하는 ‘계따비’도 있었다. ‘계’에는 ‘따비’는 물론 ‘벤줄레’ 2개, 그리고 돌을 두드려 쪼갤 때 쓰는 ‘물메’ 등을 갖추었다가 ‘계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따비’를 공동으로 관리 운용하는 ‘따비계’는 1945년 안팎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고광민, 1999:20) 특히 애월에서는 서하동의 ‘서골’, 동하동의 ‘동골’, 서상동의 ‘당동골’, ‘무름가름골’이라는 상두꾼의 모임이 있고 ‘골계장’이 ‘따비’, ‘삽’, ‘곡괭이’, ‘진투맥’ 등의 연장을 보 관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비’는 날의 형태를 기준으로 ‘코끼리 이빨형’이라고 하는 ‘쌍따비’와 ‘주걱형’이라고 하는 ‘웨따비’의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육지에서 보이는 말굽쇠형 따비는 보이지 않는다.<sup>60)</sup> 요사이의 장지(葬地)에서 광중(曠中)을 팔 때나 감귤나무의 뿌리를 캐낼 때 등에



<그림6> 쌍따비

사용함으로 폐차장(廢車場) 등에서 쇠를 구하여 변형시켜 만든 ‘쇠따비’가 여러 형태로 만들어져 쓰여지고 있다.

‘쌍따비’는 ‘즈록’(자루), ‘발디딤’, ‘설칫’, ‘탕게무쿨’, ‘따비쇠’로 구성되며<sup>61)</sup>, 전체적으로 ‘포크’형을 이룬다. ‘코끼리 이빨형’이라는 말은 ‘벤줄레대’가 코끼리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뜯땅’으로 퍼석진 흙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잡초의 뿌리가 쉽게 깊이 들어가는 편이었다. 그러므로 깊게 갈아 할 수 있는 도구로 ‘쌍따비’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하효, 가파 등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① ‘즈록’은 사각(四角)으로 각아 ‘탕게무쿨’에 고정시킨 것으로 손잡이 부분으로 오면 직경 2.8cm정도의 원

60) 김광연(1969:33)은 따비를 말굽쇠형, 코끼리 이빨형, 주걱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말굽쇠형은 경기도 덕적도, 백아도, 자월도 등지의 도서지방에서 쓰였으며, 코끼리 이빨형은 전남북 도서지방과 제주에서, 주걱형은 제주에서만 쓰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61) 高光敏, ‘제주도 쟁기의 형태와 발갈이법’,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校博物館, 1988, pp110~111. 제주도 동쪽 지역인 구좌(舊左), 성산(城山) 등지에서 주로 불렀다고 한다.

형에 가깝도록 깎아 잡고 작업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발디담’이 있는 쪽으로 오면 굽고 각이 저 있는 데, 측면쪽이 8cm, 정면쪽이 4cm정도로 넓은 것을 사용했다. 땅에 찍어 뒤로 젖힐 때 힘을 더욱 받도록하기 위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② ‘발디담’은 널판지를 마로모꼴로 만들어 붙였다. 긴 쪽의 길이가 29cm, 짧은 쪽이 20cm, 두께가 3cm정도의 것이 쓰였다. 즈룩에 꼽힌 부분에는 5~8cm정도의 세역 5개가 박혀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발디담’의 앞쪽에는 철판을 붙여 쉽게 터지거나 상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③ ‘탕게무쿨’은 아래부분을 두툼하게 깎은 것은 몸통에 ‘따비쇠’를 끼울 발을 붙인 것으로 ‘즈룩’(자루)과는 ‘설칫’으로 고정시켰다. ‘무쿨’(오라 3동)이라고도 불렀다. 긴쪽의 넓이는 15cm정도이며, 총길이는 46cm의 것이다. 두툼한 부분의 길이는 10cm‘날’의 길이만 24.5cm, 날의 폭은 6.5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사진 38> 탕게무쿨과 설칫



<사진 39> 따비쇠 뒷모습



<사진 40> 쌍따비 사용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4.4)

④ ‘설칫’은 ‘즈룩’과 ‘탕게무쿨’을 연결하는 데 썼다. 길이는 16cm, 폭 4cm, 두께 1.3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⑤ ‘따비쇠’는 대장간에서 두드려 원뿔형으로 만든 것으로 길이가 39cm, 직경 6.5cm, 무게 2kg정도로 만들어 사용했다. 상부(上部)에는 띠를 돌려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길이가 190cm, 날의 길이만 65cm에 이르는 것으로 무게가 9.2kg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sup>62)</sup> 수산에서 사용된 것의 ‘발디담’이 가로 26cm,

세로 21cm정도였으며, 날과 날과의 사이가 13.5cm정도의 것이었다고 한다. 광주지역의 것은 총 길이 124cm, '날'의 길이 29.5cm정도의 것<sup>63)</sup>이 이용된 것으로 보아 제주도의 것 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

<표 11> 쌍따비 비교

구 분	전 체 길 이	날 길 이	비 고
박 물 관	146	27	
"	160	미확인	
"	176	미확인	
"	115	75	
수 산	153	34	

<표 11>은 쌍따비를 비교한 것이다. 제주도에서 사용된 쌍따비는 전체길이 150cm정도, 날의 길이 45 cm정도의 것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1> 농경문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쌍따비'의 작업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농경문 청동기를 들 수 있다. '쌍따비'의 자루를 잡고 뒤로 넘기는 듯한 모습을 새기고 있다. 함께 발굴된 자료들로 보아 적어도 기원전 3세기경인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sup>64)</sup>

'쌍따비'의 작업은 두 손으로 자루를 잡고 땅을 찍은 다음 발편을 양발로 두 번씩 쿵쿵 밟아준 다음 뒤로 여러 번 작게 젖힌 다음 힘껏 한번 젖히면 땅이 일어나게 된다. 보통 사각으로 25~30cm 정도의 것이 일어나지만 송당에서는 잘 일어나면 40cm 정도의 것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서 양쪽으로 찍어 나간다. 혼자 하면 힘들므로 양쪽에서 두 명이 작업하면서 벅을 하거나 말을 헤가면서 작업하므로 덜 힘들었다고 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작업하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8~90평 정도였다. 사람만 힘만 들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밭 한 덩어리가 일어나면 생땅 한 덩어리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힘든 일이었다. 혹 생 땅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의 풀은 '곰배'로 병예를 풀어 매꾸었다. 그래야만 그 위에 씨를 뿌릴 수 있었고 발아(發芽)가 되는 것이다. 피와 팔 같은 거

62) 泉靖一, 앞의 책, p.221

63)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짚제품특별전』(도록), 1993. p.77, 207

64) 한병삼, 『先史時代 農耕文靑銅器에 대하여』, 『考古美術』(112), 고고미술사학회, 1976, pp. 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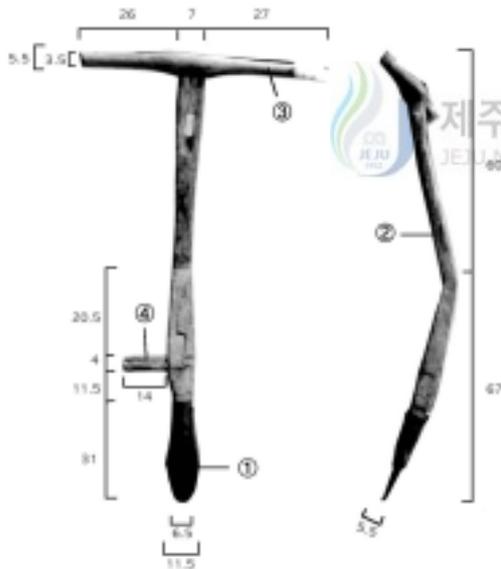


<사진 42> 쌍따비 사용(1960년대?)  
-泉靖- 사진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웨따비’는 ‘따비쇠’, ‘몽쿨’, ‘양주머리’을 기본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T’字형을 이룬다. 특히 ‘밀감낭’(밀감나무)을 심을 때나 켈 때 사용했다. ‘따비쇠’가 꽂힌 ‘몽쿨’ 아랫 부분에 ‘발받침’을 붙였다. 4~5kg 정도 무게의 ‘웨따비’는 잔 자갈이 많은 서쪽 지역(한림, 애월)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작은 것은

3.7kg, 큰 것은 4.8kg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



<그림 7> 웨따비

① ‘따비쇠’의 형태에 따라 ‘웨따비’도 주걱형과 말굽형으로 나뉜다. ‘느리’(행원), ‘보섭’(가과), ‘따비날’, ‘따비꽃’, ‘따비보섭’(오라 3동)이라고도 불렀다. 제주도에서 사용된 것은 거의가 주걱형으로 말굽형은 보이지 않는다.

② ‘몽쿨’은 쟁기의 ‘몽쿨’을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무쿨’(가과)이라고도 불렀다. 안쪽으로 20도 정도 휘어져 있으며, 주로 ‘가시낭’(가시나무), ‘콧낭’<sup>65)</sup>

65) 꾸지뽕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콧낭’(노형, 김녕, 수산, 서흥), ‘콧가시낭’, ‘콧가시낭’(서흥, 노형, 김녕, 수



<사진 43> 따비쇠



<사진 44> 따비쇠 측면

(꾸지뽕나무) 등 쉰 나무로 만들었다. 같은 쉰 나무이지만 ‘솔피낭’은 잘 부러지는 성질이 있어 피했다고 한다.

③ ‘양주머리’는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버둑’(행원)이라고도 불렀다. 주로 ‘폭낭’<sup>66)</sup>(팽나무)으로 만든 것이다.

④ ‘발받침’은 ‘발판’(행원), ‘발잡이’(가파), ‘발바테’(오라 3동), ‘가로대’, ‘버텅’, ‘발디딤’이라고도 불렀다. ‘따비날’에서 2.5cm 위쪽에 자리하여 박힌 것으로 땅에 쫓을 때 발로 밟는 곳이다. 주로 ‘가시낭’(가시나무)으로 만들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따비쇠’가 1.7kg, ‘몽클’과 ‘양주머리’가 2kg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몽클’의 길이 50cm 부분에서 160도의 각을 가지도록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산에서 사용된 것은 ‘몽클’의 길이 92cm, ‘양주머리’ 48cm, ‘발받침’의 길이 15cm, ‘따비쇠’의 길이 36cm, ‘따비쇠’의 넓이 10cm정도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웨따비 비교

구분	양주머리	길이	날길이	날폭	비고
애월 소길	45	103	미확인	11	
서귀 강정	56	114	34	10.5	
서귀 하예	55	113	38	11	
서귀 하효	탈락	101.5	27	11.5	
제주 해안	51	101	33	14.5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주머리’의 평균길이는 52cm, ‘몽클’의 평균길이 106cm, ‘날’의 길이도 33cm 내외이며 ‘폭’도 ‘쟁기날’의 ‘폭’과 같이 11.7cm 내외였음을 알 수 있

산이라고도 불렀다.

66) ‘국자’ 등의 민속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목재의 하나다. 저지대의 숲 속에도 드물게 자라나 주로 집 부근에 심거나 난다. 정자나무로 마을마다 심어 목재는 가구재(家具材), 건축재(建築材) 등으로 쓰인다. 또한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수고(樹高) 20m, 흉고(胸高) 직경 1.2m까지 자라는 낙엽교목(落葉喬木)으로 줄기는 직립(直立)하며 나무의 껍질은 회색을 띤다. 남한내에 5백여 그루가 조사된 바 있으며 성읍민속마을에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다. 좁은 ‘날’을 이용하는 쌍따비와 달리 넓은 ‘날’을 이용하더라도 ‘날’의 폭은 12cm를 넘지 않는 것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사진 45> 웨따비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1996. 9. 18.)



<사진 46> 웨따비  
(제주시 해안동, 1996. 8. 29.)

특히 ‘따비쇠’의 폭이 쟁기 ‘보섭’의 폭과 같이 11cm 내외이다. 물론 14.5cm나 되는 넓은 것도 있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갈이 많은 곳에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었던 여건을 반영한 제주도 풍토의 고유성을 반영한 농기구의 하나로 보인다.



<사진 47> 쇠따비  
(제주시 해안동, 1996. 8. 29.)

인력(人力)에 의존했던 작업에서 ‘웨따비’를 통해 효율을 높였고, 여기에 축력(畜力)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쟁기’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sup>67)</sup> ‘쟁기’는 축력을 이용하기 위해 ‘웨따비’에 단지 ‘성에’를 연결했으며, 견고하게 하고 ‘몽클’의 보존을 위해 ‘설칫’을 붙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전래의 따비를 변형시킨 ‘쇠따비’는 농경에의 이용보다는 장지(葬地)에서 광중(壙中)을 팔 때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밀감농사가 시작되면서 감귤나무의 뿌리를 캐낼 때 등에 주로 사용하였다. 폐차장(廢車場) 등에서 쇠를 구하여 변형시켜 만든 것을 쓰고 있다. 이러한 농기구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것은 자갈이 많

67) 朴虎錫, 『韓國따비에 관한 考察』, 『韓國의 農耕文化』(4), 京畿大學敎博物館, 1994, pp. 67~81.

고 잔뿌리가 무성한 뿌리를 캐야 하는 감귤농사와 광중(壙中)을 파야하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웨따비’는 얇지만 짧고 얇은 따비날이 하나이기에 가벼워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지만 일구는 부분이 작았다. 반면 ‘쌍따비’는 무겁고 커서 힘이 많이 들지만 한 번에 넓은 양을 일굴 수 있어서 면적은 거의 같았다. 잘하는 사람이 하루에 50평 정도를 일굴 수 있었다. 웨따비는 힘이 덜 들어 여자나 학생 등 힘이 약한 사람이 주로 이용했다. ‘쌍따비’는 따비 날이 두 개 달린 것으로 ‘웨따비’에 비해 작업 능률을 높이는데 적합했으나 힘이 많이 들어 힘센 사람이나 오래도록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진 48> 웨따비 사용(1960년대?)-우락기 사진

‘웨따비’의 경우 ‘양주머리’를 잡고 ‘발판’을 발로 밟아 찍은 다음 젓히면서 작업해 나간다. 보통 ‘쟁기’와 함께 ‘지게’로 젓서 밭으로 이동한다. ‘양주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발판’에 발을 올려놓은 다음 전체를 들면

서 ‘따비’의 무게에 발의 힘을 실어 땅 속 깊숙이 박는다. 박혀진 ‘따비’에 체중을 실어 ‘양주머리’를 눌러 준 다음 약간 움직여 비틀면서 뒤로 젓힌다. 그러면 깊숙하게 박힌 정도와 ‘따비’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면의 땅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따비 갈이’라고 하는 데,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50평 정도를 작업할 수 있다. 보통 2, 3명이 한꺼번에 작업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구려는 부분을 앞쪽으로 남겨두고 뒤로 물러나면서 작업해 간다. 이때 수눌어 작업했을 경우에 그 샅은 ‘검질매기’ 2일로 갇아준다.

황무지를 개간할 때 돌밭을 일구는 방법이다. 밭의 표면을 일구는 것과 같이 양주머리를 잡고 발판에 발을 얹은 다음 일구어 널 돌 틈의 틈 사이에 따비를 박고 양주머리에 체중을 실어 힘껏 뒤로 젓혀 작업해 간다. 특히 소로 갈 수 없는 잡초 밭 등을 이것으로 찍어 흙을 떠서 뒤엎고, 잡초는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흙이 나오도록 한다. 잘하는 사람이 해도 하루 50평 정도밖에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으므로, 수눌어 2~3명이 함께 작업했다.

‘쌍따비’인 경우 힘있는 사람은 2~3번 찌르면 들어가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5~6번을 찢러야 일구려는 만큼 들어간다. 목표한 만큼 들어가면 ‘느리’(날)를 양쪽으로 두 세 번 젖혔다가 또 밟아 찍어서 다시 노리를 양쪽으로 젖히고 일군다. 일의 능률은 위치에 따라 다르나 돌 많으면 적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할 수 있었다. 잘하는 사람이 하루에 50평을 젖혔으며 보통은 30평 정도였다.



<사진 49> 쌍따비 사용(1960년대?)  
-홍정표 사진

장지(葬地)에서 잔디를 떼는 방법이다. 잔디를 떼 때는 ‘웨따비’를 거의 쓰지 않고 ‘쌍따비’만 쓴다. ‘떼’(잔디)가 잘 자란 곳을 선정(選定)하고 옮겨갈 거리와 사람의 수를 보아 잔디의 크기를 정한다. 보통은 장방형(長方形)으로 1m정도가 되도록 찍어 올리는데, ‘즈록’(자루)을 잡고 ‘밭디덤’에 밭을 엮은 다음 ‘벤줄레대’로 돌아가면서 찍는다. 그런 다음에 반쯤 젖히고 ‘호미’로 잔뿌리를 잘라낸 다음 뜯어낸다. 보통 2~3명이 1시간 정도면 충분한 량을 작업해 낸다. 작업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가 남원, 안덕, 대정 등지에서 <따비질 소리>라 하여 전해오고 있다.<sup>68)</sup>

### (3) 벤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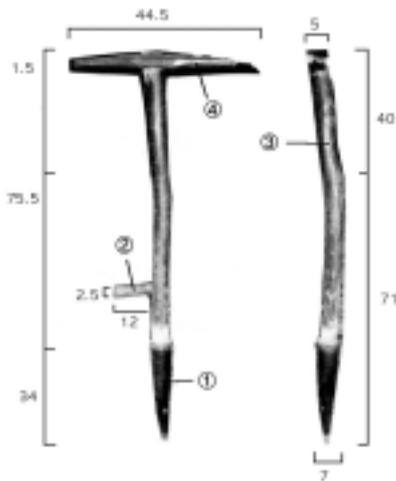
김녕 고산, 수산<sup>69)</sup> 등지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벤질레’, ‘벵줄레’(귀덕), ‘벳겔레’(서흥)<sup>70)</sup>, ‘송곳따비’, ‘외날따비’라고도 불렀다.

개간(開墾)할 때나 밭갈이를 할 때 깊이 묻혀 있는 돌을 흔들어 캐 때 주로 썼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 때나 장지(葬地)에서 땅을 일굴 때 등 ‘쟁기’는 물론 ‘따비’나 다른 도구<sup>71)</sup>로도 일굴 수 없는 곳의 돌 등을 파내는 데 쓰였다.

68) 조영배, 『우리고장전래민요』, 도서출판예솔, 1996. p. 355.에 의하면 ‘따비’를 들어 올린 후 찍듯이 쪼는 과정과 찍은 후 ‘따비’를 흔들어 떼를 일구는 과정,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자연히 <따비질 소리>도 이러한 과정에 맞추어져 장정(壯丁)들에 의해 불려졌으며 혼자서 불렀던 것과 그렇지 않는 경우의 것이 구분되기도 하였다.

69) 김광연, 『農耕』,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4. p.179.

70) 高橋昇(洪性穆譯), 앞의 책, p.78.



<그림 8> 벤줄레



<사진 50> 벤줄레대



<사진 51> 벤줄레 지고 가는 모습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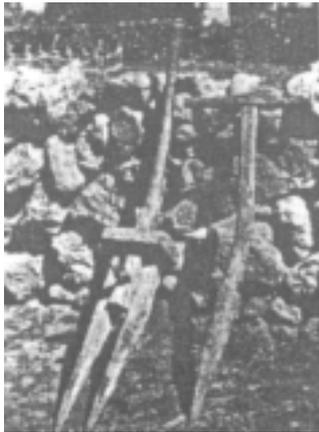
‘벤줄레대’를 끼우도록 된 ‘몽클’에 ‘양주머리’와 ‘발받침’을 붙인 것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T’字형을 이룬다. 김광연(1998:276)은 로스엔젤레스 남서박물관 소장품과 비슷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선사시대의 농기구의 하나인 ‘뒤지개’(掘棒<sup>72)</sup>가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호석(2000:75)도 ‘벤줄레’를 ‘따비’의 하나로 보았다. 그는 따비를 ‘외날따비’와 ‘쌍날따비’로 구분하고 ‘외날따비’를 다시 주걱형, ‘말굽쇠형’, ‘송곳형’으로 구분하여 살핀 바 있는데, ‘벤줄레’를 ‘송곳형 외날따비’로 보고 있다.

① ‘벤줄레대’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2.5kg정도가 된다. 벤줄레대는 전체적으로 원추형(圓錐形)으로 되었으며 아랫부분에서 14cm되는 곳까지는 4각형으로 그 윗 부분이 원통형(圓筒形)으로 되었으며 뒷부분의 벌어진 부분이 7cm정도가 되었다. 전체무게는 3.5Kg정도였다.

② ‘발받침’을 ‘발디담’이라고도 불렀다. 땅에 콧을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발로 밟을 수 있도록 ‘몽클’에 콧을 가로 막대를 말한다.

71)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좀 괜찮은 분네는 마을 사람 다를 부르지만 그렇지 않는 좀 덜한 집안에서는 마을을 동서로 갈라 반쪽의 분들을 불러 산역을 부탁한다. 그러면 2~3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때 자기 집에는 없으면 남의 것이라도 빌어 참석하게 된다. 이때 가져가는 도구들을 보면 쌍따비,웨따비 합쳐 3, 팽이 3, 벤줄레 2, 낭갈래죽 2(나중에는 삼), 골채 3, 맥 3 ... 등이다.

72) 安承模, 『뒤지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432~433.에 의하면 땅속을 뒤지거나 땅에 구멍을 내는 데 썼던 것이다. 긴 막대기로 옆에는 발로 밟아 누를 수 있도록 작은 가지가 달려 있기도 하며 끝이 뾰족하다.



<사진 52> 벤줄레(1939년)  
-高橋昇 사진

③ ‘몽클’은 안쪽으로 10도 정도 오그라진 것으로 사용하였다. 양주머리에서 몽클의 길이 40cm되는 곳에서 160도 각을 이루며 굽혀져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료는 쉰 나무인 ‘가시냥’(가시나무)을 주로 썼다. ‘몽클’의 굽기는 5cm정도이나 ‘벤줄레대’가 박히는 부분의 굽기는 7cm정도였다. ‘양주머리’와 ‘몽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굽기 2cm, 폭 1.5cm, 길이 9cm 정도의 ‘세역’을 박았다.

④ ‘양주머리’를 ‘양지머리’, ‘양귀머리’라고도 불렀다. ‘따비’와 같이 ‘벤줄레’의 손잡이다. ‘벤줄레’는 자주 쓰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몽클’이나 ‘발받침’ 등을 점검하면서 쓰면, 10년까지도 썼다고 한다.



<사진 53> 벤줄레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996. 9. 18)

북군 애월읍 상가리 1748번지의 변○○(男, 1917년생)의 ‘벤줄레’는 ‘양주머리’가 박힌 흔적이 ‘몽클’에 자국으로 남아 있으나 조사시에는 볼 수 없었다. 총 길이 113cm 정도이며, ‘날’의 길이는 44cm, ‘목’의 직경은 6cm 정도이다. 수산2리에서 사용된 것은 ‘양주머리’의 길이가 51cm, ‘몽클’의 길이 70cm, ‘벤줄레대’의 길이 52cm 정도의 것이었으며 무게는 7kg 정도였다.(김광언, 1974:179)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벤줄레’의 기능상 받개를 할 때 ‘쟁기’나 ‘따비’ 등과 함께 쓰였을 것이고, 개광(開鑿)할 때도 ‘따비’ 등과 함께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따비’의 역사만큼 오래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할 때 체보자들은 1970년대까지도 제주시 해안동, 북군 애월읍 유수암리, 서귀포시 하효동 등지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노출되지 않는 돌이 아니면 처음부터 ‘벤줄레’만으로 캐내지는 않는다. ‘벤줄레’가 없으면 요사이 는 ‘목괩이’를 대용했지만, 옛날에는 작업하다 꺾어지면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등 큰 낭패를 보았다고 한다. 마차가 있으면 마차에 실어갔지만, 없을 때는 보통 ‘쟁기’나 ‘따비’ 등과 함께 ‘지게’로 져서 밭으로 이동하거나, 땅을 일구면서 생각지 못한 돌 등이 나올 때를 대비해 일부러 갖고 간다. 강정의 경우 일제시대 이후에 쇠가

좋아지면서 ‘철괘’<sup>73)</sup>가 나오자 ‘벤줄레’는 쓰지 않게 된 것<sup>74)</sup>으로 그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54> 벤줄레 사용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4. 4)

2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 먼저 캐 내어 야할 돌 주변을 정리한 다음 ‘벤줄레대’를 돌 틈에 댄다. ‘양주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발받침’에 발을 올려놓은 다음 조금 흔들어 틈을 넓힌 다음 전체를 들면서 ‘벤줄레’의 무게에 발의 힘을 실어 땅 속 깊숙이 박는 과정을 반복 해 어느 정도 박히면 다른 방향으로 한 번을 비튼 다음 뒤로 젖힌다. 이렇게 하여 약간의 틈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틈에 ‘따비날’이나 다른 ‘벤줄레’를 넣어 틈을 확보한 다음 다른 곳을 찢러 일으키게 된다. 돌의 무게를 감안하여 박혀진 ‘벤줄레’에 체중을 실어 ‘양주머리’를 눌러 준 다음 약간 움직여

비틀면서 뒤로 젖힌다. 그러면 깊숙하게 박힌 정도와 돌의 크기·‘벤줄레’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돌이 일어난다. ‘쟁기’나 ‘따비’ 등으로 발을 일구다가 하는 작업이므로 힘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몽클’이나 ‘벤줄레대’가 튼튼해야 했다. 별도로 하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작업능률은 알 수 없다.



<사진55> 산담 모습  
-泉靖-사진

‘장죽’이라 하여 산담을 쌓을 때도 돌 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가 돌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작업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돌을 만지는 사람과 협조자 15명 정도<sup>75)</sup>가 참여한다. 도구로는 돌 캐는데 쓰는 ‘따비’, ‘벤줄레’ 5개, 쌓아 올리면서 사용하는 ‘돌망

치’ 5개, 돌을 옮기는데 쓰는 ‘굴채’, ‘산태’, ‘돌산태’ 5개 등이다.

73) 남군 대정읍 무릉리 1156-3번지의 이○○(男, 1931년생)의 ‘지렛대’를 살폈다. 길이 126cm, 지름 2.2cm 정도의 것이다.

74) 尹京老, 앞의 책, pp. 153~181

75) 위치나 기간에 따라 투입하는 사람의 수가 정해진다. 돌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졌거나, 높은 곳일 수록 힘들는데 보통 경운기를 개조한 딸팔이(?)로 12개 정도의 돌이 필요하다.

현지 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라 3동에서도 돌 일구는데 지렛대 대신 썼으며 간혹 생 땅을 가는 데도 썼다. 몽클을 ‘가시냥’(가시나무) 등 쉰 나무로 만들어 썼다. 조천에서도 자루 길이가 90cm, 쇠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벤줄레’를 썼으며, 하효에서도 ‘담비’와 함께 영장 밭에서나 자갈밭에서 돌을 일으킬 때 썼다. 질긴 나무인 ‘콧냥’(꾸지뽕나무)이나 ‘가시냥’(가시나무)으로 만들었는데, 1개 반에 하나 정도 있는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고 한다.

#### (4) 팽이

김녕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광이’(오라 3동, 사계, 고산), ‘팽이’(귀덕)이라고도 불렀다. 귀덕에서는 날의 끝이 황새 주둥이처럼 가늘고 뾰족한 것으로 자루를 중앙에 있는 괴통에 박도록 된 것을 특히 ‘목팽이’, ‘꼭팽이’라고도 불렀다.

‘쟁기’로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밭이나 ‘우영’ 등을 파 일굴 때 주로 썼다. ‘쟁기’로 밭갈이를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없는 담 밑의 밭을 일굴 때는 물론 산간마을에서 갓 개간(開墾)한 밭의 흙덩이를<sup>76)</sup> 부술 때도 썼다.



나무로 ‘자루’를 만들어 붙여 사용했을 ‘팽잇날’로 보이는 것이 제주도의 선사 유적지인 ‘곽지패총’에서 출토된 바 있고,<sup>77)</sup> 또 김녕리 입산봉(笠山峯)에서는 출토된 ‘돌팽이’도 있어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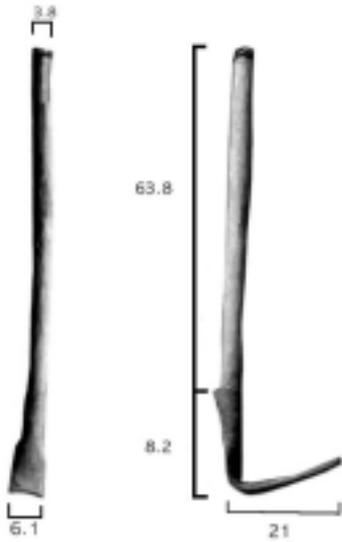
오래전부터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78)</sup> 예전에도 지금처럼 생활의 기본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홍희유는 중국 ‘팽이’의 ‘날끝’이 넓은 장방형(長方形)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것은 날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 특징임을 지적하고, 이는 사력질(砂礫質)의 굳은 땅을 파 일구는데 편리하게 창안 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sup>79)</sup>

76) 이런 흙덩이를 두고 ‘켓밭병에’라고 했다.

77) 濟州大學校博物館, 『郭支貝塚』, 濟州大學校博物館, 1983, p. 45.

78) 이청규, 『濟州道 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p. 23.

79) 홍희유, 앞의 논문, p. 129. 김광언(1969:67.) 논문 하루 30평, 밭은 100평 정도 ‘팽이’로 작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9> 괭이



<사진57> 목

괭이는 ‘자루’와 ‘날’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ㄱ’字形을 이룬다. ‘자루’에 괭이의 ‘날’을 끼우고 쇠못을 박아 고정 시키거나 자전거 튜브 등의 고무제품을 끼워 튼튼하게 고정시킨 뒤 사용하였다.

① ‘날’에는 ‘자루’를 박을 수 있도록 둥그렇게 만든 부분인 ‘목’이 붙어 있다. ‘날’의 형태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장방형(長方形)의 ‘날’을 가진 것을 그냥 ‘괭이’라 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뿔’ 같이 생긴 것을 ‘뿔괭이’라 했다. 질왓의 밭에서나 자갈이 많은 곳에서 사용했다. 또 ‘날’의 폭이 넓고 둥글어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섬괭이’라 했고, 한쪽은 뿔괭이, 또 한 쪽은 약간 날의 폭이 넓은 것을 ‘섬뿔괭이’라고 했다. 또 한 쪽으로 뾰족하고 날카로운 ‘날’만을 가진 것을 ‘약초괭이’라 하여 달리 사용하였다. ‘약초괭이’는 뿌리를 캐낼 때 주로 썼다.<sup>80)</sup> 보통 2~3명이 1시간 정도면 도라지 밭 50평 정도를 작업해 낸다.

② ‘자루’는 힘을 많이 받는 곳이어서 질기고 끈은 ‘죽냥’<sup>81)</sup>(때죽나무), ‘굴무기’(느티나무) 등을 가려서 사용하였으므로 오래 쓰는 사람은 5~6년 이상 사용했다고도 한다.

80) 요사이는 비닐하우스내에서 좁은 공간의 흙을 긁어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다.

81) 빨래방망이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했던 목재로 ‘죽냥’이라고도 불렸다. 주로 해발 1,400m 이하의 숲속에서 흔히 자란다. 落葉小喬木으로서 높이가 10m에 달하는 것도 있다.

<표 13> 괭이 비교

지역	명칭	자루길이	날길이	날폭
제주	곡괭이	73	53	
"	못괭이	79	59	
"	괭이	112		
"	"	67	17	6
"	"		22	7
"	약초괭이	91	22	
"	"	50	22	
"	"	55	16	
경상 거제	괭이	109	24	
"	삿괭이	79	12	3.7

<표 13>는 ‘괭이’를 비교한 것이다. 자루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편리하도록 길이를 정하였다. ‘곡괭이’는 주로 자루 길이 60cm, 무게 3.2kg 정도의 것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58> 괭이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1996. 9. 19.)

<사진 59> 목괭이  
-박물관

<사진 60> 섭목괭이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1996. 9. 19.)

<사진 61> 섭괭이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996. 9. 18.)

<사진 62> 괭이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1996. 9. 12.)

<사진 63>  
약초괭이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4. 3. 18.)

‘괭이’는 쟁기로 밭갈이를 할 만치 크지 않은 밭 중 자갈이 많지 않고 무른 밭을 일구는데 주로 쓰였다. ‘섭괭이’는 밭담 밑의 에움을 일구거나 밭을 갈아 두둑과 고랑을 만들고 파종할 때 콩 등을 심을 자리를 팔 때 사용했다. 특히 파나 감자 등을 파종하기 위해 이랑을 만들 때 흙을 올려주는데 썼으며,<sup>82)</sup> 짧은 자루의 ‘섭괭이’는 고구마를 캐 때 썼다.

82) 애월의 이진보씨는 ‘섭괭이’는 예전에 담배를 심으라고 전매청에서 보급해 준 이후 사용하게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목쟁이’(곡쟁이)는 다른 쟁이들 보다 무겁고 날카로우므로 여자들이나 아이들보다는 남자 어른이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또 작은 규모의 돌을 켤 때도 사용하였으며, 굳은 땅이나 돌이 많이 섞인 땅을 일굴 때 날카로운 날로 찍어 일으키며, 자갈 등을 캐낼 때도 썼다. 이때는 자루의 윗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는 그 중앙을 잡은 다음 일구려는 곳을 정하여 힘껏 들어올린 다음 깊게 내리 찍는다. 그런 다음 자루를 조금 앞뒤로 움직여 흔든 다음 자루를 뒤로 젖혀 굳은 땅을 일군다. 이때 많은 힘이 요구된다.

육지의 경우 ‘가짓잎쟁이’, ‘토란잎쟁이’, 엄지손톱처럼 판판하고 끝이 둥그스름한 것 등이 다양하게 쓰였으며, 무게는 1kg에서 1.8kg 정도가 되었다.<sup>83)</sup> 경북지방에서도 ‘담배쟁이’가 쓰이고 있다.<sup>84)</sup> 강원도에서는 ‘물푸레나무’로 자루를 하는데 1~2년 정도 사용한다. 다른 농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에서는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였던 ‘쟁이’는 보통 2~3년은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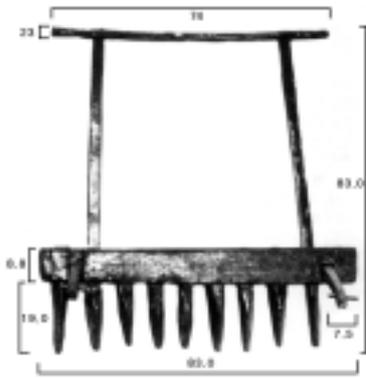
<사진 64> 오일장 농기구 판매상  
(제주시 사라봉밀 오일장, 1996. 4. 4.)

쟁이 작업은 각각의 ‘쟁이’가 갖는 별도의 용도를 쓰이지만 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파야할 곳을 정하고 ‘자루’를 잡고 바로 선다. ‘날’에 힘이 실리도록 하고 뒤로 젖혔다 찍는다. 찍혀진 땅이 깊으면 뒤로 젖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굽어낸다. 무겁진 않지만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이므로 땀이 많이 나고 힘이 드는 편이다.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100평 정도를 작업할 수 있다. 가족끼리 하는 작업이어서 혼자 혹은 2~3명이 작업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구는 부분을 앞쪽으로 남겨두고 작업해 간다. 수눌어 작업했을 경우에 그 샅은 ‘검질매기’ 2일로 갚아준다. 경남 지역에서는 흙이나 땅을 파헤치는데 쓰는 ‘쟁이’를 첫 장에 가서 사지는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 해의 재물복(財物福)을 파헤쳐 버릴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83)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p.40

84) 배영동, 앞의 논문, p. 197.에 의하면 선호미와 쟁이의 기능을 복합한 농기구로 담배와 고추 재배에 활용하고 있다.

(5) 씨레



<그림 10> 씨 레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1999)  
-고광민 사진

강정, 한경 등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설레'(수산), '서흘레'(감산)라고도 불렀다.

논 갈이를 하고 나서 덩어리진 흙덩이를 풀 때 주로 사용했다. 쟁기로 논을 갈고 나서 논에 물을 넣은 후 씨레질을 하였다. 이때 흙이 많아 높은 곳이 있으면 본격적인 '밀레질'을 하기 전에 낮은 곳으로 밀면서 논 바닥이 편편해 지도록 고르는 데도 썼다.

'씨레'에 관한 옛 기록을 『農事直設』에서 '木斫'로 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65> 씨레 몸통과 발

씨레는 '발'이 붙은 '몸통'과 손잡이가 붙은 '채경', '멍에'의 '벌레'에 연결하는 '채경'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ㄴ'자형을 이루고 있다. 몸통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소냥'(소나무)로 만들었으나 '발'은 참나무나 박달나무 등으로 만들어 썼다.



<사진 66> 붓줄채경

① '몸통'은 긴토막나무에 둥글고 끝이 뾰족한 '날'이 6~10개를 빗살처럼 나란히 박은 것이다.

② '채경'은 손잡이를 고정하기 위해 '몸통'에 박은 사각형의 가는 막대기이다.

③ '붓줄채경'은 소의 축력을 이용하기 위해 '멍에'에 연결된 '벌레'에 연결하는 것으로 몸통에 붙인 것이다.

'번지판'이라하여 넓고 긴 나무를 씨레 발 밑에 대고 모판을 다질 때 등에 쓰기도 했다.

(6) 곱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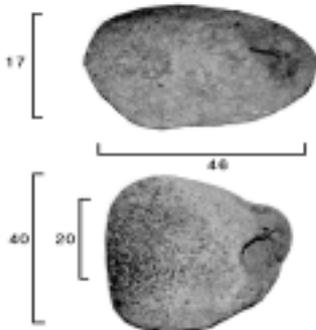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쇄 가르치는 돌'(하효), '콧돌'(송당), '땀돌'

(월평)이라고도 불렀다.



<사진 67> 소 가르치는 모습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1980년대)  
-뿌리깊은나무 사진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송아지가 3살 정도가 되면 밭갈이를 시키기 위해 쟁기질을 가르친다. 이때 쟁기 대신에 묶고 밭갈이를 할 때처럼 마을 안길 혹은 빈 밭을 오가며 가르칠 때 사용하였던 돌덩이를 말한다. 애월에서는 ‘거멀장’을 박은 ‘냥’을 끌게하였다.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하나 혹은 둘이 있는 정도였다.



<그림 11> 곰돌



<사진 68> 곰 돌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북제주군 구좌읍 대천동)  
- 제주대학교박물관 자료

일정한 형태를 지니지는 않지만 ‘멍에’에 붙은 ‘오리목’에 걸 수 있도록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코’가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자갈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밭갈이 때 별로 힘이 들지 않으므로 ‘곰돌’도 작은 것을 사용

하였다. 반면에 자갈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다 큰 것을 사용하여 가르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갯찻’ (갯돌찻)을 고리를 달아 이용하기도 하였고, 나무토막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직경 20cm, 길이 250cm 정도 되도록 나무를 자르고 한쪽 끝에 ‘거멀장’을 박아 ‘고리’를 만든 다음 사용하였다. 그러나 밭갈이를 경운기가 대신하게 됨으로써 사라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

<표 14> 곰돌 비교

구 분	고리길이	가 로	세 로	두 께	무 게
곰 돌	-	37	35	13	20
곰 돌	8	48	16	12	33
곰 돌	10	52	43	30	57.5

<표 14>는 부정형의 ‘곰돌’이 사용되었음 보여준다. 그러나 큰 것은 57.7kg 정도의 것



<사진 69> 곰돌 사용(1960년대?)  
- 고평민 사진



<사진 70> 곰돌(제주시 아라동,  
1996. 9. 4.)

이 이용되었지만, 작은 것은 20kg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시 월평동 507번지의 김○○(女, 1920년생)의 ‘곰돌’의 경우 현무암으로 장방

형(長方形)을 이루고 있고 한쪽에 ‘오리목’에 연결한 ‘고리’를 걸 구멍이 나있다. 긴 쪽의 길이가 34cm, 폭은 27cm 정도이다.



<사진 71> 소 가르치는 모습  
(북제주군 우도면, 1980년대?)  
- 고평민 사진

3살 정도가 되면 가르쳤다. 주로 밭갈이를 직접할 어른들이 겨울철 늦은 오후에 시작해 하루 3~4시간씩 일주일 정도 가르치면 ‘쟁기질’을 할 수 있다. 겨울철 마을 내 농로(農路) 등 도로에서 이루어졌는데 밤늦도록 일해야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오후에 시작하여 밤늦도록 길들이기에 정성을 쏟기도 하였다. 모래밭에서 ‘쟁기’를

메어 가르치기도 했다. 작업에 활용하지 않을 때는 외양간 옆 공터 같은 곳에 두고 보관·관리하기도 하였다.

자갈이 많은 밭을 가진 제주에서 밭갈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다. 그러므로 밭갈이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길들여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지역성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곰돌’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공질 현무암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 많은 화산섬의 제주도를 특징짓는 고유 농기구의 하나로 생각된다.

## 2. 씨뿌리는 연장

파종을 위해 갈이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파종에 임한다. ‘씨부게’에 보관했거나 씨항에

담아 보관해 왔던 종자를 ‘멜망텡이’에 담아 산파(散播)한다. 이를 ‘씨뺨다’(씨 뿌린다)고 하는데, 심는 방법으로 파종하는 육지와는 달리 제주도 농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1) 멜망텡이



<사진 72> 멜망텡이 사용(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980년대)

‘씨앗망태’ 즉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작은 ‘뻬’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과, 용수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렸던 명칭이다. 또 ‘씨뿌개’(수산), ‘망태’(수산), ‘밀망텡이’(고산), ‘밀맹텡이’(곽지), ‘맹망텡이’(용수), ‘씻망텡이’, ‘씨맹텡이’(조천), ‘망텡이’(호근), ‘디멜망텡이’, ‘끈 망텡이’<sup>85)</sup>라고도 불렀다.

파종할 때에 끈을 매어 어깨에 메고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때로는 고구마, 감자, 곡물 등을 담아 나르는 데에도 쓰였다. 특히 용수에서는 작은 ‘망태기’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던 것이나 구좌·김녕 지역에서는 여자들도 가리지 않았다. 파종을 할 때 씨나 비료를 담아 어깨

에 메고 다니면서 사용하였으며, 많지 않은 양의 퇴비<sup>86)</sup> 및 돛거름 등을 뿌릴 때도 사용했다. 밭에 갈 때 ‘차룻’(도시락)을 담아 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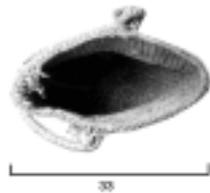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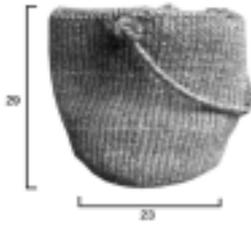
‘멜망텡이’와 같은 기능의 것으로 씨를 뿌릴 때 사용했던 ‘다래끼’류에 관한 옛 기록은 『月餘農家』에 ‘耬斗’(씨앗뿌리는 그릇)라는 기록(김광연, 1986:348~432)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크게 ‘망텡이’와 ‘친’(끈)으로 구성된다. 세분하여 ‘망텡이’는 다시 ‘굽’과 ‘전’, ‘바위’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을 이룬다. 무게 0.7kg 내외의 것이 쓰였다.

① ‘망텡이’는 산뒤희를 재료로 하는데 두드려서 새끼를 꼬아 ‘속늘’(안의 끈)을 만들고 산뒤희를 정선해 엮어 만들었다. 크기는 1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았다. 너무 크면 어깨에 메고 작업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한 번 만들면 10년 정도는 썼다.

85)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濟州道部落誌』I,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2, p. 336.

86) 여름 퇴비 철에 한낫 더위를 피하여 새벽을 이용해 한 두 짐씩 풀을 베어 퇴비를 만들어 두었다가 밭에 주면 토양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등 지력(地力)을 향상시켜 소출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의 속담 “꼭두 새벽 풀 한 짐이 가을나락 한섬이다.”가 전해오고 있다.



<그림 12> 멜망태이



<사진73> 멜망태이 굵



<사진74> 차름 진 모습  
泉靖一 사진

쓰지 않을 때는 비나 습기를 피할 수 있는 헛간의 ‘공쟁이’에 걸어 보관하였다. 농사를 짓는 집 중 남자들이 있는 집에서 갖추고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료는 산뒤짚 이외에도 나록짚, 신서란<sup>87)</sup> 등을 구해서 쓰기도 하였다. 아무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보통 가정에서는 사서 썼으나, 없으면 빌려도 썼다.

1말 정도 들어가는 ‘멜망태이’의 경우 ‘굽’ 18줄을 포함하여 씨줄 94개를 세워 늘줄을 엮었는데 34번을 돌려 가장자리에서 마감하였다. ‘굽’은 긴쪽 20cm, 짧은 쪽이 12cm 정도였으며 높이는 23cm 정도 였다. ‘늘’(날)의 굵기는 2개가 1.5cm 정도 되었다.

② ‘찐’(끈)은 짚으로 만들어 썼으나 오래 쓰기 위해 형겅으로 넣어 만든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바닥인 ‘굽’은 원형으로 엮어 몸통 부분인 ‘멩태이’로 올려 전체적으로 원통형으로 만들었다. 어깨에 매는 끈을 세 겹으로 엮어 땅아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가장자리에는 형겅으로 만든 ‘끈’으로 ‘코’를 만들어 연결하여 부드럽게 하였다. 또 다른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바닥인 ‘굽’을 방형(方形)이 되도록 별도로 만들었으며 몸통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통형이 되도록 올려 엮었다. 짚으로 만들어 ‘미’로 만든 것보다 뽕뽕함이 덜 했다. 원통형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몸통 가장자리를 ‘미’로 마감하였다. 어깨에 매는 끈은 두 줄로 만들었으며 원통의 가장자리에 끝을 걸어 어깨 ‘끈’에 연결하였다. ‘거름착’보다 작고 노끈으로 입구 좌우를 묶어서 어깨에 멜 수 있도록 하였다.

육지에서는 ‘대’나 ‘짚’으로 네모지게 만든 ‘다래끼’와, 이 보

87) 행원에서는 ‘노’(가는 새끼줄)를 만들어 썼다. 사람 죽어서 수렴(收斂)을 할 때 사용하는 줄로도 썼다. 1960년대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없었다. 수렴 때 예전에는 창호지로 지승(紙繩)을 만들어 썼다. 표선의 제주민속촌에서는 이것을 가공하여 ‘초신’을 만들어 팔기도 하였다.

다 조금 작은 것으로 가는 싸리나무로 만든 ‘종다래끼’가 사용되었다. 같은 기능으로 강원도에서는 ‘짚’으로 네모나게 만든 것을 옆구리에 둘러차고 썼던 ‘종다래끼’가 있었다.(김광연, 1969:39.) 경북지방에서는 ‘씨앗망태기’, 전남지방의 ‘씨앗망태’, ‘씨앗소쿠리’와는 형태에서 조금의 차를 보이는 편이다.(광주시립박물관, 1993:12.)



<사진 75> 멜망텅이 사용(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4. 4.)

북군 애월읍 소길리 583번지의 양○○(男, 1946년생?)의 ‘씨망태’를 살필 수 있었다. 지름 30cm, 높이 20cm 정도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서귀포시 하효동 고석진(男, 1945년생?)의 ‘멜망텅이’를 살핀 것이다. 장방형의 것으로 긴쪽의 길이 33cm, 짧은 쪽이 29cm, 높이는 27cm 정도의 것이다. 오라 3동에서는 ‘씨망텅이’라고 불렀으며 씨를 뿌릴 때 사용했다. 소두(小斗) 1말 정도가 들어간다. 밭에 갈 때 도시락을 넣어 가는 ‘점심 차룽’이 별도로 쓰였지만, 없을 때는 이것에 담아 가기도 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달아 매어둔다. 가파에서는 125평 정도를 1말지기로 보고 있는데, 파종 때는 이 정도 밭에 뿌릴 만큼의 양을 ‘멜망텅이’에 담아 쓰곤 했다.

### 3. 거름 주는 연장



산간 마을에서 경작은 10년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척박한 곳이었다. 이렇게 척박한 토양을 가진 제주도에서 농경은 상당히 많은 양의 거름을 요구할



<사진 76> 뚝방(1960년대?)  
- 泉靖 - 사진

였지만 거름의 확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윤경(輪耕)을 통한 ‘쉬들림’의 지혜와 해초(海草), 해수(海水), 재(灰), 퇴비, 돛거름, 오줌 등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 많은 양을 확보하여 이용하였다. 거름으로 이용한 해초(海草)로는 ‘듬북’(風操)이 있다. 뚝방은 폭풍 뒤에 해안으로 불려온 것을 넣어 말린 다음 ‘듬북날’로 만들어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해안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들을 채취할 때 사용하였던 연장이 ‘중계호미’였으며, 이를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던 것이 ‘바작을 엮은 지게’였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호미’와 ‘지게’를 다루는 곳에서 따로 살핀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름은 ‘똥거름’이었다. 똥거름은 ‘똥통’에서 만들어진다. ‘똥통’은 사람이 변을 보는 ‘통시’와 돼지우리인 ‘똥집’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을 이룬다. ‘통시’에는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딜팡’과, 사람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앞을 가린 ‘간장담’이 있을 뿐이다. ‘똥집’은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곳으로 그 앞쪽에 먹이통인 똥도고리가 2개 정도 놓여있다. 이곳에서 돼지는 사람의 인분을 주로 먹고사는 돼지의 분과 바닥의 ‘검질’ 등에 섞여 ‘똥거름’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분을 주로 옮기는데 사용하였던 똥장군을 제주도에서 살필 수 없으며 오줌만을 보관하고 담아 옮기는데 사용하였던 ‘오줌항’과 ‘오줌허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 ‘똥통’에서 ‘똥거름’을 낼 때 사용하였던 ‘쉐스랑’과 옮길 때 사용하였던 ‘거름착’, 그리고 밭에 줄 때 주로 사용하였던 ‘굴체’ 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사진 77> 똥통(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2002. 5. 12.)

형)을 이룬다. ‘통시’에는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딜팡’과, 사람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앞을 가린 ‘간장담’이 있을 뿐이다. ‘똥집’은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곳으로 그 앞쪽에 먹이통인 똥도고리가 2개 정도 놓여있다. 이곳에서 돼지는 사람의 인분을 주로 먹고사는 돼지의 분과 바닥의 ‘검질’ 등에 섞여 ‘똥거름’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분을 주로 옮기는데 사용하였던 똥장군을 제주도에서 살필 수 없으며 오줌만을 보관하고 담아 옮기는데 사용하였던 ‘오줌항’과 ‘오줌허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 ‘똥통’에서 ‘똥거름’을 낼 때 사용하였던 ‘쉐스랑’과 옮길 때 사용하였던 ‘거름착’, 그리고 밭에 줄 때 주로 사용하였던 ‘굴체’ 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 (1) 쉼스랑(쇠스랑)

‘쇠시랑’(오라 3동, 강정, 온평, 고산), ‘쇠시랑’(김녕, 수산), ‘소스랑’(하효, 가파, 대평), ‘소시랑’(오라 3동, 행원), ‘쇠시랑’(귀덕), ‘쉐시랑’(용수, 귀덕), ‘쉐시랑’(수산, 김녕)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었다. 쇠스랑의 고어(古語)는 ‘쇼시랑’이다.

‘쉐왕<sup>88)</sup>이나 ‘똥통’에서 거름을 낼 때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병에’를 풀거나 밭을 일굴 때, 똥거름을 밭으로 옮겨 흩뿌리는 데도 썼다. 간혹 이긴 하지만 ‘더덕’ 등 약초를 캐 때도 사용하였다. ‘쟁기’로 갈 수 없는 곳이나, ‘쟁기’를 빌릴 수 없는 할머니가 작은 밭을 짚어서 일구는 데도 썼다. 이 밖에도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에 ‘흙질’을 하여야 했는데, 이때 사용할 재료를 만들 때도 썼다. ‘쉐스랑’으로는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1,000여 평의 밭을 고를 수 있다.(김광언, 1995(13):332)

88) 濟州道, 앞의 책, p. 332에 의하면 어도, 인성, 하원에서 ‘쉐막사리’, 태흥, 표선, 노형에서 ‘쉐마귀’라고도 한다.



<사진 78> 웨스랑 사용(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4. 4.)

‘웨스랑’에 관한 옛 기록은 『農事直說』에 鐵齒擺(철치과, 향명 手愁音), 『河緯地の遺書』에 小時郎, 『攷事新書 農圃門』에 小屎郎(소시랑), 『課農小抄』에 鐵搭(철답)이라 기록(김광언, 1986:398~432.)되어 전해 오는 것으로 보아 1429년 이전부터 사용한 기본 농기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사시대 유적 발굴 등을 통해 볼 때 울산 중산리, 경주 황남대총, 경산 조영동에서도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철기 시대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홍도의



<그림 13> 세발웨스랑

풍속화첩에서도 ‘웨스랑’으로 밭갈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김재홍, 2000:80.) 손잡이인 ‘자루’와 쇠



<그림 14> 두발웨스랑



<그림 15> 네발웨스랑

로 만든 ‘날’로 구성된다. ‘날’만을 오일장 등에서 구입해 자루를 박아 만들어 썼으므로 자루의 재료는 다양한 편이었다. 다양한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쇠로 네 개의 발을 가진 ‘호끄’(저지), ‘후꾸’(고산)라고 불리는 것으로

‘웨왕’의 거름을 퍼내거나 퍼낸 거름을 올릴 때 쓰는 것이 도입되어 함께 쓰이고 있다. ‘호끄’는 포크처럼 발과 몸이 곧게 퍼진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것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웨스랑’을 찍어서 파내는 거름구로 쓰는 반면 밀어 퍼내는 거름구로 ‘거릿대’가 쓰

이기도 하였다.(박대순, 1995(8):655)



<사진 79> 호꼬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1996. 9. 12.)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꺼번에 구할 수도 있었다. 또 가볍고 오래 사용하여도 손이 아프지 않아 선호하는 편이다.

① ‘자루’는 든든하고 야문 것이 필요했으므로 주로 ‘솔피낭’(쇠물푸레나무)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라 3동에서는 ‘가시낭’(가시나무)이나 ‘죽낭’(때죽나무)으로, 행원에서는 ‘블레낭’(보리수나무)이나 ‘아카시아’, ‘돛박낭’(동백나무)을 사용했다. ‘죽낭’은 쉽게 구할 수 있었을



<사진 80> 솔피낭 자루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1996. 9. 16.)

② ‘날’은 대장간에서 만들어 오일장 등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날’의 발 숫자에 따라 두발 쉼스랑, 세발 쉼스랑, 네발 쉼스랑으로도 나누어진다. 육지의 경우 발이 일곱 개가 달린 것도 사용되었다고 하나 현지조사시 찾아 볼 수는 없었으며, 대개의 무게는 1.3kg에서 1.7kg 정도였다고 한다.(김광언, 1969:42) 강원도에서는 ‘두엄’을 치고 논외 흙을 두드리는 데 주로 3발 쉼스랑을 썼다.



<사진 81> 죽낭 자루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996. 9. 18.)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날이 3개인 세발 쉼스랑을 살필 수 있다. ‘자루’가 가늘어 날에 끼우는 부분인 ‘목’보다 더 길게 나와 있다. ‘자루’와 ‘날’의 각이 75도 정도로 약간 굽어 있으며, 무게는 0.3kg 정도 되었다.

또 다른 박물관 소장자료에는 ‘날’이 두 개인 두발 쉼스랑도 있다. ‘자루’와 ‘날’의 각이 80도 정도로 약간 굽어 있다. 세발 쉼스랑에 비해 ‘날’의 두께가 더 두터웠다.

<표 15> 웨스랑 비교

구분	자루	날폭	날길이	비고
대정 무릉	114	21	19	
표선 성읍	127	22	19.5	
애월 상가	125	20	19	
애월 유수암	102	13	19	
서귀 상호	145.5	17	22	
제주 해안	103	20.5	20	김입학 5년 사용
제주 화북	103	19.5	20	

제주도에서 주로 사용된 것도 강원도에서와 같이 ‘세발 웨스랑’이었다. 특히 <표 15>는 ‘날’의 폭과 길이가 20cm 내외의 것이 100cm 이상의 자루에 박혀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발 웨스랑의 경우 1.3kg 정도의 것이 쓰였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흥리 문○○(男, 1934년생)의 ‘세발 웨스랑’은 짧은 자루에 날을 박은 것이었다. 제주도의 것보다 날의 폭이 더 좁은 것을 사용하고 있

었다. 강원도에서도 두엄을 치고 논이 흙을 두드리는데는 물론, 수렁이 저서 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논에서도 이 ‘웨스랑’으로 파서 엮고, 덩어리진 흙을 부수는데 썼다. 또 밭의 흙을 파서 고르기도 하고 씨를 뿌린 뒤에 이것으로 흙을 덮기도 하였다.

농가에서는 밤에 방문밖에 ‘웨스랑’을 세워놓았다가 도둑을 잡기도 하였는데, 달아나던 도둑이 이것을 밟게 되면 자루가 이마를 쳐서 크게 다치게 했다고 한다.

## (2) 거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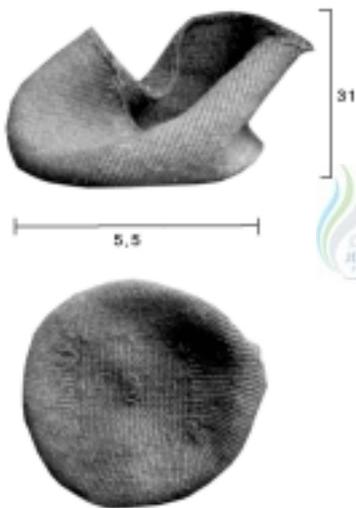
거름을 담아 옮길 때 썼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라동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도금착’(강정), ‘뚝걸름착’(고산) ‘뚝걸음착’(대평), ‘도꾸레착’(성읍), ‘뚝고래착’(성읍), ‘걸름착’(곽지), ‘착부지’(용수), ‘걸름착부지’(용수)라고도 불렀다. ‘뚝거름’을 내거나 ‘진거름’을 담아 밭으로 ‘지게’로 지거나, ‘질메’에 얹어 옮기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1766년에 발간된 『增補山林經濟』에 ‘멕’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는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82>  
똥장군(1940년)-高橋昇 사진

“옆구리로 먹고 옆구리로 내놓는 것”, “배꼽으로 먹고 배꼽으로 내놓는 것”, “배로 먹고 배로 내놓는 것”이라는 수수께끼<sup>89)</sup>가 나올 정도로 육지에서 보편적이었던 농기구였던 ‘똥장군’을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똥장군’은 오줌과 똥이 함께 섞인 것을 옮길 때 썼던 것이어서 옮길 똥이 없었던 제주에서는 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보통 옆구리에 구멍이 나있는 원통형(圓筒形)의 것으로 예전에는 나무로 만든 것으로 썼으나 얼마 전부터 플라스틱의 것을 쓰고 있다. 이것이 제주에 없는 것은 인분(人糞)을 폐지의 먹이로 활용하고 있어 오줌만을 거름으로 사용하는 제주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17> 거름착

거름착은 ‘바우’와 ‘굽’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을 이루나 무엇을 넣어 담지 않는 이상 부정형이다. 재료는 짚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미’(억새의 속잎), ‘신서란’을 가공하여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별도로 성글게 만들어 쓰기도 했으나 보통은 ‘멕’으로 쓰던 것 중 옮지 않은 것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다. 멕같이 곱게 만들지 않고 성글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보통 5말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만들어 반쯤 담아 묶어 ‘질메’로 옮겨 사용하였다. 많지 않은 양은 ‘지게’로도 저 날랐다.

① ‘바우’는 ‘거름착’의 입구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짚으로 만든 것이어서 원통형(圓筒形)을 이루나 내용

물을 담지 않을 때는 거의 부정형(不定形)이다.

② ‘굽’은 바닥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형(圓形)의 것과 사각형(四角形)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다.

89) 洪淳鐸, 『俗談. 迷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p. 769



<사진 83> 거름운반  
(경남 하동읍 흑룡리, 2001. 10. 24)



<사진 84> 마차로 거름 내는 모습-전남농업박물관 사진

육지에서 ‘마차’를 이용해 거름을 내는 모습도 살필 수 있다. ‘거름착’이나 ‘장군’ 등을 이용하지 않고 마당 한구석에서 장만한 거름을 마차에 직접 싣고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가 뿌려주는 모습이다. 많은 양이 아닐 때는 ‘바작’(바소가리)에 담아 ‘지게’로 저 날랐으나, 제주에서는 ‘거름착’에 담아 날랐다. 물론 많을 때는 ‘질메’를 엮은 소나 ‘마차’를 이용하였



<사진 85> 거름  
준비(1960년대?)-홍정표 사진



<사진 86> 퇴비(1920년대?)  
-濟州島森林組合 사진

다.

다만 ‘덧통’에 ‘검질’ 등을 넣어 돼지의 배설물과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덧거름’을 보리를 파종할 때 사용하였는데, 이 ‘덧거름’을 꺼내어 물기가 빠지도록 손 보았다가 이 ‘거름착’을 이용하였다.

‘덧통’에서 낸 거름을 밟고 있는 모습의 옛사진을 살필 수 있다. 보리를 파종하기 직전에 ‘덧통’에서 거름을 퍼내고 마당 같은 곳에 늘어놓은 다음 보리씨를 거기에 뿌리고 마소를 앞세워 밟게 하면서 불렀던 소리를 <거름 불리는 소리><sup>90)</sup>라고 했다.

제주에서는 주로 ‘거름착’에 담은 거름을 ‘질메’에 걸어 운반하였다. 그러므로 ‘질메’에 맞추어 짚으로 짠 것을 사용하였다. 짚 쓰는 집은 한 대(代)를 쓴다. 크기는 자기가 들 수 있는 정도로 하였는데, 보통 4~5말 정도 크기의 것으로 짠

90) <보리거름 불리는 소리>라고도 한다.



<사진 87> 거름작 사용(1920년대?)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다. ‘질메’에 2개씩 엮어 날랐으므로 집집마다 보통 2~3개를 두고 썼다. 마차가 나오면서 ‘거름작’은 없어졌고 더 큰 ‘창맥’을 사용하였다. ‘질메’에 엮기 위해서는 ‘거름작’에 거름을 담고 짚 같은 덮은 다음은 두 곳에서 묶어 ‘질메’에 엮었다. ‘질메’에 엮어서는 배로 묶었다.

박물관 소장자료로 바닥인 ‘굽’을 원형이 아닌 방형(方形)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원통형이 되도록 씨줄을 덧대어 엮었던 것도 사용되었을 살필 수 있다. 무게는 2kg 정도였다.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 ‘돛거름’에 보리를 섞어 뿌렸는데 이 때 보리를 섞은 거름을 ‘진거름’이라 한다. 이 ‘진거름’을 담아 밭으로 옮기는데 주로 썼다. ‘쉐왕’의 거름을 옮길 때 거름을 담아 소에 실어 나를 때 썼다. ‘질메’를 채워 양쪽에 실어 나를 때 썼다. ‘쉐왕’ 거름의 양이 많으므로 ‘지게’로도 저서 날랐다. 거름작은 보통 10말 짜리를 썼다. 50번 정도 날라야 보리밭에 줄 수 있었다. 외양간에 소를 매면 소거름을 한번 뒤집어 주었다가 바깥에 내어 썩으면 ‘거름작’에 담아 밭으로 옮겨 뿌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거름작’은 인분을 거름으로 활용하였던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인분을 돼지 먹이로 활용하고 돼지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활용하였던 제주만의 고유성을 반영한 농기구로 보인다. 물론 ‘돛거름’과 쉐왕 거름은 물론 불치를 내고 옮기는데는 ‘쉐스랑’, ‘굴채’ 등을 다른 농기구들도 같이 쓰였다. 이러한 ‘거름작’은 돛거름에 보리씨를 섞어 파종했던 제주 농경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인분(人糞)을 돼지의 먹이로 이용하고, 돼지의 배설물로 만들어지는 돛거름을 옮기는데 사용했던 제주 고유농기구의 하나다. 작업에 활용하지 않을 때는 헛간의 푼기둥 등에 걸어두고 보관·관리하기도 하였다.

### (3) 굴채(삼태기)

용수, 삼달, 저지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인 데, ‘굴채’(김녕, 강정, 대평, 고산), ‘골채’(운평), ‘산태기’(무릉)라고도 한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고산에서는 ‘줄갱이 굴채’, ‘꼭(쑤) 굴채’, ‘대 굴채’를 구분하여 불리기도 하였다.

밭에 갈 때 ‘줄갱이’(호미), ‘호미’(낫) 등을 담아 들고 갈 때나 밭으로 옮긴 진거름을 담아 흩뿌릴 때 주로 썼다. 또 거름이나 자갈 등을 멀지 않은 거리로 간단히 옮기거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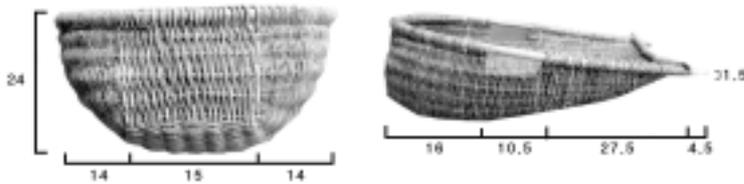
영'에서 임시로 먹을 채소를 할 때도 썼다. 그리고 보리 수확을 할 때 바다에 떨어진 보리 이삭 등을 주워담아 옮기는 데도 썼다.<sup>91)</sup> 또 주로 연료로 쓰기 위해 말린 말뚝 같은 것을 나르는 바구니로도 사용해왔기 때문에 구덕의 한 종류로 설명하기도 한다.(홍성목 역, 2000:276) 예전 아이가 죽으면 이 '굴체'에 담아가 묻었다고 한다. '줄겅이 줄'(으름덩쿨)로 만든 것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경북지방에서는 1990년대 이후 플라스틱 '삼태기'를 이용하고 있

<사진 88> 굴체 사용 : 거름내기 다.(배영동, 2000:192~193)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996. 9. 18.)

'짚'으로 엮어 만든 것을 주로 사용했으나 싸리나 대오리로도 만들어 썼던<sup>92)</sup> '삼태기'에 관한 옛 기록은 『訓蒙字會』에 畚(산태분)으로, 『北學議』 畚(분), 『海東農書』에 風籃(풍람), '삼타'라고 기록(김광언, 1986:398~432)되어 전해오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것으로 보아 1,527년 이전부터는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줄겅이 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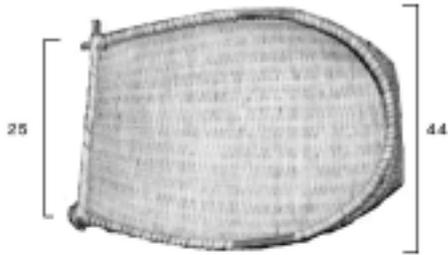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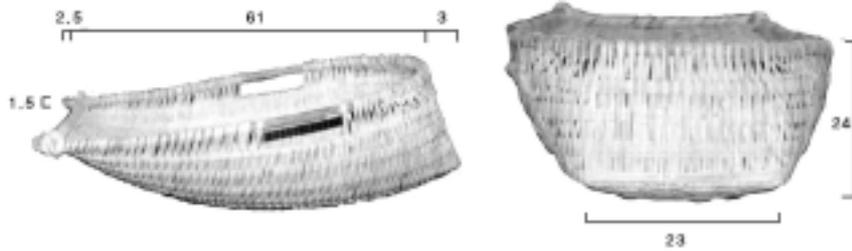


<그림 19> 침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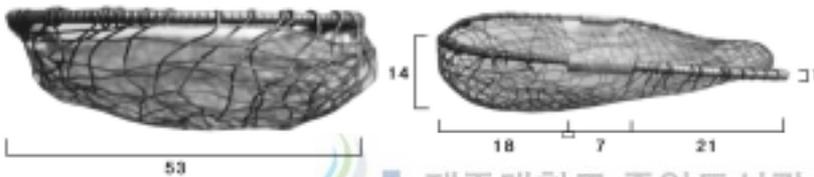
'굴체'는 '에움'과 '뒤', '굽'으로 구성되며 앞쪽이 오그라지고 뒤가 깊도록 '굽'을 만들어,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묵하며 'U'자형으로 구부린 막대를 대어 손잡이로 삼았으며, 손에

91) 강영봉, 『제주의 언어』1, 제주문화, 1997, pp. 160~165

92) 加藤木保외(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역), 앞의 책, pp. 101~103.에 의하면 '거름삼태기'라고도 한다. 산간지역에서 싸리로 만든 것이 보다 많이 쓰였다.



<그림 20> 대골체



<그림 21> 쇠골체



<사진 89> 골체 손잡이

취기 편리하도록 손이 닿는 좌우 양쪽에 구멍을 뚫어놓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작은 집에서는 80바리 큰 집에서는 150바리의 ‘뚫거름’을 내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골체’를 배에 의지하면서 날랐기 때문에 ‘산태기’에 없는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타원형(橢圓形)이 되도록 ‘에움’을 돌렸다. 쉽게 내려 쓸 수 있도록 헛간이나 ‘굴목<sup>93)</sup>’ 입구의 ‘공쟁이’에 걸어 두고 썼다.

① ‘에움’은 형태 면이나 기능 면에서 ‘골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거름을 담아 흠뻑리고자 할 때 손잡이의 역할을

93) 난방(暖房)을 위해 ‘구들’에 불을 지피던 가옥 공간을 말한다. 이 곳 주위에 ‘쉐똥’이나 ‘말똥’을 말려 준비한 빨감이나, 장작 등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사진 90> 에움냥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1993. 5. 26.)

해야 함으로 센 성질을 지닌 것이 필요했다. 예전에는 ‘벌레냥’(보리수나무)이나 ‘죽냥’(때죽나무)이라고 해서 가볍고 질기면서 아래위의 굵기가 같았던 것을 주로 썼다. 그러나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삼달에서는 ‘삼동냥’<sup>94)</sup>(상동나무)으로, 애월에서는 ‘틀냥’(산딸나무)으로 만들어 썼다. 최소 2m50은 끈게 나가야 했다.

② ‘굽’은 재료에 따라 ‘줄갱이줄’<sup>95)</sup>(으름덩쿨), 칩, 대나무, 쇠갈채가 쓰였다. 거름을 낼 때나 ‘산뒤편’(밭벼) 같은 것을 걷어 올 때는 ‘줄갱이줄’로 만든 것을 주로 썼다. 비를 맞추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있었으므로 해변에서 주로 사용했던 ‘멜고리’, ‘바작’ 같은 것들을 거의 이것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칩으로 만든 것은 무겁고 빨리 쉬었으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여서 많이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나 거름을 낼 때 사용하면 거름의 물기를 칩이 쉽게 먹어 상당히 무거웠다고 한다.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칩갈채는 밭에서, 대갈채는 집에서 주로 쓰였다. 채소, 고구마 등을 수확할 때 등에는 가벼웠던 ‘대갈채’가 주로 쓰였다. 돌 작업 등을 할 때는 ‘쇠갈채’가 주로 쓰였다. 대갈채, 줄갱이갈채, 쇠갈채는 0.5kg 내외 였으나 칩갈채는 1.5kg 정도 되었다.

<표 16> 갈채 비교

구 분	길이	폭	뒤 높이	비고
애월 상가	53.5	47	26	
애월 유수암	51	40	16	
제주 해안	65	55	24	

<표 16>는 제주에서의 사용되었던 보편적인 ‘갈채’는 길이가 55cm 내외, 폭 47cm 내외, 뒤 높이가 20cm 내외의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평리 백○○(여, 1932년생)의 ‘걸렁지’는 벼짚으로 엮은 것으로 손잡이가 되는 에움대를 감싸도록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94) 상동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형, 조수, 인성, 서흥 등지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김녕, 수산, 가시 등지에서는 ‘상동냥’이라고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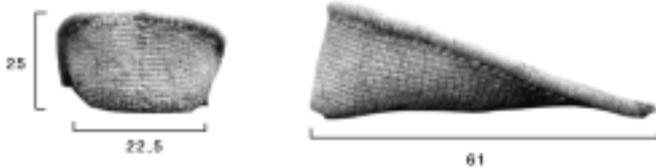
95) 으름덩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성, 호근, 어도 등지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존갱이줄’(노형, 서흥, 수산, 김녕, 조수), ‘유으름줄’(하원, 태흥,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수산)이라고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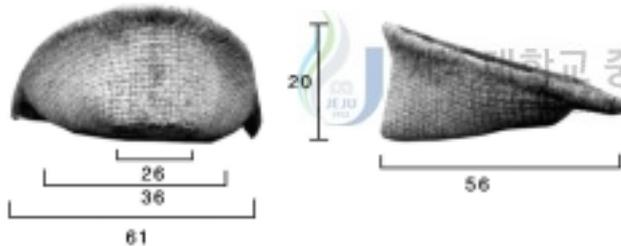
<사진 91> 굴체 사용(1980년대?)  
-뿌리깊은나무 사진

덕산리 이○○(여, 1936년생)의 ‘걸렁지’도 벼짚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 손잡이가 되는 에움대를 감쌌다. 신흥리의 것보다 뒤쪽의 높이도 낮고, 전체적으로 짧은 특징을 보인다.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흑룡리 정○○(남, 1937년생)가 거름을 실어 ‘지게’로 지고 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싸리로 만든 ‘산태미’를 거름 위에 얹어 지고 가는 모습이다. 전북지방에서는 대

로 엮은 ‘삼태기’로 인분(人糞)에 재를 섞은 퇴비 등을 담아 논, 밭에 뿌릴 때 사용했다. 무게는 0.9kg에서 1.5kg에까지 이른다.<sup>96)</sup>



<그림 22> 걸렁지(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흥2구, 2001. 10. 22.)



<그림 23> 걸렁지(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2001. 10. 22.)

‘굴체’는 대나무, 칩, ‘정동’<sup>97)</sup>(맹맹이덩굴) 등의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주로 여자들이 의해 거름을 낼 때나 가늘고 곧으며 잘 휘어지는 ‘삼동냥’(상동나무)나 ‘족냥’(때죽나무)으로 ‘에움’을 만들고, 칩이나 대나무 등을 재료로 엮어 만들어 썼다. 육지에서 ‘싸리’나, ‘벼짚’으로 만들어 재(灰)를 낼 때 등에 썼던 ‘삼태기’의 기능을

‘칩굴체’가, 소쿠리의 역할은 ‘대굴체’와 ‘정당굴체’가 대신할 만큼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싸리로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작업에 활용하지 않을 때는 헛간의 기둥이나 벽 등에 걸어두고 보관하였다.

#### (4) 오줌항

96) 김광연, 앞의 책, 1969. p.96

97) 맹맹이덩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당’이라고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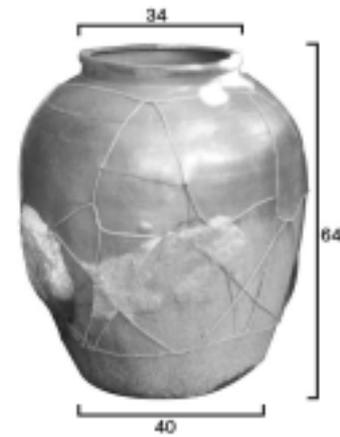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오좁께’, ‘오좁푸께’, ‘오좁통’, ‘오좁단지’라고도 불렀다.



<사진 92> 오좁항  
(제주시 월평동, 1996. 9. 4.)

‘dotong’가는 길목이나 ‘우영’(텃밭) 옆에 두었다가 거름으로 쓰기 위해 오좁을 모으는 데 썼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집안의 필수품이었을 만큼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민속품이다. 비료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오좁은 아주 귀한 거름이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놀러 갔다 가도 오좁은 반드시 집에 와서 누었다고 한다.

항을 제주에서는 고팡에서 곡식을 담는 용기로, 장항 굽에서는 장을 담는 용구로 썼으며, 정지에서는 물항, 큰 나무 아래에서는 ‘춤항’으로 쓰이는 등 항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고팡에서만 보통 집집마다 15개 정도 이상은 갖고 있었다. 보통 2섬, 20말, 1섬들이가 사용되었다. 장항굽에도 10개 정도씩은 있었다. 드림통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용도로 사용한 것이 항이었다. 작아야 4말, 보통은 5~6말 정도는 되었다.



<그림 24> 오좁항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1996. 4. 3.)

오좁항은 이렇게 쓰던 항이 타지면 10말 정도의 것을 골라 사용하였다. 집집마다 보통 1개 이상 식구수대로 갖추고 사용하였다. 오좁은 보리밭에 주로 주었는데, 배추를 하는 집에서는 거기에도 주었다. 보리는 보통 10월에 파종하게 되는데 그 해 겨울이 되어 오좁항이 차면 밭에 가서 주었다. ‘오좁항’에 받았던 오좁은 ‘오좁박세기’로 퍼서 ‘오좁 허벅’에 담고 흘러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지고 밭으로 날라다 사용하였다. 허벅은 10관웨<sup>98)</sup>, 8관웨의 크기였는데, 보통 열 허벅 이상 주었다. 보리 농사가 배추, 늬뻬(무), 고추 농사로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보리농사 때는 오좁 거름이 참 중요하였다. 함석으로 만든 ‘허벅’은 1960년대 후반부에 나왔

다. 허벅은 비싼 데도 집집마다 1개 이상은 있었다. 작은 것은 대바지<sup>99)</sup>라고 한다.

98) 일정한 규격에 맞게 만들어져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되<升>를 말한다. ‘관승’이라고도 한다.

99) 둥그스름한 원통 모양으로 위는 목이 좁은 입을 갖고 있고 아래는 안정감 있게 굽을 만들었다. 배는 불룩하여 물을 길어 나를 때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 조수지역에서는 ‘대배기’라고도 한다.



<사진 93> 오줌항(1970년대?)  
-뿌리깊은나무 사진



<사진 94> 오줌항(1960년대?)-泉靖- 사진

남군 성산읍 삼달리 강씨 모친택(여, 1920년생?)에서 본 ‘오줌항’의 경우 크지 않은 항으로 시멘트와 철사로 동여매어 이용하고 있다. 식수(食水)나 곡식을 보관하는 데 쓰는 항 중에서 타져서 더 이상 항으로 쓸 수 없으면 철사나 시멘트 등으로 보수하여 ‘오줌항’으로 썼다. 1970년대 이후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돛통’이 없어지면서 ‘오줌항’도 급격히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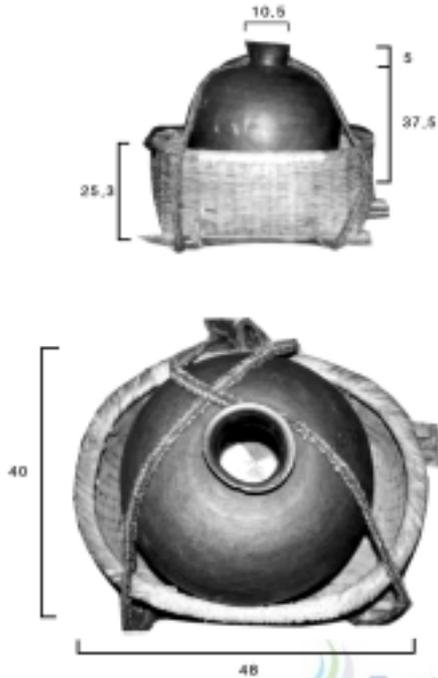
제주민속촌 전시가옥의 오줌항은 물항으로 사용하였던 지세항을 수도(水道)가 보급되면서 오줌항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모아진 오줌은 2~3월에 주곡(主穀)인 보리에 주로 주었는데 이때 오줌을 ‘오줌 허벅’에 담아 옮기는 데 담을 때는 ‘오줌박세기’를 썼다. 육지에서는 철모(鐵帽)나 바가지에 자루를 붙인 ‘똥바가지’로 거름을 거름통에 퍼 담거나 밭에 뿌려 주는 데 썼다.(김광연, 1969:93)

1970년대 후반부터 애월에서는 ‘돛통’의 오줌을 거의 쓸 수 없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돛통’을 개량하기 시작하여, 1970년 후반 경에는 정부에서 지원비를 주면서 ‘변소개량사업’을 벌여서 ‘돛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오라 3동에서는 항 중에서 형태가 곱지 않아 제값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싼 것을 확보해 사용했다. 크기는 2말, 5말, 3말, 6말 등 가리지 않았다. 배추밭이나 보리 밭 등에 뿌린다. 흔한 것이 아니어서 많이 뿌릴 수는 없었다. 지금도 고윤옥님 댁에서 볼 수 있다. 하효에서도 항을 가리지 않고 한 집에서 2~3개 정도씩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오줌항’을 1996년 조사 당시에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198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급격히 사라졌으며, 그 이전인 1970년대까지는 전지역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오줌항’은 인분(人糞)을 먹이기 위해 돼지의 사육장인 ‘돛집’을 ‘돛통’에 함께 가지고 있는 제주만의 고유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분을 거

름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며, 물론 ‘똥장군’도 쓰이지 않는 곳이다.

(5) 오줌허벅



<그림 25> 오줌허벅

이 것은 거름으로 사용할 ‘오줌’을 담아 옮기는 데 썼다. ‘오줌허벅’으로 사용하던 것을 조사 시점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는 밀감 과수원을 전업(專業)으로 하지 않은 거의 모든 가옥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연장과는 달리 빌리지도 않았고 빌려주지도 않았다.

거름으로 쓸 오줌을 받으로 옮기는 기능의 것으로 전남지방에서는 ‘오줌장군’이나, 다른 육지에서는 ‘오줌통’, ‘오줌항’으로 불렀던 ‘거름통’이 이용되었지만 제주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밭에 가면 별도의 통이 있어서 거기에 비워두었다가 보리를 파종하고 나서 겨울철에 주었다. 수도(水道)가

1970년 초반에 들어서면 물허벅이 1975년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오줌허벅도 그때 까지도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옹기로 만든 허벅은 3.5kg에서 5kg에 이를 정도로 무겁고 비싼 편이었다.<sup>100)</sup> 1960년대 제주시에서 공급하는 허벅은 지금의 제주시청 앞쪽에 있었던 굴에서 만든 것이었고, 이밖에도 연동, 오라2동, 광령, 한경에 있던 굴에서 만들어 공급되었다. 해방 무렵 함석으로 만든 허벅이 나와서 물허벅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가볍고 썩으며 관리하기에 편하여 주로 함석허벅을 사용했다. 불을 많이 때는 강원도 지방에서는 채에 똥오줌을 버무려서 ‘바소거리’에 담아 날랐으므로 ‘장군’을 사용치 않는 지역도 있었다고 한다.(김광언, 1969:39) 전남지방에서는 ‘오줌장군’, ‘오줌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였으나(전남농업박물관,

100) 소장자료 3826번 3.5kg, 3715번은 5kg, 3803번은 4.5kg, 2819번은 5kg 정도였다.



<사진 95> 구덕파는 모습(1960년대?)-泉靖- 사진



<사진 96> 물구덕 진 모습

1999:40) ‘전’의 직경이 좁은 항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전’의 지름은 15.2cm, ‘굽’의 직경이 27.3cm, 높이가 51.5cm의 것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 1995:87~95)

식수(食水)나 용수(用水) 간혹이긴 하지만 팔죽 등을 담아 지고 옮기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허벅’을 이용하였다. 흙으로 빚어 높은 온도에서 구워 만든 것으로 붉은 색을 띠며, 구형(球形)을 이룬다. 크기에 따라 허벅과 대바지로 구분되며, 담는 것의 종류에 따라 물허벅, 오줌허벅 등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20ℓ 정도가 들어가는 허벅보다 작은 것으로 대바지는 10ℓ 정

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것이다. 물허벅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오줌허벅은 일반허벅보다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굽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버린 것 등을 사용하였다.

‘오줌허벅’을 사용할 때도 ‘물허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장방형(長方形)의 구덕 안에 담아 지고 옮길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구덕을 사용하였다. 두께가 없으며 원통형(圓筒形)에서 장방형(長方形)의 것 등 다양한 것들이 이용되었다.

① ‘ㄴ는대구덕’은 가는 대나무를 재료로 만든 것으로 여자들이 외출할 때 옆구리에 차고 다녔던 것이다. 별로 무겁지 않은 것을 담아 옮길 때 주로 썼다.<sup>101)</sup>

② ‘질구덕’은 짐을 지고 다니는 구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너들이 태왁 등을 주로 담았다.

③ ‘출구덕’은 고사리를 꺾을 때나 해초를 걷을 때 허리에 차던 것이다.

④ ‘애기구덕’은 장방형(長方形)으로 꺼지지 않도록 중앙에 ‘ㄷ’을 설치해 사용했다.

101)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적은 양의 물건을 넣어 여자들이 허리에 끼고 운반해 다닐 때 썼던 것이다. 다른 말로 ‘서대구덕’, ‘대구덕’이라고 한다.



<사진 97> 애기구덕

바닥에는 ‘삼동냥’(삼동나무)을 끼워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멜구덕’은 털치를 잡아 옮겨올 때 사용했던 것으로 3명의 어른들 양팔이 맞닿을 만큼 큰 구형(球形)의 것도 있고 이 보다 작은 것도 이용되었다.

‘오줌항’을 담아 옮겼던 구덕도 ‘물구덕’과 같이 대나무로 만든 ‘바드랭이’를 받치고 썼다.<sup>102)</sup>

‘바드랭이’는 ‘바데’(오라 3동, 애월), ‘받툼’(오라 3동)라고도 불렀는데, 구덕 밑바닥에 되는 것으로 직경 1.5cm의 왕대를 반으로 쪼개 만들어 18개의 막대기로 엮은 것을 붙였다. ‘물구덕’도 쉬 헐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고 다니는 밧줄도 빠지지 않는다. ‘물구덕’을 밧줄에 걸어 묶어 지고 다닌다. 이때의 밧줄을 두고 ‘물배’라고 했다.



<사진 98> 바드랭이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조○○(여, 1929년생)의 ‘오

줌장군’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측간 옆에 세워두었다. 오지로 된 것도 이용되기는 했으나 주둥이가 좁고 목이 짧은 형태로 배가 부르며 양쪽에 자루가 달린 것을 경남 양산에서 이용하기도 했다. ‘지게’로 저서 나르기도 했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오줌장군’을 우마차(牛車)에 실어 나르기도 했다.(김광언, 1969:89) 또 ‘거름통’이라 하여 물지게에 지고 나르기도 했다.



<사진 99> 똥장군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2001. 10. 22.)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사용된 것과 달리 ‘허벅’을 이용하고 있다. 허벅은 바람이 많고 길이 험한 제주에서 식수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민속품이다. 이렇게 물허벅으로 쓰는 것이 부리 부분이 손상되었거나 전체적인 모양이 온전하지 않아 물구덕으로 쓸 수 없는

102) 고광민,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pp. 23~30에 의하면 허벅을 담아 저 나르는 대로 만든 것을 물구덕이다. 이 구덕은 거의 장방형으로 질구덕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보편적인 제주도의 물구덕은 질구덕보다 얇았다. 질구덕의 높이가 27cm라면, 물구덕의 것은 20cm안팎으로 얇게 걸었다. 기능공들은 손으로 가늠하며 높이를 가늠했다. 질구덕은 한뼘, 중지 한모작 물구덕은 한뼘 높이로 가늠하여 걸었다고 한다.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물론 물허벅과 같이 구덕에 담아 옮겨야 했다. ‘오줌항’에 모은 오줌을 밭으로 가져가기 위해 ‘오줌 허벅’에 옮겨 담을 때나 옮겨온 오줌을 ‘묘(苗)’에 줄 때도 사용한다. 이때 ‘낭국자’라고 해서 자루가 긴 것을 사용하였다. 곡박은 약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남박을 사용하였으며, ‘뒤편세기’ 등이 타지면 ‘오줌박세기’로 쓴다. 해안 지역에서는 ‘거평’이라 하여 전복의 껍데기를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췌똥’이나 ‘말똥’ 따위를 긁어모을 때 썼다. ‘오줌박세기’는 ‘남박’이나 ‘솔박’ 중에 쓸 수 있는 것을 골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곡박’은 물을 쓰는 데에 주로 썼다. 그리고 ‘곡박’은 잘못하면



<사진 100> 구덕 진 모습  
(1960년대?)-홍정표 사진



<사진 101> 구덕 진 모습(1960년대?)  
-홍정표 사진

깨어지므로 그 오줌이 사람한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럽지 않도록 안전하게 ‘솔박’을 썼다.

허벅을 지고 가는 모습의 사진을 살필 수 있었다. 오줌허벅도 같은 모습으로 지고 다녔을 것으로 보인다. 모아진 오줌은 2~3월에 주곡(主穀)인 보리에 주로 주었는데 이때 오줌을 ‘오줌허벅’에 담아 옮겼는데 허벅마개<sup>103)</sup>를 꽂아 넘치는 것을 막고 담을 때는 ‘오줌박세기’<sup>104)</sup>를 썼다.

한 허벅으로 2평 정도밖에 뿌릴 수 없었다. 오줌뿐만 아니라 재(불치)도 밭에 주었는데, 재를 뿌리면 재가 벌레의 몸에 붙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벌레’를 잡는 역할도 했다고 한다. 특히 ‘화로’의 불치가 배추밭에 좋았다.

서귀포시 보목동 824번지의 한○○(男, 1950년생)의 것을 살핀 것이다. 부리의 직경이 10.5cm, 부리 높이 5cm, 총높이 36cm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 제주시 화북1동 1557번지의 김○○(男, 1936년생)의 것을 살핀 것이다. ‘부리’ 직경은 11cm, 총 높이는 33cm, ‘부리’의 높이는 5cm 정도이다. 이러한 ‘오줌허벅’은 목재 맥주통과 같이 생긴 ‘오줌통’이나 ‘오줌장군’을 활용하였던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바람 많고 돌 많은 제주도에서만 활용하였던 제주도의 고유성을

103)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p. 60.에 의하면 전남지방에서는 ‘장군마개’라 하여 목이 긴 마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104) 박물관 소장(자료번호 2,234) 자료의 경우 길이 15cm, 전의 높이 7cm, 무게 0.1kg 정도였다.

반영한 농기구로 보인다. 물론 오즘을 모으는 데는 ‘오즘항’이 이용되었으며, 모은 오즘을 향에서 허벅에 담을 때는 ‘거평’ 등의 다른 민속품들이 이용되었다.

#### 4. 씨덮는 연장

우선 갈이때 생긴 ‘병에’(흙덩어리)를 펴야 한다. 이를 위해 ‘곰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씨가 잘 덮이도록 ‘섬피’로 끌어준 다음 ‘말테’나 ‘남테’로 밭밟기를 해 주어야만 발아율(發芽率)이 높아진다.



<사진 102> 말테 : 조 밭 밟기(1939년)-高橋昇 사진

조(粟)의 경우 ‘방골름’의 과정을 거쳐 간격을 맞추어 줌으로써 생산력이 높이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말이나 소를 파종한 밭에 들여놓는 것을 막기 위해 <우마 출입금지 표시>로 ‘중’(괘지)이라고 하여 대나무를 꽂아둔다. 이

때 사용한 연장으로 ‘곰배’, ‘씨부게’, ‘멜망탕이’, ‘섬피’, ‘남테’에 대해 살핀다.

##### (1) 곰배

‘곰방메’를 일컫는 제주도 지역어로 아라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곰배’(대평, 행원, 오라 3동, 삼달, 용수), ‘곰배’(저지), ‘흙마시는 낭’이라고도 불렀다.



<사진 103> 곰배 사용(1960년대)-泉靖一 사진

밭갈이를 한 후 생기는 ‘병에’를 푸는 데에 주로 썼으며, 씨를 뿌린 뒤에 병에를 풀어 씨를 덮는 데도 썼다. 이는 덩어리진 ‘병에’를 잘게 펴야 만이 뿌린 씨가 잘 묻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분(水分) 함유율을 높임으로써 발아(發芽)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곰배’가 없으면 ‘괘이’나 ‘쉐스랑’으로도 흙 덩어리를 때려 펴야만 했다.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한 중산

간 마을인 명월에서는 귀한 연장의 하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밭갈이 때 ‘병에’가 생기는

좋은 밭인 ‘질왓’이 흔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곰배’는 ‘질왓’을 가진 가옥에서 보유하고 사용하였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6>곰배

‘곰배’에 대한 옛 기록은 『農事直說』에서는 ‘播木’ 『穡經』에서는 ‘稷’, 『海東農書』에서는 ‘매’ 등으



<사진 104> 곰배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제주민속촌, 1992. 5. 30.)

로 찾을 수 있고, <세경놀이>에도 “병레랑 푸는디, 곰배로 푼다.”는 내용이 있어(현용준, 1980:388) 상당히 오래전인 1429년 이전부터는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광연, 1986:398~432)

‘곰배’는 흙덩어리를 직접 때리는 ‘곰배’와 손잡이인 ‘자루’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T’자형을 이룬다. ‘곰배’와 ‘자루’로 나누어 진 것이 대부분이나 이들이 하나로 된 것을 최고로 쳤다. 이 경우 굵고 야문 뿌리 쪽을 ‘곰배’로 만들고, 줄기 쪽을 ‘자루’가 되도록 하였으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게는 0.5~0.9kg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



<사진 105> 곰배

① ‘곰배’는 곧고 센 성질을 가진 ‘솔피냥’(쇠물푸레나무)이나 ‘굴무기’(느티나무), ‘가시냥’(가시나무) 등으로



<사진 106> 곰배

‘곰배’를 만들었고, ‘곰배’의 형태의 따라 사각형(四角形)으로 것과 원형(圓形)의 것이 이용되었다. 물론 ‘곰배’의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으며, 자루의 굵기가 큰 것과 작은 것 등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면 가리지 않고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② ‘자루’는 ‘윤유리냥’<sup>105)</sup>(윤노리 나무)이나 ‘소냥’으로 만들어

105) 윤노리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형, 조수, 수산, 인성, 서흥, 가시 등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임노리

사용하였다.

<표 17> 곶배 비교

소장자 박물관	자루	곶배	곶배형태	비고
	120	미확인	원형	
	134	45	사각형	
	77	43		
	95	26		
	102	20		
	117	20		
	110	29		
	77	21×6		
	69	미확인		
	101	29		
	116	25		



<그림 27> 곶방배

<표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곶배’는 28.6cm 정도, 자루는 101.6cm 정도의 것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농기구와 달리 사서 쓰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었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질기지 않은 ‘소낭’(소나무)일 경우에도 2~3년은 썼다고 한다.

육지에서는 ‘자루’ 길이가 118cm(굵기 2.7cm), ‘곶배’의 길이 51.5cm, 굵기가 3cm, 폭이 1.2cm 정도의 것을 사용하여 하루 한 사람이 600여 평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 역, 1995:35) 경상도 거제에서는 ‘등그리매’라고 불렀으며 자루의 길이가 125cm(직경 3cm), ‘곶배’의 길이가 20cm(직경 8cm) 정도 되는 것이

사용되었다.(홍성목 역, 2000:426)

남군 남원읍 수망리 김○○(男, 1937년생) 씨의 것과 남군 대정읍 무릉리 양○○(男, 1917년생) 씨의 것을 보았고, 무릉리의 것은 자루 길이 135cm, 날길이 25cm, 날폭 3.5cm

냥(김녕), ‘윤유리냥’, ‘윤유리’라고도 불렀다.



<사진 107> 곶배 사용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4. 4.) '병에'를 때릴 때는 '도치'(도끼)를 이용했을 정도였다고 한다.(남석진, 1989:188) 그러므로 농부의 손바닥에는 언제나 굳은살이 배겨있는 것이다. 잘하는 남자 한 사람이 하루 500여 평의 밭을 다룰 수 있었다. 장시간에 걸쳐 허리를 구부려 작업하여야 했기 때문에 일은 힘든 편이었다.



<사진 108> 곶배 사용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1996. 9. 19.)

'곶배'의 사용방법을 좁씨 파종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는 보리를 베고 난 한여름 때이다. 아침 일찍 파종하기 위해 수놓어 마을 사람들과 5~6명이 밭에 도착한다. 이때는 소나 말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데 보통 30마리 정도가 있어야 한다. 밭으로 갈 때, 소와 '쟁기', '괭이'나 '따비', '곶배' 등의 농기구를 '마차'나 '지게'로 저서 함께 갖고 가서 사용한다. 밭에 도착하면 우선 소에 '병에'를 채우고 가장자리에서부터 쟁기질을 하여 밭갈이를 한다. 밭담 밑 가까운 곳은 '쟁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괭이'나 '따비'로 간다. 600평의 밭인 경우 좁씨 6되 정도가 종자로 쓰인다. 거의 하루가 걸려 갈이를 하고 씨를 뿌리는데, 이때 '곶배'를 이용해 밭갈이 때 올라온 '병에'를 퍼 주면서 깊게 파인 곳을 메우거나 흙이 덮이지 않는 씨를 흙으로 묻어 나가는 것이다. 자루를 잡고 퍼야 할 '병에'를 정한 다음 '곶배'에 힘이 실리도록 하고 옆이나 뒤로 들었다가 내리면서 때린다. '곶배'에 맞은 '병에'는 퍼지기 마련이다.

106) 구슬잣밤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좁배낭', '자배낭', '즈배낭'이라고도 한다.

‘병에’를 푸는 곰배질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파종할 씨를 뿌리는 남자 뒤에서 혼자 혹은 두 세 사람이 합동으로 작업함으로써 능률을 높이기도 하였다. 힘들었던 ‘곰배’ 작업의 고단함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恨歎)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소리>에 담겨 전해오고 있다.

요놈의 덩어리 / 헤쳐나 저라 / 빼개어나 저라  
우리 어머니 무슨 날에 / 날 낳았는고  
남 낳은 날에 / 날 낳았으면 / 남이 운들 내야 올라<sup>107)</sup>

돌덩이 같은 ‘병에’를 풀어야 했던 고됨을 풀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곰배질 소리>가 전해오기도 한다. 작업에 활용하지 않을 때는 ‘헛간’이나 ‘추녀마루’에 걸어 보관 관리하였다.

## (2) 갈래죽



<사진 109> 갈래죽 사용-흙올리기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4. 4.)

‘가래죽’을 달지 않은 형태의 ‘가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라동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죽을 쓸 때 놀지 않도록 젖는 데 썼던 막대기를 ‘남죽’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이 자루가 날린 ‘가래’라는 뜻으로 보인다. 또 ‘갈래죽’(김녕, 용수, 성읍, 고산, 애월), ‘낭갈래죽’(하호), ‘남갈래죽’(가파), 낭가래죽(대평), ‘가래’(조수, 김녕), ‘넓적하다’는 뜻으로 ‘넉가래’(함덕)라고도 불렀다. ‘수급포’(가파)라고도 불렀다. 서쪽에서는 잘 쓰지 않고 동쪽에서 주로 썼다고 한다.

『訓民正音解例』에 ‘ㄱ래’<추>, 『千一錄』에 ‘가내’(可乃), 『海東農書』에 ‘힘’(杵)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447년이전부터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사시대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도 기원전 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8)</sup> 쇠로 만든 ‘삽’이 나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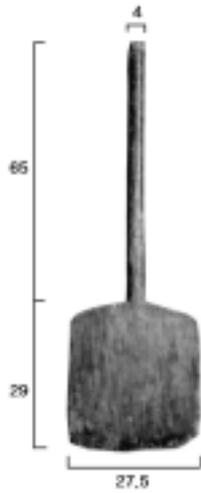
107)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1965,p.

108) 박호석(2001:89)에 의하면 제주도를 제외한 본토의 것은 넓적한 부분 끝에 말굽 모양의 쇠가 박혀져 있다고 한다. 이 ‘쇠삽날’은 황해남도 은율군 운성리 유적에서 기원전 1~2세기로 보이는 것이 출토된 바 있

전에 사용하였던 나무로 만든 ‘삽’을 말한다. 해방 무렵 다양한 ‘삽’이 보급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10> 갈레죽 사용:  
지봉일기  
(제주시 일도2동, 1997. 3. 12.)



<그림 28> 갈레죽

주로 화전(火田)으로 밭을 일굴 때 ‘따비’와 함께 쓰였던 것으로 흙을 퍼 옮길 때 주로 썼다. ‘뚝거름’을 내어 마당에서 긁어 모을 때 마당이 파이지 않도록 할 때나, 비가 스미지 않도록 두드릴 때도 쓰였다. 봉분(封墳)을 만들어 두드릴 때나 또 ‘불치막’에서 불치를 꺼내어 ‘갈채’나 ‘거름착’ 등에 담을 때에도 썼다. 보리대나 조대로 ‘눌’을 만들거나 지봉일기를 할 때 가장자리를 가지런하게 정리할 때 두드리는 데도 썼다.

‘갈레죽’은 손잡이인 ‘자루’와 흙을 파서 담는 부분인 ‘가레’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숟가락 형태를 이룬다. ‘가레’의 모양은 방형(方形)이며 두텁다. ‘자루’ 부분은 가늘고 길다. 주로 질긴 성질을 지닌 ‘가시낭’(가시나무), ‘굴무기’(느티나무), ‘소리낭’(소리나무)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나 쪼어지지 않고 벌러 지지도 않았으며 쯤벌레의 피해에도 강했던 ‘굴무기’로 만든 것을 최고로 쳤다.

<표 18> 갈레죽 비교

구 분	자루길이	날길이	날폭	소장자	비고
갈레죽	142	-	-	박물관	심하게 훼손
"	90	-	20	"	
"	81	-	-	"	
"	106	-	-	"	
"	86	59	25	"	
"	90	53	-	"	
"	93	57	-	서귀 보목	
"	95	28	21	대정 무릉	
삽	83	37.5	22	서귀 보목	
"	69	38	21.5	대정 무릉	
"	73	35	21	애월 유수암	

다. 또한 몽촌토성 발굴에서 길이 12cm, 날 부분 폭 6.5cm 가량의 ‘가렛날’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표 18>은 ‘갈레죽’과 ‘삽’을 비교한 것이다. 제주에서 사용하는 ‘삽’은 일반적으로 자루 길이 77cm 내외이며, 날의 길이는 36.8cm 내외, 날폭은 21.5cm 내외로 자루 길이 97.5cm, 날의 길이 49.3cm의 ‘갈레죽’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다. ‘갈레죽’은 보통 2.2kg 정도의 것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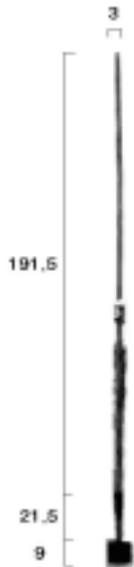
<사진 111> 삽(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3. 19.)



<사진 112> 삽사용(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1996. 4. 4.)



생나무를 깎아 자루와 몸이 하나가 되도록 하고, 둥글넓적한 몸 끝에 말굽쇠 모양의



<그림 29> 종가래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산리, 2001. 1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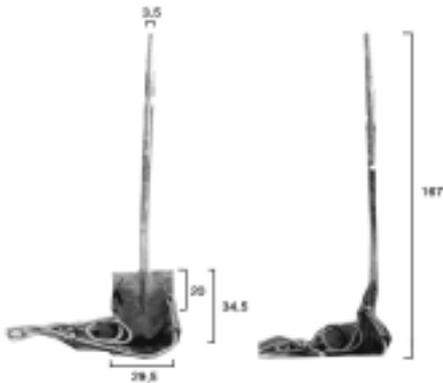
<사진 113> 가래- 경기대학교박물관 사진 ‘쇠날’을 끼운 것을 강원도 지역에서 ‘넉가래’, ‘가래’ 등으로 불렀다. 몸 양쪽에 구멍을 뚫고 줄을 꿰었으며 한 사람이 자루를 잡고 흙을 떠서 밀면 양쪽에서 두 사람이 그 줄을 당기며 흙을 넉기도록 된 연장이다. 경기지방에서는 ‘손가래’를 ‘종가래’라 불렀으며 주로 좁은 구멍이를 파는데 이용하였다고 한다.<sup>109)</sup> 또 ‘넉가래’라 하여 길이 146cm, 날의 넓이 28cm 정도의 것을 주로 ‘타작마당’에서 사용하였는데, 곡식을 모으거나 나비질을 할 때 곡식을 떠서 퍼 던지는 데에 사용했다.<sup>110)</sup> 광주지방에서는 자루 길이 85cm, 날의 폭 32cm, 길이 26cm 정도의 ‘넉가래’가 쓰였다.<sup>111)</sup> 논농사지역에서는 가지 잎과 같이 끝이 뾰족하며 약 3m 이상의 긴 자루가 붙어 있는 ‘가래’를 논두렁을 정리하는데 쓰기도 하였다.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2리 장○○(男, 1932년생)의 ‘가래’는 논둑을 손 보거나 많은 양의 흙을 가까운 거리로 옮기는데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작업하는데에 쓰던 것이었다.

109) 홍희유, 앞의 논문, p. 132

110) 경기대학교박물관, 『박물관도록』, 경기대학교박물관, 1990. p. 35

111) 광주시립민속박물관, 『光州市立民俗博物館』,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90 p. 86, 207



<그림 30> 가래(충남 금산읍 하옥2리, 2001. 10. 22.)



<사진 114> 돛통 디딜팡

‘갈레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살포’가 있었다.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산리 임○○(男, 1925년생)의 ‘중가래’라 불리는 ‘살포’는 남부 지방만의 고유성을 지닌다. 안승모에 의하면 이 ‘살포’는 4세기경 금강유역의 백제(百濟)영역에서 출현하여 5~6세기에 신라(新羅)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논·밭의 ‘물코’를 손보거나 ‘이랑’의 잡초를 밀어 없애는데 이용하였던 것이다.<sup>112)</sup>

제주에는 “디딜팡에 갈레죽 세우면 용시 안 된다.”(통시 발판에 갈레죽을 세우면 농사 안된다.)라는 ‘갈레죽’과 관련된 속담도 전해오고 있다. 생활 필수품으로 가옥 내 ‘우영’ 등에서 무나 배추, 고구마 묘종(苗種) 등을 재배하기 위해 흙을 올리는 데도 사용되었다. 작업에 활용하지 않을 때 ‘굴목’ 입구 쪽 가장자리에 세워 보관하거나 헛간의 ‘들보’ 사이에 걸어 두었다가 사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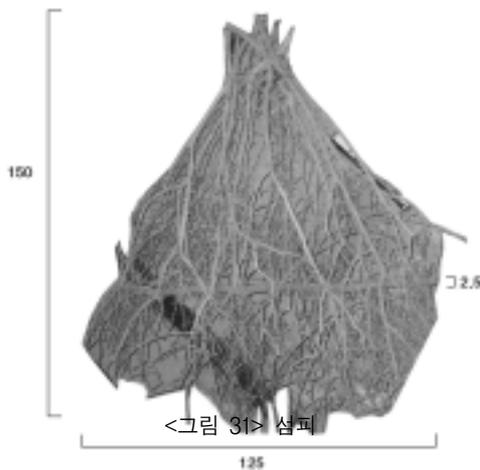


### (3) 섬피

‘꿈게’를 변형시켜 만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광지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끄시게’(김녕), ‘섬비’(대평, 애월, 오라 3동), ‘선비’(하효, 사계), ‘선피’(고산), ‘푸지게’(창천), ‘끄실케’(행원), ‘끄서퀴’, ‘끄서기’(수산), ‘끄실기’(조천, 함덕), ‘끄슬기’(송당)라고도 불렀다.

같이한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편평하게 밭을 고를 때나, 파종한 씨를 흙으로 덮어주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간혹 이긴 하지만 ‘곰배’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많지 않은 양의 ‘병에’를 펼 때도 썼다. 육지에서는 ‘꿈게’를 소에게 쟁기질을 가르칠 때도 썼다고 한다. 예전에는 산뉘, 메밀농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하였으나, 요사이는 목초(牧草)의 씨를 뿌릴 때 주

112) 안승모외, 『한국의 농기구』, (주)어문각, 2001. pp. 56~57



로 사용하고 있다. 우마(牛馬)를 빌리지 못할 때나 넓지 않은 밭은 밭은 사람이 직접 끌기도 하였으며, '삼피'를 넣을 수 없는 곳에서는 밭로 작업하였다.

삼피는 '목'과 '버림대', '섭'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부채꼴형을 이룬다. '목'과 '버림대'는 굵으로 묶었다. '목'이 튼튼해야 함으로 철사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철사를 활용하였다. 길이 약 150cm 정도로 가지가 많은 나무를 잘라서 전체적으로 삼각형(三角

形)이 되게 '버림대'를 대고 줄로 엮어 묶는다. '버림대'를 'ㄱ른새'(애월), '가로대'라고도 불렀다.

애월, 오라 3동에서는 '짱냥'(짱냥나무)으로, 조천에서는 소나무로, 행원에서는 가시가 많이 나는 '불래냥'(보리수나무)을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였다.<sup>113)</sup> 가지가 많고 가지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 파지면서 덮여지도록 하였다.

박물관 전시자료로 15개의 '짱냥'을 재료로 만들었다. '목'에서 1m 부분에 '버림대'를 대었고, '목'은 철사로 묶었다. 한림읍 귀덕리 이경팔의 것은 '섭' 위에 엮는 돌을 이용하여 무게를 조절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보통 한 사람 끌었는데 '이랑'을 따라 끌었다. 대개 하나를 만들면 그 밭에서 사용하고 해체해 버리는데, 갖고 다니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火木)으로 쓸 나무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옛 기록에서 '삼피'를 찾아보면 『課農小抄』에 '撻', 『海東農書』에 '끄으르 |', 『農事直說』에 '木斫背', '曳撈(鄉名 曳介)'의 기록(김광언, 1986:398~432)이 전해 오는데, 이것으로 보아 1429년 이전부터 사용해 온 농기구로 보인다.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버리지 않고 쓰면 5년 정도는 쓸 수 있었다.

사람으로 '삼피'를 끌 때는 작게 만든 것을 이용하였고, 소로 끌 때는 사람으로 할 때 것보다 크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3배 이상 작업이 빨라진다. 사

113) 홍희유, 앞의 논문, pp. 136~138에서 홍희유는 『農事直說』과 『課農小抄』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가지가 많은 회초리나무나 소나무 등 다지성 혹은 다엽성의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것으로 만들어 종자를 덮거나 밭을 평탄하게 만들 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115> 섬피 사용(1960년대?)-홍정표 사진

람이 끝 때에는 ‘목’에 ‘멜빵’을 걸고 어깨에 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상그리진다’고 하는데, 양어깨에 걸 수 있는 끈을 묶어 이용하였다. ‘섬피’ 위에 돌을 엮는 데 많이 엮을수록 작업능률이 오르나 사람이 끝 경우는 ‘고랑’의 깊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들므로, 보통 3~4개만 엮어 끌어준다. 힘들기는 하지만 600평 정도의 밭이면 1~2시간 이내에 모두 끝낸다.



송당에서는 메밀을 갈 때 주로 ‘섬피’를 사용했다. 메밀은 보통 처서(處暑) 직전에 파종하는데 밭을 네 번 갈아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가 풀이 많을 때였으므로 갈아놓으면 풀이 나고 해서이다. 네 번을 갈면 풀도 죽고 땅도 부드러워진다.

<사진 116> 섬피(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996. 9. 4.)  
다. 이렇게 밭갈이를 할 때는 ‘벧’도 빼두고 ‘보섭’만 있는 쟁기로 금을 긋듯이 해 놓고 파종을 한다.



<사진117> 섬피사용  
-高橋昇사진

메밀씨를 파종할 때 중요한 것은 ‘불치’(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불치’를 꺼내어 썩은 오줌을 넣고, 메밀씨를 함께 넣어 섞는다. 불치는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구할 수 있는 만큼은 많이 구해서 썼다. 이렇게 섞은 다음 밭으로 옮긴다. 힘이 있는 여자들이 골에 넣고 할머니나 아이들은 날라준다. 그냥 흘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3~5개 정도의 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간격을 보면서 넣는다. 보통 한 사람이 4골을 잡아 씨를 놓는데 이렇게 씨를 다 놓게 되면 다음 차례가 곧 ‘섬피’를 사용해야 하는 때가 된다.

우선 밭을 갈았던 소에 쟁기를 풀어 낸 대신 ‘명애’의 ‘오리목’에 ‘섬피’를 멘 다음 끌어준다. ‘섬피’를 끌 때는 같이 한 방향으로 끌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흙이 씨를 덮어 곤란해진다. 골이 너무 메워져도 안되므로 골이 난 쪽으로 끌어주어야 했다.

전남농업박물관의 것은 ‘소’로 ‘꾸게’를 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나무 막대를 방형



<사진 118> 끄개  
-전남농업박물관 사진

(方形)으로 엮어 만든 다음 아이를 올라앉게 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방에서는 이와는 달리 무겁고 긴 모(牟)가 난 나무 양쪽에 자루를 박아 소로 끌게 하였다고 한다. 경기지방에서는 ‘가마니’ 위에 돌을 얹거나 아이들을 올라타게 하여 사용하거나, 짧은 막대에 술가지를 매달고 그 위에 아이들이 타게 하여 소나 사람이 끌도록 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sup>114)</sup>

#### (4) 남테

김녕, 구좌 등 제주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렸던 명칭이다. 또 ‘남테’(김녕)라고도 불렀다. 자갈이 많은 밭에서는 튀어버리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애월에서는 사용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馬)의 무리로 ‘밭 밟기’를 하는 것을 ‘몰테’라고 한 것처럼, 나무로 수십 마리의 ‘말밭굽’을 만들어 ‘밭 밟기’를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무로 만든 것을 ‘남테’라 했던 것과 같이 돌로 만든 것을 ‘돌테’라고 불러 구분하며 사용했다. 나무로 만든 것 중에도 ‘말굽’을 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함께 쓰였음을 기억하기도 한다.

송당의 경우 몇 집이 ‘남테잡’(남테계)으로 만들어 썼던 것이었으므로 집집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으로 끌던가 소나 말(馬)로 끌었다. 화산재나 모래로 이루어진 토양은 바람에 날리기 쉽다. 이렇게 쉽게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토양을 가진 밭에 과종을 하고 육성을 시켜야 했기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제주도에 행해졌던 것이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밟아주는 ‘밭 밟기’의 농경기술이었다. 이러한 ‘남테’의 이용은 밭이 거의 화산재나 모래로 이루어진 주로 함덕, 김녕, 삼달 등에서 상호, 하효 등으로 이어지는 동쪽 마을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밭 밟기’는 조나 산뒤 등의 씨앗을 뿌린 후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다지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다져진 밭은 수분의 증발을 억제시켜 수분 함유율을 높임으로써 발아(發芽)를 도왔다고도 한다. 또 한편으로 ‘떼’ 밭을 개간하고 나서 ‘병에’를 부수고 흙을 부드럽게 하여 ‘떼’를 쉽게 쳐

114) 김광언, 앞의 책, p. 72



<사진 119> 말테 모습 뿌리깊은나무 사진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도 이 ‘남테’ 작업을 했다.

‘남테’에 관한 기록은 『農事直說』에 “3~4월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윤목(輪木)으로 풀을 죽이고 바닥을 고른 다음 늦벼를 뿌린다.”라고 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데 마치 이 작업을 연상할 수 있는 설명으로 여겨진다.



<그림 32> 남테

‘밭 밟기’에는 주로 말(馬)이 이용되었다. 이때 사용되는 말들의 무리를 ‘말테’ 혹은 ‘말테’라고 불렀으며, 주로 2~30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 <세경놀이>에도

“야, 이젠 말 들이라, 테 들이라,

밭 불리자”고 말(馬)을 이용한 ‘밭 밟기’를 설명하고 있다.(현용준, 1980:389) 그러나 바쁜 농사철에 한꺼번에 2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말(馬)을 활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모자라는 말의 수를 채추기 위해서 ‘말밭굽’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몸통’에 박아 돌아가면서 밟을 수 있도록 고안해 낸 것이 ‘남테’인 것이다. ‘밭 밟기’를 한 밭과 하지 않은 밭의 수확량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1970년에 오면서 ‘밭 밟기’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테’는 ‘채경’, ‘채경고리’, ‘몸통’, ‘밭굽’으로 구성되며, ‘밭굽’을 여러 개 박아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을 이루고 있다. 전체 무게가 10.5kg 정도의 것이 쓰였다.

① ‘채경’은 말의 축력(畜力)을 이용하기 위해 ‘접계’와 ‘구라’의 고리에 걸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고리가 박혀 있는 긴 막대다. 주로 ‘소낭’으로 만들었다.

② ‘채경고리’는 ‘남테’의 몸통이 회전할 수 있도록 중심에 박혀있는 ‘중쇠’에 연결된 고리다.

③ ‘몸통’은 길이 1m 정도의 원통형 나무로 직경 20cm 내외의 것이 이용되었다. 양쪽 측면의 중앙에 ‘중쇠’가 박혀 있으며 원통의 몸통에 ‘밭굽’이 박혀 있다. 행원, 하효 등지에서는 무겁고 질긴 나무였던 ‘가시낭’(가시나무)으로 주로 만들었다.



<사진 120> 발굽

④ ‘발굽’은 말의 ‘발굽’처럼 나무로 만든 것으로 송당리에서는 ‘발굽’이라고도 불렀다. 지름 6cm, 길이 10cm 정도의 말뚝이다. 8~9개씩 엇갈리도록 6~7줄을 박았다. 송당리에서는 ‘킷남’(간절매)으로 주로 만들었다. 한 번 만들면 빠지는 ‘발굽’ 등을 보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20년 정도 오래 썼다. 쓰지 않을 때는 비가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였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무게는 12.6kg 정도였다. ‘발굽’은 8줄로 1줄에 7개씩(굽기 6cm, 길이 10.5cm) 엇갈려 박혔다. 수산에서 사용된 ‘남테’는 몸통의 지름이 30cm, 가로 80cm정도에 길이 13cm, 지름 5cm 정도의 ‘발굽’ 30 여 개를 박은 것이었다



<사진 121> 돌테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제주민속촌, 1996. 3. 21.)

이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굽’을 만들어 붙인 것은 아니지만 돌로 거의 같은 형태로 깎아 만든 것을 ‘돌테’(돌테)라 하였다. 제주민속촌 ‘돌테’의 경우 ‘채경’은 확인할 수 없고, 양쪽 중앙에 ‘남테’의 ‘중쇠’와 같이 나무를 박아 채경 고리를 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몸통’의 지름이 20cm, 길이 65cm, 무게 51kg 정도였다. ‘남테’보다 4배 정도 더 무거운 편이다. 전남지방에서는 지름 17cm, 길이 50cm 정도의 돌에 가로로 작은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사용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김광언, 1995(8):507) 수산에서 사용된 ‘돌테’는 지름 17cm, 길이 50cm 정도의 것이었다.



<사진 122> 남테 사용(1960년대?)

‘남테’로 작업할 때 조 밭 밟기를 직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테우리’(목자)들에게 시간과 금액을 정하여 밟기거나 겨울철 ‘출’(쌀)을 할 때 도와줄 것으로 전제로 하여 맡겨서 하는 게 보통이었다. 송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2~3명의 ‘테우리’가 15~20여 필의 밭을 한꺼번에 밭에 밀어 넣어 2~3시간 밟아 주는 것이었는데 말(馬)이 귀하면 ‘남테’를 만들어 와 함께 밟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 사람이 우마(牛馬) 떼 앞에서 대장격의 말(馬)을 원하는 곳으로 유도(誘導)하면서 ‘선소리’를



<사진 123> 남태 사용(1960년대?)  
-홍정표 사진

하고, 나머지는 그 뒤 혹은 옆에서 ‘뒷소리’를 하면서 불렀던 <밭 불리는 소리>, <답전요(踏田謠)><sup>115)</sup>가 조사되어 전해오고 있다. 해변 마을에서는 수놓어서 몇 개가 함께 들어가 밟아주었으나 송당리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였다.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밭을 밟아 밭아울을 높였던 제주도 고유농기구의 하나로 보인다. 이때 우마(牛馬)의 수는 적으면 두 세 마리에서 많으면 수십 마리까지 동원하였고, 남녀 구별은 없었으나 주로

남자들이 담당하였다.

## 5. 매는 연장

밭갈이를 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면 파종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나서는 최대의 수확을 위해 생산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뿌린 씨가 한쪽에 치우친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였다. 이를 위한 농기구가 육성구로 ‘굴갱이’ 단 한 종류가 전한다. 최근에는 ‘검질’의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투약하는 약통과 벌레나 새 등을 쫓는 도구와 균(菌)을 죽이는 도구가 기계화(機械化)되어 함께 쓰이고 있기도 하다. ‘검질매기’가 끝나면 수확을 위해 베고 ‘뜯는’(조의 이삭만 자르는) 일을 해야 했는데 이때



<사진 124> 검질매기(1980년대?)  
-뿌리깊은나무 사진

사용한 것이 ‘호미’다.

제주도는 해양성 기후로 온난 다습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검질’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sup>116)</sup> 육성을 위해 행했던 매는 작업은 ‘굴갱이’를 도구로 이루어졌다. 연작(連作)과 휴한(休閑)에 따라 하루에 딸 수 있는 면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휴한(休閑)을 통해 지력(地力)을 회복하거나 간접적으로 ‘검질’을 매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검질매기’는 작물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보리의 경우 1~2회, 콩과 팥은 1회, 조(粟)의 경우

115) 좌혜경편, 『제주 섬의 노래』(국학자료원, 1995), pp. 156~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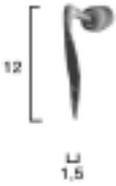
116) ‘검질’(잡초) 이외도 방목하던 마소의 훼손을 걱정하던 속담도 있다. “충대기 알 거시면 곡식 밭에 모쉬 든다.”는 것으로 종달새 둥지에 알을 훼손시키면 밭에 소나 말이 침입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경계하고 있다.

는 ‘세불검질’을 매어야만 농사가 되었을 정도였다.

조밭의 경우 초벌검질은 ‘방골름’이라 하여 쉬어 주기가 병행되었다. 조가 파종되어 발아(發芽)될 때까지 강우(降雨)가 없어 ‘마가지’가 되면 세불검질로 가능하다. 이때 한 사람이 하루에 가능 면적은 50평 내외가 된다. 그러나, 강우(降雨)로 인해 발아(發芽)와 함께 ‘검질’이 자라나고, 조의 생육에 저해되는 ‘마마진 조’가 되었을 때는 제초를 해야만 하는 회수가 증가하고, 하루에 맬 수 이는 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육이 극히 불량하여 조의 재배를 포기하고 휴한(休閑) 하거나 대체작물로 ‘메밀’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면화는 작은 면적에서 재배되었고, 집약적 노동이 쓰였던 작물로 여러 차례의 제초작업이 필요했다. 면화의 제초(除草)는 일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여유 있을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제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발 200m 이상의 지역에서는 산뒤와 조를 재배할 때 2~3회의 제초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외의 작물은 거의 제초하지 않았다.

(1) 곶갱이



<그림33> 곶갱이

‘호미’(鋤)와 같이 ‘검질’을 매기 위한 용도의 연장으로 용수, 저지, 고산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곶갱이’이라는 말은 ‘곶다’를 작게 말하는 ‘곶다’에서 온 말로 뒤에 명사형 어미 ‘앵이’가 붙은 말이다. 곶는데 쓰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또 ‘곶갱’, 곶갱이(감산), 곶개기(표선, 수산), 곶강쇄, 췌곶갱이, 곶갱이(귀덕), ‘곶갱이’(김녕), 곶각지(표선, 수산), ‘곶각지’(온평), ‘까꾸리’(온평)이라고도 불렀다.

밭에 나는 ‘검질’을 매거나 작물을 옮겨 심을 때, 그리고 콩, 수수, 좁쌀 등의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데도 썼다. 또 <세경본풀이>에서는 곶갱이가 ‘밭갈이’에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sup>117)</sup>

‘호미’에 관한 옛 기록은 『農事直說』에 ‘鋤’, 『訓民正音解例本』에 ‘호미’, 『穡經』에 ‘耨’,

117) 농경신의 내력담인 <세경본풀이>에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곶갱이’(호미)로 갈이를 했음을 보여준다.



‘鉏’, ‘鏟’라고 기록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랜 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김광언, 1986:398~432)

‘굴쟁이’는 ‘날’과 ‘자루’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룬다.<sup>118)</sup> 크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크기가 큰 것을 ‘호맹이’(용수), 작은 것을 ‘굴각지’(고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굴쟁이’는 형태를 분류하는 보습형, 낫형, 세모형 등 세 분류에서 낫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갈이 많은 지역

에서 사용되었던 특징을 지닌다고 검토된 바 있다(김광언, 1995(20) : 887). 무게 0.1kg 정도의 것이 쓰였다.

① ‘날’은 다시 매는 부분인 ‘날’과 자루에 박히는 ‘목’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육지의 호미가 대부분 날의 폭이 넓은 편으로, 형태도 보습형, 낫형, 세모형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도의 ‘굴쟁이’는 ‘날’이 거의 없고 ‘목’도 거의 직각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날’의 폭이 좁은 편이다. ‘날’의 형태에 따라 몇 종류가 쓰였다.

‘굴쟁이’는 둥근 쇠를 이용해 날을 가장 좁게 만든 것을 말한다. ‘검질’을 매는 데 주로 썼다. ‘회미’<sup>119)</sup>라 여 ‘호미’(낫)처럼 만든 것을 ‘검질’을 매거나 고사리를 꺾는데 쓰기도 했다. ‘주굴쟁이’는 넓은 쇠를 가공하여 날의 폭을 낸 것을 말한다.<sup>120)</sup> 흙을 긁는데 주로 썼으며, 이 보다 더 폭이 넓은 것을 ‘육지굴쟁이’라고도 한다. ‘일본호미’라 하여 ‘굴쟁이’의 ‘날’이 역삼각형으로 된 것도 최근에 쓰이고 있다. 또 ‘선호미’라 하여 역삼각형의 ‘날’에 긴 ‘자루’를 붙인 것이 쓰였다. 주로 서서 작업할 때 썼다.

<사진 125> 글쟁이

<사진 126> 글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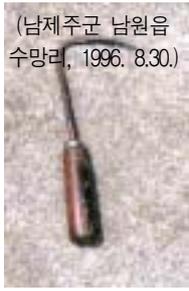
<사진 127> 회미

<사진 128> 주굴쟁이

118) 사회과학원민속학연구실편, 『조선의 풍습』, 학민사, 1993,p.25에 의하면 굴쟁이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기능의 호미의 부분명칭을 자락 등자걸이로 설명하기도 한다.

119)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 悅話堂, 1979,p.p.25~28

120) 주구굴쟁이(오라 3동), 주기굴쟁이(오라 3동), 쥐굴쟁이(오라 3동), 주주굴쟁이(애월)라고도 불렀다.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1996. 8.30.)



(서귀포시 하예동, 1996. 6. 20.)



(서귀포시 상호동, 1996. 9. 12.)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 2002. 6. 12.)



<사진 129>  
육지굴갱이  
(서귀포시 하예동, 1996. 6. 20.)



<사진 130>  
일본호미  
(서귀포시 하예동, 1996. 6. 20.)

② ‘자루’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낭’(소나무)으로 만들었다.

날의 폭이 넓은 것은 육지의 것으로 최근에 들어온 것이다. 좁은 것이 제주에서 주로 쓰였는데, 넓은 것을 사용하면 매지 말아야할 곡식까지도 매여지기 때문이었다. 날의 폭이 좁은 ‘굴갱이’를 사용할 때도 넓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날을 세워서 좁게 사용하여만 했다. 이는 제주도의 땅이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어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좁은 것을 깊이 땄 수 있도록 하였다. 육

지에서는 땅이 단단하여 깊이 내려갈 수 없고 옆으로 퍼져서 넓은 호미로 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산파(散播)에 의한 파종법과 자갈이 많은 밭에서 퍼석진 토양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반영한 문화적 산물로 보인다.

‘굴갱이’는 수분이 많아 흙이 부드러운 논이나 밭의 풀을 뽑아낼 때 쓰며, ‘삽굴갱이’는



<사진 131> 검질매기(1960년대?)-홍정표 사진

가물어서 땅이 단단하게 다져졌을 때 이것을 땅위로 긁어서 풀의 모가지를 잘라버릴 때 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오라 3동의 경우 ‘검질’이 ‘짓은’(많은) 밭에서는 하루 한 사람이 150평 1말지기의 반 정도 땄 수 있었으나, ‘검질’이 없는 밭에서는 300평까지 땄 수 있었다.

‘굴갱이’는 바다에서도 이용되었다. 날의 폭이 좁고 긴 것으로 줍녀들이 바다 속 좁은 돌 틈에 붙어 살고 있는 성게, 문어 등을 따 낼 때 사용한다.



<사진 132> 물구럭굴갱이-고광민 사진



<사진 133> 비니루굴갱이  
(남군 대정읍 감산리, 1999)-고광민 사진



<사진 134> 불미왕  
(서귀포시 오일장, 1997. 5. 14.)

‘비니루굴갱이’는 ‘곶데산이’(마늘)에 비닐을 덮은 다음 비닐에 구멍을 뚫고 줄기를 꺼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자루에 철사를 꽂아 만든 것이다. 감산리의 경우 1961년부터 감자 묘종(苗種)을 놓는 데 비니루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비닐하우스에까지 이용하고 있다.<sup>121)</sup>

이외에도 남군 남원읍 태흥리 575번지의 이○○(男, 1923년생)의 ‘선호미’를 살필 수 있었다. 자루 길이 120.5cm, 날 길이 22cm, 날 폭 15.5cm 정도의 것이다.

제주시 아라동 김○○(여, 1920년생)의 ‘굴갱이’는 2년 정도 쓴 것으로 날의 폭이 1.5cm밖에 되지 않을 만큼 좁은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에서는 ‘논호미’와 ‘밭호미’가 구분되어 이용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122)</sup> 육지의 경우 토양이 굳고 사력질(砂礫質)이 많은 자연환경에 적합하도록 자루가 짧고 끝이 뾰족한 ‘호미’로 논에서 제조할 때 1일 1인당 약 300평 정도 맬 수 있었다.(홍희유, 1974:140)

강원도 지역에서는 ‘양귀호미’라 하여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보다 많은 ‘검질’을 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의 밭은 자갈이 많아서 넓은 면적이 많을 수록 걸리는 확률이 높아 ‘검질’을 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날의 폭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굴갱이’ 자료의 경우 자루 길이 26~31cm, 날 길이 9~10cm, 날 폭 2~2.5cm 정도의 것이었다.<sup>123)</sup>

일반적으로 ‘검질’매는 일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어느 것이나 힘든 일이지만 특히 여름에 ‘검질매기’는 상당한 고역이었다. 잘 매면 하루에 여자들이 150평 정도

121) 高光敏, 『甘山里의 民具』, 1999. p.23

122) 김광언, 앞의 논문, pp. 39~40에 의하면 5자루를 준비해 두었다가 쓰고 있다. 밭호미는 날이 지면에 수평을 이루고 양쪽에 귀가 달려서 풀을 밀어 깎거나 뿌리를 캐는데 편리하다. 또 자루가 긴 편이어서 쭈그러 앉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양귀호미’라고도 한다. 논호미는 자루가 짧은 대신 날이 크고 끝은 뾰족하다.

123) 京畿大學敎博物館, 앞의 책, p. 104



<사진 135> 선호미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1996. 9. 12.)



<사진 136> 제초기  
-경기대학교박물관 사진



<사진 137> 간스메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2구,  
2001. 10. 22.)

를 매나 ‘검질’이 많으면 100평 정도를 맨다.

농사라는 것이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경작하는 밭에 ‘검질’이 많으면 그 농사는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제주에서 “입춘 날 여자가 그 집에 오면 ‘검질’이 짓는다.”하여 여자들이 나 다니는 것을 피했다고 한다.<sup>124)</sup>

한 여름 띄약벌에서 김을 맨다는 것은 비록 일시에 큰 힘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매는 사람의 진을 빼어 놓을 만큼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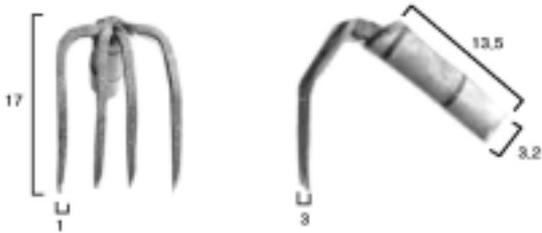
전남 해남군 하원면 영호리 김○○(남, 1934년생)의 ‘호무’는 논밭에 대한 제초(除草)와 중경(中耕)을 목적으로 하며, 작물의 이식(移植)과 콩, 옥수수의 파종에도 이용했다. 호미의 전형적인 형태는 장삼각형(長三角形)으로 날의 높이는 60cm, 폭은 약 10cm 정도이다. 호미자루가 짧고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호미를 벼의 제초에 쓸 때 1인이 약 300평을 맬 수 있다.

전남 완주군 경천면 가산리 임○○(남, 1925년생)의 ‘양귀호미’도 살필 수 있었으며, 강원도 강릉에서는 ‘양귀호미’와 ‘외귀호미’가 쓰였다. 고성에서는 ‘호미’가 날의 세로 길이가 15cm, 자루가 22cm로 보섭형이며, 명주군의 호미가 날의 가로 길이가 11cm로 측면이 긴 낫형에 가깝다고 한다.<sup>125)</sup>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논호미는 자루 길이 24cm~26cm, 날길이 17.5cm~18cm 정도의 것이었고, ‘밭호미’의 경우 날길이 14cm, 자루길이 33cm 정도로 밭호미가 날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었다.<sup>126)</sup>

124) 秦聖麒, 『南國의 民俗』, 1980, 교학사, p. 222

125) 韓相福, 『農耕』,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江原道篇),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7, p. 303

126) 京畿大學敎育博物館, 앞의 책, p. 104



<표 19> 괭갱이 비교

<그림35> 간스메

구 분		날		목			자루		비고	
		길이	폭	길이	폭	두께	길이	지름		
김정규	해남	13.9	4.0	21.8	1.0	0.5	11.1	3		
	여수	대	14.7	5.3	19.8	0.9	0.5	11.2	3	
		중	14.0	4.5	18.9	0.9	0.4	11.2	3	
		소	12.2	3.2	17.3	0.8	0.5	11.2	3	
	진도	13.8	2.8	20.2	1.0	0.4	11.2	3	과 캐기	
제주 고성	10.0	4.0	16.6	0.9	0.5	11.2	3			
백정순	전남 장흥	13.0	5.3	21.4	1.1	0.5	11.2	3		
임필영	전북 완주	12.7	7.0	11.5	1.1	0.4	17.5	2.2		
김명규	전남 해원	11.0	4.0	22.4	1.0	0.6	11.2	3		
김영옥	제주 제주	12.0	1.5	15.5	0.8	0.4	12.0	2.6	3년전 구입	

<표 19>은 손잡이인 자루의 길이가 11cm 내외이고 굵기가 3cm 내외라는 것은 여느 지역과 같다. 그런데 날의 폭이 작다는 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비교한 육지 '호미'의 날 폭이 평균 4.5cm 정도인데 비해 제주도의 것은 1.5cm에 불과하다. 이는 자갈이 많은 제주 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해양성 기후의 고온습윤(高溫濕潤)한



<사진 138> 괭갱이 사용(1980년대?)  
-뿌리깊은나무 사진

특징과 피석진 땅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검질'를 매기 위해서 변형한 농기구의 하나로 보인다. 또 하나는 산파(散播)를 주요 파종법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좁거나 넓게 올라온 묘종을 '방글름'이라 하여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리를 잡아주어야 한다. 이때 가까이 있는 다른 묘종을 건들지 않고 슈기도 해야 하고 옮겨심기도 해야 했는데 이때 날의 폭이 넓은 것보단 좁은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최○○(여, 1942년생)는 '간스메'라고 하는('각쟁이'라고도 함)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논매기에 사용하는 것이다. 4개의 발과 짧은 자루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편 채 구부린 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낱의 폭이 2cm 이하 것이 제주의 ‘굴갱이’로 보인다. 이는 산파(散播)로 파종하는 파종법 때문에 간격이 좁은 밭이나 피석진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잡초를 매기 위한 문화적 산물이다. ‘굴갱이’는 전 조사 가옥에서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육지에서 ‘호미’라고 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의 것이지만, 형태는 달라 낱의 폭이 좁은 것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자갈이 많았던 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도에서만 사용했던 농기구의 하나였다. 낱의 폭이 가늘고 목이 긴 것으로 ‘성계 굴각지’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좁녀’(해녀)들이 바다 속 좁은 돌 틈에 붙어 살고 있는 문어나 성계를 따 낼 때 사용했다.

## 6. 거두는 연장

거두는 연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낫’을 가리키는 ‘호미’다. 보리나 조 등을 거둬들이는 것은 물론 조의 고고리를 ‘뜯는’(따는) 데도 썼다. 좁녀(潛女)들이 해조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였던 ‘중계호미’도 있어 사용되었다. 보리를 거둬들일 때 넘어졌거나 하여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하루 150평 정도 벨 수 있었으며, 조 고고리 ‘뜯기’에는 손이 빠른 사람이라도 하루 한 사람이 50‘뭇’(단) 정도밖에 작업할 수 없었다. 이 작업량은 5말짜리 ‘뭇’ 3개 정도에 가득찼을 정도였다.



### (1) 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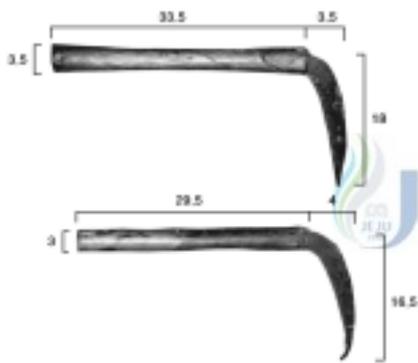
‘낫’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지, 김녕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다른 지방에서 ‘낫’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호미’라고 한다.

곡식이나 풀을 베는데 주로 썼던 것이다. 조의 ‘고고리’(이삭)를 잘라 수확해 들일 때나 나무 가지를 칠 때 등에 사용했다. ‘호미’와 구분하여 ‘냥’(나무)을 끊을 때나 돼지를 잡을 때 ‘짱’(뺨)을 칠 때 주로 쓰는 것으로 ‘나테’(고산) 혹은 ‘나대’(가시, 수산)라 불리는 것도 함께 사용하였다. ‘나테’는 자루가 없이 손잡이로 사용할 부분에 자동차 튜브의 고무를 넓게 잘라 감아 썼던 것이다.



‘호미’에 관한 옛 기록은 『訓民正音解例本』에 ‘낫 (鎌)’이라 기록(김광언, 1986:398~432)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기본 농기구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사시대 유적 발굴 등을 통해 볼 때 제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미와는 다르지만 대전 둔산 유적에서 멧돼지의 이빨로

만든 낫이, 사천 본촌리, 대구 서변동 유적에서 반달모양의 돌칼이, 진주 대평리 유적에서 ‘돌낫’이 출토되고 있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수확구의 하나로 낫을 이용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임학중, 2000:32~33) 삼한, 삼국시대에 출토된 쇠낫이 농기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한시대에 낫이 크게 굽고 긴 형태에서 날뚝이 넓고 곧은 형태로 변화해 오면서 3세기 후반에야 쇠낫의 사용이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인다.(안승모, 2001:58~59)



<그림 36> 호미



<그림 37> 호미

호미는 ‘낫’과 ‘자루’로 구성된다. “낫 놓고 ‘ㄱ’字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ㄱ’字형을 하고 있다. ‘낫’은 다시 자루에 박히는 부분을 ‘수매’, 낫의 가운데를 ‘뿔’, 낫의 끝을 ‘매우리’라고 불렀다.(김광언, 1969:187)

① ‘낫’의 형태로 종류가 구분되었는데, 호미, ‘메호미’(낫), 일본호미 있다. 그냥 ‘호미’라고 하는 것은 보리, 깨 등을 벨 때 쓰는 것으로 목이 없고 자루가 긴 것을 말한다. ‘메호미’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주로 썼던 것으로 ‘호미’와는 달리 목이 긴 편이고



<사진 141> 메호미  
(제주시 해안동,  
1996. 8. 29.)



<사진 142> 일본호미  
(서귀포시 하예동,  
1996. 9. 20.)

자루가 짧다. 육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것이 들어 오기 전에는 ‘나테’로 ‘낭가지’(나무 가지)를 쳤다. ‘일본호미’는 7자형의 호미와는 달리 160도 정도의 각을 갖는 퍼진 상태의 것으로 ‘날’이 톱날처럼 생겼다고 하여 ‘톱날호미’라고도 한다. 우리의 호미가 자주 갈아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과는 달리 ‘무끼는’(무디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② ‘자루’는 제일 가벼운 것으로 만들었다. ‘족낭’(때죽나무)이나 소나무를 썼다. 날이 박히는 부분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틀어지면서 자라는 나무를 자루로 만들거나, ‘당목두’라 하여 둥근 쇠를 덧대어 사용했다.



<사진 143> 중계호미-고광민 사진 (함박이나나무)로 자루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중계호미’(‘중계호맹이’라고도 함)라 하여 좁혀들이 미역이나 듬북 등 해초(海草) 채취시 사용하였던 것도 이용되었다. 특히 ‘중계호미’는 물속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쉽게 녹이 났는데 자루와 날을 고정하는데 ‘낫노’를 사용했던 점과 자루에 특징을 지닌다. 혹 물 속에서 호미를 놓쳤을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벼운 재료인 ‘함백낭’

박물관 농기구 전시코너에 전시하고 있는 전시자료는 ‘날’과 ‘자루’의 각이 105도 정도이며, 또 다른 자료는 ‘날’과 ‘자루’의 각이 110도로 더 벌어져 있다.

제주시 아라동 김○○(여, 1920년생)의 호미는 ‘날’과 ‘자루’의 각이 95도로 위에서 살핀 것보다 더 좁아졌다. 그냥 ‘호미’라고 하는 것은 날이 얇고 날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왜낫’이라 불렀던 것으로 날과 자루가 거의 직각을 이룬다. ‘날’의 폭은 육지의 것보다 약간 좁으며, ‘날’은 ‘자루’와 수평이 되어 있는 것과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작업을 할 때, 사람 높이의 각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루’의 재료는 주로 ‘소낭’(소나무)를 썼으나 가벼운 나무면 가리지 않았고, ‘날’은 강한 ‘쇠’를 두드려서 만들고 담금질로 더욱 강하게 하였다.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의 손○○(남, 1929년생)의 ‘낫’이다. 강원도에서는 ‘메호미’와



같은 기능의 것을 ‘목낫’이라 하였으며 타원형의 낫의 길이가 28cm 정도되었다.(한상복, 1977:305)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낫 길이 16~19cm, 낫폭 3cm 정도의 것이었다.(경기대학교박물관, 1980:104)

<사진 144> 낫(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2001. 10. 23.)

<표 20> 호미 비교

구	분	낫		목			자루		비고
		길이	폭	길이	폭	두께	길이	지름	
김정규	해남	17.3	3.0	17.5	1.5	0.3	11.3	3.0	메호미
	육지	22.0	3.5	19.5	1.9	0.6	13.2	3.4	
손동열	전남 보성	21.5	3.3	18.8	2.0	0.4	14.7	3.0	
문수남		18.5	2.8	16.5	2.2	0.5	15.0	3.0	
김영옥	제주 제주	18.5	3.0	20.0	3.0	0.1	30.0	3.0	호미
이정호	전남장흥	21.8	2.8	21.0	2.8	0.4	37.5	3.0	
엄화삼	충남금산	22.3	3.4	22.0	3.4	0.4	40.3	3.0	

<표 20>는 ‘호미’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제주에서 이용된 ‘호미’의 낫 길이는 20cm 내외, 폭은 3cm 내외의 것이 30cm 이상의 자루에 박혀 주로 이용되었으며, 메호미의 경우 낫 길이 17cm 내외의 목에 자루가 박혔으나 왜낫은 목이 없는 것이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45> 호미 사용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1994. 6. 10.)

호미로 베는 양은 ‘검질’을 매는 것과 비슷한 분량이다. 물론 개인의 차나 작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주에서 주곡인 ‘보리’를 벨 경우 200~250평 정도였다. 이는 육지에서 벼를 벨 때 약 300평 정도를 하루에 벨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리를 벨 때는 묶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다.



<사진 146> 호미 사용(1969년대?)  
-홍정표사진



<사진 147> 신돌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1996. 9. 12.)  
(홍순택, 1969:767)

‘호미’는 가장 많이 쓰는 연장이었기 때문에 오래 쓰지 못했다. 잘 써야 2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예전에는 쇠를 담금질하여 강한 쇠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날 부분만 담금질하여 그 부분이 닳아지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루에 3번을 ‘신돌’에 갈아 써야 했으므로 닳아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다. 산뒤나 조를 벨 때가 날이 가장 많이 닳았으나 보리나 유채는 얼마 닳지 않는 작물이다. 유채에는 물기를 먹고있는 유채의 줄기를 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호미와 관련된 수수께끼로 “아버 목을 베는데, 아들이 춤추는 것에 쓰는 것”이라는 섬뜩한 것이 전해온다. 이는 아버지를 벼의 줄기, 아들을 벼의 이삭에 비유한 것이다.(홍순택, 1969:767)

## 7. 운반하는 연장

이원진(李元鎭)의 『耽羅志』에 “등에 나무통을 지고 다니며, 머리에 이는 사람이 없다.”는 기록이 있듯이 지고 옮겼던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 듯 하다.(김상조 역, 1991:5) 농작물을 나르는 데도 사람이 들거나, 메거나 지고 날랐던 것으로 보아 전래부터 동력(動力)의 근원을 인력(人力)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들고 날랐던 데 이용하였던 도구로 ‘산태’가 있으며, 지고 날랐던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계’였다. 또 신서란이나 말총 등으로 만든 ‘베’를 이용하여 지고 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량의 수확물이나 무거운 것 등을 운반하는 데, 또는 먼길을 이동하여야 할 때는 소나 말(畜力)을 이용한 ‘마차’나 ‘질메’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세경놀이>에 수확한 조(粟)를 암소를 이용하여 실어 들고 있다.(현용준, 1980:392)고 하는 것도 ‘질메’를 이용한 운반으로 보인다.

운반한 작물이나 ‘지들커’(뽕감)를 임시로 쌓아 두는 것을 ‘눌’이라고 한다. ‘눌굽’은 ‘눌’을 쌓기 위한 바닥으로 적당한 크기의 돌을 모아 원형으로 만든 곳이다. 이 위에 보리 등을 쌓고 비가 새어 들지 않도록 ‘나람지’(이엉)를 만들어 덮는다. 그리고 나람지가 모아지

는 곳에 ‘주쟁이’를 모자처럼 씌우면 된다. 그리고 ‘나람지’와 ‘주쟁이’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 만든 줄을 엮어 엉클어 놓는데 이것을 ‘누름줄’이라고 한다. 출가할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 줄을 더 크게 보이도록 했다고도 한다.

(1) 산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세웠던 ‘사다리’와 같은 형태의 것이나 무겁지 않도록 만들었다.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으로, 또 ‘산태’, ‘삼태’, ‘삼태’(오라 3동), ‘당카’라고도 불렀다.



<사진 148> 산태 사용(1970년대)

거름이 ‘돛통’이나 ‘쇄왕’에서 걷어 마당 등으로 옮길 때나 개간한 밭의 흙을 일굴 때 나오는 돌 이나 흙 등을 옮길 때 주로 사용하였다. 쌀 같은 것을 ‘멕’에 담아 옮길 때도 썼다. 성읍리에서는 포제(酬祭)를 지낼 때 제물로 쓰이는 희생을 옮길 때 사용하고 있다. 갓추고 쓰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



<사진 149> 산태 사용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2001. 2. 4.)

형태에 따라 거름, 돌, 흙, 곡물 등을 담은 ‘거름착’이나 ‘멕’ 등을 올려놓고 운반하는 데 주로 썼다. 또 세워서 지붕에 올라갈 때 사다리와 같은 용도로도 쓸 수 있었던 ‘산태’와 둥근 테두리를 만들고 끈으로 ‘얼맹이’처럼 엮어 만든 것으로 ‘돌산태’가 쓰였다.



<그림 38> 산 태

‘산태’는 ‘부출’과 ‘새’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H字형을 이룬다. 2인 혹은 4인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들어 운반하는 데 썼다. 두집에 하나 정도는 있었다. 콘테이너가 나오면서 급격히 없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부출’을 철봉으로 ‘새’를 나일론 끈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① ‘부출’은 ‘산태부출’, ‘산태’(애월)라고도 하는 것으로 사용시 손잡이가 되는 것이다. 질긴 나무인 ‘솔피낭’(쇠물푸레나무)으로 주로 만들었으나 하효에서는 ‘콧낭’(꾸지뽕나무), 가파에서는 ‘가시낭’(가시나무)으로 만들어 사

용하고 있다.

② ‘새’는 ‘터대기’, ‘가로장’, ‘가로대’, ‘ㄱ른새’(애월리)라고도 부른다. ‘부출’ 가운데에 가로로 놓아 운반할 물건을 엮을 수 있도록 중앙에 놓은 3~4개의 가는 나무를 말한다.

가과도에서는 가끔 거름을 실어 옮길 때 썼다. 또 지붕일기를 할 때 지붕에 올라가고 내려오거나, 초상이 나서 오르내릴 때 등에 썼다. 주로 ‘가시낭’(가시나무)으로 만들었다. 애월에서는 잔디나, 돌, 흙 등을 나르는데 주로 썼다.



<사진150> 돌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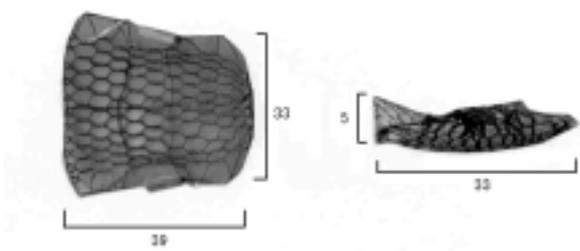
‘돌산태’는 주로 ‘마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운반할 때나 ‘뚝거름’을 나를 때 등에 사용하였다. 밭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없어 밭담을 넘어 다닐 때, 산담을 담을 때 돌을 엮어 나를 때, 봉분(封墳)을 할 때 멩텅이에 담은 흙을 나를 때도 사용하였다.

‘산태’와는 달리 1인용인 ‘돌산태’는 많지 않은 양의 돌을 나르기 위한 도구였다. ‘꺄체’가 없을 때나 특히 돌작업을 할 때 사용하였다. ‘에움’과 ‘노’로 구성되며 전체

적으로 원형(圓形)이다.

① ‘에움’은 잘 휘어지지만 질긴 성질을 지닌 ‘명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돌산태’의 형태를 규정지를 뿐 아니라 사용시에는 손잡이가 된다.

② ‘노’는 ‘줄갱이줄’(오름덩굴)로 만든 것을 최고로 쳤으나 칩으로도 만들어 썼으며, 나중에는 철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39> 돌채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평2구, 2001. 10. 22)

‘돌산태’의 경우 오라 3동에서는 조그마한 돌을 한꺼번 좀 많이 옮길 때 사용했다. ‘돌삼태’라고도 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추녀 밑에 달아 보관한다. 돌도 나르고 무거운 것을 드는 데도 쓴다. 갖추어 쓰는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쌀 같은 것을

멩텅이로 담아 옮길 때 멩텅이를 엮어 나르는 데도 썼다.

<산태질 소리>라 하여 물건을 나르게 된 산태로 돌 따위를 옮기면서 불렀던 소리도



<사진 151> 산태 보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2001. 2. 4.)



<사진 152> 산태 보관

전해오고 있다. 또 구  
좌에서는 ‘삼태거리’라  
하여 들것에 사람을 묶  
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  
고 그것을 거꾸로 하여  
벌을 주는 일도 있었다  
고 한다.(제주도,  
1995:300) 육지에서는  
퇴비나 두엄 같은 비료  
를 옮기는데 쓰기 위해  
가는 새끼줄을 엮어 만  
든 ‘들것 채’를 사용하

기도 했다.(학국무속박물관 학예실 역, 1995:209~211.) 육지에서는 거름을 나르는 데 썼던  
‘들것’과 알곡 등을 나르는데 썼던 ‘가자’가 쓰였다.(박호석, 1990:51~55.)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평리 백정순의 ‘돌채’로 많지 않은 돌을 옮길 때 사용했다.

(2) 지게



<사진 153> 지게 사용(1980년대)



<사진 154> 지게 사용  
(1920년대)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제주도 여러 지  
역에서 불렀던 명  
칭이다. ‘지는 것’  
이라는 뜻에서 불  
여진 것으로 보인  
다. 또 ‘지게’라고  
도 불린다. 특히  
작은 섬인 가파에  
서는 ‘마차’가 없

었으므로 운반 연장으로 ‘구덕’보다도 ‘지게’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쉽게 휴대하고 만들 수 있어 활용이 많았던 ‘배’가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육지의 다



<사진 155> 지게 사용:거름나르기  
(경남 하동군 흑룡리, 2001. 10. 24.)

<사진 156> 지게 사용:자리구덕  
(1960년대)-홍정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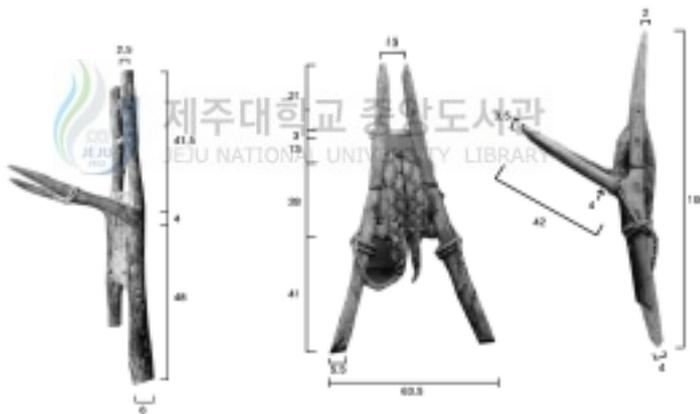
른 지방과는 달리 ‘지게’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큰 농기구, 다량(多量)의 작물 등 들고 다니기에 어려운 것들을 운반하는 데 주로 썼다. 또 ‘마차’ 등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옮기는 데 썼다. 곡물(穀物), 나무 등 인력으로 나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배’를 이용해 옮겼으므로, ‘쟁기’, ‘따비’, ‘거름착’ 등의 큰 농기구나, ‘듬북’, ‘미역’ 등 해조류(海藻類)를 운반할 때 주로 이용하였다. 물론, 작은 ‘자리’(자리돔)를 담은 구덕을 지고 팔려 다닐 때도 이용하였다. 이때는 ‘고에가죽’을 ‘지게가지’에 놓고 ‘자리구덕’ 등을 얹어 혹 흐르는 물이 등에 묻지 않도록 하였다.

‘지게’에 관한 옛기록은 『增補山林經濟』에 ‘負持機’로 기록(김광언, 1986:398~432)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게’는 ‘머리웃’, ‘세역’, ‘끈받침’, ‘세역’, ‘지게가지’, ‘탕게’,



<그림 40> 지게



<그림 41> 지게

‘등바테’, 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A자형을 이룬다. 보다 많은 양을 지기 위해 ‘지게가지’가 없는 ‘선지게’가 이용되었음도 살필 수 있었다.(김동섭, 1998: 140)

① ‘지게낭’은 지금은 소나무로 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노가리낭’(주목) 지게를 최고로 쳤다. 그래서 어느 집에 ‘노가리 지게’가 하나가 있으면 ‘산림꾼’ 집안이라고 칭송했다. ‘노가리낭’은 ‘비즈낭’(비자나무) 닮은 것인데 가지가 달린 것이 백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사진 157>세역



<사진 158> 지게

(남군 남원읍 태흥리, 2001. 8. 30.)

<사진 159> 지게 사용 : 출나르기

(경남 하동군 두곡리, 2001. 10. 24.)

정도로 귀했다. 애월에서는 ‘비즈냥’이나 ‘노가리냥’, ‘소냥’으로 만들었으나, ‘돌지게’ 같은 것은 ‘가시냥’(가시나무)으로 만들었다. ‘지게 작대기’는 ‘죽냥’(때죽나무)이나 ‘돛박냥’(돛박나무), ‘꿇가시냥’(꾸지뽕나무) 등 가리지 않았다.

② ‘세역’은 두 개의 ‘지게냥’을 가로로 연결하여 지게의 형태를 갖도록 하며, 짐을 질 때 등이 닿도록 된 ‘등테’가 고정되는 곳이다. 3개의 가로막대다.

③ ‘탕계’는 ‘세역’으로 연결된 양쪽을 튼튼하게 당겨주도록 돌린 끈이다. 나중에 굵은 철사를 이용하였다. 수산에서는 ‘팽개’, ‘팽개줄’이라고도 불렀다.

④ ‘등테’는 ‘방석’(수산)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없었던 것이다. ‘등바테’에 새끼를 감아서 썼을 뿐이었는데, 해안 마을에서 등복같이 물기있는 것을 질 때 물이 흘러 옷이 젖는 것을 막기 위해 나중에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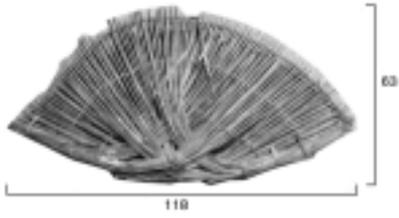
⑤ ‘지게친’은 지게를 질 수 있도록 된 끈이다. 짚으로 만든 것도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오면서 질긴 것으로 사용하였다.

돌 작업에 쓰이는 ‘돌 지게’는 별도로 튼튼한 나무로 굵게 만들어 썼으며, ‘선지게’라 하여 보리 수확 후 말린 보리를 옮길 때에 쓰기도 했다.<sup>127)</sup>

다른 박물관 소장자료는 무게가 2kg 정도이다. ‘바지

게’의 재료로 행원에서는 ‘숨부기냥’(숨비기나무)으로 애월에서는 ‘포플라’, ‘수리대’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육지에서는 ‘짜리나무’로 만든 것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바지게’는 해초, 특히 감태 같은 것을 걷어들일 때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해안 마을이 아닌 송당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섬이지만 가파에서도 ‘바지게’를 사용치 않았고 대신으로 ‘숨부기냥’(숨부기나무)로 구덕 같이 만든 ‘증시리’를 사용했다.

127) 대정지역에서는 돌 지게를 쓰기도 했다.



<그림 42> 바지계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2001. 10. 22.)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안○○(여, 1922년생)의 ‘바소가리’는 자잘하고 물기 있는 돛거름 등을 옮길 때는 ‘바소가리’를 받치고 썼다. 싸리나 대나무, 갈대 등을 재료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만들어 ‘지계 가지’에 얹어 이용하였다. 흙 등을 질 때는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닐이나 거적을 안쪽에 대고 이용하였다.



<사진 160> 지계발 걷기  
(민속자연사박물관 추석 민속행사, 관, 1980:104)  
2001. 10. 2)

지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재료를 이용해 아이들의 민속놀이에도 이용하였다. 제주에서는 ‘지계받걷기’라는 민속놀이가 세시적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박물관에서 이루어졌던 2001년도 추석날 민속놀이에 참가한 아이의 ‘지계받걷기’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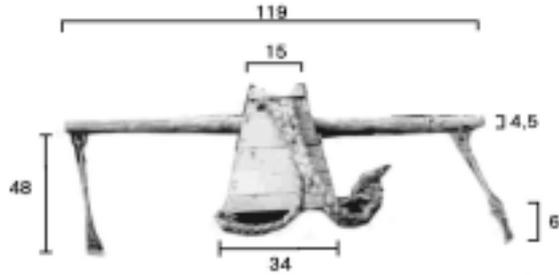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이○○(남, 1953년생)의 ‘지계’는 소나무로 만들 것이다. 강원도의 지계 길이가 124cm~115cm 정도이고(정상교, 2000:52~53)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넓이 64cm, 높이 130cm 정도의 것이다.(경기대학교박물관

<표 21> 지계 비교

지역	전체길이	가지길이	지계발간격	지계발길이	비고
제주 제주	93	36	50		
제주 제주	88.5	42	52	31	
전남 장흥			63.5		
전북 김제	143	71	77		
경기 가평	113	47	48		
강원 양양	131	54	45		

<표 21>은 제주도의 지계가 상당히 작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계발’이 짧다. 이렇게 작고, 지계발(목발, 동발이)을 짧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 제주도 지계의 특징이다. 이는 높은 밭담을 넘어 다녀야 했던 풍토성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의 고유성을 반영한 농기구로 보인다. 김광연(1997:194~205)의 조사에서도 이를 밝혔고, 더욱 지계를 만드는 재

료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게와 관련된 수수께끼로 “기둥나무에 빨 붙은 것”, “엉덩이에 빨 난 것”, “등에 빨난 것”이라는 것이 전해온다.(홍순택, 1989:774)



<그림 43> 물지게(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2001. 10. 22.)

‘물지게’도 살필 수 있었다. 제주도에 서 사용하던 ‘물구덕’과 같이 식수의 운 반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양쪽 고리에 물통을 걸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옮겼다. 전남 해남군 하원면 영호리 박○○(男, 1942년생)는 거친 짐(보리, 쌀 감)을 질 때 많이 지기 위해 ‘땅꼬작’<sup>128)</sup> 을 덧붙여 쓰기도 했다.

‘지게’는 농사를 작게 하는 몇 가옥을 제외하고 거의 전 가옥에서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쟁기, 거름작 등의 농기구 운반은 물론, 잡은 자리를 담아 운반할 때도 이용하였다. 육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점, 특히 ‘지게 발’이 짧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높은 발담을 넘어 다녀야 했던 제주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3) 배



<사진 161> 배 사용(1939년)-高橋昇 사진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육지 다른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간단한 물건은 머리에 이고 운반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주에서는 등에 지고 운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때 구덕에 담아 지거나, 그냥 젖서 운반하여야 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배’였다. 이것을 성읍에서는 ‘베’라고도 불렀다. 등짐을 질 때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보통 길이 4~5m의 것이 이용되었다.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불리는 이름의 종류도 다양하였다. 형태에 따라서는 원형(圓形)의 것과 넓은 것이 있어 사용되었다. 원형의 것은 굵기가 1cm 이상의 것이 사용되었고, 넓은 것은 폭이 5cm 정도의 것이

128) ‘지게꼬작’이라고도 한다. 전라남도농업박물관, 「運搬用具특별전」(도록), 1999. p. 11



<그림 44> 배

쓰였다. ‘짐배’는 보통 3발, 5m 정도의 것이 쓰였고, ‘셋배’<sup>129)</sup>(밭줄)는 10m 정도의 것이 쓰였다.

물건을 묶을 때나 ‘섬피’ 등을 끌 때 밧줄을 사용하였는데, 제주에서는 ‘배’라고 한다. ‘지게’가 주로 남자들이 이용하는 운반도구였다면 주로 여자들이 이용하는 운반하는 연장이다. 3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제물(祭物)을 담아 마을 사람들의 신앙 성소(聖所)인 ‘당(堂)에 갈 때 지는 ‘구덕’은 물론, 보릿단이나 뽕감 등 무거운 것을 질 때도 이 ‘배’를 이용한다. 겨울에 소에게 먹일 출(풀)을 베어 옮길 때도 ‘배’를 이용하기도 했다.<sup>130)</sup>



<사진 162> 짚



<사진 163> 신서란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1993. 5. 23.)

① ‘꼭배’는 ‘촛’으로 만든 ‘배’를 말한다. ‘꼭’은 ‘촛’의 제주 지역어(地域語)다.

② ‘미배’는 억새의 속잎인 ‘미’를 재료로 만든 ‘배’를 말한다.

③ ‘총배’는 말총을 재료로 만든 ‘배’를 말한다. ‘말석’, ‘쇠석’, ‘셋배’ 등 짐을 실어 나르는 데는 물론, 방목(放牧)중인 우마(牛馬)를 잡아 맬 때, 포제(酬祭)의 희생용

제물로 쓰기 위해 돼지를 잡아야 했는데, 이때 돼지를 묶는 데 등 큰 힘이 쏠리는 곳에 주로 사용하였다.

④ ‘찍배’는 ‘짚’으로 만든 ‘배’를 말한다. ‘짐괘’라고도 불렀다. 질기계 하려고 할 때는 ‘갈중이’ 떨어진 것으로 넣어 만들기도 하였다.

129) 밧줄을 가리키는 것으로 ‘쉐얏배’, ‘쉐얏배’, ‘쉐얏배’(한림), ‘수웁배’라고도 불렀다.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 묶는 긴 줄이다.

130) 겨우네 한 마리의 소가 먹는 풀의 양은 25바리였다. 1바리는 40단 정도였다. 소나 말이 있는 집에서는 풀을 쌓아두는 ‘꿀눌’이 마련되었다.



<사진164> 배 사용(1980년대)  
-뿌리깊은나무사진



<사진165> 배 사용  
(1980년대)  
-뿌리깊은나무사진

이 밖에도 옛날에는 ‘짚’이나 ‘신서란’, ‘용설란’ 등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형짚’으로 만든 ‘질빵’을 주로 만들어 쓴다. ‘배’와 같이 ‘줄’이기는 하지만, 가는 것은 ‘배’라고 하지 않고 ‘노’라고 불렀다. 그래서 짚을 재료로 만든 가는 줄을 ‘가마니노’라고 한다. 이와 같은 ‘노’에는 역새의 속살을 두드려 만든 것도 쓰였다.

마차에도 ‘배’를 사용하였다. 보리를 ‘배’로 지고 나르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보리를 질 때는 10‘뭇’(단) 정도 이상 질 수 없었다. 보통은 7~8‘뭇’ 정도였다. 하지만 조는 그렇지 못하였다. 보리는 ‘보릿낱’(보리대)이 짧고 ‘뭇’의 크기가 작아 한 ‘바리’가 30‘뭇’ 정도 되었지만, 조는 ‘고고리’가 굵고 길이가 길뿐만 아니라 조 ‘뭇’이 커서 한 ‘바리’는 8뭇 정도였다. 그러므로 조 ‘뭇’은 보통 3~4 ‘뭇’을 지면 장사(壯士)라고 했다. 소<牛>로는 30 ‘뭇’ 정도까지 질 수 있었다. 많은 농사일이 있는 농사철에는 하루에 소로 7번 정도씩 20바리를 나를 수 있었는데, 3일 정도 날라야만 가능했다.



<사진166> 배 사용(1960년대)  
-홍정표사진

아이들은 바쁠 때 간혹 질 뿐 잘 지지는 않았다. 간혹이지만 애들이 졌을 경우는 5~7 ‘뭇’ 정도를 졌다. 보릿대는 돼지를 키웠던 ‘돛통’에 넣었다. ‘리어카’는 얼마 되지 않아 경운기로 바뀌었다.

딸감을 ‘배’로 진 모습도 살필 수 있었다. ‘배’를 애월에서는 ‘짚’으로 만들었으나 바닷가에서 자라는 ‘남총낭’(종려나무)이나 ‘신서란’ 등으로도 만들었다. 형짚으로 만든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여 ‘질빵’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신서란’에 형짚을 덧대어 만든 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일론 ‘배’를 쓰고 있다.

‘배’는 전 조사 가옥에서 보유하고 사용했던 것처럼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보인다. 보릿단이나 딸감을 등에 지고 나를 때는 물론 구덕을 질 때도 ‘배’를 이용한다. 앞에서 본 ‘지

게'를 주로 남자들이 이용하였다면, 이 '배'는 여자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운반하는 연장이었다. 이 '배'는 바람이 많이 불고, 돌과 자갈이 많은 길을 가진 제주에서 육지와 같이 이고 운반하기는 어려웠다. 그러기에 등에 밀착시키면서 질 수 있는 방법이 이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배'도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 고유의 농기구의 하나로 보인다.

#### (4) 마차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마채', '구루마'(용수, 저지), '통구루마'라고도 불렀다.



<사진 167> 마차 사용 :  
가마니운반(1960년대)-홍정표 사진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하여 곡식 가마니, 나무 등 여러 종류의 짐을 많은 양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썼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집에 하나 정도 있을 만큼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마차'에 관한 옛기록은 『北學議』에 '車'라고 기록(김광연, 1986:398~432)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 신라 초(初)인 5~6



<그림 45> 마차

세기의 경주 계림로 25호 용관묘에서 작은 명기(明器)들과 함께 수레모양의 토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sup>131)</sup>

'마차'는 기본적으로 '채경', '상장틀', '바퀴'로 크게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장방형(長方形)을 이룬다.

① '채경'은 마차에 축력(畜力)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각형의 막대로 양쪽으로 설치되었다. 채경의 한쪽 끝에는 '접계'와 '구라'의 '쇠'에 걸도록 된 '고리'가 달렸다. 많은 힘을 받는 곳이었으므로 재료도 단단하고 질긴 '자귀냥'(자귀나무), '즈베냥'(구슬잣밤나무), '가시냥'(가시나무) 등을 썼다.

② '상장틀'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짐을 실었을 때 바퀴에 닿지 않도록 하

131) 안승모, 고대농구, 『한국의 농기구』, 어문각, 2000,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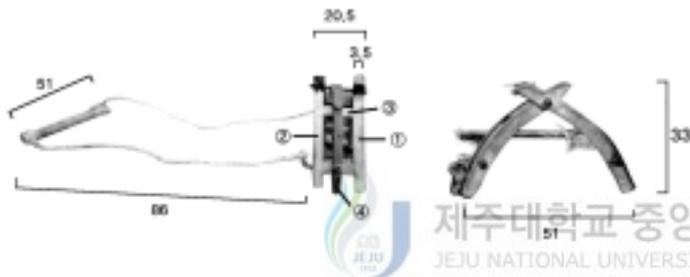
<사진 168> 바퀴



<사진 169> 마차 사용 :  
식수운반(1960년대)-홍정표 사진

기 위해 ‘다템보’가 바퀴가 있는 쪽에 양쪽으로 설치되었다. ‘틀’의 옆면에는 ‘배코’ 혹은 ‘공쟁이’라 하여 실은 짐을 ‘배’로 묶을 때 걸 수 있는 있는 것이 있었다.

③ ‘바퀴’를 ‘도레기’라고도 불렀다. 16개의 바퀴살이 ‘수박통’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지름 80cm의 폭이 6cm 정도의 바퀴를 지탱하고 있다. 바퀴와 바퀴살은 쉰 나무인 ‘가시냥’(가시나무)이나 ‘솔피냥’(쇠물푸레나무)으로 만들었다.



<그림 46> 구라

드럼통에 식수를 담아 운반을 위해 마차를 사용하는 모습도 살필 수 있었다. 마차를 끌 때 소나 말의 축력을 얻기 위하여 ‘질메’와 같은 형태로 생긴 ‘구라’를 사용하여야 했다.

‘구라’는 크게 ‘앞가지’와 ‘뒷가지’, ‘세역’, ‘쇠고리’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A’字형을 이루고 있다. ‘마차’가 경운기와 농업용 차량 등으로 대체됨으로 ‘구라’도 함께 사라졌다. 소의 힘을 이용해 마차를 끌도록 축력을 전달하고 ‘채경’을 고정할 ‘고리’를 달고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육지에서는 ‘우차(牛車)’가 이용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 역, 1995:218~221)

① ‘앞가지’는 ‘구라’ 앞에 있는 ‘스’자 모양의 가지이다. 뒷가지보다 높고 폭이 좁다. 앞가지가 얹혀지는 소나 말의 등이 뒷가지의 부분보다 좁고 높아서이다.

② ‘뒷가지’는 두 개의 사각형 나무를 ‘스’자 모양이 되도록 중앙에서 붙였다.

③ ‘세역’은 앞가지와 뒷가지를 고정시키는 나뭇조각이다.

④ ‘쇠고리’는 ‘접계’의 ‘고리’와 ‘채경’의 ‘고리’가 걸리는 곳으로 ‘고리’져 있다. 소나 말의 축력을 마차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 170> 구라 사용 : 엮은 모습  
(1960년대)-홍정표 사진

가마니를 가득 싣고 길을 가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옛 사진도 볼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차 바퀴가 타이어로 바뀌었다. 이때 마차를 이용하여 운반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많이 쓰였다.

그 후 경운기가 보급되고 농업용 차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사라지게 되었다. 1980년 후반까지도 성산 등 일부 지역에서 쓰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



<사진 171> 마차-전남농업박물관 사진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채경’의 길이가 180cm 정도였다. ‘상장틀’의 길이가 216cm 정도였으므로 총 길이가 4m 정도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장틀’을 받히고 있는 바퀴의 직경이 80cm 정도였으며, 16개의 바퀴살이 중심에 있는 수박통에 고정되어 원형을 이루고 있다. ‘수박통’의 지름은 18cm 정도였다. 상장틀에 짐을 실었을 때 보릿대 등이 바퀴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 80cm, 세로 46cm의 ‘다템보’가 고정되어 있으며, 상장틀의 가장가리를 돌아가면서 8개의 ‘공쟁이’가 박혀 있다.



<사진 172> 손수레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평2구, 2001. 10. 22.)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평리 1구 문○○(男, 1934년생)의 ‘손수레’는 이 지역에서 ‘리어카’라고도 한다. 30년 정도 전인 1970년 초에 장사꾼이 만들어왔던 것을 샀다. 나락, 벼, 보리 같은 것을 콩 같은 것을 실어다 집으로 가져오는 데 썼다.

#### (5) 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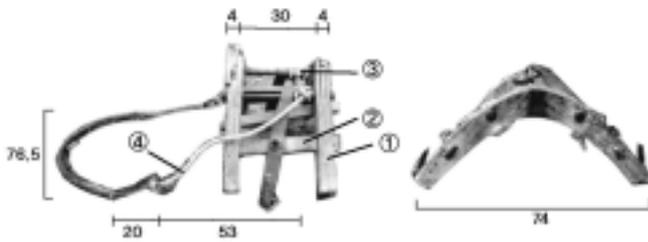
‘길마’를 가리키는 제주도 지역어로 ‘저지’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질매’(창천), ‘쇠질매’(수산)라고도 불렀다.



<사진 173> 질메 사용(1960년대)-홍정표 사진

소 등에 거름을 담은 ‘거름착’이나 수확한 ‘보리’를 실어 옮기려고 할 때 소 등에 얹었던 연장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경운기와 농업용 차량 등이 보급되어 사용되면서 ‘질메’도 사라지게 되었다.

‘질메’는 크게 ‘앞가지’와 ‘뒷가지’로 쓰고, ‘세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굽지 않은 나무로 고정시켜 전체적으로 ‘A’자형을 이루도록 만들어 사용했던 연장이다. 가지 밑으로 소 등에 닿는 부분에는 짚으로 만든 작은 방석을 좌우로 하나씩 만들어 대었다. 이를 ‘도금’이라 불렀는데, 소 등이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림 47> 질메

로 이루어진 ‘A’자 모양의 뒤쪽 가지다. 특히 ‘앞가지’가 ‘뒷가지’보다 좁고 높아야 했다. 이는 ‘질메’를 얹는 소의 등 부분이 앞은 좁은 반면 뒤가 넓었기 때문이었는데, ‘질메’를 뒀 수 있는 한 소 등에 밀착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가지’와 ‘뒷가지’의 폭은 27.5cm이다. ‘질메’ 가지에는 구멍이 뚫려있는데 짐을 실을 때 사용했던 ‘셋배’를 끼웠던 곳이다. ‘셋배’의 길이는 6발 정도의 것을 사용했다.

② ‘세역’은 ‘드물’이라고도 한다. ‘앞가지’와 ‘뒷가지’를 고정시키는 나뭇조각이다. 앞뒤로 턱지게 홈을 낸 두 개의 나뭇조각이 질메 좌우 양쪽에 받쳐 있으면서 두 개의 가지를

① ‘앞가지’는 ‘질메’ 앞에 있는 ‘A’자 모양의 가지이다. ‘떡구실낭’<sup>132)</sup>(떡구슬나무)을 새겨 붙여 만들었다. ‘뒷가지’보다 높이가 높고 폭은 좁다. ‘앞가지’가 얹혀지는 소의 등이 뒷가지가 얹혀지는 쪽보다 좁고 높아

서이다. ‘뒷가지’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A’자 모양의 뒤쪽 가지다. 특히 ‘앞가지’가 ‘뒷가지’보다 좁고 높아야 했다.

132) 떡구슬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떡구슬낭’(노형, 조수), ‘떡구실낭’(인성, 서흥, 수산, 김녕, 가시), 떡구실낭이라고도 불렀다. 나막신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주로 해발 300m 이하의 마을 부근에서 자란다. 열매를 약으로도 썼다. 높이 10m에 달하는 낙엽교목(落葉喬木)으로 전남해안지방과 제주도,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제주도의 경우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 정원수처럼 심어 가꾸고 있으며, 주로 판재로 이용하였다.

고정시킨다.

③ ‘소용’은 ‘세역’ 위쪽에 꽃힌 가늘고 둥그런 나뭇가지다. ‘세역’과 ‘소용’은 줄로 서로 묶여 있으면서 ‘앞가지’와 ‘뒷가지’를 고정시키는 세역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앞가지’ 쪽



<사진 174> 질메

에는 소의 배 밑으로 묶는 ‘오랑’이라는 줄이, 그리고 ‘뒷가지’ 쪽에는 ‘고들개찢’이 묶였다. 또 ‘뒷가지’ 쪽에는 그 바깥쪽에 고리가 달렸다. 이를 ‘질메공쟁이’라고 하는데,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 ‘셋배’(삿줄)를 끼워 거는 곳이다.

④ ‘고들개찢’은 ‘소용’의 ‘뒷가지’쪽에 묶는 끈이다. ‘고들개’<sup>133)</sup>는 ‘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을 싣고 비탈을 내려갈 때 ‘질메’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소 궁둥이 쪽에 걸치는 나무막대로 ‘함백낭’(함박이나무)으로 만들었다. ‘고들개’가 향문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게 ‘쌀술기’<sup>134)</sup>라 하여 소 뒷다리 사이로 줄을 내어 ‘오랑’에 걸어 묶기도 했다.



<사진 175> 질메 사용(1960년대)  
-홍정표 사진

박물관 소장자료로 ‘질메’의 경우 모양이 다른 ‘앞가지’, ‘뒷가지’ 그 밑에 ‘도금착 받침’이 받쳐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세역’이 있고 ‘공쟁이’도 나와 있다. ‘앞가지’, ‘뒷가지’에 ‘배’가 별도로 있어 ‘거름착’ 등을 매는 데 사용하였다. ‘거름착’을 붙여 맬 때는 팔 뒤꿈치도 함께 이용하였는데, 경험있는 사람들이 털어지지 않게 잘 매었다고 한다.



‘질메’에 짐을 실어 나를 때 애월에서는 “작은 3 몫이다”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이 말은 짐을 잘 짜는 사람이라하더라도 한 쪽에 3 몫씩, 양쪽을 합하여 6몫밖에 실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질메’로 나를 때 조금 작은 것은 4 몫, 좀 큰 것은 3 몫이 들어간다. 이것을 안아다가 ‘질메’의 한쪽에 묶으며 다음은 반대쪽에 묶어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133) 오라 3동에서는 ‘고들개’라고도 한다.

134) ‘진’(왕모시)을 가공해 만든 줄을 최고로 쳤다.

<사진 176> 질메 사용 : 엮은 모습 남군 남원읍 수망리 296번지의 현○○(男, 1931년생)의 (1960년대)-홍정표 사진 ‘질메’와 서귀포시 하효동 고○○(男, 1945년생?)의 ‘질메’를 살핀 것이다. ‘앞가지’의 아래 간격이 70cm 그리고 가지의 폭이 20cm 정도의 것이다. 여기서 보리를 운반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 8. 곡식 터는 연장

농기계의 발달로 탈곡(脫穀)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선(精選)된 알곡이 나오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래 농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타작을 하면 먼지,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이 알곡과 함께 섞여있다. 그러므로 탈곡과 함께 정선하는 과정을 별도로 해야 했었다. 정선을 위해서는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거나 바람을 일으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곡물을 터는 방법은 작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리의 경우 말의 발을 이용하거나(고광민, 1986: 140) 보릿단을 ‘도깨’(도리깨)로 때려 알곡을 골라내거나, ‘보리클’로 이삭을 훑은 다음 ‘도깨’로 때리거나 소나 말로 밟아 털어 내기도 하였으며 ‘물방에’(연자마)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는 이삭을 낫으로 따낸 다음 발로 비비거나, ‘덩드렁 마깨’나 ‘도깨’로 때려 털어 내거나, ‘물방에’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산뉘의 경우 이삭을 ‘호미’(낫)으로 따내거나 ‘산뉘클’로 따낸 다음 ‘도깨’로 때리거나, ‘푸는체’(키) 위에 놓아 손으로 밀어냈으며, ‘물방에’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콩이나 팥, 메밀은 ‘도깨’로 때려 탈곡하기도 하였다.



<사진 177> 맥타기 사용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970년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리는 5월에 ‘호미’로 베어다 마당에 쌓아둔다. 여름 작물의 파종을 끝낸 다음 장마철이 지나면 탈곡하였다. ‘도깨’로 때려 타작을 하여 오다가 1930년경에 들어서면서 ‘클’이 보급되어 ‘클’을 이용하게 되었다. 마당질은 힘든 일이라 종사한 사람들에게 ‘선다리’, ‘술’, ‘흰죽’을 대접하였다. ‘흰죽’은 더위가 가신다고 하여 여름에 대접하는 음식이었다.

보리짚을 쌓은 ‘눌’은 그 집안의 부(富)의 상징이었다. 보리를 터는 작업이 장마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털은 낸 다음 비가 내려 건조시키지 못하면 쉰 보리로 밥을 지어먹은 예

도 있었다고 한다. 조의 탈곡은 이삭을 ‘호미’로 분리한 다음 ‘뭇방에’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으며, 많은 양일 경우 ‘도깨’로 타작하였다. 산뽕은 ‘호미’로 이삭을 분리한 후 ‘도깨’로 때리거나 ‘뭇방에’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으며 많지 않은 소량일 때는 ‘얼맹이’에 이삭을 놓고 손으로 미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쿨’이 보급된 후에는 ‘쿨’로 이삭을 분리하기도 하였으나 산뽕의 생산량이 소량이었기 때문에 ‘쿨’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콩과 팥 메밀은 ‘도깨’로 직접 때려 털어냈으며, 콩과 팥의 경우 많지 않은 소량이었을 때는 ‘덩드렁 마깨’로 때려 털거나 발로 밟은 다음 알곡을 손으로 골라 내기도 하였다.

### (1) 작대기

가지가 세 갈래로 벌어진 자연생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던 ‘거릿대’와 비슷한 형태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 갈래로 갈라진 가지를 가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작데기’(오라 3동, 행원), ‘작쉬’, ‘거릿대’, ‘거린작데기’(가과), ‘거릿작데기’(표선, 조천), ‘거릿맹이’(태흥, 수산)라고도 불렀다.

‘도깨’로 마당질 할 때 골고루 탈곡(脫穀)이 잘 되게 보리대를 뒤엎거나 김부러기를 걷어내는 등 케우릴<sup>135)</sup> 때 썼다. 또 지붕일기를 위해 짐줄을 만들 때 ‘호랭이’로 만든 외줄을 잠시 엉키지 않도록 걸어 둘 때도 썼다. 또 ‘작대기’로 쓰다가 쓸 일이 없으면 가끔 ‘쇠막’(외양간)이나 마당의 지푸라기를 걷어낼 때도 쓰였다. 그러나 거름을 걷어낼 때 쓴 것으로 마당질을 할 때 다시 쓰지는 않았다. 육지에서도 들깨 등을 터는 데 썼다.<sup>136)</sup>

<사진 178> 작대기  
(복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1996. 9. 19.)

‘작대기’는 두 가닥 ‘가지’에 ‘자루’가 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Y字형을 이룬다. 두 개의 가지가 달린 나뭇가지로 만든다. 재료는 가지가 붙은 소나무면 가리지 않았으나 가지가 세 갈래 혹은 두 갈래로 벌어진 물푸레나무 등의 자연 목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불에 구워 휘어서 만들기도 하였다. 등을 걷어

135) 뭉치거나 모여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는 것을 ‘케우리다’라고 말한다.

136) 권진숙, 『脫穀道具의 變遷 概觀』, 『韓國의 農耕文化』(4), 京畿大學教博物館, 1994. p. 162



<사진 179> 작대기

내거나 뒤집거나 ‘바지계’에 퍼 담는 데도 쓴다.

박물관 소장 자료의 경우 손잡이 84cm, 가지길이 33cm, 무게는 0.5kg 정도였다.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다. 제일 가벼운 나무가 ‘닥낭’(닥나무)이었는데, 꺾은 것을 구하여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옛날 속담에 남의 종살이로 가서 삼년을 살아야 바른 ‘작대기’ 하나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다보면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아야 하는데 그런 눈치로 삼 년을 살아야 보인다는 것이다. 두 가닥이 똑같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했다. 마당질 할 때나 짚을 말릴 때 뒤집어 주는데 사용하였다. 지금은 목초를 말릴 때 뒤집어 주는데 사용한다.



<사진 180>  
작대기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1996. 8. 30.)

특별한 속신(俗信)이 전해 오고 있는데, ‘얼어먹지도 못하고 매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재수가 없다고 하여 베지 않고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오후 무렵에 준비해 와서 ‘작대기’를 만들었다고 한다.<sup>137)</sup>

작대기와 관련한 속담도 전해온다. “ㄴ슬 해 작대기로 못 바툰다.”<sup>138)</sup> 바쁜 시절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것이다.

남군 남원읍 태흥리 이○○씨(남, 1923년생)가 소장한 ‘작대기’의 경우 자루 170cm, 가지 54cm, 윗넓이 30cm, 무게는 0.8kg 정도였다. 애월읍 봉성리 홍○○(남, 1933년생)씨 소장의 자료는 자루 141cm, 가지 길이 39cm, 윗넓이 25cm 정도였다. ‘작대기’의 사용 모습은 도평에서 볼 수 있었다. 비닐을 깔고 참깨를 수확하는 작업이었는데, 2개의 작대기를 준비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대나무 3가닥을 한쪽 끝에서 묶은 단순한 것이었다. 길이는 70cm 정도되었다.

전남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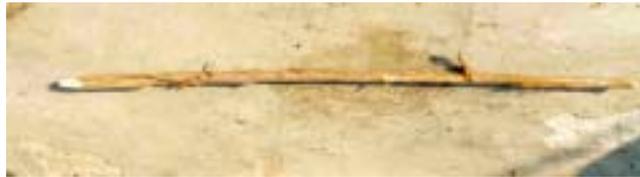
성군 조성면 덕산리 111번지 덕정마을의 손○○(男, 1929년생)은 ‘작대기’로 콩을 타작하

137) 제주시 외도동 김창영(男,65)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138) 가을 해 작대기로 못 받친다. 高在奐, 『濟州島俗談研究』, 1993, 집문당, p. 212



<사진 182> 작대기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2001. 10. 23.)



<사진 181> 작대기(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2001. 10. 23.)  
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육지에서도 ‘작대기’를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형태가 ‘쉐스랑’이나 ‘삼지창’을 닮아서 강원 일대에서는  
‘나무 쉐스랑’이라 부르기도 하고, 전남 산간 지대에서는 ‘삼지창’이라  
고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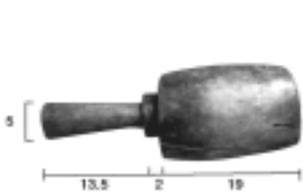
(2) 덩드렁 마깨

삼달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덩드렁 마깨’(용수), ‘덩두렁 마깨’  
(용수), ‘마깨’, ‘막게’, ‘던드렁 마깨’(수산, 가시)’라고도 불렀다.



<사진 183> 덩드렁 마깨  
(1920년대)-泉靖- 사진

조나 콩깍지를 두드려서 쌀과 콩을 털어 내는 데 썼다. 또 ‘명석’  
등을 엮을 때 산뿔짚 등을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 때, ‘숨비줄’을 만들  
기 위해 ‘드랫줄’(다래나무)을 두드릴 때, ‘갈옷’을 만들기 위해 감즙을  
만들 때 풋감을 으깰 때도 사용했다. 간혹 이긴 하지만 망치의 역할  
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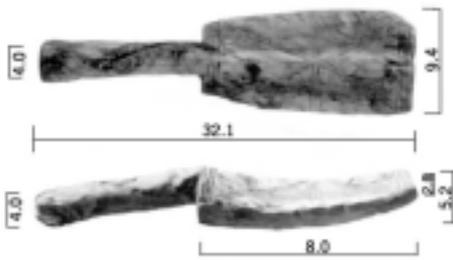
<그림 48> 덩드렁 마깨

‘자루’, ‘몸통’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  
로 원통형(圓筒形)을 이룬다. 몸통이 굽  
고 짧은 나무 방망이의 형태로 이루고  
있다. 재료는 주로 ‘엄낭’<sup>139)</sup>(엄나무), ‘가  
시낭’(가시나무), ‘머쿠슬낭’(떡구슬나무),  
‘틀낭’(산딸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지  
름 11cm, 몸통 길이 20cm, 자루 길이

15cm 정도인데 원통형(圓筒形)으로 되어 있으며 언제나 딱딱하고 맨질 맨질하며 등글넓  
적한 돌 판인 ‘덩드렁<sup>140)</sup>’과 함께 쓰인다. 크기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작은 것은 22cm,

139) 엄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음낭’(조수)이라고도 불렀다.

140) 노형, 조수, 인성, 서흥, 수산, 김녕 등에서 불렀던 지역어로, 수산, 가시에서는 ‘던드렁’ 혹은 ‘벌덩’이라고



<그림 49> 서답 마끼  
(남제주군 대정읍 감산리, 1999)-고광민 사진



<사진 184> 덩드렁 마끼



<사진 185> 덩드렁 마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1996. 9. 12.)



<사진 186> 덩드렁 마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제주민속촌, 1996. 3. 21.)

큰 것은 34cm 정도이다.

‘덩드렁 마끼’와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그냥 ‘마끼’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 ‘빨래방망이’를 가리키는 제주 지역어로 ‘덩드렁 마끼’와 구분해 ‘서답 마끼’라고도 불렀다. 10cm 내외의 ‘마끼’와 손잡이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一’

자형이다. 이같은 형태는 프랑스의 빨래방망이와 같다고 한다. 밀감밭의 방풍림으로 많이 심은 ‘숙테낭’(삼나무)의 뿌리로 만든 것이 전해오기도 한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무게가 2kg 정도였다. 육지에서 ‘방망이’라고 해서 새끼를 고거나 ‘멍석’을 만들 벧단을 두드려 부드럽게 할 때 주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말뚝을 박는 경우에도 사용했다.(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 역, 1995:273~277) 없는 사람은 조를 두드릴 때도 사용하였으나 주로 짚을 두드려 ‘멩텅이’나 ‘멍석’을 만들 때 사용한다. 갈옷 만들 때 감을 으갠 때도 사용한다. ‘덩드렁’은 ‘먹돌’로 만들었다. 잘 닳지 않은 나무인 ‘폭낭’(팽나무)이어야 한다. ‘폭낭’은 ‘돛배’의 재료로도 썼다. 칼집이 잘 나지 않아 음식이 배어들지 않아 굳지 않다. 집집마다 하나 이상은 있었다. ‘덩드렁 마끼’를 만들 때는 ‘먹구술낭’(멸구술나무), ‘엄낭’(엄나무), ‘가시낭’(가시나무)으로 만들었다.

남군 대정읍 무릉리 1156-3번지의 이○○(男, 1931년생)의 ‘덩드렁마끼’를 살필 수 있었다. 길이 32cm, 직경 6cm, 자루 12.5cm 정도의 것이다. 상대적으로 몸통은 가늘고 자루가 긴 편인 ‘마끼’ 다. 그리고 자루의 끝에는 소유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X’字 표시를 했다.

도 한다.

제주시 화북1동 1557번지의 김○○(男, 1936년생)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다듬이 ‘마깨’ 처럼 좁 긴 편(길이 34cm, 직경 5cm)의 것이다. ‘정지’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양념 마깨’



<사진 187> 덩드렁 마깨 사용  
(제주시 해안동, 1996. 8. 29.)

로나, ‘메주’를 만들 때 삶은 콩을 으깨는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제주민속촌 ‘초신공방’의 ‘덩드렁 마깨’와 ‘덩드렁’은 신서란을 재료로 짚신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가공할 때 사용하였다. 신서란의 잎을 그늘에 2, 3일 만린 다음 두드리고 잘게 쪼개면서 섬유질을 가려내어 재료로 사용한다.

제주시 해안동 1924번지의 김○○(男, 1945년생)의 것을 살폈다. 갈옷을 만들 때 감을 으깨기 위해 쓴다. 도구리와 함께 감물을 먹어 빛나는 검은 색을 띠고 있다. 마깨로 감을 으깬 때는 몸통으로 때리기보다는 앞쪽을 사용하는 편이다.

### (3) 도깨

‘도리깨’를 가리키는 것으로 김녕, 삼달, 수산, 귀덕, 고산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리던 명칭이다. 또 ‘도깨’(용수, 사계)라고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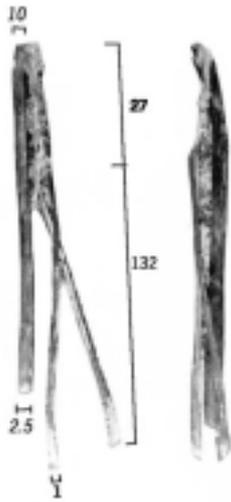
<사진 188> 도깨 사용(1980년대?)  
-남제주군 사진

보리, 밀, 콩, 팥, 유채 따위의 곡물을 두드리 알곡을 떨어내는 데 썼던 대표적인 터는 연장다.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살초(殺草)에도 이용했다고도 한다.(홍희유, 1974:142~143)

‘도깨’에 관한 옛 기록은 『農事直說』에 ‘梲梲’(鄉名 都里鞭), 『攷事新書 農圃門』에 ‘都里鞭’, 『課農小抄』에 ‘連耪’, 『月餘農家』에 ‘도리깃’이라고 기록(김광연, 1986:398~432)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1429년 이전부터는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도깨는 ‘어시’(장부), ‘톨레’(도리깨꼭지), ‘아들’(아들, 혹은 열)로 구성되었다. 손잡이인 ‘어시’가 부모라면, 돌아가면서 곡물을 직접 때리는 타부(打部)는 ‘아들’ 곧 자식이라는 말이다.

① ‘어시’는 ‘장부’를 가리키는 긴 막대기로, 위아래의 모습이 다르다. 한쪽은 편평하고 넓은 곳으로 ‘아들’을 끼워 고정할 ‘톨레’의 구멍이 있으며, 다른 한쪽은 손잡이로 둥글다.



<그림 50> 도깨



<사진 189> 톨레

‘톨레’의 구멍은 ‘어시’ 꼭대기에서 10cm 정도 내려온 지점 직경 2cm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육지의 남부 지방에서는 대나무로도 만들었다고 한다.

② ‘톨레’는 ‘도리깨 꼭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링이’(가파)라고도 불렀다. ‘어시’에서 빠지지 않도록 코가 붙은 낭을 끼운 것으로 ‘아들’(아들)을 줄로 묶어 고정시켰다. ‘톨레’는 젖은 ‘윤유리낭’(윤노리 나무)을 불에 익혀가며 틀어 만들었다. ‘톨레’의 경우 오라 3동에서는 백영목 혹은 ‘삼동낭’(상동나무)로, 애월에서는 ‘솔피낭’(쇠물푸레나무)로, 송당에서는 ‘윤유리낭’(윤노리나무)로 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아들’과의 연결은 ‘빗개가죽’으로 묶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였다.

③ ‘아들’은 ‘아덜’이라고도 한다. 굵기 1cm 정도의 나뭇가지인데, 주로 세고 가벼운 닥나무, 윤유리나무, 물푸레나무 등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물푸레나무로 만들 경우 낮으로 끝으면 도깨 작업을 할 때 끝이 갈라지기 쉬우므로 나무를 한 번 베어낸 다음 그 자리 아래로 다시 자란 나무를 최고로 쳤다. 재료로 쓸 나무할 때는 낮으로 베지 않고 힘센 사람이 확 잡아 떼어낸 것으로 썼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이 떨어져 쓸 수 없게 된다. ‘아들’은 해마다 손을 보아서 사용해야 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어시’의 두께가 2.5cm, 톨레를 끼울 구멍이 있는 쪽의 넓이가 4cm, ‘톨레’의 길이가 10cm 정도로 ‘어시’의 끝에서 10cm 위치에 구멍이 뚫려 꽂혀 있다. 2가닥의 ‘아들’이 연결되어 있고 무게는 1.2kg 정도였다. 제주도 월평동 1043번지의 김○○(男, 1941년생)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윤유리낭’(윤노리 나무)으로 만든 두 줄 ‘아들’이 ‘어시’보다 길다. ‘톨레’와 ‘아들’은 나일론 줄로 묶었다.

남군 남원읍 수망리 296번지의 현○○(男, 1931년생)의 ‘도깨’를 살필 수 있었다. 아버지

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최소 30년 전의 것이다.

<표 22> 도깨 비교

지역	소장자	어시	아들	틀레	비고
북군 애월	변기영	150			
남군 성읍	오창립	153	154		
북군 애월	변두남	143		13.5	
북군 애월	양수열	131	150		
남군 남원	현철휴	146	138		



<사진 190> 도깨 든 모습(1920년대)  
-泉靖- 사진



<사진 191> 도깨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1996. 8. 30.)



<사진 192> 도리깨  
-농업박물관 사진

<표 22>은 어시가 아들보다 조금 작아 돌아가면 곡물을 때렸던 것이 더 길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육지에서와 구분되는 차이인지, 새 것과 현 것의 차이인지는 분명히 하지는 않다.

농협박물관 소장자료로 ‘도리깨’라 불린다. 광주지방에서는 장부의 길이 142cm, ‘아들’의 길이 103cm, 또 다른 것은 장부의 길이 180cm, 아들의 길이 88cm 정도의 것을 사용하였다.(광주시립박물관, 1993:207)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길이 177cm 정도의 것이었다.(경기대학교박물관, 1980:104) 전남 강진군 도암면 동영리 383번지의 윤○○(男, 1944년생)의 것과 전남 장흥의 백○○(여, 1932년생)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어시’가 없는 것도 ‘도리깨’라 부르며 소량의 작물을 타작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도깨’와 관련된 수수께기로 “먼 산 보고 손짓하는 것”, “하늘보고 춤추는 것”이라는 것이 전해 온다. 이는 ‘아들’(아들)이 돌아가면서 흔들리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홍

순택, 1969:768)

작업하는 모습의 옛사진을 살필 수 있었다. 두 손으로 잡고 서서 작업을 하게 되는 데, 어깨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 내리치면서 탈곡할 작물을 때렸다.<sup>141)</sup> 이



<사진 193> 도깨 사용(1960년대)  
-홍정표 사진



<사진 194> 도깨 사용  
(제주시 도평동, 1996. 8. 29.)



<사진 195> 도리깨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평2구, 2001. 10. 22.)

일을 ‘마당질’이라고 했다. <세경놀이>에는 “해벤(海邊) 사람 도깨질은 영 혼다. 영 돌리멍, 정잇(旌義) 사람 도깨질은 영 혼다. 대정(大靜) 사람 도깨질은 영 혼다. 자 두드리라”라고 적고 있어 다양하게 작업이 이루어졌을 느낄 수 있다.(현용준, 1980:392)

먼지가 나고 여럿이 함께 반복적으로 내려쳐야 했으므로 무척 힘든 일이었다. 힘들고 고된 이 작업을 하면서 불렀던 <마당질 소리><sup>142)</sup>, <타작요><sup>143)</sup>가 전해오고 있다. 이 소리는 과거 콩이나 메밀, 보리, 팥 등 곡식을 수확 한 다음 그것을 도리깨로 탈곡하면서 불렀던 소리이다.

‘도깨’를 내려치는 작업은 한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두 세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한 두 사람은 탈곡한 곡식을 조정하는 보조적인 일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동에 수반되는 마당질 소리는 자연히 타작하는 두 사람 이상이 교대로 노래하며, 나머지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후렴구를 같이 받는다. 마당질 소리는 장정 3사람과 여자 2사람이 마주 서서 두드릴 때 부르는 소리다. 보리를 ‘보리클’에 우선 훑아서 마당 중앙에 놓고 작업하였다.

#### (4) 클

‘그네’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수, 귀덕, 고산 등지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흘태(김녕), 흘태(대평)이라고도 불렀다. 형태와 용도에 따라 ‘가래기클’이

141) 홍희유(1974:143)에 의하면 육지에서의 경우 1일간 콩 탈곡은 8말, 보리일 경우 14말까지 작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142) 조영배, 앞의 책, pp. 16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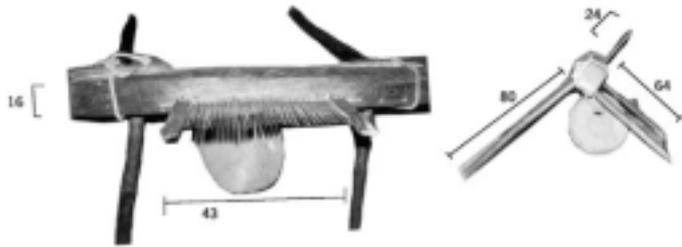
143) 좌혜경편, 앞의 책, pp. 161~164



<사진 196> 클 사용(1930년대?)  
-泉靖-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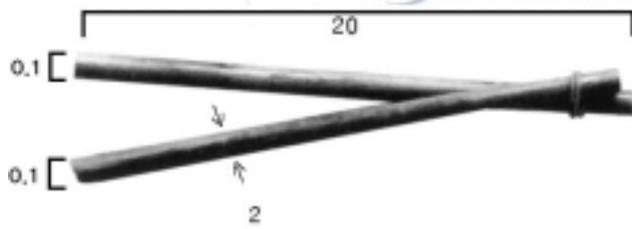
라고도 불리는 ‘보리클’(상가)과 ‘판장클’이라고도 불리는 ‘산뒤클’(고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클’을 ‘틀’(하효)이라고도 불렀다. ‘숙테낭’(삼나무)이나 ‘소낭’(소나무)으로 만든 앞발과 뒷발을 세워서 사용했으나 많지 않은 양(量)일 경우는 앉아서도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클’은 크게 ‘틀’과 ‘발’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A자형을 이룬다.



<그림 51> 클

무 가지나 수수대 등의 한 끝을 동여매서 집게 비슷하게 만들고 그 틈에 벼 이삭을 끼워 훑는 것을 ‘벼훑이’라고 한 것(김광연, 1969:140~141)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사진 197> 근대

① ‘발’은 빗살처럼 촘촘한 쇠를 박은 틀을 세우기 위해 앞 뒤쪽에 네 개로 구성되었다. 작업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ㄱ레착’을 줄로 달기도 한다. 같은 기능의 것이나 다른 형태의 것으로 두 개의 나

② ‘클’은 다시 ‘틀목’과 ‘쇠’로 구성된다. ‘보리클’을 ‘가레기클’이라고도 한 것은 ‘가레기’가 물레작업 때 무명에서 나오는 실이 감기도록 돌아가는 가는 가늘고 둥글며 긴 쇠꼬챙이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레기’

가 여러 개 박혀진 것이 ‘보리클’이기 때문이다. ‘판장클’이라는 말은 쇠꼬챙이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에 적당한 크기의 간격을 만들어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판장클’이 들어오기 전에 나락이나 산뒤의 ‘고고리’(이삭)를 훑어 떨어내는 데 썼던 것으로 ‘근대’ 혹은 ‘줍계’(하효, 오라 3동)가 사용되었다. 쇠나 대나무 혹은 끝은 윤유리낭



<그림 52> 보리클의 날



<사진 198> 클 사용(1939년)-高橋昇 사진



<그림 53> 산뒤클의 날

(윤노리나무) 막대 두개를 한쪽에 서 묶고 그 사이에 ‘고고리’를 넣어 훑었던 것이다. ‘산뒤클’이 나오고 나서도 씨앗보 관용이나 소량의 것을 훑을 때는 그 이후에도 사용했다고 한다. ‘근대’는 ‘근는 대’에서 온 말인 듯하다. 제주 지역어 중 ‘근대’는 닭이 발톱으로 땅이나 던져놓은 물건을 ‘긁어 당기다.’ 또는 갈퀴 따위로 던져진 검부러기를 ‘긁어 모으다’의 뜻으로 쓰이는 말 ‘근’에 재료인 대나무의 ‘대’가 붙어 만들어진

말인 것으로 보인다.<sup>144)</sup> 많지 않은 양일 경우 산뒤는 ‘체’의 망으로 누르면서 훑기도 했다고 한다.

‘클’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리 ‘뭇’을 들고 돌맹이에 내려치며 보리 ‘고고리’를 떨어냈다. 그 때의 돌맹이를 ‘섧돌’, 그리고 이렇게 떨어내는 일을 두고 ‘거상치기’라고 했다. 그때의 보리 ‘뭇’은 지름이 12cm 안팎으로 잘게 묶었다. 그래야 ‘거상치기’를 하는 데 좋았다. 보리 줄기가 붙어 있는 체 탈곡하는 ‘맥탁기’가 상가리에 들어온 것은 1960년쯤이었으므로 이때부터 ‘클’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광민, 1999:26)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통나무를 대충 다듬고 지름 1cm 정도의 원형(圓形)철을 촘촘히 박아놓은 것은 ‘보리클’로 1930년경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며, 두 줄, 세 줄, 네 줄 보리를 털어 내는데 썼다.

또 다른 박물관 소장자료로 ‘산뒤클’은 쇠판을 오려서 날을 세우고 그 판을 오목하게 하여 그 틈새를 좁게 하여 ‘귀클’에 붙여 사용하였다. 날날이 달린 알곡이라도 빠지지 않게 된 것이 특징이다. ‘산뒤클’은 3.7kg 정도였다.

밭에서 거뒀던 보리를 집 마당에 쌓아 두었다가 훑었는데, 대개 이 노동의 과정은 한 사람이 보릿대를 한줌씩 쥐어주면 다른 한사람이 그것을 잡고 보리클에 넣어 훑는 작업

144) 고광민(1999:25)이 소장한 근대는 길이 20cm, 굵기 1.1cm 정도의 것이다. 대나무 가지에 나일론실을 묶어 곱쳐 걸고, 그 줄 사이로 나머지 막대를 끼워댈다. 그틈에 나락이나 산뒤 이삭을 끼우고 대가지를 조여 훑는다. 그 때는 나일론실이없던 때이나 나락이나 산뒤짚으로 필요할 때 만들어 썼다고 한다.



<사진 199> 클 사용(1960년대?)-홍정표 사진

이 주요 과정이다. 그리고 주위에서 몇 사람들이 훑아진 보리이삭을 정리한다든지 이삭을 훑어낸 보릿단을 묶고 정리하는 일 등을 해야 했다.

훑으는 작업을 ‘놉’(일꾼)을 빌어 했었다. 훑으는 사람에게는 보리 2말, 보리짚을 묶는 사람에게는 1.5말, 여자에게는 1말의 보리를 샀으로



<사진 200> 보리틀(서귀포시 하효동, 1996. 5. 28.)

주었다. 보통 3~4대의 ‘보리클’을 세워두고 작업하였는데, 하루 70 ‘바리’ 분 정도를 훑었다고 한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훑는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낮에는 쌀미음을 써서 조금이라도 영양을 보충해 주려고 했다. 20점을 훑으면 양쪽에서 집어주고 잘해야 한다. 훑는 사람이 늦게 뽑으면 보리가 걸린다. 보리를 훑으며 불렀던 소리(조영배, 1996:189~192)가 전해오고 있다.



<그림 54> 홀태(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2001. 10. 23.)

서귀포시 하효동 고○○(男, 1945년생?)의 ‘보리틀’을 살필 수 있었다. 두줄보리를 훑는데 사용한 것이다. 촘촘히 박힌 날 23개로 왼쪽가장자리부분으로 하나

가 훼손되었다. 날이 길이는 31.5cm, 날의 전폭이 24.5cm, 굵기는 1cm 정도되었다. ‘틀’의 길이는 60cm 정도이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조○○(여, 1929년생)의 ‘홀태’를 살필 수 있었다. 앞발과 뒷발을 세워 훑았던 제주도와는 달리 앞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날 사이의 틈은 0.2cm 정도다. 보리클 발의 재료는 ‘숙데낭’(삼나무)으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것은 몸체의 길이 82cm 다리 길이 90cm 정도로,(한상복, 1977:308) 제주도의 것보다 발은 크고, 몸체는 작은 편이다. 광주지방에서도 ‘보리홀태’와 ‘나락홀태’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보리홀태의 경우 높이 70cm, 폭 59cm, 발길이 87cm 정도였고, 나

락홀대의 경우 높이 75cm, 폭 60.5cm, 발길이 85.5cm 정도였다.(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93:207) 경기대학교 박물관이 소장 자료는 날의 길이 27cm, 날의 넓이가 33cm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경기대학교 박물관, 1980:104)

(5) 글쟁이

‘갈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귀덕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글쟁이’라는 말은 무엇을 ‘긋어모은다’는 ‘긋다’에서 온 말로 ‘긋어 모으는데 쓰는 연장을 가리키는 것



<사진 201> 글쟁이 사용  
-전남농업박물관 사진

으로 보인다. 또 ‘글게’, ‘글쟁이’(용수, 수산), ‘흘쟁이’(저지), ‘글쟁이’(귀덕), ‘갈궁이’(용수)라고도 불렀다. 주로 ‘도깨’ 작업 때에 생기는 검부러기 같은 것을 긋어 모아 가려내는 데 썼다. 또 ‘지들것’(땀감)으로 사용할 솔방울, 솔잎 및 낙엽 같은 것을 긋어모을 때도 썼다.

‘글쟁이’에 관한 옛 기록을 『海東農書』에서 찾을 수 있는데 ‘荊把 굴키’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 얼마 동안 ‘글쟁이’는 솔가리·가랑잎으로 충당하던 시기에는 그것을 긋어 모으는 데 사용했던 생활용구였고, 벼·보리·밀·메밀·콩 등을 탈곡할 때, 알곡을 덮고 있는 검부러기 등을 걷어 내거나, 흩어진 알곡을 모으는 데도 사용하였다.<sup>145)</sup>

‘글쟁이’는 ‘자루’와 ‘글게’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Y’자형을 이룬다.

① 끝을 구부러 갈고리지게 한 ‘글게’의 재료에 따라 ‘대글쟁이’, ‘쇠글쟁이’가 구분되는데, 싸리로 만든 것<sup>146)</sup>을 제주에서 살필 수는 없었다. 끝이 갈고리진 여러 개의



- 실역), 앞의 책, pp. 275~279에 의하면 주로 곡물을 뒤집어 말릴 때 사용되던 것을 육지에서는 ‘갈퀴’라고 했다. 갈퀴, 구마테와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

146) 權振晝, 『精選道具의 技術의 變遷概觀』, 『韓國의 農耕文化』(5), 京畿大學校博物館, 1996. p. 232에 의하면 육지에서는 싸리를 재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밭’을 부챗살처럼 펼쳐서 긴 ‘자루’에 연결했다. 주로 대나무를 쪼개 끝을 구부린 것을 썼는 데 이를 ‘대글쟁이’라고 했으며, 요사이는 철사로 만든 것을 오일장(五



<사진 202> 쇠글쟁이



<사진 203> 버림대

日市場)에서 사서 쓰는 데 이를 ‘쇠글쟁이’라고 한다. ‘대글쟁이’의 밭은 보통 10개 이상의 것이 쓰였으며, 쇠글쟁이의 경우는 8개에서 많게는 12개의 것이 이용되었다. ‘대글쟁이’의 경우 집집마다 있었던 ‘대왓’(대나무밭)에서 수리대가 아닌 ‘왕대’를 걷어 만들었다.

‘밭’을 부채살 처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칩덩굴로 대나무로 만든 ‘밭’을 ‘버림대’에 얹어 고정시켜야만 했다. 수산에서는 ‘버림대’를 두 곳에 맨 것도 쓰였다고 한다.



<사진 204> 쇠글쟁이 보관

② ‘자루’는 대나무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이 쓰였다. ‘글개’를 자루에 고정시킬 때는 형겅이나 가죽으로 만든 ‘친’(끈)을 사용하였다.

‘대글쟁이’를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무게는 총 0.2kg 정도였다. ‘글개’의 ‘날’은 물론 자루도 대나무로 만들었다. ‘날’의 길이가 46cm로 상당히 긴 편이다. 끝을 구부려 갈고리진 부분인 ‘날’의 길



<사진 205> 글쟁이 사용 (1960년대?)-泉靖- 사진

이가 10cm 정도다. ‘날’의 수는 철사를 접어서 날로 사용하는 ‘쇠글쟁이’와는 달리 홀수로 13개다.

다른 박물관 자료로 쇠글쟁이의 경우 박물관 소장 자료는 자루 111cm, 글쟁이 길이 24cm, 넓이 22cm, 살수 10개, 살의 크기 7cm, 무게는 0.8kg 정도였다.<sup>147)</sup>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147) 작은 것은 0.5kg 정도였다.

경우 길이 150cm 정도의 것이었다.(경기대학교 박물관, 1980:104)

<표 23> 글쟁이 비교

지역	소장자	자루길이	날의 길이	날폭	날수	비고
남군 대정	양경팔	119	25	27.5		대글쟁이
서귀 하효	고석진	121		21	8	
북군 애월	변두남	115	26	25	10	쇠글쟁이
북군 한림	이경팔	121	29	34	12	
북군 애월	홍시병	117	24	33.5	12	
남군 남원	이윤행	139	25	22.5	8	

<표 23>는 ‘글쟁이’를 비교한 표이다. ‘대글쟁이’의 경우 자루의 평균 길이가 120cm 정도이고, 날의 길이 25.8cm, 날의 폭은 24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날의 수도 10개 내외의 것이 제주도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쇠글쟁이’의 경우 자루는 123cm 날의 길이 26cm 날의 폭 29cm 정도의 것이 주로 쓰였음을 살필 수 있었다. ‘대글쟁이’의 경우 보통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



<사진 206> 글쟁이 사용(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2001.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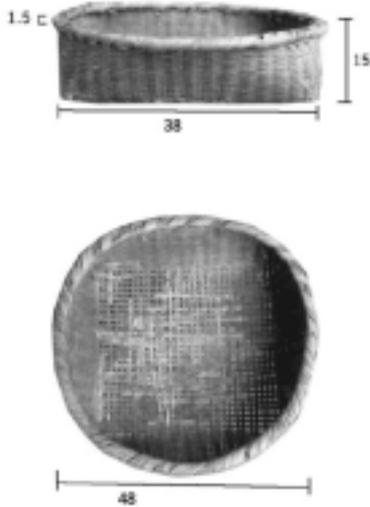
전남 보성에서 손동열의 작업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당그네’ 혹은 ‘미레’라고 불리는 것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이를 대신하여 ‘벼’를 말리는데 사용하는 모습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재물을 굶어 모으라는 의미로 새 해 첫 장에 가게 되면 반드시 ‘글쟁이’를 샀다고 한다.

## 9. 곡식 고르고 말리는 연장

터는 작업을 마치면 알곡을 검부러기와 분리하는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한 것이 ‘글쟁이’, ‘얼맹이’, ‘솔박’, ‘푸는체’, ‘체’ 등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곡을 고르면 나면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보관하여야 했는데 말릴 때 사용한 연장이 ‘명석’, ‘당그네’였다. 이들에 대해 살핀다.

### (1) 얼맹이

‘어레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지, 성읍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얼맹이’(대평), ‘얼망이’(고산), ‘어레미’, ‘대걸맹이’(가파)라고도 불렀다.



<그림 56> 얼맹이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리·조·콩·메밀·깨 등을 탈곡한 후 검부러기를 쳐내는 등 정선(精選)할 때 썼다. 주로 탈곡의 초반부에 ‘고고리’(이삭) 등과 거친 것 등 큰 이 물질(異物質)이나 큰 쪽정이들을 걸러 낼 때 사용했다.

‘얼맹이’와 관련된 옛 기록은 『千一錄』에 ‘竹篩’라는 보고(김광연, 1986:104)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적어도 1,800년 이전부터는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대나무를 얇게 깎아 ‘젯불’ 형태의 사각(四角) ‘창’을 만들고 계속해서 대나무를 엮어 ‘천’과 손잡이인 ‘바위’를 붙였다.

① ‘창’은 제주도의 체들 중 그 바닥인 ‘젯불’의 구멍이 가장 큰 것으로 젯바퀴가 없이 조릿대로 비스듬히 정사각형이 되게 둘레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눈이 큰 철사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적당한 크기의 성근 구멍이 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얼맹이는 젯불의 구멍이 제일 넓은 것으로 떡고물이나 메밀가루 등을 내린다. 젯불은 철사나 가는 대오리로 메우는데 구멍의 크기가 3mm 내외이다.



<사진 207> 플라스틱 얼맹이  
(제주시 화북1동, 1996. 5. 22.)

② ‘천’은 체의 몸통 구실을 하는 것으로 대나무를 엮었다.

③ ‘바위’는 속에 ‘삼동냥’(상동나무)을 돌리고 대나무로 감싼 형태로 작업할 때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대체’, ‘대걸명체’, ‘대거름체’라 하여 구멍이 큰 ‘체’를 이용하여, 조나 보리 따위를 타작하고 난 후에 ‘얼맹이’ 다음으로 ‘검부레기’(검부러기)를 쳐내 버릴 때 쓰는 ‘체’도 있었다. 남군 대정읍 무릉리 1156-3번지의 이○○(男, 1931년생)의 ‘대체’를

살필 수 있었다. 직경 40cm, 높이 10.5cm 정도의 것이다. 눈의 크기는 0.3cm 정도의 것이다. 서귀포시 하효동 고○○(男, 1945년생?)의 ‘대체’를 살핀 것이다. 직경29.5cm, 높이



<사진 208> 얼맹이 사용  
(제주시 도평동, 1996. 8. 29.)

9cm의 것이다. 대 올의 크기가 0.7cm 정도의 것인데, 눈의 크기는 0.3cm 정도이다.

‘대체’의 사용 모습은 참깨를 수확하는 작업 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얼맹이’로 검부러기를 걷어내고 난 다음 ‘대체’를 사용한다. 체보다 큰 직경의 ‘챗불’의 것을 사용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작업이 가능하였다. ‘대체’로 검부러기를 가려낸 다음 ‘솔박’으로 불림질을 하게 된다.

박물관 소장자료와 다른 자료도 살필 수 있었다. ‘바위’의 긴지름이 49cm, 짧은 지름 47cm, 높이 11cm, ‘굽’의 가로 35cm, 세로 34cm, 무게는 0.5kg 정도였다.<sup>148)</sup> 광주지방에서는 ‘얼게미체’라 하여 직경 53cm, 높이 5cm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93:207) 경기대학교 소장자료의 경우 직경 50cm, 깊이 11cm 정도의 것이었다.(경기대학교 박물관, 198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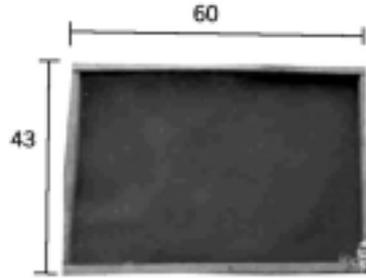
<표 24> 체 비교

지역	소장자	챗불직경	챗망높이	눈크기	비고
제주 도평	현정열	39	10	0.2	성근체
남군 대정	양경과	39.5	10.5		대얼맹이
북군 애월	변두남	55	13		얼맹이
서귀 하효	고석진	51	15	0.7	얼맹이

<표 24>는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의 체와는 달리 고르고 말리는 연장으로 사용되는 ‘얼맹이’, ‘대체’를 다루었다. ‘챗불’의 직경이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의 체보다 10cm 이상 더 크고, ‘챗망’의 높이도 5cm 정도 높다. 그리고 눈의 크기도 0.5cm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챗불’의 재료를 대나무로 만든 ‘대체’와 ‘얼맹이’가 알곡 및 가루내는 연장의 ‘체’와는

148) 다른 자료 1,388번은 0.4kg,696번은 0.5kg,2,154번은 0.2kg,1,553번은 0.3kg,2,557번은 0.2kg,1,594번은 0.4kg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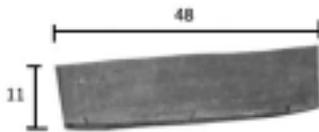
<그림 58> 열게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2001. 10. 22)

달리 ‘푸는체’와 함께 고르고 말리는 연장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체는 찻불의 직경이 39cm 정도이고 눈의 크기가 0.2cm 정도의 것이다. 물론 열맹이는 직경 50cm 이

상의 것으로 찻망의 높이도 13cm 정도가 되었으며 눈의 크기는 0.7cm 내외의 것이 이용됨을 살필 수 있었다.

육지에서는 ‘열게미’라 하여 원통형의 것과 사각형의 것이 쓰였다.



<그림 57> 열게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2001. 10. 22)



<사진 209> 열게미-광주시립민속박물관 사진

## (2) 솔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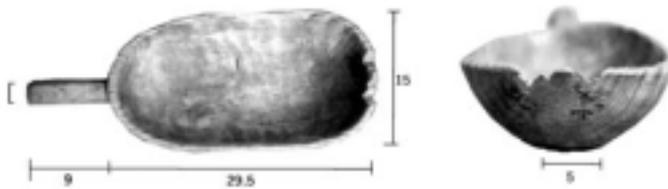
삼달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손박’<sup>149)</sup>(노형, 인성, 조천, 화순), ‘솨박’(가파), ‘속박’(서흥, 태흥), ‘솔뻑’(덕수), ‘죤팍’(노형, 인성, 조수, 서흥, 화순, 하원, 어도), ‘죤팍세기’(명월), ‘죤팍’(덕수, 고산), ‘죤팍’(용수)이라고도 불렀다.

곡식을 퍼 담거나 바람에 까불려서 고를 때 사용했다. 보리 방아를 찧을 때 알곡이 깨어지는 것으로 막기 위

149)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바가지’라는 뜻이다.



<그림 59> 솔박



<그림 60> 솔박



<사진 210> 플라스틱솔박  
(남군 대정읍 무릉리, 196. 9. 12.)



<사진 211> 솔박 사용(1970년대)

해 물을 추겨주어야 했는데 이때도 사용했다. 특히 명월에서는 ‘좁박세기’를 곡식의 양을 측량하거나 또는 곡식을 담을 때 썼다. 온평에서는 같은 형태이지만 ‘솔박’보다 더 작은 ‘뒤박세기’를 구분해 껍질을 벗긴 곡식을 담는데 썼다.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인 소나무 등을 재료로 둥그스름하고 넓게 파서 만든 작은 나무 바가지 같은 비슷한 그릇으로 탈곡한 알곡을 바람에 불려 정선(精選)할 때 사용하였다. 바람이 부는 날 멍석 등을 마당이나 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올래’에 깔고서, ‘체’로 다 걸러 내지 못한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불려 낼 때도 썼다.<sup>150)</sup> <세경놀이>에는 ‘불림질’과 ‘푸는체’를 이용한 정선(精選)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게 한다.(현용준, 1980:393)

‘솔박’은 장방형(長方形)으로 낮은 원통형을 이루고 있다. 자루가 없는 것이 주로 쓰였으나 자루가 있는 것도 간혹 보이고 있다. 형태적으로는 대마도에서 ‘쇠죽바가지’로 썼던 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sup>151)</sup> 크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쓰였으며, 오늘날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오일장 등에서 사서 쓰고 있다.

가장 가벼운 나무인 ‘닥냥’(닥나무)이나 ‘폭냥’(팽나무)으로 만들었다. 불림질 할 때나 곡식을 담을 때 등에 사용했다. 가벼운 나무이지만 약한 나무이어서 오래 쓰면 한 쪽이 쉽게 달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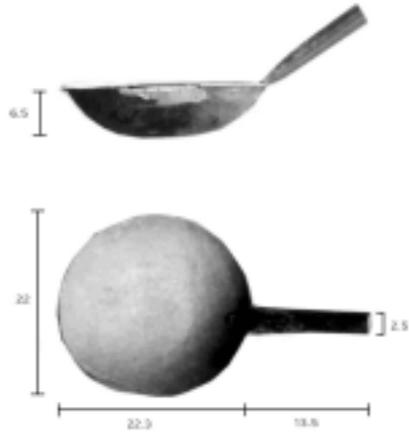
오라 3동에서는 ‘족냥’(때죽나무)이나 ‘폭냥’(팽나무)으로

150) 곡식의 양을 정하거나 일정량씩 나눌 때도 쓰였으며, ‘잘리(자루)’ 등에 담을 때도 사용하였다. 물을 뜨는 ‘물박’으로도 쓰였으며, 밭에 나가서 식사할 때 그릇 대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151) 金光彦, 『日本 對馬島の 農器具』, 『韓國農器具攷』, 백산자료원, 1986. p. 445

만들었으며, 행원에서는 ‘숙테낭’(삼나무), 소나무, ‘자귀낭’(자귀나무)으로도 만들었다.

불림질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솔박’으로 불림질을 하는 것을 도평동에서 살필 수 있었다. 참깨를 말린 다음 작대기로 두드리고 그것을 우선 불림질 하는 광경이었다. 머리에는 수건을 돌린 ‘삿갓’을 쓴 할머니가 앉아서 작업하고 있다.



<그림 61> 쇠죽바가지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2001.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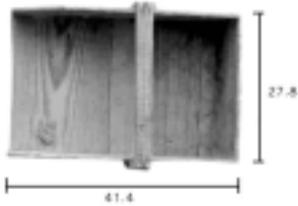
<표 25> 솔박 비교

지역	소장자	길이	폭	높이	비고
제주 월평	김희인	32	22	7	
남군 대정	이성지	30.5	18	7	플라스틱
남군 표선	안치호	31.5	19	5.5	
서귀 하효	고석진	31	18.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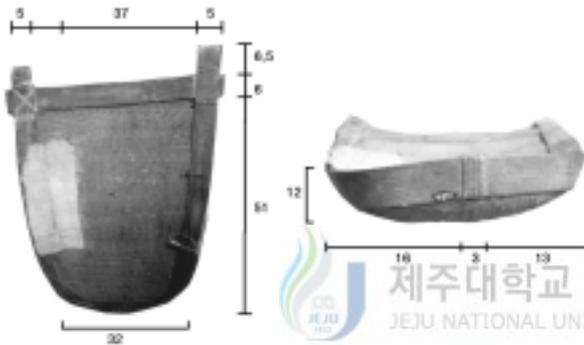
<표 25>는 고르고 말리는 연장으로 사용하는 ‘솔박’의 평균 길이가 31cm 정도이며 폭은 19cm, 높이는 7cm 내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육지에서는 말린 벼를 자루 등에 퍼담는데 쓰는 ‘하꼬’가 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양동마을의 김○○(남, 1947년생)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자루 있는 ‘솔박’과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육지에서는 ‘소죽바가지’가 쓰이고 있다. ‘소죽바가지’로 전남 진도군 진도읍 김○○(남, 1923년생)의 것도 살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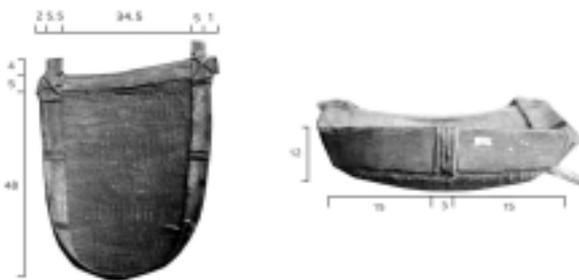
### (3) 푸는체



<그림 62> 하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양동마을, 2001. 10. 23.)



<그림 63> 푸는체



<그림 64> 푸는체

‘키’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달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푼체’(귀덕)라고도 불렀다. ‘푸는체’라는 명칭은 바람을 일으키며 쪽정이나 겨를 내쫓는다는 뜻을 가진 제주 지역어 ‘푸다’라는 말에 ‘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탈곡 작업 때 ‘졸레<sup>152)</sup>’를 구분하거나 ‘졸레’와 함께 있는 알곡을 정선(精選)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바람이 많은 날은 쓰기 곤란하여서 주로 바람이 없는 날에 사용한다. 또 보리를 검피울 때 ‘꺾레’(맷돌)로 갈아 낸 다음 섞여 있는 껍질과 알곡을 구분하기 위한 ‘체질’에도 쓰였다.

언제부터 ‘푸는체’가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옛 농서인 『農事直說』에 ‘箕’, 『增補山林經濟』에 ‘箕’, 『訓民正音解例本』에 ‘키(箕)’라는 기록(김광인, 1986:398~402)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1429년부터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357년 축조된 안악(安岳) 제3호 고분 벽화 중에 디딜방아를 찧는 여인과 함께 ‘키질하는 여인’의 모습도 보여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53)</sup> 제주의 경우 사계리 본향당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에 ‘푸는

152) 죽쟁이·티끌·검부러기 등을 일컫는 제주 지역어(地域語)다.

153) 蔡秉瑞,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2), 1967, p. 51

체'의 덕분으로 어렵지 않게 살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 '조'를 재배하여 수확하는 과정을 재연하는 <세경놀이>에도 '푸는체'는 등장한다. 이때는 '솔박'을 이용해 불림질을 한 후에 알곡을 정선했을 때 쓰는 것으로 되어있다.(현용준, 1980:393)

이밖에도 아이들이 오줌을 자주 싸면 이를 막기 위해 방편으로 이웃집에 소금을 받아 오라고 했는 데, 이때 쓰여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입춘날 이것으로 점을 치기도 했다. 상방을 치우고 빈 '푸는체'를 엮어두면 얼마 후 보아 그 자리에 떨어진 곡식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sup>154)</sup> 또 윤달에 상방에서 마당쪽으로 '푸는체질'을 하면 '문전신'을 내쫓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믿어 집안이 망한다고 '푸는체'질을 피했다고 한다.(김광언, 1995(5):854)



<사진 212> 대나무 푸는체  
(서귀포시 하효동, 1996. 5. 28.)

'푸는체'는 '바닥'과 '에움'으로 구성되는데 전체적으로 'U'자형을 이룬다. '바닥'은 넓고 편평하며 '뒤'는 좁고 오목하다. 육지의 '키'에는 앞쪽 양 가장자리에 '날개'가 붙어 '키'질을 할 때마다 바람이 일어나면서 정선되지만, 푸는체는 '날개'가 없다. 이것은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별도의 '날개'를 장치할 필요가 없었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① '에움'은 체질할 때 손잡이가 되는 것으로 가장자리에 붙어 있다. '에움'의 재료는 질기면서도 잘 휘어지는 '자귀낭'(자귀나무)을 주로 썼다. 이 나무는 북군 한림읍 금악리에서 가까운 한라산 중턱 속칭 '어승생' 일대에서 주로 자생하는 나무다. 이 나무로 푸는체의 앞쪽의 '난니'도 붙였다.



<사진 213> 푸는체 사용

② '바닥'의 재료로 '자골'(자귀풀), '버드나무', 새삼이 쓰였다. 버드나무는 음력 5월에, 차풀과 새삼은 음력 8월에 구해 말려두었다가 썼다. 애월이나 북부지방에서는 '줄겅잇줄'(으름덩굴), 오라2동

에서는 '자골'<sup>155)</sup>(자귀풀) 혹은 '정동'(댕댕이덩굴)으로 남원, 서귀, 하효에서는 '대나무'나

154)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 悅話堂, 1979, p.77

‘넙줄’로도 만들었다. 사용하다가 ‘굽’(바닥)이 상하게 되면, 상복(喪服)을 만들어 입었던 ‘베’를 이용해 발라서 사용했다.

고광민(1986:287~305)의 의하면 ‘푸는체’의 제작은 ‘바닥만들기’와 ‘에움붙이기’로 이루어진다.<sup>156)</sup> 바닥만들기에는 ‘징대’, ‘받침낭’의 도구가 필요하고 ‘징눌’<sup>157)</sup>을 재료로 썼다. 에움붙이기를 할 때에 도구는 ‘갯냥’, ‘코쟁이’, ‘줍제기’, ‘낫’이 필요하다.

송당 등지에서는 서촌(西村)에서 만들어 팔러 오면 보리쌀 몇 되와 바꾸어 사용했다고 한다. 한 번 준비하면 상당히 오래 쓴다.

‘푸는체’는 ‘에움’을 아래위로 치면서 앞뒤로 흔들어 딸각 딸각 쳐주어 ‘줄레’(쭈정어)는 앞으로 나가고 알곡은 뒤로 모이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경험을 통한 손놀림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여자들의 작업으로 수확해 들인 곡식의 전량(全量)을 이 ‘체질’로 퍼야 했으므로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한다.

육지에서는 곡식에 섞인 티끌을 바람을 이용해 고르려고 곡식을 ‘키’에 담아 높이 들고 천천히 쏟아 내리는 일을 ‘키내림’이라 하고, ‘키’를 나비 날개 치듯 부쳐서 바람을 내는 일을 ‘나비질’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에움 160cm, 바위 64cm, 길이 60cm, 뒷높이 15cm, 무게는 0.5kg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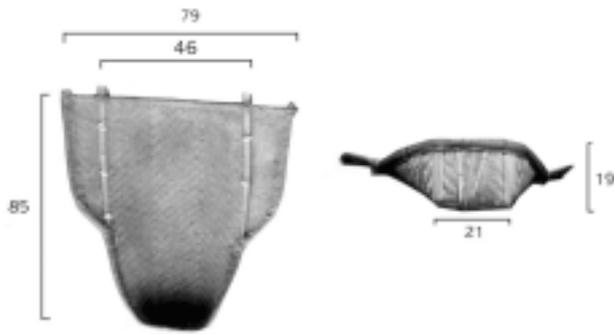
<표 26> 푸는체 비교

지역	소장자	길이	앞폭	뒤높이	비고
남군 대정	양경팔	49.5	44		
남군 대정	이성지	51	48.5	7	
북군 애월	변두남	58.5	53	7	
제주 월평	김희인	53	49.5	6.5	

<표 26>는 날개가 없어 육지 것과 구분되는 데, 고르고 말리는 연장으로 ‘푸는체’를 살폈다. 평균 길이는 54cm 내외로 앞폭은 48cm, 뒤 높이가 7cm 정도로 육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 이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 월평동 507번지의 김○○(女, 1920년생)의 것을 살핀 것이다. 후대에 오면서 보리 공매(公賣)에 사용하였던 ‘푸대’로 깨매었고 앞쪽 ‘바위’ 쪽은 비닐로 돌린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주시 해안동 1790번지의 김○○(男, 1931년생)의 것을 살필 수 있었

155) 자귀풀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굴’이라고도 불렀다.  
 156) 高光敏, 『濟州島民具』(III), 『耽羅文化』(5),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6, pp.287~305  
 157) 나이론줄을 이용하나 예전에는 삼으로 끈 실을 사용했다.



<그림 65> 췌이(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3리, 2001.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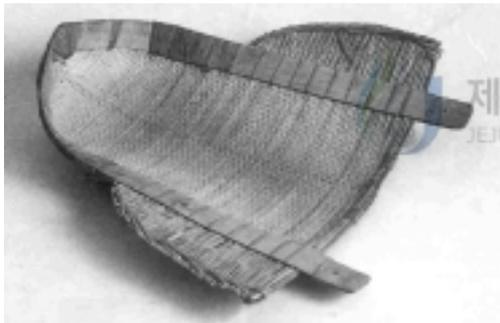
경기대학교 소장자료의 경우 넓이 72cm, 길이 70cm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158)

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것으로 50년 동안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의 도구로 육지에서 '키', '치', '챙이'라고 하는 것이 쓰였다. '고들버들'이나 대쪽을 납작하게 쪼개어 앞은 넓고 편평하며 양 앞쪽에는 작은 날개를 달았다. 뒤는 좁고 깊은 것이다.

<표 27> 푸는체와 키의 비교

구분	제주	육지
명칭	푸는체	키, 췌이
바닥재료	차풀, 새삼, 버드나무, 대나무	고들버들, 대나무
날개	없음	있음
앞폭	64	72
길이	60	70



<사진 214> 키-경기대학교박물관 사진



<사진 215> 췌이질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3리, 2001. 10. 23.)

전남 장흥 유치면 신흥리 백○○(여, 1932년생)의 것과 충남 금산에서는 '푸는체'보다 크고 날개가 붙은 '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푸는체'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가옥에서 준비하였다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육지에서도 '키'라고 하여 같은 기능의 것이 이용되었지만 바람을 일으켜 주

158) 京畿大學教博物館, 앞의 책, p. 104

는 날개가 없는 것이 ‘푸는체’의 특징이다. 이는 바람 많은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4) 명석



<사진 216> 명석 사용 :  
날레널기(1980년대?)

귀덕, 고산, 용수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한자어 ‘網席’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또 ‘독석’(저지)이라고도 불렀다. 특히 ‘명석’보다 좀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탈곡한 곡물 등을 건조시킬 때나 수확한 작물을 탈곡할 때 등 땅 바닥에 까는 데 주로 썼다. 큰일이 있을 때는 마당에 깔고 손님을 모시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방에 깔기도 했다. 또한 옷놀이를 할 때 깔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잘사는 집에서는 ‘갈옷’을 만들어 별에 바랄 때 깔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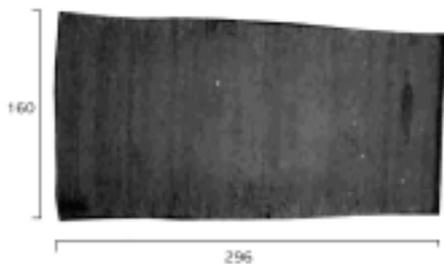


<사진 217> 명석 사용 :

옷놀이(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2001. 2. 4.)

짚으로 ‘가마니노’를 만든 다음 씨줄로 삼고 잘 다듬은 짚은 넣으면서 장방형(長方形)이나 원형(圓形)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짚을 손질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도 하루 1자(尺) 정도 짜도 잘 짜는 편에 속하였다.

‘명석’ 하나를 만드는데 잘하는 사람도 6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산뒤짚은 2동(1동은 20 ‘뭇’을 말한다.)이 들었다. 300여개의 ‘늘’로 쓰기 위해 3~400발을 만들어야 하고, 가장자리에 쓰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명석’을 만들 때는 ‘산뒤짚’을 사용할 만큼 일차로 두드리 두었다가 그 날 그 날 쓸 것만을 다시 물에 적시고 다시 손을 보아 사용하였다. 너무 많이 두드리면 힘이 없어서



<그림 66> 명석



<사진 218> 명석 부분



<사진 219> 갑바 사용  
(제주시 월성마을, 2002. 5. 31.)



<사진 220> 명석 사용 :  
벼말리기-전남농업박물관사진  
‘명석’과 관련된 수수께끼로 “낮에는 마당, 저녁은 나팔”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낮에는

안되었고, 너무 두드리지 않으면 잘 구부러지지 않아 쓸 수 없었으므로 재료 가공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였다. 오른쪽으로 갈 때 보다 왼쪽으로 엮을 때가 훨씬 어려웠다고 한다.

‘명석’ 짜는 기술은 어른들에게서 배웠다. 예전에는 보리, 조 농사만 해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맥’과 ‘명석’ 짜는 것이 남자들의 일이었다. 동지, 선달, 정월 등 한 겨울에 주로 짰다.

‘날레 년다’고 하여, ‘명석’을 마당에 깔아서 곡식을 퍼 넣어 말리는 데 하루 2~3회 ‘당그네’로 저어 골고루 말린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용이하게 엮어 낼 수 없었으며, 크기는 보통 3자(尺) 폭에 6자(尺) 길이의 것이 보통이었다.

‘명석’에 관한 옛 기록은 『農家月令歌』에 ‘명석’으로, 『增補山林經濟』에 網席으로 기록(159)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지에서는 ‘덕서기’, ‘덕석’이라고도 하며, 무게가 10.5kg에서 14.5kg에까지 이른다.<sup>160)</sup> 한 집에 많은 경우는 12질, 보통은 7~8질은 갖고 있었다. 작게라도 3~4질 정도는 있었다. 12자(尺) 길이의 명석도 있다고 하나 보통은 6자 정도의 것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12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거워 가져 다닐 수 없었으므로 실제로는 6~8자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9) 金光彦, 앞의 책. pp.398~432.  
160) 김광언, 앞의 책, pp. 147~148

명석을 마당에 펼쳐놓고 저녁에는 둘둘 말아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sup>161)</sup> 쥐가 오줌을 싸면 쉽게 삭아버리므로, 세워 놓을 때도 말린 부분의 구멍에 소나무 등을 꽂아 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진 221> 명석 보관

‘명석’을 이용해 ‘날레 닐 모습’의 사진을 살필 수 있었다. 보리나 벼의 건조는 물론 고추 등을 말릴 때도 사용하였다. 행원에서는 집집마다 5~6질을 갖고 있었으며 ‘날레 닐’ 때 주로 썼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집이면 어느 집에서나 갖추고 썼다. 많으면 8개까지 있는 집도 있었다. 보통 마당에는 3개 정도 깔면 가득했다. 구입할 때는 보리 5말 정도를 주고 샀을 정도로 비쌌다고 한다. 쓰지 않을 때는 헛간 등에 끈을 달아 걸어 두는 데 이때 중앙의 구멍 속으로 쥐가 들어가지 못하게 소나무를 꽂아 두었다. 쥐가 들어가 오줌이나 싸면 그 부분이 쉬 썩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가장자리가 헤어지면 노를 꼬아서 손을 보면서 사용하였다.

#### (5) 당그네

‘고무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명월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고무래라는 말이 ‘당그네’의 형태가 한자(漢字)의 고무래 정(丁)자와 같아서 붙여진 명칭인데 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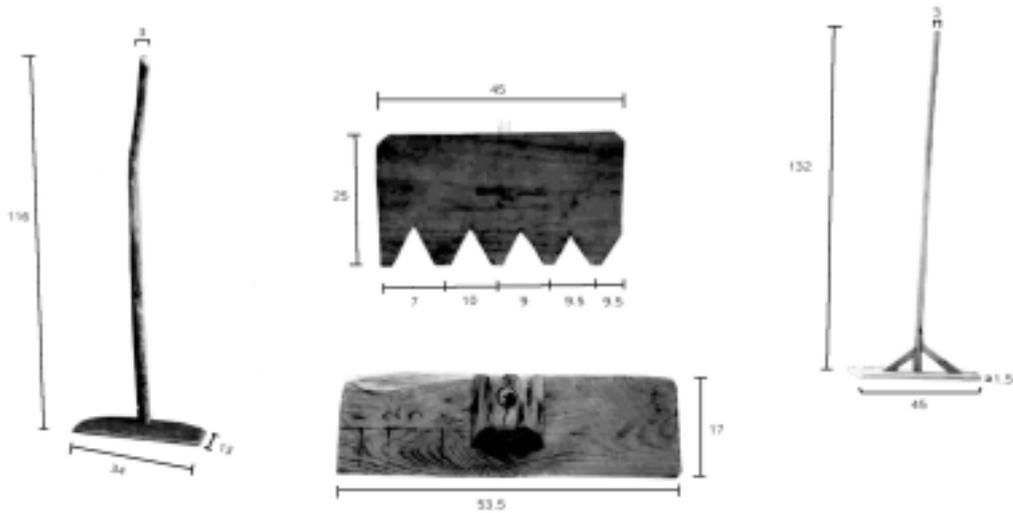
<사진 222> 당그네 사용

‘당그네’라는 말을 밀지 않고 ‘당기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기능에서 온 명칭으로 보인다. 또 ‘당그래’(덕수), 당그내(고산, 귀덕, 수산) ‘당근내’(강정), ‘당근네’(대평), ‘근네’(온평), ‘군네’(수산), ‘서으래’(덕수), ‘서얼레’(귀덕), ‘당그래’(오조), ‘근네’(행원, 표선), ‘설레’(아라, 유수암), ‘그네’(덕수), ‘군네’(덕수, 행원), ‘서을레’(고산)라고도 불렀다. 수산에서는 사다리꼴의 널판의 상부에 일자형 자루를 단

161) 洪淳鐸, 앞의 글, p. 769

(제주시 용담동 월성마을, 2002. 5. 31.)

것을 ‘군데’, 요철이 있는 널판에 자루를 단



<그림 67> 당그네

<그림 68> 미레(전남 진도군 임해면 장구포, 2001. 10. 24.)

것을 ‘날레군데’, Y자형 자루를 단 것을 ‘당그네’로 구분하기도 하였다.(김광언, 1969:181)

보리 등의 탈곡한 알곡을 ‘멍석’에 깔아 건조시킬 때 주로 썼다. 햇빛이 잘 쬐이는 날, ‘멍석’ 위에 곡식을 넣고 1일 2~3회 저어 주는데, 이때 밑의 곡식이 위로 올라와 건조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 뒤집어 줄 때 썼던 것이다.

‘당그네’에 관한 옛 기록은 『農事直設』에 ‘把撈(鄉名 推介)’, 『海東農書』에 ‘고미리’, 『千一錄』에 古音排, 『月餘農家』에 “机고미뢰”로 된 것을 찾을 수 있어 1429년 이전부터 ‘당그네’가 사용되었을 알 수 있게 한다. 오늘날에도 공출을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보리를 말릴 때 사용하고 있다. 2~30섬의 양은 마을 주변의 공터를 이용해서 말릴 수 있었으나 3,000평 정도의 밭에서 4~50섬 정도를 수확하면 넓은 공터를 찾아가 말릴 수 밖에 없었다.

‘당그네’는 ‘자루’와 ‘날’로 구성되는 전체적으로 ‘T’字형을 이룬다.

① ‘날’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7~8개의 잇빨을 가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빨이 없는 ‘널빤지’의 형태의 것이다. 잘 사는 집에서는 멍석이 많아 보리를 널어 말릴 때 얇게 널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그네의 이빨이 없는 것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보리를 두텁게 널어야 했는데 이때는 이빨이 깊게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여야 굵을 수 있었다.

이빨이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빨이 있는 것 보다 ‘날’과 ‘자루’가 전체적으로 작은 것



<사진 223> 당그네 사용

이 쓰였다. 이 경우 날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아 직사각형, 반달형, 사다리꼴형의 것이 쓰였다. 특히 ‘굴목’에서 재(灰)를 파내거나, 땀감을 밀어 넣는 데 주로 쓰였다.<sup>162)</sup> 용수에서는 ‘불그네’라 하여 ‘당그네’와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의 것을 육지에서는 ‘고래당그래’라 부르며 사용했다고도 한다.<sup>163)</sup>

② ‘자루’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벼운 ‘소냥’으로 만들어 썼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이빨이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사다리꼴형을 하고 있는 ‘날’의 상단에 자루가 박힌 것도 사용되었다. 끈지 않은 자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면 어느 것이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자루의 길이는 112.5cm, ‘당그네’의 경우 폭의 길이는 45cm, 높이는 15.5cm 정도의 것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sup>164)</sup> 수산에서 사용된 것으로 요철이 없는 널판은 폭의 길이가 43cm, 높이가 15cm, 요철이 있는 것은 널판의 폭이 47cm, 높이 19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표 28> 당그네 비교

지역	소장자	자루길이	날길이	폭	비고
예월 상가	변두남	116.5	30	13	
서귀 하효	고석진	127.5	33.5	14.5	잇빨 7
제주 월평	김양언				잇빨 8
남원 태흥	박창식	21	17.5	8	

<표 28>은 자루 길이를 120cm 내외로 하고, 길이 30cm 내외, 폭 14cm 내외의 ‘날’을 전체적으로 ‘T’字形이 되도록 붙인 것을 사용하였다. 육지에서도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이를 ‘미래’(전남), ‘밀개’(강원도)라 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상도지역에서는 형태는 ‘당그네’

162) 인성, 하원, 서홍, 수산에서 ‘불그네’라고 불렀다. 또 다른 이름으로 ‘구그네’, ‘불근테’, ‘굴흔테’, ‘근테’, ‘굴호네’, ‘굴른테’, ‘군테’라고도 불렀다. 화재 예방과 쉽게 ‘구들’이 식는 것을 막기 위해 아궁이에 맞는 돌로 막기도 하였는데, ‘굴목’에서 나온 ‘재’에 오줌단지의 오줌을 비어 찍어 사용하였다. 보통 ‘굴목’의 재를 3일에 한번이나, 5일에 한 번 정도 긁어 내어주어야 했다. 그 재를 ‘불치막’에 모았다가 ‘보리’나 ‘메밀’농사에 사용했다.

163) 김광언, 『고무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p.476

164) 다른 자료 769번은 1.3kg 정도였다.

와 같이 고무래 정(丁)자와 같지만 당그네의 ‘날’이라기 보다는 ‘곰배’에 가까운 ‘몸통’에



‘밭’이 달린 ‘밭고무래’라 하여 담배나 고추, 배추 등을 심기 위해 ‘골’을 만들 때 흙을 고루는 작업에 사용했다.(배영동, 2000: 155~156) ‘고무래’의 경우 자루의 길이는 115cm. ‘고무래’의 폭의 길이는 57.6cm, 높이는 15.2cm 정도로 조금 작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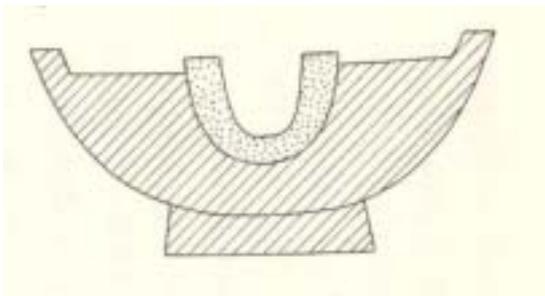
<사진 224> 미레 사용  
(전남 진도군 임해면 장구포, 2001. 10. 24.) 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진도의 것은 잇빨이 없는 것이었으며 장흥의 것은 5개의 이빨을 가진 것이다.

전남 진도군 임해면 장구포 박○○(남, 1923년생)의 것과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임○○(여, 1931년생)

## 10.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

탈곡한 곡물을 식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정(搗精)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찼기와 빵기 작업이 활용되었다. 찼기를 위해서 ‘남방애’, ‘절구’등 소형의 것과 빵기를 위하여 ‘물방애’(연자마), ‘그레’(맷돌)가 이용되었다. ‘물방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곡물에 물을 축여주어야 알곡의 손상이 줄어들었는데 이때 사용했던 것으로 ‘물통’도 이용되었다. 이들 연장에 대해 살핀다.

### (1) 남방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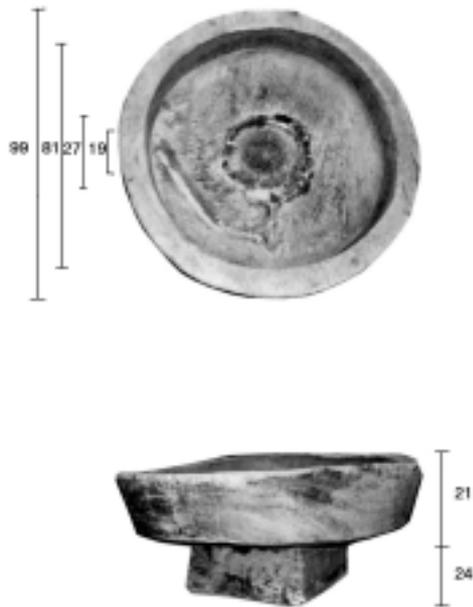


<사진 225> 남방애 단면-泉靖- 그림

아라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남방아’(아라), ‘남방애’(덕수, 용수, 사계, 귀덕), ‘남벙이’(용수)라고도 불렀다. 남방애와 구분하기 위하여 돌로 만든 것을 용수에서는 ‘돌방애’라고도 불렀다.

방애귀로 곡물(穀物)을 찼으면서 도정(搗精)하는 데 썼다. 큰 통나무를 파서 만

든 절구로 제주 고유형이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깨깎질’을 하며 찼었다. 보리, 산뽕 등은 물론 산간마을에서 많이 경작했던 피(稷)를 작업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69> 남방에

이원진의 『耽羅志』에 “방아가 없고 여인들이 손으로만 ‘절구’를 찼는다.”(김상조 역, 1991:5)는 기록이 보이는 데, 이는 디딜방아가 거의 없었고<sup>165)</sup>, ‘방에’나 ‘절구’에서 ‘방에귀’로 방아 찼었던 옛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방에’는 통나무의 중앙에 홈을 파서 ‘천’을 만들고 그 중앙에 돌로 만든 ‘돌혹’(돌확)을 박아 만든 것이다.<sup>166)</sup> 이러한 형태의 ‘방에’가 사용된 것은 질 좋은 화강암의 부족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광언, 1969:190) 아래위가 같으면서 중앙에 손잡이가 있는 ‘방에귀’로 찼으면서 도정하였다.

① ‘천’은 방에 작업을 할 때 곡물(穀物)이

밖으로 튀어 나가지 못하도록 가장자리에 ‘바위(방에천)’이라고도 한다<sup>167)</sup>가 세워졌고 이것이 ‘굽’에 얹혀있도록 장치되었다. 재료는 ‘굴무기’(느티나무), ‘벗나무<sup>168)</sup>, ‘가시낭’(가시나무)을 이용하되 통나무를 양편으로 쪼개어 만들었다.<sup>169)</sup> 이렇게 넓은 방아를 만든 것은 작업 중 알곡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필요성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

165) 김광언, 『디딜방아연구』, 지식산업사, 2001, p.p.193~196에 의하면 제주시 외도동에서 사용하였던 디딜방아가 표선에 있는 제주민속촌에 전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제주에서 디딜방아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닌듯 하다.

166) 대정, 한경 지역에서는 현무암(玄武巖)을 가공하여 만든 ‘돌방에’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돌방에’는 별도의 돌혹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167) 서흥, 수산, 가시, 김녕에서는 ‘방잇전’ 노형, 조수, 인성에서는 ‘방잇천’, ‘방엿척’, ‘척’이라고도 한다.

168) 쟁반 등 제기를 만드는데 주로 이용하는 왕벗나무는 주로 해발 500-900m 숲 속에 드물게 자란다. 높이 10m에 달하는 落葉喬木으로 바다 가까운 산지의 숲 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재질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목활자의 목재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169) 재료와 관련된 속담이 전해오고 있다. “방에랑 흐거든 굴무기(느티나무)나무 흐곡, 절귀랑 흐건 도에낭흐라”

러 번 방아질을 하기 위해 찢은 것을 한 쪽으로 모아두고 작업해야 했던 껍질이 여러 겹인 ‘피’나 ‘조’ 등 잡곡(雜穀)을 주곡(主穀)으로 재배하였던 제주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성취원(成就院)이라는 곳에도 같은 형태의 것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up>170)</sup>



<사진 226> 천과 돌혹자리

② ‘돌혹’은 ‘돌확’이라고도 한다. 실제적으로 방에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원뿔형으로 속을 파고 ‘방에’ 속에 얹은 것이다. 돌혹과 ‘방에’의 면은 흙에 숨을 섞어 마감하였다.



<사진 227> 돌혹자리

남군 남원읍 수망리 296번지의 현○○(男, 1931년생)의 ‘돌혹’을 살필 수 있었다. 직경 37cm, 높이 20cm 윗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100년은 되었다고 한다. 서귀포시 상호동 740번지의 양○○(男, 1953년생)의 것을 살폈다. 직경 87cm, 폭 60cm, 높이 39cm 정도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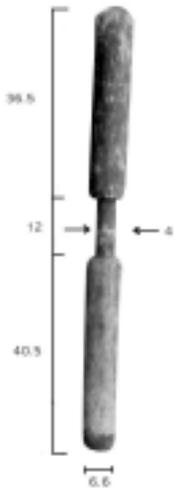
‘남방에’의 제작에는 물떼, 알기, 번은자귀, 추, 초불죽쇄, 두불죽쇄의 도구가 필요하다. 재료는 ‘굴묵이’(느티나무)를 최고 쳤다. 둥근 통 나무를 세로로 중앙에서 쪼개서 ‘남방에’의 위쪽이 되도록 한다. 그래야만 건조되는 동안 터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재료의 중앙에 못을 박고 원을 그린다. 그리고 발굽과 윗몸을 그린 다음 몸통 바깥면, 윗몸 테두리를 그린 다음 흙을 판다. 흙을 다 파낸 다음 ‘돌혹’자리를 파고 윗몸 안팎면을 다듬는다. 그리고 윗몸을 다듬은 다음 받침의 들림바닥을 만들어 간다. 마지막으로 면을 고르면 된다. 3일간 작업해야 만들 수 있다.<sup>171)</sup>

‘방에귀’는 ‘방아공이’, ‘도구대’, ‘절구공이’라고도 불렀던 것으로, 가운데 손잡이 부분이 위치하고 양쪽에 공이가 달린 것으로 공이 부분이 원통형(圓筒形)으로 육지의 반구형(半球形)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방에 안의 ‘돌혹’이 크기 않기 때문에, 큰 것을 사용하였던 곳에서의 반구형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태의 ‘방에귀’가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어 기원전 1세기경부터는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안승모,

170) 김광언, 「일본에 건너간 우리 농기구」, 『한국민속학연구』, 단국대학교한국민속학연구소, 1994, p.69

171) 고광민, 「목공예」,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위원회, 1996, P.p603~608

2001: 61)



<그림 70> 방에귀



<사진 228> 돌방에 사용 (1980년대)

<사진 229> 남방에 사용(1920년대?)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바위’의 지름 100cm, 두께 8.5cm, 내경 84cm, 바닥 지름 77.5cm, 가장자리에서 30cm 위치에 자리한 곳에 지름 21cm, 깊이 7cm의 돌혹이 있고, 받침의 길이는 50cm 정도였으며, 부녀자(婦女子)들이 서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대학교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지름 106cm, 높이 39cm 정도의 것이었다.<sup>172)</sup>

작업 시에는 2~3말의 곡식을 넣고 ‘도애낭’(복숭아나무)<sup>173)</sup>으로 만든 ‘방에귀’<sup>174)</sup>로 작업하였다. 속설(俗說)에는 “방아 밑에 흙을 주어 먹으면 득남(得男) 한다”는 속신(俗信)이 전해오고 있다.

작업 때 불렀던 <방에질 소리><sup>175)</sup>가 전해온다. 물론 ‘남방에’를 찧는 일은 여성들의 노동이었다. 방아를 찧을 일이 생기면 집안 여성들끼리 혹은 이웃 여성들끼리 모여 방아찧는 작업하였다. 그러

로 집단성이 요구되며 매우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아찧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더구나 밭일, 바다일 등 온갖 노동을 하고서도 방아 찧는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무척 고된 일이었다. 고된 삶을 노래한 내용이 많고, 방아 찧는 작업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다.<sup>176)</sup>

‘방에’를 찧은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방에’는 넓을 수록 좋았다. 4명이 찧으면 2명이 찧는 것보다 빨리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 마을에 2~3개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귀했다.

‘남방에’는 제사가 많았던 종손 댁 등 일부 가옥에서만 보유했

172) 京畿大學敎育博物館, 『한국의 역사』, p. 105

173) 질긴 나무인 ‘틀낭’(산딸나무)으로도 만들었다.

174) 광창열편, 『수수께끼』, 가정교육사, 1996, p. 151.에 의하면 수수께끼에 “울타리 너머에서 얼굴에 분바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방에귀’의 작업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절공궁이’를 말하는 것으로 ‘뱅잇귀’, ‘방잇귀’, ‘뱅엿귀’, 화순, 인성, 김녕에서는 ‘방앗귀’, 노형에서는 ‘방엿귀’라고도 한다.

175) 제주 특유의 절구인 ‘남방에’에서 찧거나 가루를 뺨을 때에 부르는 노래를 말하며, <방에놀레>, <방이놀레>, <남방에 찧는 소리>라고도 한다.

176) 남제주군, 『우리고장 전래민요』, 1996. 남제주군, p. 263



거나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 당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육지에서 보편적인 알곡 및 가루내는 연장로서 디딜방아가 이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이는 조와 피, 보리 등 도정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잡곡들을 식량작물로 하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름(口徑)이 넓지 않아 2사람 정도가 마주 서서 작업하는 육지의 ‘절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작업해야만 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하는 조와 피 등의 잡곡(雜穀)들을 주곡으로 했던 제주적 특징을 반영하는 농기구의 하나이다.

## (2) 절구

‘절구’를 달리 ‘절귀’(명월), ‘도고방애’(김녕), ‘도구통’(감산), ‘맷덕’(대평), ‘방에혹’(하효)이라고도 불렀다. 특히 돌로 만들었던 절구를 덕수에서는 ‘도구방애’, 사계에서는 ‘도구방애’라고도 불렀다. ‘도구통’이라는 명칭은 한자어 搗臼桶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 230> 남절구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제주민속촌, 1996. 3. 21.)

통나무나 돌을 재료로 속을 파낸 구멍에 곡식을 넣고 많지 않은 양(量)의 도정(搗精)이나 제분(製粉)에 주로 사용하였던 것을 말한다.

원통형(圓筒形)의 나무나 돌을 오목하게 파내어 곡물을 넣고 찼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장자리에 ‘바위’(‘천’이라고도 한다)를 만들고, 잘록한 허리가 있는 ‘몸통’, 바닥인 ‘굽’으로 이루어졌다. 깨, 고춧가루, 마늘 따위의 양념을 빻을 때 주로 썼다. 김녕에서는 떡을 만들기 위해 쌀을 찼을 때도 썼다. ‘절구’에 관한 수수께끼로 “하늘보고 하품하는 것”, “하늘보고 입 벌리는 것”이라는 것이 전해온다. 이는 ‘절구’의 입구가 벌어진 것을 하품하는 입으로 비유한 것이다.(홍순택, 1969:768)

‘절구’에 관한 옛 기록은 『海東農書』에서는 ‘臼(절구)’, 『課農小抄』에 ‘臼(털구 구)’, 『訓蒙字會』에 ‘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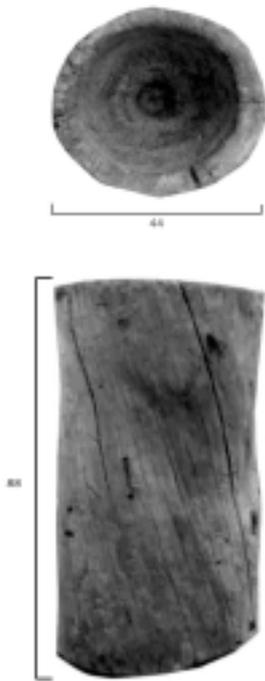


<사진 231> 돌절구

다. 특히 돌절구를 『北學議』에 ‘石臼’로 나무절구를 『課農小抄』에 ‘木臼’로 구분하여 기록(김광언, 1986:398~432)한 것으로 보아 ‘돌절구’와 ‘나무절구’가 함께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사 시대 유적 발굴을 통해서 살펴보면 5세기 전후한 시기부터 ‘절구’가 도정(搗精)에 이용되었음을(홍희유, 1974:143~144) 알 수 있게 한다.

박물관 소장자료로 중정에 전시한 자료와 다른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바위 지름 45cm, 길이 55cm, 내경 32cm, 두께 6.5cm이며 무게는 110kg 정도였다.<sup>177)</sup> 이 밖에 남군 남원읍 수망리의



<그림 71> 절구



<그림 73> 도구통  
(남군 안덕면 감산리, 1999)  
-고광민 사진

<그림 72> 절구대 ‘돌절구’를 살필 수 있었다. ‘큰일’에

쓸 떡가루를 만들 때 구멍으로 들어가는 가루는 ‘비’로 쓸어

내면서 사용했다고 한다. 강원도의 ‘절구’는 양념을 등을 마련

하는데 썼으므로 키가 크고 너비는 좁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확’ 자체도 얇고 ‘공이’도 짧은 편이다. 그리고 제주민속촌의 ‘남절구’도 살필 수 있었다.

177) 加藤木保외(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역, 앞의 책, pp. 181~187.에 의하면 남절구와 돌절구가 함께 쓰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소나무로 만든 남절구는 56kg에서 29kg로까지 다양하였으며, 화강석으로 주로 만든 돌절구는 중간 것이 110kg 정도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 232> 양념절구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1996. 8. 30.)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산리 임○○(남, 1925년생)의 것은 ‘도구통’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육지에서는 ‘도구’라고도 한다.(김광언, 1969:185~187) 함께 쓰였던 것으로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위○○(여, 1926년생)의 ‘도구대’를 살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지름 32cm, 높이 37cm 정도의 돌절구와 지름59cm, 높이 61cm 정도의 나무절구였다.(경기대학교 박물관, 1980:105)

‘돌절구’는 간혹 보이는 나무절구보다도 더 많은 가옥에서 보유했거나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 당시에도 일부 가옥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다공질 현무암을 장구통처럼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경남 지방에서는 정월의 첫 축일(丑日)에 절구질을 하면 집안의 소가 아파 죽는다고 하여 이날 절구질 하는 삼값다고 한다.

### (3) 물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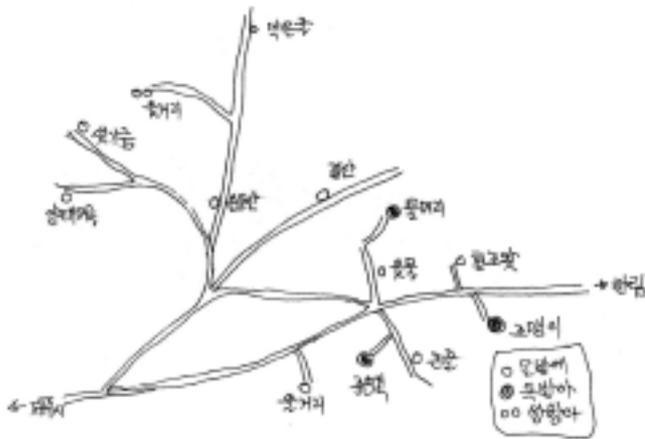
<사진 233> 물방에 사용 :  
소이용(1960년대?)  
-뿌리깊은나무 사진

‘연자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덕수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물방에’(용수, 창천), ‘물뱅이’(강정, 대평, 무릉), ‘물방이’(창천), ‘돌꺾래’(명월, 김녕), ‘물꺾래’(김녕), ‘물꺾래’(덕수, 귀덕, 창천)라고도 한다.

탈곡한 보리나 조 등을 도정(搗精)할 때 썼다. 마을마다 4~5개씩으로 2~30호(戶)에 1개 정도가 있었으며, 이용하는 집들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마을 안의 사거리 등에 두었다.<sup>178)</sup>

또한 ‘독방야’라 하여 농사가 많은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집도 있었다. ‘물방에’가 이렇게 많이 이용된 것은 ‘남방에’에서도 보았듯이 벼가 아닌 보리, 피, 조 등 잡곡을 주곡(主穀)으로 하고, 껍질을 벗기는 것이 힘들었으며, 특히 말(馬)이 많아 ‘물방에’ 작업에 쉽게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말이 없었던 가파에서는

178) 240 가옥 정도가 살았던 가파에서 11개의 물방에가 설치되어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74-1> 유수암리 물방에 배치도

소를 이용하였으며 소도 귀해 빌릴 수 없었던 집에서는 5~7명이 수늘어 짰었다.

‘물방에’에 관한 옛 기록으로는 『北學議』에는 連磨(연마)라고 기록(김광언, 1986:398~432)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78년 이전부터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천의 경우 1948에 정미소가 설립되어 1970년까지 이용된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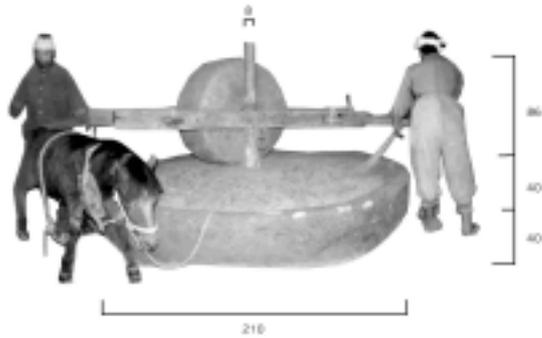
아 1950년대까지는 썼으나 그 때 점차 정미소가 들어서면서 곧 사라지게 되었다.

‘물방에(연자마)’를 설치할 당시에 구성된 ‘물방에(연자마) 집(179)’의 구성원들이 차례를 정해(180) 사용하였으며, ‘방에왕’의 지붕일기나 보수는 공동으로 하였다. 보통 마을내에서도 동가름, 서가름, 옷가름, 알가름 등으로 갈라 작게 10호 이내 많게는 2~30호가 집원으로 구성되는 데, 많은 곳에서는 ‘쌍방아’를 설치하여야 했다. 특히 만 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부자집에서는 ‘독방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물론 처음 ‘옷돌’과 ‘알돌’을 마련하고 마을 안으로 운반하기 위해 전원의 접원(接圓)이 동원되었다. 이때 불렀던 <방아돌 굴리는 소리>남아 전해오고 있다.(181) ‘물방에간’ 안쪽 한 구석에는 ‘물판돌’이라 하여 짐을 지고 내리고 하는 ‘받침대’를 만들어 두기도 하였다.

‘물방에’는 받침돌인 ‘알돌’ 위에서 ‘중수리(182)’라는 기둥을 중심으로 ‘옷돌’이 회전하면서 탈곡한 곡식을 도정(搗精)하게 된다. ‘중수리’에서 ‘옷돌’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장틀’(183), ‘새역’이 쓰였으며, ‘채경’을 통해 전달된 동력(動力)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옷

179) ‘말(馬)방엿집’, ‘말(馬)방잇제’, ‘말(馬)방엿집’, ‘말(馬)방잇집’, ‘말(馬)방엿집’이라고도 한다.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쓰는 연자매를 운용하고 큰일이 있을 때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돕기 위하여 꾸민 계조직을 말한다. 濟州道, 앞의 책, p. 241  
 180) ‘방에질’을 일찍 하기 위해선 다른 ‘물방에(연자마) 집원’보다 먼저 보리를 담은 ‘솔박’을 ‘물방에(연자마) 향’에 갔다 돌으로써 우선 순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181) 金榮敦, 『濟州島民謠』(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조약돌, 1983.P.123  
 182) 수산, 김녕, 가시에서는 ‘선쟁이’, 수산, 가시, 김녕, 노형에서는 ‘장귀’라고 했다.



<그림 74> 물방에

돌' 중앙에 장통을 만들고 '상장틀'에 '조쟁이'를 장치하여 사용하였다.

① '웃돌'은 '웃착', '맷돌'이라고도 불렀다. 물방에 위에서 돌아가며 알곡의 껍질을 벗기거나 알곡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알돌'에 고정된 중수리를 기둥으로 하여 회전한다.

② '알돌'은 웃돌을 받치던 넓은 돌로서 '창돌'이라고 하여 알돌을 받

쳐주는 돌 위에 자리한다. 이 곳 중앙에 중수리가 박혀 웃돌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천'은 곡식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돌에 만든 턱을 말한다.

③ '틀목'은 웃돌을 고정시키고 이것을 돌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로 만든 것이다. 큰 틀목과 작은틀목으로 이루어졌다. '작은틀목'은 'ㄱ른틀목'(인성, 가시, 수산, 어도), 모매기, 'ㄱ른세'(조수, 서흥)라고도 불렀다.



<사진 234> 세역

④ '세역'은 '새', '쌩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큰 틀목과 작은 틀목이 방형(方形)의 형태로 고정시키기 위해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나무를 말한다. '쌩고망'은 틀목에 '쌩냥'을 집어넣기 위해 뚫은 구멍을 말한다. '새감'은 '쌩고망'에 '쌩냥'을 끼운 후 그 틈에 박는 나무로 만든 췌기 못을 말한다.

⑤ '틀레'는 틀목이 서로 해체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끈을 말한다.

⑥ '채경'은 말에 연결하여 '웃돌'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나무막대기로 '틀목'에 연결되어 있다.

⑦ '중수리'는 세워진 웃돌이 넘어지지 않도록 틀목에 구멍을 뚫고 끼워 알돌 위에 고

183) 제주도(1995:72)에 보면 상장틀은 'ㄱ른틀목'이라고도 한다. 인성, 가시, 수산, 어도 등지에서 불렀던 제주 지역어로 연자매에서 맷돌을 돌리기 위하여 짜 매운 틀의 앞뒤로 가로 박은 나무를 말한다. 다른 말로 모매기, ㄱ른세라고 했다.



<사진 235> 좇둥이, 좇둥이혹

정시킨 기둥을 말한다. 중수리 고망은 중수리를 알돌에 고정시키기 위해 알돌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

⑧ ‘좇둥이’는 ‘조쟁이’이라고도 한다. 틀목과 옷돌을 연결시키기 위해 틀목 안쪽 중앙에 만들어 놓은 돌출부를 말한다. ‘좇둥이혹’ 혹은 ‘장통’이라 불리는 것은 좇둥이가 들어갈 구멍으로 ‘옷돌’에 네모지게 뚫고 ‘좇둥이’의 마모를 막기 위해 나무로 만든 ‘좇둥이혹’을 그 구멍에 맞게 끼운 것을 말한다.



<사진 236> 물방에 사용:소를 이용함  
(1960년대?)-홍정표 사진

소 한 필로 벼 60말을 도정할 수 있었으므로 디딜방아에서 7명이 40말을 찧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홍희유, 1974:144) 사람이 주로 ‘채경’을 잡고 돌렸으나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하여 돌리기도 했다. 1시간에 20말(斗) 정도 작업할 수 있었다.<sup>184)</sup>

‘물방에’를 돌리기 위해 소를 몰면서 부른 <연자방아질 소리>가 전해오고 있고, 덕수, 귀덕, 성읍, 어음에서 <물방엿돌 끄어내리는 소리>라고 하여 연자

때 ‘옷돌’과 ‘알돌’을 마을과 멀리 떨어진 냇가 같은 곳에서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동네로 굴러오면서 부르는 소리로 대규모의 집단적인 소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박물관 전시자료의 경우 ‘옷착’ 지름 87cm, 두께 37cm, 가장자리에서 38cm 위치에 ‘돌혹’(가로 12cm, 세로 11cm, 구멍지름 6cm)이 양쪽에 나있다. ‘장틀목’은 길이 212cm(굽기 14cm, 두께 15cm), ‘세역’(조른틀목) 65cm(총 길이 120cm)에 가로 3.5cm, 세로 2.5cm의 고정 쇠가 꽂혀 있다. 채경의 길이 86cm, 굽기는 7cm이다. ‘중수리’의 높이 98cm이고 굽기 9cm, 받침은 ‘알착’ 표면에서 37cm에 턱이 저 있고, ‘알착’의 지름은 219cm, 높이 38cm, 천의 높이는 7cm이다. ‘옷착’과 ‘틀목’을 연결하는 곳에 ‘조쟁이’가 있는데 양쪽 다 길이 14cm, 굽기 10cm 정도였다.

수산에서 사용된 것은 ‘옷착’의 지름이 120cm, 옷착의 두께가 41cm, 알착의 지름이

184) 泉靖一(1960:160~168)에 보면 . 육지에서 기르는 소 한 마리와 두 사람이 하루에 곡식 서른 말을 찧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옷돌의 무게가 보통 445~553kg 이었음도 아울러 보고하고 있다.

232cm, 알착의 높이가 50cm, 장틀목의 길이가 230cm, 가른틀목의 길이가 64cm, 중수리의 높이가 118cm 정도의 것이다.

보리 5말을 쪼는 경우를 살펴보면 물은 한 번에 ‘솔박’으로 3개 정도 필요하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보리방아 때는 물을 추겨 주면서 쪼았기 때문에 쓰레반이와 같이 ‘냥’으로 만든 ‘작반’으로 쓸어올리면서 작업했다.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알곡이 3말 정도, 싸래기가 2되 정도, 체가 1되 정도 나온다. 조의 경우는 물을 사용치 않으므로 ‘대죽비’로 쓸면서 쪼었다.



여름철의 보리방아, 가을철의 조, 벼 방아는 특히 바쁜 시기였다. 바쁜 시기에는 ‘물방에’를 이용하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였다. 소나 말이 없을 경우 ‘채경’에 ‘짐배’로 상그리져서 2사람씩, 혹은 크고 많이 쪼을 때는 세 사람씩 여섯 사람이 돌렸다. 특히 큰 ‘물방에’인 경우에는 중간에 ‘채경’을 하나 더 대어 두 사람이 더 붙어 밀면서

<사진 237> 물방에왕(1920년대?)-泉靖一 사진

작업하였다. 수놓어서 방아를 쪼었을 경우에는 식구 중에 어느 사람이 남아서 갇아 두고 돌아왔다.



<사진 238> 물방에 사용:사람이 끄 (1920년대?)-泉靖一 사진

예를 들어 보리방아를 쪼으려면 아침 첫 닭이 울면 ‘물방아’로 가는데 앞에 간 사람이 ‘솔박’에 보리를 조금 넣고 그 나무그릇을 ‘맷돌’ 위에 놓는다. 다음 간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 그 위에 놓고 다음 사람은 또 그 위에 놓고 하여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방아를 쪼었다.

행원에서는 각 동(洞)에 하나씩 6 개가 있었으므로 50여 호(戶)가 1개씩 가졌다. 차례를 정하여 썼는데 동네의 반장이 순서를 정해서 사용하였다. 하루에 3섬 정도를 갈았다. 주로 사람이 돌렸는데 소나 말을 매어 돌리기도 했다. 탈곡을 위해서는 5사람 정도가 필요했다. ‘채경’이 4개이므로 하나씩 잡고 미는데 필요한 수가 4명이었고, 옷돌이 돌아가면서 밀려나오는 곡식을 밀어 주는 일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 ‘수용통’(‘돌혹’, ‘돌도고리’라고 한다.)에 5말 정도의 보리를 넣고 물을 허벅으로 2개 정도를 넣어 10여분 정도 축여 두었다



<사진 239> 방에왕 지붕일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2. 5. 24)

가 사용하였다. 보리의 알곡이 마른 상태로 갈면 쉽게 깨어질 수 있으므로 물에 킂다가 사용하였다. 5말을 도정(搗精)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고 한다. 보리는 다른 작물에 비해 쉬운 편이어서 2번 올렸다가 3번째는 내리기 때문에 빠른 편이었다.

보리 5말을 작업하면 3말 조금 넘게 알곡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맥’에 담아 집으로 갖고 와서는 ‘멍석’에 널어 말린다. 어느 정도 마르면 바람에 불려 정선한 다음 ‘항’에 보관하면서 식량을 이용하였다.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사람이 한 달에 대두(10되) 한말 정도를 먹

는다고 한다. ‘뭇방에왕’과 ‘뭇방에’, ‘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계)을 조직하여 관리하였다. ‘접원’(계원)에게 사용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졌으나 접원이 아니더라도 샅을 내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동(東) 동네에 ‘뭇방에’가 2개, 서(西) 동네에도 ‘뭇방에’ 2개가 있었다.

#### (4) ㄱ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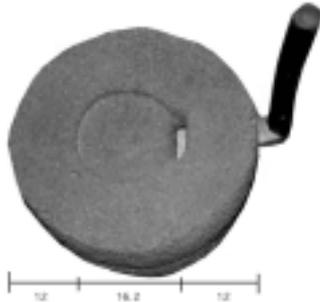


<사진 240> ㄱ레 사용(1960년대?)-홍정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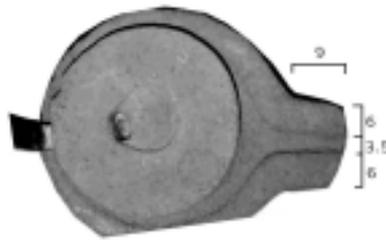
‘뭇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계, 저지, 무릉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렸던 명칭이다. ‘뭇돌’(명월), ‘ㄱ레’(강정), ‘쟁ㄱ레’(강정), ‘장ㄱ레’(김녕), ‘고레’(저지)라고도 불렀다. ‘ㄱ레’라고 하는 것은 ‘갈다’의 제주어 ‘굴다’와 명사형 어미 ‘에’가 합쳐져 만들어진 명칭으로 ‘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리쌀이나 메밀쌀 등을 검필 때<sup>185)</sup>나 알곡을 가루로 만들 때 사용했다. 보리쌀은 중간에 껍질이 있어 ‘뭇방에’로 찼어도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을 둔 채로 밥을 하면 밥도 잘 되지 않

185) 보리, 녹두, 메밀 따위를 애벌같이 하는 것을 ‘검핀다’라고 한다. 보리 검필 때 많은 집에서 한 번에 1섬, 아니면 10말 정도를 갈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5말, 3말 정도는 갈았다. 먹기 나뉘이지만 1섬이면, 5사람이 10일에서 보름을 먹을 수 있었다.



<그림 75> 그레



<그림 76> 풀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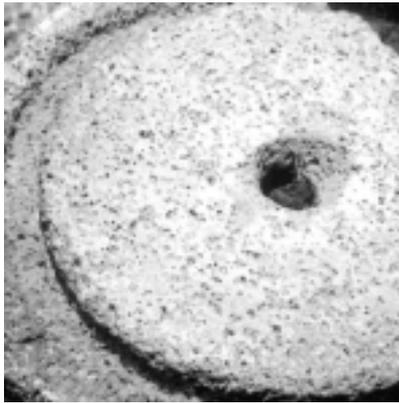
고 먹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 보리쌀을 반으로 갈라야 했던 것이다.

‘그레’에 관한 옛 기록은 『海東農書』에 ‘石磨’로, 『訓蒙字會』에는 ‘매’로 기록(김광언, 1986:398~432)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사시대 유적 발굴을 통해 볼 때 평양의 낙랑토성지(樂浪土城址)에서 화강암으로 만든 ‘맷돌’의 출토와 『日本書紀』에 담징(曇徵)이 연애(碾磑)를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는 ‘맷돌’이 사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안승모, 2001:60)

그레는 고정된 ‘알돌’에 ‘웃돌’이 회전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원통형을 이룬다. ‘알돌’과 ‘웃돌’을 달리 ‘알착’, ‘웃착’이라고도 불렀다. 1년에 한 번 정도 갈리면 ‘무끼’(무디어지)면 ‘보삽’으로 쪼아주어야 했다. 노형에서는 ‘정’을 사용하여 망치로 쪼아주기도 했다. 애월 등에서는 ‘쇠끝’을 이용하기도 했다.

① ‘알돌’을 ‘알착’이라고도 한다. ‘웃돌’이 이탈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도록 ‘알돌’에 2cm 정도의 ‘그렛장귀’<sup>186)</sup>를 박고 ‘웃돌’에는 ‘썸’을 내었다. 회전하면서 갈려지는 정도를

186) 노형, 서흥, 수산, 가시 등지에서 불렀던 것으로 ‘맷수쇠’를 말하는 제주지역어다. 다른 말로 조수에서는 ‘그렛썸둥이’, 노형, 조수에서는 ‘그렛중수리’, 노형에서는 ‘그렛장구’, 김녕에서는 ‘그레썸’이라고도 했다.



<사진 241> 조쟁이 구멍

조정하기 위해 이곳에 형겔 등을 넣어 간격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이를 ‘조쟁이’, ‘ㄱ레쫓’이라고도 불렀는데 애월에서는 ‘솔피낭’(쇠물푸레나무)으로, 오라 3동에서는 ‘윤유리낭’(윤노리나무)으로, 행원에서는 가리지 않고 질긴 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 무거운 ‘웃돌’일 경우 빨리 달아지고, ‘웃돌’을 돌릴 때 함부로 돌리면 ‘조쟁이’가 이상하게 마모되어 잘 갈리지 않게 되므로 사용에 유의하였다.

② ‘웃돌’에는 ‘맷손’<sup>187)</sup>이라 하여 손잡이가 달렸으며, ‘혹’이라 하여 직경 10cm 내외의 얇은 홈이 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혹’ 한쪽에 구멍<sup>188)</sup>이 뚫어져 있어 ‘ㄱ레질’ 할 곡식을 넣는 구멍이 나 있다. ‘웃돌’의 뒷면에는 이 ‘혹’이 있는 부분에 ‘웃돌’이 돌아가면서 쉽게 넣은 알곡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홈을 내었다. ‘ㄱ레’의 ‘웃돌’은 몇 개씩 두고 썼다. 크고 두터우면서 무거운 것은 쌀가루, ‘개역’ 등 가루를 내는 데 썼으며, 보리를 김필 때는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



<사진 242> ‘혹’

‘맷손’은 ‘소리낭’(소리나무), ‘돛박낭’(돛백나무), ‘가시낭’(가시나무), ‘솔피낭’(쇠물푸레나무)으로도 썼으나 단단하면서도 매끄러운 ‘굴무기’(느티나무)를 주로 썼다. ‘맷손’을 짚으로 꼰 ‘노’를 감아 ‘웃돌’에 고정시킴으로서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맷손’은 항상 돌리면서 쓰는 것이어서 남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쓸 사람이 직접 구해서 썼다. 남에게 해 주게 되면 “정신이 돌아버린다”고 하여 꺼렸다고 한다.

‘ㄱ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끌’<sup>189)</sup>, 돌망치<sup>190)</sup>, 큰메<sup>191)</sup>, 작은메<sup>192)</sup>, 썰기<sup>193)</sup> 등의 도구

187) ‘ㄱ레자루’, ‘ㄱ레츄록’, ‘ㄱ레졸리’라고도 했다. 특히 ‘큰일’ 때 많은 양의 떡을 해야 할 경우 ‘ㄱ레’ 작업이 오래되어야 했다. 이때 ‘ㄱ레체경’, ‘장멸’이라 하여 ‘맷손’ 길이의 두 배쯤 되는 나무 자루를 보조로 쓰기도 했다.

188) 송당에서는 ‘호갱이’라고 한다.

189) ‘정’이라고도 한다. 손으로 쥐어서 대로 쇠망치로 쳐서 돌을 깨는 연모다. 한손으로쥐고 한손으로 때리는 것이 보통이나, 한 사람이 쥐고 돌이서 큰 쇠메로 번갈아 쳐서 구멍을 뚫는 크고 긴 것도 있다. 돌을 깨



<사진 243> 그레와 멧방석-전남농업박물관 사진

가 필요했다. 우선 재료를 확보하고 ‘웃돌’과 ‘알돌’을 다듬고 ‘멧손’과 ‘조쟁이’를 맞추어 넣는다. 3일이면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 재료로 할 돌이 별도로 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가진 분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필요한 사람이 가공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사진 244> 그레 사용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1990년대)

이러한 ‘그레’는 용도 및 크기와 형태에 따라 ‘정그레’(쟁그레), ‘그레’(큰그레), ‘풀그레’로 나누어 사용했다. 메밀을 장만한다든가 혼자 힘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에는 보다 가볍고 작은 ‘정그레’를 썼고, 가루를 갈기 위해서는 이보다 큰 ‘그레’를 사용했다.

조, 산뒤만은 ‘그레’로 도정(搗精)할 수 없었다. 껍질과 알곡이 섞여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레’를 사용하다

뜨릴 때 쓰는 것으로 청태목으로 돌려서 쓰는 자루정이 있다. 망치로 때리는 부분을 정머리 반대쪽을 부리고 한다. 비석에 글시를 새기는 특별히 조그만 정은 또 특별히 조그만 소도리로 때려서 일하는데, 옆에 대장간을 두고 번번이 버려 날을 세워서 쓰더니, 요사이엔 강철대를 구리로 싸 만들어 무더지느느 대로 갈아서 들 쓴다. 길이 15~20cm 정도가 되는 공구로 돌을 깰 때 주로 사용한다. 날망치 정으로 다듬은 돌 표면을 고르기 위해 두드리는날을 세운 망치다. 다시 더 곱게 하기 위해서는 곱보망치로 고른다. 벽돌망치 벽돌중간을 깨는 소용으로 한쪽에 도톰한 날이 달린 망치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자료중 작은 것은 길이 15, 폭2,두께1cm 이며, 큰 것은 손잡이 길이 24.5,두께 3.5, 날길이 16cm이다.

- 190) ‘돌자귀’라고도 한다. 자루길이 28cm 망치길이 15cm 정도로 돌을 다듬는 공구의 하나이다. 주로 돌을 깰 때나 다듬을 때 사용한다. 망치와 비슷하나 한 쪽면에 둔탁한 날이 있어 구분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유물번호 1500)는 길이가 28cm 정도였다. 끝마개는 날길이가 14cm 였으며, 다른 자료의 경우는 손잡이 길이가 28.5cm, 날길이 가 15cm, 날폭은 2cm, 두께가 2cm 정도 되었다.
- 191) 길이 30cm 굵기 26cm 정도의 무거운 망치다. 큰 돌을 크게 토막 낼때나 성글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데, 공동의 협력 작업일 경우 석수의 경력이 얼마되지 않는 초보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박물관 소장 자료(유물번호 2871)는 길이 30, 굵기 26cm 이며, 다른 박물관 소장 자료(유물번호 1928)는 ‘젠노’(망치)로 길이 18.5cm 였다.
- 192) 길이 19cm 정도의 것으로 돌을 깰 때 사용한다. ‘젠노’, ‘망치’라고도 하는데 크게 토막진 재료를 적당한 모양이 되도록 쉽게 다듬어 갈 때의 전 단계에 사용한다.
- 193) 길이 7cm 정도의 도구로 큰 돌을 깰 때 틈을 내서 사이를 조금씩 벌려 갈 때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자료는 길이 10cm, 폭 5cm, 두께 3cm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

보면 ‘웃돌’과 ‘알돌’의 ‘골’이 달아 면이 편평하게 되는데, 이때 새롭게 ‘골’을 내어 ‘웃돌’과 ‘알돌’의 면을 쪼아주어야 했는데 이때 ‘쟁기’의 ‘보섭’을 주로 이용했다.

그리고 물에 불린 콩이나 쌀 등을 가는 데는 ‘풀꺾레’를 썼다. ‘풀꺾레’는 ‘알돌’이 받침을 가지고 있어 높다. 그리고 둥근 가장자리로 홈이 나있고 이 홈이 한쪽으로 모아져 ‘코’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웃돌’의 홈으로 불린 쌀이나 콩을 손가락으로 떠 넣으면서 갈면 물론 이 ‘코’로 모아져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이 ‘풀꺾레’의 작업은 ‘꺾레방식’을 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꺾레도고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풀꺾레’는 보통 모시나 명주 등에 먹일 풀을 만들기 위해 쌀을 갈 때나 물에 불린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했다.

수수께끼에 “위로 먹고 옆으로 내놓는 것은”라고 묻는 것이 있는데 이는 ‘꺾레’의 작업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곽창열, 1996:151)

두 사람이 손잡이를 마주 잡고 앉아 돌렸다. 세 사람이 돌릴 때는 ‘꺾레체경’을 쓰기도 했다. ‘꺾레체경’이란 ‘맷손’ 두 배쯤 되는 길이의 방방이를 ‘맷손’에 가로 질러서 멀찌막이 얹고, 그 한쪽 끝을 잡아 밀고 당겨 가는 대로 ‘꺾레’를 돌리는 보조 손잡이다. ‘체경’과 ‘꺾레’의 마찰을 줄이려고 ‘꺾레체경’이 끼워진 손잡이 위아래에 짚으로 꼰 ‘노’를 두르기도 했는데, 이를 ‘뚝’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손잡이를 잡아 ‘꺾레’를 돌릴 때 다른 한 사람은 뒤에 물러앉아 ‘꺾레체경’ 끝을 잡아 밀고 당기며 도왔다. ‘꺾레’ 작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딱 붙어 돌아가지 않는 자석(磁石)에 ‘꺾레’가 비유된 민요도 보인다.<sup>194)</sup>

보리는 연자매에서 꺾질을 잘 벗겨 말린 다음 ‘꺾레질’을 해야 보리쌀알이 두개로 쪼개어 식사에 이용하였다.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보리 검핀다.’고 한다. 메밀은 몇 번 반복하여 ‘꺾레’에서 갈아 꺾질을 벗긴 다음 마지막으로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특히 ‘모밀 꺾하다’고 하여 메밀을 ‘꺾레’에서 갈아 꺾질을 벗겨 거칠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보통 꺾레 작업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작업을 했다. 물론 ‘꺾레체경’을 끼워 돌릴 경우에는 작업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한다. ‘풀꺾레’ 등 대형 ‘꺾레’의 경우에는 4명 이상이 돌리는 경우도 있다.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 한사람은 ‘꺾레’를 회전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회전시키는 일은 보조로 하고 곡물을 ‘꺾레’에 담아 넣는 일을 주로 한다. 따라서 ‘꺾레’ 작업은 규칙적으로 회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빈

19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6. p.8

ㄱ레질 흐민 송년든다.”는 속담이 전해오고 있어 ㄱ레질을 하지 않을 때 돌리는 것을 금했다.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지름 26cm, 높이 19cm 정도의 것이었다.(경기대학교 박물관, 1980:105) ㄱ레 작업 때 불렀던 <ㄱ레 ㄱ는 소리>가 전해오고 있다. 소리의 내용은 시집살이의 설움, 부부간의 갈등, 현실과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신세한탄, 노동의 괴로움, 외로움, 현실도피 등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남제주군, 1996:254~256)

<표 29> ㄱ레 비교

지역	소장자	직경	높이	비고
남군 남원	이윤행	39	8	
남군 표선	안치호	39.5	12	
서귀 보목	한재환	39.5	10	
서귀 토평	오승호	32	10.5	
제주 해안	김임학	40	11	
제주 화북1	김수행	4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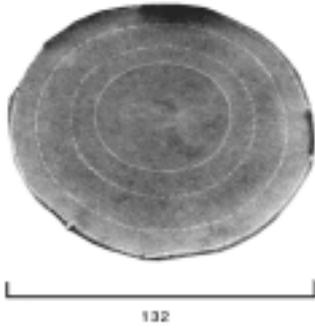
<표 29>은 ‘ㄱ레’의 직경은 39~41cm 내외의 것이 이용되었으며 높이는 작게는 8cm의 것과 크게는 14 cm 정도 두께의 것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 보목동 824번지의 한○○(男, 1950년생)의 경우에는 ‘알돌’ 1개에 옷착 3개가 이용되고 있음도 살필 수 있었다. ‘알돌’은 직경 39.5cm, 높이 10cm 정도였으며, ‘옷돌’은 직경 39.5cm, 높이 12cm, 10cm, 8cm 정도의 것이었다. 또 남군 남원을 수망리 296번지의 현○○(男, 1931년생)의 ‘풀ㄱ레’를 살필 수 있었다. ‘옷돌’ 35cm, 높이 6cm, ‘알돌’ 직경 47cm, 높이 32cm 정도의 것이다. 박물관 소장자료로 ‘풀ㄱ레’도 살필 수 있었다. ‘알돌’ 가장자리에 나있는 ‘흙’과 ‘코’가 선명하고 알돌의 받침을 볼 수 있어 ‘ㄱ레’와 구별할 수 있다.

주곡(主穀)인 보리를 식용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으로 가르는 작업을 해야했는데 주로 이때 ‘ㄱ레’를 사용하였음을 살폈다. 같은 기능의 것으로 전남지방에서는 ‘맷돌’이 이용되었다. 두부를 만들 때나 풀을 할 때는 불린 것을 갈아했는데 이때는 코가 있는 ‘풀ㄱ레’가 쓰였음도 살폈다. 특히 이것을 전남지방에서는 ‘풀매’라 하였다.

(5) ㄱ렛방석

‘맷방석’을 가리키는 제주도 지역어로 아라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고래독석’(대평), ‘독석’(가파), ‘ㄱ렛방석’(곽지, 고산), ‘도래방석’(수산), ‘들래방석’(창천)

이라고도 불렀다.



<그림 77> 7렛방석

7렛작업을 할 때 ‘7렛’ 밑에 깔거나, 작은 양의 콩, 고추 등과 같은 작물을 넣어 말리는 데도 쓰였다.

‘7렛방석’도 가장자리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쓰였다. 송당 등 동쪽에서는 퍼진 상태의 것을 주로 사용하였던 반면, 서쪽 지방에서는 주로 말린 것을 사용하였다. 직경의 길이가 4~5자<尺>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박물관 전시자료로 직경 132cm 정도의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30> 7렛방석 비교

구 분	자료번호	직경	비고
박물관	6008	134	
	6009	102	
	2747	136	회수동
	2835	139	오라 3동
	5722	92	용담2동
	7294	110	

<표 30>는 박물관 소장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제주에서 사용된 ‘7렛방석’중 작은 것은 직경 92cm 정도의 것에서 큰 것은 139cm에 이르기까지의 것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45>  
맷방석-전남농업박물관 사진

‘7렛도고리’의 경우 직경이 82cm, 높이 23cm 정도의 것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부를 만들거나 풀을 쭉기 위해 물에 불려두었던 콩이나 쌀을 7렛에서 갈 때나 풋감을 ‘덩드렁 마께’로 빵을 때에 사용하였다. 도고리의 표면이 검게 보이는 것은 풋감의 즙이 베어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것은 아이들의 목욕통으로도 썼다.



<사진 246> ㄱ렛방석



<사진 247> ㄱ렛도고리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제주민속촌, 2002. 5. 22.)

<표 31> ㄱ렛도고리 비교

구분	자료번호	윗지름	높이	아랫지름	비고
박물관	4,968	90	-	60	
	1,230	77	18	미확인	
	7,391	86	19		
	711	90	21		
	888	91	23		
	1,501	81	19		
	1,366	81	21		
	5,105	89	20		
	670	80	19		
	411	93	24	61	전시자료
	6331	79	18	미확인	

<표 31>은 ㄱ렛도고리의 경우 윗직경이 70~90cm, 높이 20cm 내외 것이 ㄱ렛방석과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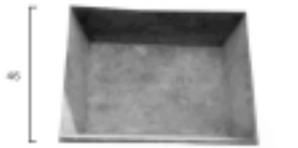


육지에서는 ‘맷방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전남 해남의 오일장내에서 뽕튀기를 하는 김○○(男, 1935년생)씨 댁에서 54개의 도리로 짜진 것이 이용되는 것을 봤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맷돌과 맷방석을 살필 수 있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도래방석’이라 하여 고추, 보리 등을 넣어 말리는 데 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진 248> 그렛도고리



<그림 78> 도고리



<그림 79> 함지(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2001. 10. 22)



<사진 249> 도고리

### (6) 도고리

‘도구리’라고도 한다. 그레를 담아 그레질을 할 때나, 떡가루를 반죽하고 주무를 때 또는 갈옷을 만들 때 감을 ‘딩드렁 마께’로 쪼거나 옷감을 넣고 감의 즙을 먹일 때 등 받치고 사용하였다. 풀을 할 때 옷에 풀을 먹일 때나 제사 때 청묵을 만들기 위해 나일론 주머니에 담은 메밀쌀을 물에 넣어 주물러 고를 때 등에도 쓰였다. 시루에서 쪄낸 ‘침떡’(시루떡)을 꺼낼 때 붓는 도구로도 썼다.

‘도고리’는 ‘천’과 ‘바닥’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낮은 원통형을 이룬다. 재료에 따라 나무로 만든 ‘낭도고리’와 돌로 만든 ‘돌도고리’가 있다. 주로 ‘굴무기’(느티나무), 벗나무, ‘가시냥’(가시나무) 등으로 만든 ‘낭도고리’가 쓰였다.<sup>195)</sup> 통나무 밑동을 옆으로 켜고 중앙에서 크기와 용도에 알맞게 나무를 파내어 만들어 사용하였다.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랐다. 가장 큰 것으로 앞에서 살펴 본 ‘그렛도고리’다.

195) 주로 곡식이나 부침개 등을 담아두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육지에서는 ‘함지’라고 했다. 加藤木保외(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역), 앞의 책, pp. 281~283

그 다음의 것으로 ‘갈옷’을 만들거나 떡을 할 때 가루를 반죽할 때 쓰는 ‘떡도고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것으로 ‘밥도고리’다. 대·소상(大小祥)이나 기제사(忌祭祀) 때 멧밥을 떠 놓는 것과 이 보다 조금 더 작은 것으로 ‘양푼’과 같은 구실을 하는 ‘남박’이 사용되었다.

<표 32> 도고리 비교

구 분	자료번호	윗지름	아래지름	높이	비고
떡도고리	4332	53	46	12	
	800	64		14	
	901	60		15	
밥도고리	5601	42		15	
	887	35		11	
	1020	43		17	
	1021	37		14	
남박	2527	20	19	7	
	2137	22		8	
	2255	22		7	

<표 32>은 ‘떡도고리’는 윗지름이 5~60cm 내외이고, 높이는 12cm 정도이다. ‘밥도고리’는 윗지름이 3~40cm 내외이고, 높이는 15cm 내외이다. ‘남박’은 윗지름이 20cm 내외이고, 아랫 지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높이는 7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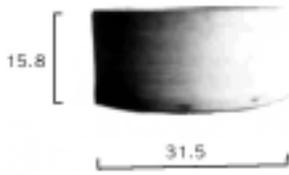
제주시 해안동 1924번지의 김○○(男, 1940년생)의 것을 살폈다. 도고리는 ‘덩드렁 마깨’와 함께 ‘갈옷’을 만들 때 사용한다. 가장자리 한 부분이 약간 훼손되었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안○○(여, 1922년생)의 ‘함지’는 주로 밥 등을 담아 옮길 때 사용하였다.

#### (7) 체

가루를 가려내거나 술 등을 받아내는 데 썼다. 또 곡식을 타작한 후 낱알과 껍질을 분리하거나 또는 알맹이와 씨라기를 가려내는 데 썼다. 둥그런 바퀴인 ‘쳇망’ 안에 곡식을 담고 흔들며, 낱알과 씨라기를 남기고, 가루를 떨어지게 하는데 주로 썼다.

‘체’에 관한 옛 기록은 『訓民正音解例本』에 체(麗柵), 『四時纂要』에는篩(사)라고 기록(김광언, 1986:398~432) 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는 그물 모양의 ‘쳇불’과 쳇바퀴라고도 하는 ‘쳇망’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그림 80> 체

원통형을 이룬다.

① ‘젯불’의 재료에 따라 ‘대체’와 ‘총체’로 나뉘는데, 대로 엮어진 것을 ‘대체’, 말총<sup>196)</sup>으로 엮어진 것은 ‘총체’라 하였다. 오늘날의 것은 철사를 ‘젯불’로 엮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젯망’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주방 용구로 쓰기도 한다.

② ‘젯망’은 주로 ‘닥냥’(닥나무)으로 만들었으나 가볍고 잘 깨어지는 나무인 ‘음냥’(엄나무)으로도 만들었다.



<그림 81> 체



<사진 250> 젯 불

박물관 소장자료로 젯망의 높이가 7.2cm, 두께가 0.5cm, 체의 총 직경 36.5cm, 젯불의 지름 34cm, 무게는 0.1kg 정도의 것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sup>197)</sup> ‘젯불’의 구멍 크기에 따라 ‘대체’, ‘중체’, ‘ㄴ는체’, ‘합체’로 나누기도 했는데 젯불의 구멍은 0.2cm에서 0.06cm에까지 이르렀다.

‘대체’는 ‘젯불’ 구멍이 ‘얼멩이’보다 좁은 것으로 좁쌀이나 보리쌀의 낱을 고를 때 썼다. ‘젯불’은 철사로 엮는 것이 보통이며 구멍의 크기는 2mm 내외이다.

196) 고운 가루를 내는 데 쓰는 ‘체’는 고운 형질을 ‘젯불’로 쓰기도 했다.

197) 다른 자료 1,054번은 0.4kg 정도이다.

‘중체’는 ‘챗불’의 구멍이 ‘대체’보다 작은 것으로 ‘거름체’라고도 불렀다. 떡가루를 치며 사루떡을 만들 때 떡가루를 물에 섞어 비비며 내릴 때 썼다. ‘챗불’을 천으로 하기도 하였는데 구멍의 크기는 1mm 내외이다.

‘ㄱ체’는 ‘챗불’의 구멍이 ‘중체’보다 좁은 것으로 ‘대거름체’, ‘좁진체’라고도 불렀다. 송편가루를 내릴 때 썼다. ‘챗불’은 말총으로 엮은 것이 보통이며 근래에는 나일론천으로도 썼다. 구멍의 크기는 0.6mm 내외이다.

‘합체’는 ‘챗불’의 구멍이 가장 좁은 것으로 술을 내릴 때나 풀을 쭈기 위해 ‘풀ㄱ체’로 간 죽을 거를 때 주로 썼다. ‘챗불’의 재료는 말총이나 근래에는 나일론천으로도 만들어 썼다. 구멍의 크기는 0.5mm 내외이다.

‘체’와 관련된 수수께끼로 “입은 하난데 향문은 여러 개인 것”, 깊은 산중에 눈 나리는 것“이라는 것이 전해온다. ‘체’의 ‘챗불’ 구멍을 향문으로 비유한 것과 ‘체’에서 나오는 흰 가루를 눈으로 비유한 것이다.(홍순택, 1969:775)

<표 33> 체 비교

지역	소장자	직경	높이	눈크기	비 고
남군 대정	양경팔	27.5	9	0.05	
"		28.5	8	0.05	총체
서귀 하효	고석진	27	8.5	0.05	총체
"	고석진			0.1	
"	고석진			0.03	
제주 해안	김입학	27.5	8	0.05	
제주 해안	김입학	26.5	8.5	0.1	

<표 33>는 제주에서 사용되어온 ‘체’의 경우 ‘챗망’의 직경이 27cm 내외이고, 높이는 8.5cm 내외의 것이 이용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말총으로 만든 ‘챗불’ 눈의 크기는 0.1cm보다 작은 것으로 고운 가루를 쳐내어 떡 등을 만들 때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술을 거를 때 등 물기 있는 것을 거를 때는 ‘챗다리’도 함께 써야 했다. ‘챗다리’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으나 Y자 모양으로 뿔이 세 개 달린 나무나 나무를 솔두경처럼 둥글고 우묵하게 파고 한가운데에 구멍을 낸 것을 흔히 쓴다. ‘챗다리’는 ‘동이’나 ‘함지’와 같은 그릇 위에 걸쳐놓고 쓰는데, 앞의 것은 가루를 내는 데에, 뒤의 것은 술과 같은 액체를 거를 때에 쓴다.



<사진 251> 체 사용  
(제주시 도평동, 1996. 8. 29.)



<사진 252> 체 보관

민간에서는 ‘체’를 악귀를 물리치는 데에 이용하기도 한다. 설날 밤에 ‘야광귀’라는 귀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의 신을 신어보고 맞으면 그대로 신고 가는데, 그 사람은 일년 동안 운수가 나쁘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때 대문 앞에 체를 걸어두면 야광귀는 밤새 체의 구멍을 세어보다가 신을 미처 신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로 되올라간다는 것이다. 또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성이 다른 세 집의 음식을 체에 받아다가 자기 집 절구통이나 디딜방아에 앉아서 개에게 한 숟가락 주고 자신도 한 숟가락 먹는다. 이렇게 하면 그 해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전한다. 이 밥을 ‘쳇밥’이라고 한다.

‘체’는 다양한 크기의 눈을 가진 것이 이용되었다. 김부러기를 가려내는 것에서부터 술을 거르는 가는 눈을 가진 것까지 사용되었으므로 일부가옥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가옥이 하나 정도의 체를 보유했거나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11. 저장하는 용구



탈곡한 곡물을 저장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습도가 많아서 쉽게 변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했으며, 쥐의 습격에도 방지해야 했었다. 그리고 수확한 당시의 품질을 유지시키거나 건조·숙성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우선 주곡(主穀)이었던 보리의 탈곡 후 날레 널어야 했는데 이때 임시로 들여놓고 다시 내어 말릴 때 등에 보관하였던 사용하였던 ‘백’과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저장 용구로 사용하였던 것은 ‘항’이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뒤주’ 혹은 ‘두ړ’도 쓰였다.

### (1) 씨부게

씨를 보관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부게기’(조수, 노형), ‘씨무게기’(제주), ‘씻망테’, ‘씻망텨이’(행원), ‘홍사리’(가파)라고도 불렀



<그림 82> 씨부게



<사진 253> 씨부게 보관  
(서귀포시 하효동, 1996. 5. 28.)

다. 애월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항’에 씨를 보관하였으므로 찾아 볼 수 없었다.

참깨·메밀(매밀)·배추·무·팥 따위의 귀한 씨나 소량의 씨앗을 보관하는 데 썼으며, 쥐의 피해와 습기를 막기 위해 높은 곳에 달아 보관했다.

‘씨부게’는 ‘부리’와 ‘친’, ‘굽’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복주머니형을 이루고 있다. 재료는 ‘짚’이나 역새의 속대인 ‘미’를 이용하였다. 통통하면서도 귀엽게 생긴 아이들을 만나면 어른들은 ‘씨부게’와 같이 생겼다면서 칭찬하기도 하는데, ‘씨부게’의 통통한 모양은 귀엽고 예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씨앗통’이라 하여 높이 29cm, 지름 12cm 정도의 것과 높이 39cm, 지름 10cm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80:78) 서귀포시 하효동 고석진의 ‘씨부게’는 ‘미’로 만든 것으로 벽에 걸어두었다. 입구 쪽의 가장자리가 약간 훼손되었다.

보관할 때는 뒷마루나 ‘굴묵’ 위, 천장 같은 데 매달아 보관하는데 이는 ‘굴묵’에 불을 댈 때 그 연기가 ‘씨부게’에 쏘여 씨앗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씨부게 비교

지역	명칭	형태	크기			재료	비고
			하부	상부	높이		
제주 제주	부게기	복주머니형	22	14.7	41.5	역새	
제주 제주	부게기	항아리형	21	10.8	35	짚	
경기 과주	씨앗병	병형	13	8	28	짚	
강원 평창	씨앗 봉생이	단지형	13.5	12.9	20.5	짚	

<표 34>는 씨앗을 보관하기 위한 도구로 육지에서는 ‘씨앗병’과 ‘씨앗봉생이’가 쓰였음을 살펴보고 크기를 비교했다. 경기도 과주군 과평면 덕천리 박씨의 ‘씨앗병’은 짚으로 병처

럼 만들고 부리에 마개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 김씨의 ‘씨앗봉생이’는 단지형으로 배를 볼록하게 만들었다.(고광민, 2000:87~89)



<사진 254> 씨허벅

씨앗을 넣어 두는 그릇으로 허벅을 쓸 경우, 쥐의 피해를 막을 수는 있으나 공기의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씨앗을 저장하는 곳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씨부게’에 씨앗을 저장해 두면 추운 한겨울이 지나도 그 속에서 씨앗이 발아(發芽)하거나 썩는 일이 없다. ‘씨부게’는 짚을 재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씨앗을 담아 두어도 온도의 조절이나 공기의 소통이 잘 되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는 이상적인

씨앗주머니이다. 이곳 농가의 아궁이 위의 벽이나 천정 같은데 이것을 매달아 보관하였다. 이는 아궁이에 불을 땠 때 그 연기가 ‘씨부게’를 훈연시켜 씨앗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농민의 생활과학(生活科學)으로 보인다.

## (2) 맥

‘떡서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온평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맹탱이’(곽지), ‘떡’(곽지), ‘떡다리’(수산), ‘맥’(고산), ‘망탱이’(가파, 용수, 삼달)라고도 불렀다. 또 ‘맥’을 낮추어서 ‘맥다리’라고도 불렀다. 향이 비쌌으므로 구하지 못하는 집에서 ‘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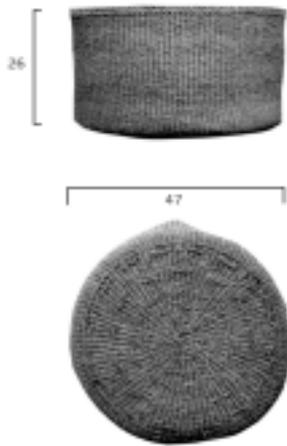
<사진 255> 맥사용(1980년대?)

담아 보관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쥐에게 반정도 잃었다고 한다.

탈곡(脫穀)해 들인 곡식 등을 ‘명석’에 넣어 말릴 때나 상방에 보관할 때, 1섬, 7~8말 짜리도 있었다. 들에 가져가서 곡식을 담아올 때도 사용했으며, ‘물방에’에 갈 때 여기에 담아 옮겼다. 곡식을 담아 옮기거나 보관하는데

썼다. 특히 이때 썼던 것을 ‘날렛맹탱이’라 하였다.<sup>198)</sup> 저장용구에는 산뒤짚으로 짠 것으

198) 날렛맹탱이, 날레망테라고도 한다.



<그림 83> 맥

로 ‘가마기’, ‘가맹이’, ‘가매기’(가마니)라 불리는 것과, ‘잘리’, ‘줄리’(자루)라 불리는 것도 쓰였다.<sup>199)</sup> 곡식을 담는데 썼던 것은 아니지만 장례(葬禮)를 치를 때 흙을 담아 옮기는데 썼던 것으로 애월지역의 각 ‘골’의 ‘진토맥’도 있었다.<sup>200)</sup> ‘맥’이외에도 ‘따비’, ‘삽’, ‘괘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 ‘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맥’에 관한 옛 기록은 『增補山林經濟』에 ‘떡’으로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굽’과 ‘몸통’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을 이루었다. ‘굽’의 형태는 ‘원형’이며 ‘몸통’으로 ‘날’을 촘촘히 엮어 둘러 세웠다. ‘섬’은 한 번밖에 쓸 수 없었지만

이 ‘맥’은 4~5년 정도는 썼다. 산뒤짚 등으로 만들어 썼다. 간혹 바닥인 ‘굽’이 사각(四角)으로 된 것도 있다. ‘굽’ 위로 입구인 ‘바위’가 붙어 있는 데 ‘굽’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 전체적인 크기가 구분되었다.



<사진 256> 맥



<사진 257> 맥등구미-경기대학교박물관 사진

가장 큰 것을 ‘창맥’이라 했는데, 1섬들이에서 1.5섬들이까지의 여러 종류가 쓰였다. ‘창맥’ 등 큰 것은 주로 곡식을 저장할 때 썼으며, 보관용으로는 10말들이를 운반용으로는 5

199) 일제시대 가마니가 보급되기 전에는 섬이 주로 쓰였다고 한다.8말 짜리,4말 짜리 등이 쓰였다.

200) 상(喪)을 당하면 상여를 메는 일과 묘를 만드는 일 등 큰 일이 많았다. 이때 이런 일을 돕기 위해 마을에는 ‘골’을 결성해 두고 있다. 이 ‘골’에는 이 ‘진토맥’ 말고도, ‘따비’, ‘괘이’, ‘삽’ 등의 도구를 갖추고 두었다가 큰일에 대비하였다. 애월리의 경우 서하동에 ‘서꼴’, 동하동에 ‘동꼴’, ‘서꼴’이 있으며, 서상동에는 ‘당동꼴’, ‘무룻가름꼴’이 있어 돕고 있다. 각 ‘골’에는 ‘골계장’이 있어 도구를 관리하였다.

말들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날렛맹텅이’이라고 하여 작은 것은 방아를 찧기 위해 ‘뭇방에’로 보리를 옮겨갈 때 주로 썼다. 습기에 약한 짚으로 만들어 진 것이었기에 오늘날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사진 258> 뭇 보관

보리를 담은 ‘뭇’의 모습을 옛사진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바위’ 지름 50cm, ‘굽’의 지름 50cm, 높이 37cm, 무게는 3.1kg 정도였다.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의 경우 지름 47cm, 깊이 24cm 정도의 것이었다.<sup>201)</sup> 많은 집에서는 15~20개 정도를 준비하여 사용하였으며, 쓰지 않을 때는 말아서 벽에 걸어 보관한다.

‘뭇바농’이라 하여 ‘뭇’이 헐어 떨어질 적에 귀에 가는 새끼 따위를 껴서 엮어매는 바늘도 이용되었다. 큰 것 작은 것 5~6개는 있었다. 많은 집에서 12개씩이나 준비하였다가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사진 259> 뭇 사용(1920년대?)  
-濟州島森林組合 사진

‘뭇’은 조사 가옥 전부가 보유했거나 이용했던 기본 생활용구의 하나였다. 큰 것을 ‘창뭇’이라 하여 마당을 할 때 이용하였으며, 작은 것들을 보리를 담아 옮길 때 등에 이용하였다. 전남지방에서는 같은 기능의 것으로 ‘떡동구미’를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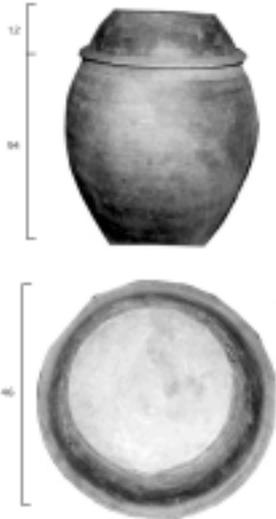
### (3) 향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황’(용수, 사계), ‘향애’(사계), 통개(무릉), ‘통궤’(가파), ‘통개’(고산), ‘도가지’(홍성목 역, 1991:277)라고도 불렀다.

고팡에 두고 도정한 알곡이나 정미(精米)한 쌀 등을 보관하는 데 주로 썼다. 장항굽(장독대)에서는 된장, 간장, 술을 담는데 썼으며, 정지에서는 물을 담는 데도 썼다.

‘향’은 ‘부리’, ‘몸통’, ‘굽’으로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아래위가 좁고, 배가 볼록 나와 길쭉한 구형(求刑)에 가깝다. 키가 작고 아가리가 넓으며 아래가 좁고 배가 몹시 부른 것이

201) 京畿大學教博物館, 앞의 책, p. 105



<그림 84> 항

특징이다. 좋은 항은 7월에 파낸 배토(坏土) 빻은 것을 상품으로 쳤으나 8월 이후의 배토로 만든 것은 항이 두텁다고하여 하품으로 쳤다고 한다.<sup>202)</sup>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부리’의 지름이 22.5cm, ‘턱’의 길이가 4cm, ‘굽’의 지름이 29cm, 높이가 61cm에 이르는 것으로 무게는 14kg 정도였다.<sup>203)</sup>

높이가 낮고 입구가 넓으며 아래가 좁고 배가 부른 형태로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을 이루고 있다. 이들 항은 나무나 대나무, 옹기로 만든 두경과 함께 쓰였다. 특히 옹기로 만든 것을 ‘장태’라 하였으며, 보다 작은 ‘장태’는 설거지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옹기를 구워냈던 곳이었던 고산리에서는 ‘양춘이’, ‘소통개’, ‘능생이’, ‘조막단지’, ‘암

통개’, ‘망대기’ 등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것이 사용되었다. 보통 크기의 항은 5~6말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술항’은 25말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항으로 가장 큰 편이었다.



<사진 260> 지세항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제주민속촌, 2002. 5. 13)

① ‘항’은 큰 편의 것으로 물을 길어다 담거나, 장을 담은 등에 썼던 것이다. 담는 것에 따라 물항, 쌀항, 장항으로 구분하였다.

② ‘통개’는 입구가 큰 것으로 통통한 것은 ‘암통개’(김녕) 혹은 ‘암통개’(대평)라고 불렀고, 길쭉한 것은 ‘숫통개’(김녕) 혹은 ‘수통개’(대평)라고 불렀다.

③ ‘망대기’는 세 말 정도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망대기’라고도 불렀다. 주로 ‘젖’을 담는 데 사용하였다.

④ ‘장물오가리’는 두 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

다. 반찬을 담았다가 먹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쓰였다.

⑤ ‘단지’는 이 보다도 더 작은 것을 가리키는데, ‘즈막단지’는 이 보다 아주 작은 것을

202) 姜仁姬, 『항아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455

203) 다른 자료 3,301번은 11.6kg 정도였으며, 장태 3,304번은 2.6kg 정도였다.

가리킨다.



<그림 85> 용기 가마분포도  
(1991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도록)



<사진 261> 향 팔기(1920년대?)  
-泉靖- 사진

제주에서 향을 만들 수 있는 테토(台土)와 물이 나오는 곳은 신평, 구엄, 한경으로 거의 제한되는데, 그곳에 '노랑굴'과 '검은굴'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 곳에서 거의 모든 '향'이 제작되었는데, '향'은 물론 '허벅', '장테' 등이 제작되었다. 충북 중원군 동량면의 유적에서는 보리를 담은 향이 발굴되기도 하였다.<sup>204)</sup> 육지에서는 별도의 '곳간'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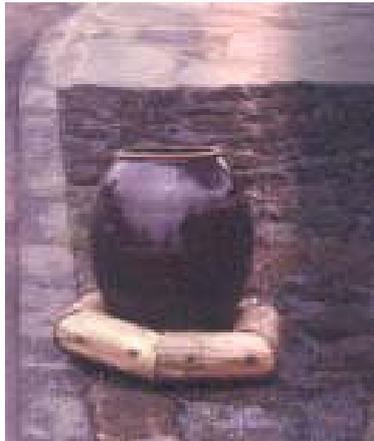
'솔향'이라고 하여 보통의 향아리 중에서 윗 두껍이 잘 맞는 것을 골라서 쌀을 넣는 도구고 정하면 이른바 솔향이 된다. 주로 식량을 보관하는 데 보리 쌀 메밀 유채 따 위다. 수명은 반영구적이나 깨어지기 쉬우므로 일정하지 못하다.(제주도, 1994:367) 보통 가정에서는 '고팡'(庫房) 하나에 10말 짜리는 3~4개, 20말 들이는 4개 정도, 2섬 들이도 2~3개 정도 구비되어 사용되었다. 주로 대정에서 만든 향을 구입하였는데, 대정 사람들이 배로 실어 부두로 들어오면 부두로 나가 구입하였다. 1960년도 초반에 소 한 마리가 250원 정도 했는데 '향'이 60원 정도였으므로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고팡'에서 썼던 '향'의 두껍은 넓고 얇은 목재나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 덮었다. 장독대의 '향'은 '장테'나 '솔두껍' 등을 이용해 덮었다.

제주에서 사용된 '향'은 '대정향'(붉은 향), '육지향'(검은 향), '지세향'으로 구분된다. 육지 향은 무안 사람들이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포구로 실어 와서 팔았다. 값은 10말 정도 크기의 향에 3말의 보리를 주었으므로 비싼 편이었다고 한다. 여자가 보리를 하루 비는데 샅이 보리 1말이었으니 향은 비싼 편이었다. 향 값으로 보리를 받은 상인들은 보리를 팔

204) 尹容鎮, 『初期鐵器時代 住居址發掘에서 유추되는 社會文化와 農耕資料』, 『韓國의 農耕文化』(2), 京畿大學 校博物館, 1988. pp. 7~21



<사진 262> 장항굽



<사진 263> 육지항  
(민속자연사박물관, 2002. 5. 19.)



<사진 264> 고팡

아서 돈으로 바꾸어 갔다. 항이 비싸서 혹 깨어지더라도 하면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다.

‘항’ 뿐만 아니라 ‘말통’, ‘드림통’ 등도 이용되었다. ‘大邱工業社’라는 제작사 마크가 찍힌 플라스틱 말통에는 550ℓ 용이라는 규격도 표시되어 있는데, 규격은 지름 95cm, 높이 102cm이었다. 드림통은 지름 63cm

높이 8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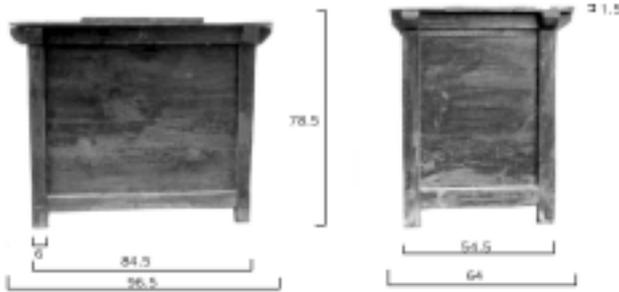
강원도에서 소먹이 사료의 저장을 위해 입구의 직경이 60cm, 높이가 100cm 정도의 ‘독’이 쓰였다.(한상복, 1977:316~317) 전남지방에서도 ‘지세항’을 ‘독’이라 하여 쓰는 것도 있었으나,(김광언, 1969:261) 뒤주, 곳간 등을 이용하는 다른 지방에서와는 달리 가옥 내에 고팡을 두고 그 속에 항을 넣고 보관한다. 보통의 고팡 항은 5~6말이 들어가는 것을 활용하였으며, 큰 것을 ‘술항’이라 하여 술을 만들 때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장항굽’(장독대) 등에도 항은 이용되었다.

‘항’과 관련된 수수께끼로 “먹지 않아도 배 부른 것”, “먹으나 안 먹으나 배 부르는 것” ‘항’의 배가 불룩한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홍순택, 1969:768) 개별적으로 제작할 수는 없었으므로, 오일장에 가서 사거나, 마차에 싣고 오는 ‘항 장수’에게서 사서 썼다.

‘항’은 현지조사 가옥 전부가 보유하고나 이용했던 기본 생활용구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큰 것을 ‘술항’이라 하여 술을 만들 때 이용하였으며, 보통의 것은 고팡에 두고 곡식을 저장하는 데 이용하였다. 보통 항은 5~6말 정도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큰 것은 대두 6말에서 25말 들이까지도 쓰였다. ‘지세항’은 검은 색 항으로, 여름철 ‘물항’으로 쓰는데 적격이었다. 단지는 1되 이하되는 것을 말하고, 망데기

는 1말 가웃 정도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뒤주



<그림 86> 뒤주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특히 보리를 담아 두는 것으로 ‘두지’(행원, 용수), ‘두주’(가파)라고도 불렀다.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정미한 알곡을 보관하는 데 썼다. 140가옥이 사는 한 마을에 5집 밖에 없을 정도로 귀했던 것으로 2섬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사진 265> 뒤주  
(서귀포시 하효동, 1996. 5. 28.)

쓰였다.

‘뒤주’의 형태는 직육면체(直六面體)로 네 기둥을 세우고 벽과 바닥을 널빤지로 대어 공간을 만들고 위에 ‘천판(天板)’을 붙였다. 천판(天板)은 두 짝으로 만들어 뒤편의 것은 고정시키고 앞쪽의 것으로 여닫게 만들었다. 여닫는 데는 장식을 달기보다는 긴 가로대를 대어 끼웠다 뺐다 하면서 여닫게 했다.<sup>205)</sup> 흔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경놀이>에는 먹고 살 곡식을 보관하는 데 ‘대두지’와 ‘소두지’를 이용했음을 설명하고 있다.(현용준, 1980:393)

‘두ړ’ 혹은 ‘통두지’라고 불리는 것도 이용되었다. 정미(精米)한 알곡이나 탈곡(脫穀)과 건조가 끝난 알곡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통나무로 만드는 것은 밑둥과 머리에 따라 널빤지를 대어 막고, 머리 부분의 한쪽을 열

205)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 悅話堂, 1983, p.89



<그림 87> 두릐



<사진 266> 두릐-전남농업박물관 사진

도록 문짝을 달았다. 오래된 '가시냥'(가시나무)의 속을 벗겨서 만든 다음 한 쪽 편을 막은 것이다. 주로 보리 등 식량을 보관하였다. 탈곡과 건조가 완료된 곡식을 보관한다. 주로 마루 구석이나 고팡에 놓아두고 쓴다. 육지에서는 굽

은 피나무의 속을 파내어 쓰는 경우도 있다. 굽은 피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에 양



<사진 267> 김칫독  
-전남농업박물관 사진

쪽에서 속을 파내어 5cm 두께의 원통(圓筒)을 만든다. 아래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냥'(소나무)로 도구리 형태의 받침을 만들어 끼우고 그 굽에는 '팽이풀'을 이겨발라서 '두릐' 속의 내용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다. 주로 겨울철의 김치를 담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것은 무게가 5kg 정도였다.(김광언, 1969:168)

굽은 통나무 속이 저절로 썩어 비어버린 것을 다듬어낸 후 밑을 고정시킨 다음 술두경모양으로 두경을 만들어 씌운 것이다. 제주산 '즈베냥'(구슬잣밤나무)이 속으로만 썩어 들어가는 성질이 강한 나무이기에 잘려진 통나무의 부식(腐植)된 속 부분을 파내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릐'은 아주 귀한 것으로 현지 조사시에는 살필 수 없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항'과 '드림통' 등이 보급되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자료의 경우 입구 지름 59cm, 두경 2cm, 바닥 지름 62cm, 높이 58cm 정도였다. 가정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태와 크기는 일정치 않다. '창백'과 같이 주로 상방 구석이나 고팡에 놓아두고 사용하였다. 다른 것으로 전남지방에서 사용했던 '감자통'으로 쓰이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박물관 자료의 경우 입구 지름 59cm, 두경 2cm, 바닥 지름 62cm, 높이 58cm 정도였다. 가정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태와 크기는 일정치 않다. '창백'과 같이 주로 상방 구석이나 고팡에 놓아두고 사용하였다. 다른 것으로 전남지방에서 사용했던 '감자통'으로 쓰이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림 88> 발뒤주

‘뒤주’와 같은 모양이나 ‘뒤주’의 문이 바로 ‘궤’의 문처럼 앞면 앞판 위쪽에 달려 있는 ‘반단이’ 모양의 ‘뒤주’를 ‘발뒤주’라 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정지’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습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을 높여 사용하였던 ‘발궤’가 쓰이기도 하였다. 박물관 자료의 경우 가로 111cm, 세로 51cm, 높이 51cm 정도였다. 재료는 무겁고 질긴 ‘자귀낭’(자귀나무), ‘즈베낭’(구슬잣밤나무),

‘가시낭’(가시나무) 등을 구해서 사용했으므로 더욱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었다. ‘발뒤주’는 12섬 정도가 들만큼 컸던 것으로 대농가(大農家)에서나 갖고 있을 정도로 귀했다.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손○○(남, 1930년생)의 ‘두지’를 살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육지에서는 20가마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나라두지’라 하여 거적처럼 ‘짚’을 엮어 둥글게 만들고 위에는 모자를 씌운 것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김광언, 1969:265) 넓은 의미의 뒤주로는 버드나무 꺾은 것이나 가는 싸리나무, 대나무오리를 써서 큰 독과 같은 형태로 엮은 것도 있다. 여기에 서까래를 걸고 이영을 이어 초가처럼 꾸민다. 밑둥 한쪽에는 네모난 창을 내고 문을 닫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열어 난알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 ‘뒤주’도 아주 귀한 것이었다. 보편적인 저장하는 용구로 ‘항’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잘 사는 집에서나 사용하였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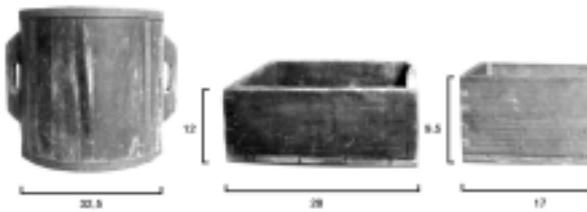


##### (5) 말, 뉘, 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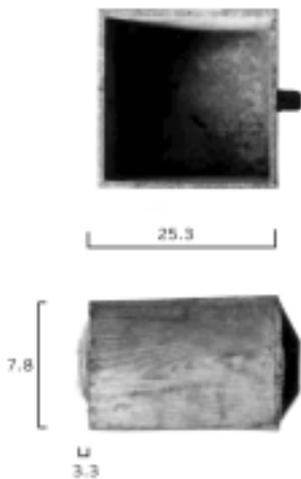
농작물의 양(量)을 재는 데 썼던 것으로, 크기에 따라 ‘뉘약세기’, ‘뉘’, ‘말’, ‘섬’의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 <세경놀이>에도 수확 해들인 곡식을 먼저 국록(國祿)으로 바치고, 나중에 고향에 들이는데 이때 ‘홉’, ‘뉘’, ‘말’, ‘섬’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斗>과 ‘뉘’<升>에 관한 옛 기록은 『農事直說』에서 ‘斗’, ‘升’의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홉’에 관한 기록도 『訓蒙類解』에 찾을 수 있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저울’에 관한 기록도 『訓蒙字會』에서 찾을 수 있다. <세경놀이>에서는 수확한 곡식으로 우선 국록(國祿)을 바치고자 했는데 이때 ‘홉’, ‘뉘’, ‘말’, ‘섬’으로 순으로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김광언, 1986:252)

① ‘말’<斗>의 양을 측정하는데 썼던 것으로, ‘통말’과 ‘귀말’이 있었다. ‘통말’은 원통형



<그림 89> 말, 뒤편, 홉



<그림 90> 귀말



<사진 268> 뒤편  
(제주시 오일장, 2002. 5.12)

(圓筒形)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인 ‘굽’과 몸통인 ‘천’, 천의 가장자리인 ‘바위’로 이루어진 반면, ‘귀말’은 사각형(四角形)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감자 등 덩어리진 것에 사용하였으나, ‘통말’은 곡식에 주로 썼다.

‘귀말’의 경우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천’의 높이 11cm, 두께 1.5cm, 바닥 28cm, 무게 2.3kg 정도였다. ‘통말’의 경우도 자료는 천의 지름 32.5cm, 내지름 29cm, 높이 32cm(자루 길이 18.5cm, 폭 4.5cm), 두께 1.5cm, 바닥 32.5cm, 무게는 2.5kg 정도였다. 제주에서 사용하던 ‘말’의 크기가 달라도 1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1말이라고 하면 육지 다른 지역에서 ‘4뒤편’을 말하는 양이었다.

② ‘뒤편’<升>은 ‘바위’와 ‘굽’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이나 방형(方形)을 이룬다. 못사는 집에서는 없었다. 크기에 따른 차이도 있었지만, 관(官)에서 승인한 ‘관뒤편’과 일정한 규격에 맞추지 않고 사사로이 만들어서 쓰는 ‘사뒤편’이 있어 함께 쓰이기도 하였다. 또 ‘뒤편’<升>의 반을 채는 데 썼던 것으로 ‘반쌍’이 있어 사용되었으며, 이 보다 작은 것으로 ‘홉’도 쓰였다. 오늘날 오일장(五日市場) 등에서는 소량의 종자 등을 파는 데 사용하고 있다.

<표 35> 말·뉘·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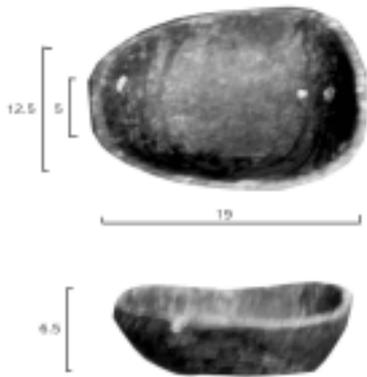
구 분	자료번호	지름(내지름)	높이	부피
통말	5,952	32.5(29)	32(29)	19.145 ℓ
귀말	4,246	28(25)	11(9.5)	5.937 ℓ
관뉘	6,301	17.5(15.5)	8.7(7.7)	1.849 ℓ
반성	4,249	14(12)	7.3(6.3)	0.907 ℓ
흙	4,092	8.7(6.7)	5.7(4.7)	0.21 ℓ



<사진 269> 흙(제주시 오일장, 2002.5.12)

<표 35>는 ‘관뉘’의 경우 1.8ℓ로 우리가 1되라고 하는 부피의 양이다. 그런데 ‘귀말’의 경우 이 ‘관뉘’의 3.2배에 해당은 5.9ℓ에 지나지 않았지만, ‘통말’은 10배에 해당하는 19.1ℓ였다. 반면 ‘반성’은 0.9ℓ로 관뉘의 반에 해당하는 부피를 갖고 있었으며, 흙은 0.2ℓ로 10배를 하면 관뉘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 대정읍 무릉리 1156-3번지의 이○○(男, 1931년생)의 ‘관뉘’를 살폈다. 가로 17.2cm, 높이 10cm 정도의 것이다. 서귀포시 토평동 1417-1의 오○○(男, 1950년생)의 것을 살폈다. ‘되박’이라고 한다. 가로 17cm, 세로 17cm 높이 10cm 정도의 것이다. 사귀물림으로 귀통이를 붙였다.



<그림 91> 뉘약세기

특히 ‘뉘약세기’<sup>206)</sup>가 ‘솔항’에 넣어 두면서 도정(搗精)한 쌀을 측량하는데 썼던 것이었다면, 껍질 있는 것을 주로 측량했던 ‘솔박’과 구분되었다. 이때문에 ‘뉘약세기’를 ‘밥뉘’라고도 불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데왓세기’(용수, 덕수), ‘뉘약세기’(삼달), ‘뉘약세기’(무릉)라고도 불렀다. 주로 ‘꼭팡’(팽나무)으로 만들었다.

서귀포시 토평동 1417-1의 오○○(男, 1950년생)의

206) 다른 말로 ‘짐재기’, ‘밥뉘’, ‘욱재기’, ‘흙사리’(오라 3동)라고도 한다. 곡식을 되로 되어서 양을 측정하는 되질을 ‘뉘약질’이라고 한다.

것을 살폈다. ‘뒤약세기’라고 한다. 길이18cm, 폭 12cm, 높이5cm 정도의 것이었다. 서귀포시 하효동 고○○(男, 1945년생?)의 ‘뒤약세기’를 살폈다. 길이 19cm, 폭 12.5cm 높이 5.5cm 정도의 것으로 곰팡이가 많이 쓸었다.



<사진270> 저울

저울에는 약저울, 앓은뱅이저울과 대저울이 있어 이용되었다.<sup>207)</sup> 기본적으로 저울은 걸쇠 혹은 접시, 저울추<sup>208)</sup>와 저울대 자루를 갖추고 있으며 저울추를 저울대의 눈금에 이동시키면서 무게를 달게 되었다.



<사진271> 저울추

육지에서도 같은 형태의 같은 기능의 것이 쓰이고 있다. ‘말’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3리 황○○(여, 1944년생)의 것을, ‘저울’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최○○(여, 1942년생)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전남 진도군 임해면 장구포 1221번지의 박○○(男, 1930년생)의 것으로 ‘되박’이라고 불리면서 쓰이고 있는 것도 살필 수 있었다. 자루 홈은 3.3cm 두께를 가지며 폭은 3.2cm 정도이다.



<사진272> 저울(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2001.10.22)

모든 도량형구(度量衡具)가 다 같은 시기에 쓰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말’과 ‘뒤’ 등은 적어도 1429년 이전부터는 사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주로 여자들에 의해 ‘통말’과 ‘귀말’, ‘관뒤’, ‘반칭’, ‘옥제기’ 등의 것이 다양하게 쓰였으며, 일제시대이후부터는 관에서 확인한 ‘관뒤’와 ‘저울’을 사용하게 되었다.

## 12. 기타

20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국립민속박물관, 1997. pp. 118~140에 의하면 대저울은 저울대에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도구를 말한다. 대저울에는 호칭, 중칭, 대칭으로 분류하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소칭은 3근~1근, 중칭은 20근~7근, 대칭은 100근으로 규정하고 소칭은 약재나 금은동의 무게를, 중칭은 주로 곡물, 야채, 대칭은 쌀가마, 보리가마, 돼지 등을 다는데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8) 조수, 인성, 서흥, 수산에서는 ‘저울취’, 김녕, 조수, 노형에서는 ‘저울치’라고 한다.

직접적인 농경에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농경에서도 사용하였던 노동복인 ‘갈옷’과 모자류, 비옷을 살폈다. 그리고 우마(牛馬)의 겨울나기를 위해 ‘출’(꼴)을 확보하고자 할 때 사용하였던 ‘장낫’을 살펴 보겠다.

(1)갈옷



<사진 273> 갈옷 사용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980년대)

제주인들이 즐겨 입었던 노동복으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감옷’이라고도 불렀다. ‘갈적삼’<sup>209)</sup>, ‘갈중이’, ‘갈몸빼’<sup>210)</sup>, ‘갈점벙이’<sup>211)</sup> 등 필요에 의해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평상복이나 예복 등으로 입던 옷이 날거나 헤어져 더 이상 평상복으로나 예복으로 입을 수 없게 되면, 풋감의 즙을 들여 작업이나 농사일을 할 때 주로 입었다.

처음 감물을 들이게 되면 풀을 먹인 옷처럼 상시 뻣뻣하고 빛깔도 연한 갈색을 보여 더 없이 좋은 노동복이 되지만, 자주 이용할 수록 풀기도 없어지고 빛깔도 거무태태한 흑갈색으로 변해 버린다. 작업을 할 때 땀이 나도 몸에 붙지 않는다던가, 먼지가 쉬 타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어, 노동복으로 남



<사진 274> 갈적삼



<사진 275>갈중의

녀가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은 제주의 민속 문화를 대표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개량 한복의 개발과 발 맞추

어 생활 한복 및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더욱이 모시로 된 ‘적삼’과 ‘바지’에 감

209) 소매, 이몸, 짓(갈적삼은 깃을 달지 않는다), 날의 폭, 고름도 감물로 먹었으나 단추도 많이 하는 편이었다.

210) 몸빼는 허리에 끈이 있고 가랑이에는 고무줄이나 시보래를 넣어 입었다.

211) 감물을 들인 잠방이로 ‘갈점방이’, 수산, 가시에서는 ‘갈정벙이’, 조수에서는 ‘갈좁방이’, ‘갈좁벙이’, ‘갈즈벙이’, 표선에서는 ‘갈베중이’라고도 한다.

물을 드려 입게 되면 한 여름을 쉽게 날 수 있는 복식(服飾)이 되기도 한다.



<사진 276>갈뭇빠

‘갈옷’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갈적삼’과 ‘중의’로 구성된다. 갈적삼의 경우 소매길이 33cm, 길이 62.5cm, 품 59cm 정도였다. 중의의 경우 남자 것은 허리 50cm, 바지통 51cm, 좁은 통 29cm, 길이 108cm 정도였으며, 여자 ‘뭇빠’의 경우는 허리 38cm, 바지통 34cm, 좁은 통 19cm, 길이 98cm, 허리끈 84cm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2> 갈옷

예전 미역을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는 옷에 ‘감물’을 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얇은 광목이 나오면서부터는 우선 옷감에 감물을 들여 ‘갈천’을 만들고, 그것을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다.

감물을 들이는 때는 7~8월경 감이 익기 전에 따야 즙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1벌에 풋감 반말 정도의 양(量)으로<sup>212)</sup> 감을 따서 도구리에 넣고 ‘덩드렁 마깨’로 짚어서 즙이 나오면 감물을 들일 옷을 넣어 버무리면 된다. 바지, 저고리 한 벌에 감물을 들이는데 감은 2관푼 정도 들어간다. 색을 좋게 내려면 8번 이상 바래야 한다. 처음 먹이면 풀을 먹인 듯 색이 없고 물에 젖은 듯하나 이것을 계속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물을 적서 별이 좋은 곳에 널어 말리는 바래는 과정을 하면 3번째부터 점차 갈색으로 변해 간다. 일주일 정도 바래면 색깔이 빨강계 곱게 나오는데 바래는 중에 비를 맞으면 색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썩기도 한다. 한 번 만들면 3년은 입는 편이다.



<사진277> 갈옷 만들기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제주민속촌, 1993.5)

일이 많은 집에서는 3~4벌씩은 만들어 입었다. 때가 안타고, 땀이 나도 몸에 붙지도 않으며, 한 6개월 정도 입으면 풀 기운이 빠진다. 감물을 들이면 더 질겨지는 편이다. 미

212) 미명으로 만들었을 경우 폭이 좁았으므로 남자 갈옷 한 벌에는 23자가 필요했다. 즉 중의 에 12자, 적삼 에 11자가 필요했다. 베틀로 만들었던 미명의 폭은 늘을 많이 넣어 넓게 만들어도 7치, 적으면 6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녕 바지, 저고리를 그냥 입으면 3개월 정도밖에 입을 수 없으나 갈옷은 한 1년은 입는 편이다. “갈옷은 살 그랑 해서 여름에도 몸에 붙지 않는다. 미녕 옷이나 감물을 들이지 않은 것은 몸에 감겨져서 좋지 않다. 감물을 들여 입으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가파에서 요즘 사람들은 갈옷은 잘 입지 않는 편이다. 예전에는 옷을 갖고 모슬포에 나가서 물을 들여왔다. 어부들 주낙에도 감물을 들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날이 좋은 날 아침에 시작한다. 30분 정도 뺏아서 뒤집어 감을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으깬 감의 부스러기가 붙으면 그곳의 색이 까맣게되므로 틈새가 없는 쪽으로 뒤집어야만 한다. 그리고 치대어서 감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 충분히 털어 낸다. 조금도 ‘곱’(접혀진 부분)이 없이 짝 펴야 한다. 곱이 있으면 그 부분의 색이 빨강게 되지 않는다. 뒤집어서 멍석을 펴서 낸다. 완전히 마르기 전에 손을 보아 다시 낸다. 그리고 하얀 쪽을 위로 가게 하여 낸다. 날만 좋으면 3일 정도면 된다. 별이 좋지 않으면 개어 두었다가 별이 좋은 날 다시 바랜다. 여름이기에 별이 좋다. 보통 갈옷은 무근 것은 입고 새 것은 잘 입지 않고 내년엔 입으려고 했다. 밭에 갈 때는 묵은 것을 입고 새것은 놀러 갈 때 입으려고 했다.



<사진 278> 풋감

제주의 일반 가정에서는 갈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 공급용으로 대개 감나무 한 두 그루씩을 ‘집나무’로 심고 있다. 특히 어촌 마을에서는 어부들간에는 주낙의 낚시줄이나 그물을 질기게 하기 위해 감물을 드렸다. 혹 여름철이 되지 않

아 감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감물 대신 돼지 핏물을 이용했다<sup>213)</sup>고도 한다.

갈옷의 장점은 작업도중 비를 맞거나 땀이 많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아 일하기에 좋다. 감에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이 들어 있어 물은 물론 땀이 묻은 것을 그냥 두어도 썩지 않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뻣뻣했으므로 따로 풀을 먹일 필요가 없었다.

‘갈옷’은 조사 전 가옥에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노동복이다. 언제나 뻣뻣한 풀기를 지니고 있으며 흙먼지가 많고 후덥지근한 곳에서 땀을 많이 흘렸기에 옷은 몸에 감기기 쉬웠지만 갈옷을 그렇지 않았다. 그러기에 갈옷은 제주 고유의 것으로 문화적 산물이다.

## (2) 정당벌립

213) 秦聖麒, 『南國의 民俗』, 제주민속연구소, 1994. pp. 223~225

‘정당’으로 만든 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정등병것’(명월), ‘정동벌립’(甘山), ‘정동모자’, ‘정동병것’, ‘정동병곳’이라고도 불렀다. ‘좌왈’(자갈밭)에서 자라는 ‘정당’(땡땡이 덩굴)으로 만든 모자이다. 머리가 들어가고 이마가 닿는 부분인 모자골을 사용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차양(遮陽)을 넓게 하여 뜨거운 해의 가림이 많도록 하였다. 중산간 초지에서 우마(牛馬)를 돌보는 목자(牧者)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소나비를 맞아도 안 썰 정도로 즘질게<sup>214)</sup> 짠 것이 특징이나 좁은 무거운 것이 흠이었다.



<그림 93> 정당벌립

‘정당벌립’은 ‘갓모자’와 ‘전’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원뿔형이다. ‘정당’이라는 들판이나 숲지대에서 자생하는 ‘땡땡이덩굴’을 가공하여 만든다. 제주도에서 ‘정당벌립’의 주 생산지는 귀덕인데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정당벌립의 품질은 재료의 질과 ‘도리’의 수에 따라 구분된다고 한다.<sup>215)</sup> 410개의 날줄과 158개의 날실로 만들어진 정당벌립도 이용되었다고 한다.<sup>216)</sup>

① ‘갓모자’는 그냥 ‘모자’라고도 하고, ‘땡’(오라)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높고 둥글다. 모자의 짜임은 ‘모정’에서 날줄을 빚낸 후 가로로 줄돌림 하여 엮어간 것이다. 올은 가느다란 줄에서부터 차차 굵은 올로 넘어가는데 ‘갓모자’는 110도리. ‘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진 279> 정당벌립 만들기  
(섬문화축제행사장, 2001. 6. 10.)

100도리로 촘촘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정도이다. 또한 ‘모정’에는 팔랭개비 같은 회전문양으로 처리가 되었고, ‘갓모자’ 안쪽에서 꺾이는 부분에 돌림줄 4선을 보충하였다.

② ‘전’은 차양(遮陽)부분을 가리키는 곳 ‘천’(오라), ‘창’(가과)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평평하며 넓어 햇볕을 가리기에 좋다. 가장

214) ‘잘고 가늘게 짜였다’는 제주 지역어(地域語)다.

215) 高富子, 1994. p.148에 의하면 하품은 70도리, 상품은 100안팎의 것이라고 한다.

216) 高光敏, 『甘山里의 民具』, 濟州大學校博物館, 1999. p.7

자리 ‘바위’ 밑에서 또다시 4선의 보충된 돌림줄을 돌려줌으로써 차양부분인 ‘천’이 넓으나 휘어지지 않도록 되어 단단하며 안정감이 있다.<sup>217)</sup>

박물관 소장자료를 측정하면 ‘모자’ 높이 10cm, 지름 16.5cm, ‘천’의 지름 45.5cm, 무게는 0.4kg 정도이고, 다른 자료는 모자 높이 11cm, 지름 17cm, 천의 지름 48cm, 무게는 0.3kg 정도이다. 오늘날은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어 팔고 있다.<sup>218)</sup>

‘정당벌립’은 조사 당시 몇 가옥에서만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으로 사용하고 가옥은 없었다. 말 목장을 오가며 말을 돌보았던 많은 목자(牧者)를 가진 제주적 특성을 반영한 제주의 고유성을 지니는 민속품이다.

### (3) 대패랭이



<그림 94> 대패랭이



<그림 77> 밀낭패랭이(1980년대?)

-뿌리깊은 사진

하였으며 가벼우므로 남녀노소(男女老少)가 즐겨 이용한다.

‘대패랭이’란 대나무를 재료로 만든 ‘패랭이’를 말하는 것으로, 밀대나 보릿대로 만든 것을 ‘밀낭 패랭이’<sup>220)</sup>, ‘보릿낭 패랭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것이다. 여름철 ‘검질’(잡초) 매기를 하던 여자들이 주로 썼던 것이다.

마디가 거의 없는 제주 수리대를 세공(細工) 하여 만든<sup>219)</sup> 것으로 차양(遮陽)이 넓게 하여 해 가림이 많이 되도록 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대을 사이로 통풍(通風)이 잘 되도록

217)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1991.p.310

218) 관광 상품인 ‘정당벌립’은 재료를 ‘댕댕이덩굴’로 사용한 것은 같으나 형태는 전통적인 것과 아주 다르다.

219)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1(열화당, 1980), pp35~36.에 의하면 같은 대나무를 재료로 하였다고 해도, 대의 어느 부분으로 만든 것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구분되었다. 대나무의 바깥 부분인 ‘피죽’으로 만든 것은 탄력이 있고 외형도 아름다워 상품(上品)으로 쳤고, 속껍질로 만든 것은 여리고 썩기 쉬울 뿐만 아니라 탄력이 떨어져 하품(下品)으로 쳤다.

220) 밀접패랭이라고도 한다. 밀짚의 속대로 엮어서 만들었다.



<그림 95> 밀낭패랭이



<그림 96> 밀짚모자

육지에서는 ‘밀짚모자’라 하여 사용되었다.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손동열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공들여 쓰고 창호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2001. 10. 23.) 지 사다 일년

에 한 번씩 갈아주면서 썼다. 속에 있는 ‘텃망’에 머리를 맞추어 썼다.

이 밖에 또 여자들이 주로 썼던 것으로 ‘삿갓’이 있었다.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특히 ‘지삿갓’이라고 하여 ‘삿갓’의 정수리에 종이를 덧대어 쓴 것을 가리킨다. 여름철 야외작업을 할 때 뜨거운 햇볕을 조금 더 막기 위해 종이를 덧댄 것으로, 우중(雨中)에 작업을 해야 할 때도 비를 피하기 위해 썼던 것이다.



<그림 97> 삿갓



<사진 281> 삿갓 (1960년대?)  
-泉靖- 사진

‘모자’와 ‘차양’으로 구분되던 ‘정당벌립’이나 ‘대패랭이’와는 달리 ‘고깔형’을 하고 있다. 또 고깔의 정상 부에 종이를 덧대어 차양(遮陽)의 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재료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여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내부에 ‘망’을 붙여 머리가 들어가고 이마에 걸리도록 하였다. 보통 농가(農家)에서 1~2개씩 갖추었다가 여름철에 사용하였다.<sup>221)</sup> 농사 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서대삿갓’이라 새색시들이 주로 썼던 것이 있었다.

221) 육지에서는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하였으며 여름날 피약벌에서 遮陽帽로 사용하였



<사진 282> 삿갓 사용(1960년대?)-泉靖- 사진

얼마나 컸던지 이것을 쓰고 앉으면 큰비에도 젖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밭에서 임시로 쓰기 위해 촌로 만든 ‘너서리’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 대팻밥이나 나무껍질로 엮어서 만든 농립(農笠)을 ‘낭거죽 패랭이’라고 한다. 다양한 모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늘날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sup>222)</sup>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긴 쪽의 직경이 66cm, 짧은 쪽이 62cm 정도 되었다. 그리고 안쪽의 ‘망’ 지름은 15cm, ‘망’의 깊이는 12cm로 ‘삿갓’ 정수리 안쪽에 붙었다. 무게는 0.4kg 정도였으며<sup>223)</sup>, ‘망’에 연결되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게 된 끈은 16cm 정도 되었다. ‘삿갓’에 관한 옛 기록은 『山林經濟』에 ‘笠’으로, 『千一錄』에 ‘蕪笠’으로 기록(김광언, 1986:398~432)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715년 이전부터 이용해 온 민속품의 하나로 보인다. ‘삿갓’의 경우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지름 97cm 정도의 것이다.(경기대학교 박물관, 1980:105)

‘대패랭이’는 주로 성산 수산 일대에서 생산되었는데, 대나무를 쪼개어 다듬어서 ‘모자골’에 맞추어 엮어서 만든었다. 남녀노소를 갈릴 것 없이 누구나 여름에는 부담 없이 쓰고 다니는 서민층의 모자로서, 가볍고 통풍이 잘되어, 쓰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하다. 쉽게 망가지지 않아 오래 두고 쓸 수 있다. ‘모자골’의 생김새가 옛날의 생활에 맞게끔, 상투를 보호하며 햇볕을 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머리에는 잘 맞지 않는다.

조선 시대의 추사도 제주 적거(謫居)에서 생활할 때 이 ‘대패랭이’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같은 대나무를 재료로 했다 하더라도, 대나무의 어느 부분으로 만든 것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대나무의 바깥부분, 곧 ‘피죽’(皮竹)으로 만든 ‘패랭이’는 단단하고 탄력이 있고 외형도 아름다워 이것을 상품으로 치고, 속껍질로 만든 것은 여리고 찌기 쉬운 뿐만 아니라 탄력이 없어 하품으로 쳤다.<sup>224)</sup> ‘대패랭이’는 조사 당시 몇 가옥에서만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으로 사용하고 가옥도 없었다. 그러나 제주수리대를 재료로

다. 안쪽 중앙에는 미사리를 달아 머리에 얹게 되었다. 加藤木保외(한국무속박물관 학예실역), 앞의 책, pp. 274~277

222)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패랭이’를 성산 지역에서 만들어 ‘민속촌’ 등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223) 대패랭이는 0.2kg 정도였다.

224) 진성기, 『제주민 속의 멋』(1), 열화당, 1980, pp. 35~36

이용하여 만들었던 제주의 고유성을 지니는 민속품이다.

(4) 우장(雨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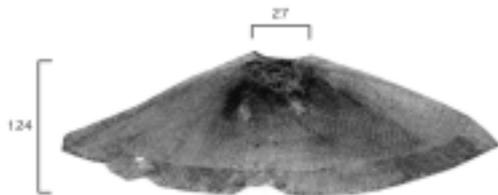


<사진 283> 우장 사용(1960년대)  
-홍정표 사진

‘비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잡세기’<sup>225)</sup>, ‘줍세기’(감산), ‘꿩이’, ‘도롱이’, ‘우의’, ‘츠께’, ‘츠게’, ‘츠갱이’, ‘츠갱이’(명월), ‘츠광이’, ‘츠괘이’, ‘츠괘이’라고도 불렀다.

‘나막신’<sup>226)</sup>과 ‘정당벌립’을 함께 쓰고 우마(牛馬)를 돌보는 옛 사진이 전해 오고 있는데, 주로 비바람이 심한 날 바깥에서 생활할 때 주로 입었다. ‘새’로 촘촘하게 엮어 심한 바람을 동반하는 제주의 빗물이라 하더라도 전혀 스며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소 보는 사람들인 ‘목자’들이 주로 입었다. 비가 역수로 와도 비가 새어들지 않는다. 요사이 나오는 ‘갑바’는 비가 새는 경우가 있었지만 우장은 그렇지 않았다.

비가 내릴 때 우장을 썼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을 이원진의 『耽羅志』山川條에서 찾을 수 있다. 한라산을 설명하면서 이경억(李慶億)의 영실우(瀛室遇雨)라는 시를 인용 있는데 여기에 “...안개비가 내리는데... 도롱은 쓰지 않고...” 라는 짓구가 있다.(김상조 역, 1991:11) ‘도롱이’에 관한 옛 기록은 『四時纂要抄』에



<그림 98> 우장

‘蓑衣’(사의), 『山林經濟』에서 살필 수 있는데 ‘蓑’(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月餘農家』에서는 ‘襪襪’(발석), 되롱이, 『農家月令歌』에서는 ‘되롱이’, 또 다른 『農家月令歌』에서는 ‘누역’으로 기록(김광연, 1986:105)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483년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보

225) 泉靖一, 『濟州島』(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66), p. 216.

226)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인 곳을 다닐 때 신었던 신이다. 뱃나무, 고련목 등 가벼운 나무로 사용하는 사람의 발 크기에 맞도록 만들었는데, ‘코’는 올라가게 만들고 뒷꿈치는 돌우였으며 바닥의 ‘굽’은 평행이 되도록 하였다. 남녀용의 구별은 없었으나 여자의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었다.

인다.

우장은 속의 ‘노’와 겉의 ‘너울’로 구성된다. 우장의 재료는 ‘새’와 ‘미’(억새의 잎줄기)이다. ‘새’는 비를 막는 우장의 주된 재료로서, ‘미’는 이 ‘새’를 엮어 매는 ‘늑’(줄)을 말한다. 제주에는 “안티론 엮배기, 배곶이론 털배기가 미싱것고?”하는 우장에 관한 수수께끼가 있다. 이 수수께끼에서 곰보와 털보라는 상반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우장 안팎의 생김새가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이다.<sup>227)</sup> 한 마을에서 우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다.



<사진 284> 새(1980년대?)-뿌리깊은나무 사진

① ‘노’는 ‘억새’의 어린 꽃을 ‘어욱뽕이’라고 하는데, 이 ‘어욱뽕이’를 감싸고 있던 것을 ‘미’라고 한다. 이 ‘미’로 꼰 새끼줄은 잡아당기기에 든든하고 질길 뿐만 아니라 탄력이 있고 매끈 매끈하기 때문에, 우장을 엮는 데도 쓰이지만 ‘초신’을 엮는 데도 쓰이는 ‘줄’이다. 행원에서는 속의 ‘노’를 ‘너삼’으로도 만들어 썼다고 한다. 이 우장의 안쪽은 마치 그물과 같이 가는 새끼줄로 정연하게 엮여져 있다. 이 그물은 하나 하나

의 매듭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매듭에 ‘새’가 묶여있다.

② ‘너울’은 ‘새’의 굵은 줄기를 ‘좁치게’라는 일종의 돛자리 빗으로 쳐내고, ‘새’의 끝을 두 줄로 나누어 따서 만든 다음 엮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새털과도 닮았다.

‘우장’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이것을 착용한 후 ‘털벌립’(털병거지)이나 ‘삿갓’을 쓰고, ‘나막신’하나만 더 신으면 어떤 비에도 걱정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우장을 두 사람이 함께 쓸 수도 있다. 신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우장’은 물건을 덮어두는 데도 쓰인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길이 130cm, 무게 3.4kg 정도였다. 북군 애월읍 금덕리 변○○(남, 1912년생)에 의하면 8월경에 억새의 속잎인 ‘미’를 뽑아 두었다가 하나를 4~5조각으로 쪼개어 ‘노’를 만들어 ‘목거리코’, ‘목거리’, ‘목거리 상판줄’, ‘날줄’로 썼다. 그리고 10월 상강(霜降)경에 잎이 넓고 긴 ‘띠’(矛)를 걸어 2~3일 건조시킨 다음 옮겨와 ‘새치기’로 가

227)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 悅話堂, 1979, pp. 67~69



<사진 285> 우산 사용

려낸 뒤 ‘너울’로 썼다. ‘너울’은 비를 맞더라도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깥에 ‘새’를 엮어 나가는데 쓰는 것으로 ‘새’의 끝이 밑을 향하도록 하였다.

통풍이 잘되는 뿔마루의 기둥이나 헛간 등에 걸어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였다. 전남지방에서 사용하였던 ‘도롱이’와는 형태적인 차이나 재료의 차이를 보인다.<sup>228)</sup> 오늘날은 비닐 등을



<사진 286> 우산 내부



<사진 287> 도롱이-  
경기대학교박물관 사진



<사진 288> 우산

쉽게 구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없어 거의 사라진 민속품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육지의 ‘도롱이’가 짙을 재료로 앞치마,

어깨걸이가 있어 상하가 분리되도록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의 우산은 ‘새’를 재료로 어깨에서 무릎까지 덮일 정도로 만들어 입었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길이가 105cm 정도의 것이었다.(경기대학교박물관, 1980:105) 광주지방에서는 ‘도롱이’라 하는 것으로 가로 110cm, 세로 75cm 정도의 짧은 것을 사용하였다.(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80:11)

### (5) 낫

서서 ‘출’(꼰)을 벨 때 사용하였던 자루가 긴 ‘낫’을 가리키는 것으로 김녕, 삼달, 수산, 가시, 서흥 등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또 ‘큰낫(大鎌)<sup>229)</sup>, ‘장호미’, ‘긴낫’

228)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p. 11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벼짚이나 보리짚 등으로도 만들어 썼다.

무게는 1.2kg 정도 되었다.

229) 泉靖一, 앞의 책, p.221



<사진 289> 낫(1960년대)  
-泉靖- 사진



<그림 99> 낫

(제주, '장낫'(김녕), '벌낫', '낫호미'(삼달)라고도 불렀다.

주로 목초지대가 많은 동쪽 지역 특히 성산, 남원, 서귀 등지에서 많이 사용하였다.<sup>230)</sup> 이 외에도 화입(火入)이 금지된 이후 개간(開墾)을 하기 위해 예정지에 길게 자란 풀을 우선 베어내어야 했는데, 이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베어 들일 때도 썼다.

'낫'은 '자루'와 '낫'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큰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자루'와 '낫'이 길어서 서서 벨 수 있도록 하였다. '낫'이 '자루'와 90도 이상의 각으로 벌어지면 많이 비어지기는 하지만 힘이 많이 들어 쉽게 지쳐 적당히 자기의 힘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각이 클 수록 풀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 이때는 '낫'이 좋아야 했다.



<사진 290> 낫 든 모습(1960년대)-泉靖- 사진

① '낫'의 길이가 60cm 정도로 보통의 '호미'의 '낫' 길이가 20cm인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더 긴 편이다. 낫의 폭은 5cm 내외이다.

② '자루'는 손잡이 부분은 둥근 형태이나 낫이 고정되는 부분에서는 사각형으로 되었다. '자루'는 작은 것이 165cm 정도이고, 큰 것은 182cm 정도에 달하였다. 그리고 '자루'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낫'을 설치한 다음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켰다. '자루'의 재료는 질긴 것이어야 했으므로 '가시낭'(가시나무), 참나무 등도 이용하였으나 '죽낭'(때죽나무)으로 주로 했다.

끈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대가리도 내

230) 서쪽 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음력으로 8월 초하루부터 시작했던 벌초(伐草) 때도 편리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였다. 이것도 예초기가 나온 뒤로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사진291> 낫집

기에 좋았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경우 낫이 길이가 41cm, 날폭은 3.3cm이고 자루는 길이가 190cm이나 낫이 박히는 부분의 넓이가 3.5cm, 자루 부분은 2.5cm, 두께는 전체적으로 2c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0.9kg 정도였다.

<표 36> 낫 비교

구 분	소장자	자루길이	낫길이	날폭	무게
박물관	1,537	190	41	3.3	
	6,890	182.5	38	5	
	6,889	178	41	4	
	6,888	176	41	5	
	1,538	163	39	미확인	0.8
	1,761	167	41	4	0.9
	1,536	161	43	4	0.8
남원 태흥	박창식	167	42	6.5	
표선 토산	안치호	164.5	43	6	
구좌 행원	홍은표	184	45	5	

<표 36>는 제주에서 사용되었던 낫의 자루는 작은 것은 161cm 큰 것은 190cm에 이르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낫의 길이 42cm, 폭 4.5cm의 것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낫’에 관한 옛 기록은 『農事直說』에 長柄大鎌(장병대검)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429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방에는 ‘별낫’이라 하여 쓰이고 있다고 한다.(박호석, 2001:128~129) 그리고 선사시대 유적 발굴 등을 통해서 볼 때 ‘쇠낫’과 ‘자루’가 경주 조양동,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삼국 시대 때부터 이미 ‘낫’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주 하봉리, 화순 용강리, 동해 송정동, 제천 양평리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철기시대에도 ‘쇠낫’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홍, 2001:56)

이와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북군 성산읍 종달리에서는 ‘낫호미’라 하여 긴 자루에 짧은 ‘메호미’를 달아 속성수(速成樹)인 방풍림의 가지를 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남군 성산

읍 삼달리 강근창의 모(女, 1920년생?)의 ‘호미낫’을 살폈다. 자루길이 372cm, 날 길이 20.5cm 날폭 4.5cm 정도의 것이다. 작은 것은 자루길이 240cm, 날 길이 19cm, 날 폭 3.5cm 정도의 것이다.



<사진 292> 낫호미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2001. 9. 11.)

여름내 목장의 풀을 먹이던 소는 풀이 마르게 되는 겨울철 집으로 내려서 키워야 했다. 이렇게 목장에서 내린 소에게 먹일 ‘출’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때 사용하던 것이 ‘낫’이었다. 전도에서 특히 동쪽 지역에서 ‘낫’을 사용한 것은 ‘출’을 더 많이 준비해야 했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쪽 지방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우선 ‘출’을 준비하는 등 편평하고 넓은 ‘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편 특히 남군(南郡)의 ‘출’(풀)은 북털이 많고 잡초가 많이 섞여서 소나 말들이 잘 먹질 않아 북군에서 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보통 북군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한 마리의 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출의 양이 7~8바리인데 비하여, 남제주군에서는 15바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때문에 쇠뿔을 거름으로 쓸 때에도 북군의 거름은 진국이 잘 삭아서 퇴비로 좋은 반면, 남제주군의 것은 삭질 않은 풀 그대로여서 퇴비거름으로 이용하는데 나빴다.

여자들이 ‘호미’(낫)로 ‘출’(풀)을 비는 것보다 8배 이상의 많은 양을 작업할 수 있었다. 축산과중 이전인 옛날 목장을 할 때는 젊은이들이라면 700 ‘뭇’까지도 빌 수 있었다. 행원 지역에서는 잘 베면 하루에 20바리 보통은 15바리 정도 벨 수 있었다. 풀 밭을 집집마다 따로 가꾸었다. 서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베는데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친 다음 모아 묶어 놓고 나아가고 하는 식으로 베었다. 이것은 양쪽으로 쳐서 중앙 쪽으로 모으므로 묶기도 좋아 빨랐다. 물론 ‘낫’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였다. 또한 소나 말을 기르는 사람이 1개 반 50호에서 35호 정도였으므로 출을 하기 위한 낫의 이용은 바쁠 수밖에 없었다. 땀이 많이 나고 다루는 기술이 쉽지 않았다. 낫도 좋아야 하지만 풀 밭에 잡초 등이 없어야 많이 벨 수 있었다.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함으로써 능률을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고된 일의 어려움을 풀고 흥과 장단에 맞추어 일을 하기 위해 남원지역에서는 <출비는 소리>를 부르며 작업했던 것이 전해오기도 한다. 작업에 활용하지 않을 때는 헛간 보 등에 걸어두고 보관·관리하기도 하였다.



## IV. 결론

문화는 쉬지 않고 변화한다. 물론 농경도 변화해 왔고 그 속에서 생을 다하던 농기구도 변화해 가고 있다. 민속품이 그러하듯이 농기구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필요에 의해 쓰이다가 언젠가는 그 생을 다하기도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 나타나기도 한다. 농경의 기술과 더불어 생산력의 증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농기구였다. 이러한 농구에 대한 연구는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농학·농업사·농업경제학·문화인류학·민속학 등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다. 밭농사를 하는 제주도에서 사용되었던 전래 농구에 대해 살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 자연환경, 역사배경, 인문환경이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며 제주도만의 고유성을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세, 토질, 기후 등이 육지와 다르며 따뜻하고 습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화산의 폭발로 이루어진 화산도(火山島)로 비는 많이 오지만 물이 고이지 않아 논은 없고 대부분이 밭을 이용한 농경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온난다습(溫暖多濕)한 기후는 ‘검질’이 자라기에 적합해서 농경이 곧 잡초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고 가뭄과 태풍은 굶주린 생활을 강요했다.

그러나 별다른 산업이 없었던 제주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경, 어로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다. 제주도의 지형 상 식수 공급이 용이하고, 비교적 토양이 좋았다. 1970년대 이후 오일장(五日市場) 등 상업의 발달, 도로의 건설 등으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어촌(漁村)이 형성되었다.

둘째, 제주도만의 고유성이 농경에 미친 영향으로 농경지의 특성, 재배 작물, 농경법과 수놓음 등이 갖는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제주도는 화산의 폭발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농경지의 77% 정도가 화산회토(火山灰土)의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밭의 토양에 자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흙의 양이 부족하고 토양의 입자가 가벼워 폭풍과 태풍 등 풍수해(風水害)에 의한 유실이 심한 편이다. 특히 피석진 땅이어서 ‘검질’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끝이 뾰족한 농구를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토양도 자갈의 함량과 토양의 특성에 따라 질왓과 작지왓, 뜯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밭이 위치한 고도와 집에서 거리, 토양의 척박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농경에 임하였다.

자급자족을 위한 농경이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제주도에서도 식량생산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밭농사였기에 조와 보리를 재배했다. 여기에 더하여 메밀, 산뽕, 피, 수수 등이 재배되었으며, 콩류로서 콩, 팥, 녹두와 면화, 참깨, 들깨, 무 등이 재배되었다. 이러한 농작물은 주작물을 재배하는 밭은 물론 ‘머드레’로 심어서 가꾸었으며 가옥 내 ‘우영’(채전밭)에서도 재배하였다.

재배 작물에서 보리보다 조를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다는 점, 수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 대개의 제의(祭儀)에 제물로 쓰인다는 점, 농경의 풍요를 비는 곳인 <세경놀이>에서 조의 재배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남자들의 유교식 마을제의 하나인 농포제가 조의 파종 직후에 행한다는 점, 7월에 지내는 마블림제가 조의 경작과 관련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제주도의 기층문화는 조 농사를 중심으로 한 잡곡재배문화와 어로민 문화의 복합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농경을 통해 지력(地力)이 떨어지면 ‘쉬돌림’을 통해 일정기간을 휴한(休閑)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꾸어 재배함으로써 생산력의 증대를 꾀했다. 또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퇴비나 오줌 등의 시비나 진거름을 이용한 파종 등의 농경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밭의 크기, 소의 유무,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파종, ‘검질매기’, 수확, 탈곡 등을 운영한다. 없거나 부족한 축력이나 노동력은 있는 사람이나 경험 있는 사람을 빌어다 하고 나중에 갚는 수눌음의 전통을 보여 주었다.

셋째, 제주도의 전래 농경에서 사용되었던 농기구를 논의했다. 농기구의 종류와 이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토양의 분포와 농기구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제주 도내에서의 지역 차를 밝히고자 했다. 각각의 농기구가 갖는 형태, 구조, 재료, 기능 등을 살피고 본토의 것과 비교 해 보고 제주도의 고유성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단편적이긴 하지만 농기구의 변화 모습도 밝혔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종류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밭갈이는 물론 ‘병에’ 쪼기, 씨의 보관 및 뿌리기, 밭밟기, 거름주기의 과정이 포함된다. 그만큼 농기구도 많고 다양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쓰였던 농기구에는 돌이 많은 밭을 갈기 위해 양주머리가 있는 ‘쟁기’가 이용되었으며 쟁기를 쓸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일구는 데 우선적으로 썼던 것으로 ‘따비’와 ‘벤줄레’가 있다. 물론 ‘따비’와 ‘벤줄레’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감귤 밭에서는 물론 ‘당골’이라 하여 마을마다 있는 상여계에서 오늘날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옛부터 생활용구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괘이’가 농

기구로는 물론 생활필수품으로 쓰였으며, 된 땅에서 주로 생기는 흙병에를 퍼는데 ‘곰배’가 이용되었다. 쇠로 만든 삽이 보편화되기 전에 흙을 파고 올리는데 썼던 것이 ‘갈레죽’이다. 돛거름과 쉼거름은 물론 불치를 내고 옮기는 데 썼던 ‘쉐스랑’, ‘거름착’, ‘굴체’를 살펴해보았으며, 오줌을 모아 이용하는 데 썼던 데에는 ‘오줌항’과 ‘오줌허벅’이 사용되었음을 살폈다. 그리고 씨를 보관하는데 ‘씨부게’가 씨를 뿌리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멜망텅이’가 있었다. 뿌린 씨를 흙으로 덮어주는데 ‘섬피’를 사용하였으며,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쓸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남테’로 밟아 주었다. 이들은 태풍과 많은 비바람에 유실되는 토양을 막고, 화산회토의 토양을 다지면서 가꾸었던 생명산업의 도구들이었다. 쟁기를 통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전래의 농기구에 삶의 지혜를 덧붙여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테와 돌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 사용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씨뿌리는 연장이다.

특히 제주도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에는 ‘거름착’, ‘오줌허벅’, ‘남테’가 있으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형한 것에는 ‘쟁기’가 있다. ‘쟁기’는 돌 많은 밭을 갈기 위해 자주 들어올려야 했으므로 ‘양주머리’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거의 같은 조건의 환경인 강원도에서 사용되었던 ‘극쟁이’, ‘인걸이’ 등에 가로 손잡이가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거름착’은 인분(人糞)을 먹고사는 돼지의 배설물로 만들어지는 돛거름을 옮기는데 이용하므로 ‘똥장군’은 없다. 중요한 거름인 오줌을 옮기는데 ‘오줌허벅’을 활용하고 있다. 바람에 날리기 쉬운 토양으로 이루어진 밭에 파종을 하고 밭아를 돕기 위해 밟기를 할 때 사용하였던 ‘남테’는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는 문화적 산물인 것이다.

매는 연장으로는 ‘굴쟁이’가 쓰였는데, 제주적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밭이나 작물에 따라 제조작업의 횟수가 달랐지만, 제주에서는 언제나 ‘굴쟁이’가 쓰였다. 토양이 퍼석지고 자갈이 많은 곳이었기에, 깊이 들어간 ‘검질’의 뿌리를 캐기 위해선 폭이 넓은 것을 쓰기에는 곤란하였다. 이 또한 제주가 갖는 고유한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한 문화적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두는 연장으로는 다른 지역과 같이 ‘낫’이라고 하는 ‘호미’가 쓰였다.

운반할 때는 동력(動力)의 근본을 인력(人力)에 두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소와 말의 축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높은 밭담을 넘어 다녀야 했고 자갈이 많았던 도로에서 기본적으로 이용된 것은 ‘산태’, ‘지계’, ‘배’였다. 그리고 많은 양의 농작물이나 무거운 것

을 한꺼번에 옮기는데 ‘마차’와 ‘질메’가 활용되었다. 특히 ‘지게’는 지게발을 짧게 만들어 썼으며 바람이 많고 험한 길을 오가면서 옮겨야 했던 곳이었으므로 등에 지고 다녔다. 그러므로 이때 사용한 ‘배’ 또한 제주의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한 고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곡식을 털어 고르고 말릴 때는 단순하면서 삼다(三多)의 하나였을 만큼 많이 불었던 바람을 이용한 농기구가 많이 이용되었다. 곡식을 터는 데는 ‘작대기’, ‘덩드렁마께’, ‘도께’, ‘클’, ‘글갱이’가 쓰였으며 고르고 말리는 데는 ‘얼맹이’, ‘솔박’, ‘푸는체’, ‘명석’, ‘당그네’가 활용되었다. 특히 바람을 이용한 ‘솔박’의 사용과 날개가 없는 ‘키’인 ‘푸는체’의 활용은 지역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클’이 보급되면서 보다 쉽게 터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맥타기’는 물론 최근에는 탈곡(脫穀)과 정선(精選)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콤바인’이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다.

알곡 및 가루내기를 위해 찼기와 뿡기가 이루어졌다. 찼기에는 ‘남방에’, ‘절구’가 쓰였으며, 뿡기에는 ‘뿡방에’(연자마), ‘ㄱ레’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도고리’, ‘ㄱ레방석’, ‘체’ 등이 보조 용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주곡(主穀)인 ‘보리’를 식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집집마다 ‘ㄱ레’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사용하였음이 특징이다. 물론 ‘뿡방에’라고 하여 개인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뿡방에’는 거의 마을이라는 지연(地緣)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저장하는 용구에는 ‘맥’, ‘항’, ‘뒤주’가 활용되었다. 특히 습기가 많았던 지역적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별도의 곡간을 만들지 않고, ‘고팡’을 구들 뒤에 만들고 그 안에 다량의 ‘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습기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발휘한 지혜이며 이것이 제주도 농기구의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맥’을 다양하게 만들어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는 ‘뒤주’ 같은 것은 중손 집이나 부자 집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구가 아니었다. 본토에서 사용하는 한 ‘말’(斗)을 ‘대두’라고 하고, 제주에서는 본토에서 4되가 한 말로 통용되고 있다.

쉽게 바람에 날리는 화산회토와 땀을 많이 나게 하는 기후에서 농경에 임해야 했던 제주인들은 몸에 나는 땀에 옷이 감기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갈옷’이라는 문화적 산물을 탄생시켰고,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패랭이’를 비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장’을 만들어 입었다. 목축(牧畜)을 위한 ‘출’(꼴)을 준비하는데 ‘낫’을 사용하였고, 어린 소에게 발갈이를 가르치는데 ‘곰돌’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에서 농기구가 갖는 특성에는 자갈이 많았던 밭을 경작했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쟁기’가 밭갈이에서 자갈에 걸릴 때 들어 올리도록 장치한 손잡이인 ‘양주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굴쟁이’가 ‘날의 폭’이 넓으면 잘 끊어지지 않으므로 좁고 가늘게 했으므로 형태적으로 뾰족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날카로울 정도로 뾰족한 ‘따비’와 ‘벤줄레’, ‘굴쟁이’, ‘약초쟁이’가 특히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비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말테’, ‘남테’, ‘돌테’로 파종한 밭을 밟아주었다는 특징도 있다. 2~30여 마리의 말을 밭에 밀어 넣고 가장자리부터 밟아 나왔던 전통은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말뼉의 효과를 위해 나무토막으로 말발굽을 만들고 둥근 나무에 박아 밟아 주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바람에 날리는 흙을 막아 주고, 점성이 없는 화산회토(火山灰土)로 습기를 잘 보관할 수 없었던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밭을 파헤쳐 종자를 파먹던 새들을 막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했다. 한편 바람을 이용하여 탈곡한 알곡을 검부러기 등과 구분하여 정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솔박’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 껍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 등을 주곡(主穀)으로 했기 때문에 입구가 넓은 ‘남방에’를 사용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알곡을 보관하기 위해 ‘항’을 사용한 점, 온난다습한 해양성기후이면서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갈옷’을 만들어 노동복으로 사용한 점, 차양이 넓은 ‘정당벌립’을 사용한 점, 쟁기질을 훈련시키기 위해 별도의 ‘곰돌’을 만들어 사용한 점은 제주적 특징을 반영한 고유한 농기구로이다.

또한 제주가 갖는 특징을 반영하여 변형하여 사용한 것도 있었다. ‘지계’의 밭이 특히 짧았던 것도 돌이 많았던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밭을 개간하면서 발생하는 돌로 ‘밭담’을 쌓으면서 경계를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밭담’을 넘어 다니기 위해 ‘지계 밭’을 특히 짧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섬피’는 담이 많은 밭을 옮겨 다니면서 사용하기 어려워 한 번 사용하면 화목(火木)으로 사용해 버린 특징도 나타난다. 또 하나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고 목재(木材)를 이용한 ‘남방에’, ‘도고리’ 간혹이긴 하지만 ‘두ړ’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벼와 조, 보리와는 달리 껍질이 여러 겹으로 싸여있는 ‘피’를 많이 재배하여 이를 도정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넓은 입구를 가진 ‘남방에’를 사용하고 있음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양주머리가 있는 ‘쟁기’로 변형한 점, 감귤의 뿌리 캐기를 위해 ‘쇠따비’로 변형한 점, 인분(人糞)을 돼지

떡이로 사용함으로써 ‘오좁허벅’을 ‘똥장군’ 대신 사용한 점, 화산회토의 토양으로 이루어진 밭에서 흙을 끌어주어 씨를 덮기 위해 ‘꾸게’ 대신 ‘섬피’를 사용한 점, ‘호미’ 대신 설이 좁은 ‘굴갱이’를 사용한 점, 짧은 다리로 된 ‘지게’를 사용한 점, 날개가 없는 ‘키’인 ‘푸는체’를 사용한 점 등도 제주적 특성을 반영한 변형 농기구임을 알 수 있다.

농경도 변화해 왔고 그 속에서 생을 다하던 농기구도 변화해 가고 있다. 물론 농기구가 주체가 되어 생기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쓰이다가 그 생을 다하기도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 전래 농기구의 쓰임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논의했다. 앞으로 본토의 발농사 지역과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제주의 문화적 특성을 추출하는 작업은 과제로 남긴다.



부록 1. 제주도 재래농구 조사(231)

농구명	조선명	사용량	구입가	연선비	연부담금	적요	
耕耘用具	在來犁	쟁기	15	5.00	1.00	1.33	쟁기끝 보습은 1년,반동관 쟁기자루(뱃대)는 15년
	荒蕪地耕耘器	보습따비	20	5.00		0.25	삼모양
	石掘器	가른따비	30	4.50	0.80	0.95	따비요리(쇠) 3월 자루 1원 50전
	耕起万能	벤질레	30	3.00	0.10	0.20	철 2월 90전, 자루 10전
정지용구	覆土器	쇠시랑	10	1.00		0.10	
	추	삽피	반년	0.20		0.40	
제초용구	土碎柄振	괘이	10	1.00		0.10	
	호미	곰배	5	0.15		0.03	
시비농구	호미	골쟁이	5	0.20	0.04	0.08	제주 특유의 호미
	호미	줄걸개	3	0.30	0.05	0.15	육지호미
운반농구	尿甕	오좁허박	5	0.40		0.08	낮은 물항아리를 사용
	鞍	질매	10	1.70	0.37	0.54	질매 1원 10년 등대 20전 매년, 배 50전 3년
관수농구	手首器	명에	15	1.50		0.10	
	지게	지게	3	0.60	0.05	0.25	
	담籠	별망당이	2	0.20		0.10	
	竹籠	찰구덕	1	0.20		0.20	
베어내기 탈곡조제 저장농구	水甕入籠	물구덕	3	0.30	0.10	0.20	
	水甕	허박	1	0.30		0.30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름 7, 8승 드리의 허박
		호미(낮)	5	0.25	0.04	0.09	
	麥千齒	보리클	10	2.00		0.20	밭벼용 보리클은 산두클이라고 하며 잇빨 사이가 다르다.
	連枷	독개(도리개)	5	0.20	0.03	0.07	
	柄振	설레, 당그네	10	0.20		0.02	
	朝鮮筵	덕석	10	1.50		0.15	
	朝鮮叭	백	5	0.50		0.10	
	솔박	솔박	5	0.30		0.06	나무로 만든 바가지 같은 것
	木臼	남방아	50	15.00		0.30	
우	방에대	20	0.60		0.03	일명 '질구대'라고도 한다.	
馬臼	말방아	70	70.00	8.00	18.00	방아 40원 70년 유지, 1년 수선비 3원 가옥 30원 70년 유지, 연간 수선비 5원	
丸筵	가래방석	5	1.00		0.20		
熊手	갈궁이	5	0.30		0.06		
농산가공 용구	菰	노람지	1	0.50		0.50	
	糊付時糸止器	그슬귀	3	0.20		0.07	
	網繕器	호롱이	3	0.20		0.07	
		뒤치는 것	10	0.20		0.02	
	부	도치	30	3.00	0.20	0.30	
	줄	얼맹이	5	0.80		0.16	
	碾臼	퀴레	50	2.00	0.10	0.14	
	삼태기	골채	반년	0.30		0.60	
	綿繰器	으르는 물레	10	1.00	0.10	0.20	물레쌀은 5년째에 수선한다.
	糸車	쫓는 물레	50	1.50	0.20	0.23	
織布機	베칼	20	5.55	0.40	3.18		
物打器	막개	50	0.20		0.01		
양축기	飼料	독우리	50	3.00		0.06	2두 드리, 소의 독우리는 소독우리, 말의 독우리는 마독우리라고 한다.
	産卵籠	닭넝에	1	0.10		0.10	

231) 홍성목역, 朝鮮半島의 農法과 農民(濟州島篇), 제주시우당도서관, 2000, p.p.224~225

## 부록2. 주요 조사지 및 제보자

지역	조사일	주요제보자
남군 남원 수망리	1996. 8. 30~9. 12	현철휴(남, 1931년생), 김평수(남, 1937년생)
남군 남원 태흥리	1996. 8. 30	박창식(남, 1932년생), 이운행(남, 1923년생)
남군 대정 가과리	2000. 12. 7	조맹호(남, 1920년생), 강태복(남, 1918년생),
남군 대정 무릉리	1996. 9. 12	양경팔(남, 1917년생), 이성지(남, 1931년생)
남군 성산 삼달리	1996. 9. 11	강근창모친(여, 1920년생?)
남군 안덕 덕수리	1996.	송영화(남, 1917년생)
남군 안덕 사계리	2000.	김용택(남, 1927년생), 김대승(남, 1946년생)
남군 표선 성읍리	1996. 3. 20~4. 3	강명삼(남, 1933년생), 오창립(남, 1945년생)
남군 표선 토산리	1996. 8. 30	안치호(남, 1956년생),
북군 구좌 행원리	1999. 1. 4	이계영(남, 1927년생) 김인홍(남, 1929년생),
북군 구좌 행원리	1999. 3. 24	홍승대(남, 1942년생), 김봉주(남, 1936년생)
북군 애월 광령1리	1996. 6. 7	양성휴(남, 1930년생?)
북군 애월 봉성리	1996. 9. 19	홍시병(남, 1933년생)
북군 애월 상가리	1996. 9. 18	변두남(남, 1917년생), 고순자(여, 1940년생)
북군 애월 소길리	1996. 9. 18	양수열(남, 1946년생?)
북군 애월 애월리	2001. 2. 8	이진보(남, 1938년생),
북군 애월 유수리	1996. 3. 18~4. 4	변기영(남, 1912년생), 강위진(남, 1937년생)
북군 조천 함덕리	1996. 9. 19	오정웅(남, 1933년생),
북군 한경 용수리	2000. 3. 15	김한진(남, 1934년생)
북군 한림 귀덕리	1996. 4. 9~4. 10	이경팔(남, 1945년생)
서귀포시 강정동	1996. 6. 20	윤경노(남, 1922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1996. 9. 19	한재환(남, 1950년생)
서귀포시 상호동	1996. 9. 18	양정효(남, 1953년생)
서귀포시 토평동	1996. 5. 27~9. 18	오승호(남, 1950년생), 김종건(남, 1953년생)
서귀포시 하례동	1996. 6. 20	성희순(남, 1932년생),
서귀포시 하효동	1996. 5. 27~1998. 1. 15	김병욱(남, 1951년생), 고석진(남, 1945년생?)
제주시 도련2동	1996. 3. 21	변규일(남, 1932년생)
제주시 도평동	196. 8. 29	현정열(여, 19년생)
제주시 아라동	1996. 9. 4~10. 31	김희인(여, 20년생), 김양언(남, 1941년생), 김신하(여 81)
제주시 오라 3동	2001. 2. 8	문용준(남, 1930년생), 박태형(남, 1932년생)
제주시 오라 3동	2001. 2. 8	백춘심(여, 1924년생), 문태중(남, 1916년생), 고순녀(여, 1914년생)
제주시 해안동	1996. 8. 29	김임학(남, 31년생), 김호사(남, 1945년생)
제주시 화북1동	1996. 5. 22~12. 6	고유주(남, 1934년생), 김수행(남, 1936년생),

## 참고문헌

### 1. 參考資料

- 경기대학교박물관, 『박물관도록』, 경기대학교박물관, 1990  
광주시립민속박물관, 『光州市立民俗博物館』,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90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짚제품 特別展』, 광주시립박물관, 199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국립민속박물관, 1997  
국립민속박물관안내책자  
農協中央會農業博物館, 『韓國의 農業遺物』, 農業博物館, 1991  
朴用厚, 『濟州方言研究』(資料篇), 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198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도록』,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金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안동민속박물관, 『도록』, 안동민속박물관, 1998  
李元鎭(金相助역), 『耽羅志』,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1

### 2. 論著 및 圖書

- 강경선, 「農業」, 『濟州道誌』(2), 濟州道, 1993  
강영봉, 『제주의 언어』(1), 圖書出版濟州文化, 1994  
姜仁姬, 「항아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455  
강재혁외, 『國文學報』(제15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1  
강정향토지편찬위원회, 『강정향토지』, 강정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1996  
姜志勇, 「濟州道農業의 構造와 生産計劃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0  
강창언, 「농기구」, 『濟州道誌』(3), 濟州道, 1995  
高光敏, 「제주도 쟁기의 형태와 발갈이법」,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校博物館, 1988  
高光敏, 「柑山里的 民具」, 國立濟州大學校博物館移轉紀念特別展圖錄, 1999  
고광민,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고광민, 「목공예」,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위원회, 1996  
高光敏, 「濟州島民具」(Ⅲ), 『耽羅文化』(5),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6  
高光敏外, 「濟州의 民俗」(2), 濟州道, 1994.  
高橋昇(洪性穆譯), 『朝鮮半島의 農法과 農民』(濟州島篇), 濟州市우당도서관, 2000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2), 高麗大出版部, 1980  
고부자, 「衣生活」, 『濟州道誌』(3), 濟州道, 1995  
고양숙외, 『濟州道の 食生活』,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고영기외, 『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80.  
高在奐, 『濟州島俗談研究』, 集文堂, 1993  
공천포지편찬위원회, 『公泉浦誌』, 남원읍의귀리, 1990  
곽창열편, 『수수께끼』, 가정교육사, 1996, p. 151.  
權振肅, 「精選道具와 技術의 變遷概觀」, 『韓國의 農耕文化』(5), 京畿大學校博物館, 1996

- 권진숙, 『脫穀道具의 變遷 概觀』, 『韓國의 農耕文化』(4), 京畿大學敎博物館, 1994
- 길경택, 『한국선사시대농경과농구의 발달에 관한 연구』, 『고문화』(2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5
- 김광연, 『生業技術』,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財管理局, 1974
- 김광연, 『쇠스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金光彦, 『신라시대의 농기구』, 『新羅文化財學術發表會論文集』(8), 新羅文化宣揚會, 1987
- 金光彦, 『日本 對馬島の 農器具』, 『韓國農器具攷』, 백산자료원, 1986
- 김광연, 『일본에 건너간 우리 농기구』, 『한국민속학연구』, 단국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4, p.69
- 金光彦, 『韓國農器具攷』,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김광연, 『디딜방아연구』, 지식산업사, 2001
- 김광연, 『우리문화가 걸어온 길』, 민속원, 1998
- 김광연, 『運搬用具』,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김광연,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 김광연, 『고무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476
- 김광연외,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財管理局, 1974
- 김동섭, 『남테와 돌테』, 『生活用具』(6호), 사단법인 질풍문화연구회, 1998.
- 김동섭, 『돌 많은 제주에는 농기구도 별나다』, 『민속문화의 새 전통을 구상한다.』, 집문당, 1999.
- 김동섭, 『삶을 개척한 농경과 농기구』, 『가과도학술조사보고서』,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2001.
- 김동섭, 『보리의 農耕 民俗에 관한 一研究』, 『調查研究報告書』(9),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4.
- 김동섭, 『濟州島石材民俗品』, 『調查研究報告書』(10),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 김동섭, 『濟州島 木材民俗品研究』, 『調查研究報告書』(11),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6.
- 김동섭, 『濟州島 織材民俗品研究』, 『調查研究報告書』(13),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 김동섭, 『濟州島 鐵材民俗品研究』, 『調查研究報告書』(12),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7.
- 김동섭, 『제주도의 농기구』, 『영주어문』(1), 영주어문연구회, 1999.
- 金東燮, 『濟州道の 農機具』,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7
- 金玟奎, 『朝天邑誌』, 圖書出版濟州文化, 1991
- 金奉玉, 『增補濟州通史』, 도서출판世林, 2000
- 金奉玉외,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調查報告書),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1
- 金尙憲(朴用厚 역),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대학교육위원회, 1976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6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3
- 金榮敦, 『濟州의 研子磨』, 『文化財』(8),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4
- 金榮敦외,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제50호), 文化財관리국, 1968
- 金義淑, 『濟州島 牧者服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 金仁卓, 『濟州道 火山灰土壤의 分布現況과 特性調査』, 『調查研究報告書』(제4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89.
- 金俊鎬, 『濟州島の 自然, 資源 그리고 人間』, 『濟州의 人文환경과 自然환경』, 濟州島研究會·濟民日報社, 1992
- 南都永,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
- 南錫珍, 『濟州島傳統社會의 農業經營에 關한 研究』, 『耽羅文化』(9),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 남제주군, 『우리고장 전래민요』, 1996. 남제주군, p. 263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문무병, 『탐라국입춘굿놀이』,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박대순, 『농기구』, 대원사, 1990

朴虎錫, 「東. 西洋쟁기의起源과發達」, 忠北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8

朴虎錫, 「한국 따비에 관한 考察」, 『韓國의 農耕文化』(4), 京畿大學教博物館, 1994

박호석, 『한국의 재래농기구』, 농업기계화연구소, 1990

裴永東, 「호미에 관한 일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배영동,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민속원, 2000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편, 『조선의 풍습』, 학민사, 1993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善生永助(洪性穆역), 『濟州島生活狀態調査』, 우당도서관, 2001

成太圭, 「農業勞動力動員 形態의 變化에 관한 研究」, 『人類學研究』(第3輯), 1986

신영훈,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 悅話堂, 1983

실천민속학회, 『민속문화의 새전통을 구상한다.』, 집문당, 1999

安承模, 「뒤지개」,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432~433.

안승모, 박호석, 『한국의 농기구』, (株)語文閣, 2001

영주어문연구회, 『瀛州語文』, 영주어문연구회, 1999

尹京老, 『鄕土江汀』, 도서출판디딤돌, 2001

尹容鎭, 「初期鐵器時代 住居址發掘에서 유추되는 社會文化와 農耕資料」, 『韓國의 農耕文化』(2), 京畿大學校博物館, 1988.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上), 乙酉文化社, 1994

이청규, 『濟州道 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李清圭, 『濟州島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1995

李清圭의, 『濟州島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李春寧, 『한국의 농학사』, 민음사, 1994. p.15

이호철, 『농업경제사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인병선, 『우리 짚 풀 문화』, 현암사, 1995

임재회편, 『韓國民俗學의 課題와 方法』, 정음사, 1986

임학중외, 『겨레와 함께 한 쌀』(도작문화3000년), 국립중앙박물관, 2001

장상교외, 『한국의 농경문화』(1), 국립민속박물관, 2000.

장주근외, 「在來農耕의 地域差」,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教博物館, 1983

진라남도농업박물관, 「運搬用具특별전」(도록), 1999

진라남도농업박물관, 『圖錄』, 진라남도농업박물관, 1995

濟州大學, 『海村生活調査報告書』(龍水里 및 吾照里), 濟州大學校國語教育科, 1978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三姓神話研究』, 濟州大學校, 1995

濟州大學校博物館, 『郭支貝塚』,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濟州道部落誌』 I ~ IV,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2

濟州大學國語教育科, 「民具」, 『海村生活調査報告書』(龍水里 및 吾照里), 濟州大學校國語教育科, 1978

제주대학교국어문과, 「方言」, 『國文學報』(第4輯-倉川里學術調査), 濟州大學校國語國文學科, 1974, pp. 98~101,

濟州道, 『濟州道誌』(1, 2, 3), 濟州道, 1995

- 濟州道, 『濟州道統計年報』, 濟州道, 1976
- 濟州道,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 濟州道農村振興院, 『濟州農事方言, 俗談集』, 濟州道農村振興院, 1991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가과도학술조사보고서』,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2001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調查研究報告書』(9),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調查研究報告書』(10),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6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調查研究報告書』(11),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7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調查研究報告書』(12),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調查研究報告書』(13),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9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調查報告書),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1
- 濟州島森林組合, 『濟州寫眞帖』, 田口商店, 1929
- 조영배, 『우리고장 전래민요』, 도서출판 예술, 1996
- 조재영외, 『한국농업개론』, 향문사, 1985
-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 좌혜경편,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 주강현, 『두레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5
- 주강현편, 『북한의 민속학』(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 1989
- 池健吉, 安承模, 『韓半島先史時代出土穀類와 農具』,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博物館, 1983
- 진성기, 『남국의 민속』(제주도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90
- 진성기, 『濟州民俗의 멋』(2), 열화당, 1981
-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 悅話堂, 1979
- 蔡秉瑞,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2), 1967
- 韓國農業技術史刊行委員會, 『韓國農業技術史』, 韓國農業技術史發刊委員會, 1983
- 한병삼, 『先史時代 農耕文靑銅器에 대하여』, 『考古美術』(112), 고고미술사학회, 1976
- 韓相福, 『農耕』,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江原道篇),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7
-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玄容駿,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3
- 玄容駿, 『濟州島巫俗研究』, 集文堂, 1986
- 玄容駿外,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 玄容駿外,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島篇), 文化財管理局, 1974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精研社, 1962
- 洪淳鐸, 『俗談, 迷諺』,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
- 황철산, 『과거 우리나라 경작관습의 몇 가지에 대하여』, 『북한의 민속학』, 역사비평사, 1989
- 加藤木保, 『朝鮮の在來農具』, 朝鮮總督府, 1995
- 高橋昇,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 未來社, 1995
- 東潮, 『朝鮮三國時代の農耕』,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4), 吉川弘文堂, 1979
-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出版會, 1966
- 玄容駿, 『濟州島の 基層文化に於ける 一考察』, 『日本民族文化と その 周邊』(歴史, 民族篇), 新日本教育圖書株式會社, 1980

Summary

## **A Study of the Traditional Farming Implements in Jeju Island**

Kim, Dong-seop

Culture has been changed continually, also agricultural machines and implements have been changed as well. People who needed them like folk products, they might be able to be no more used or developed more and more someday. Agricultural machines are quite important to make the productivity improved with the agriculture technology. Thus, there have been many investigations about the agriculture machines; moreover, there has been studying for the agriculture, the history of agriculture, Agriculture and economy, Culture and human being and folklore to be better the agriculture industry. Generally, Jeju islanders produced many vegetables and fruits from the dry fields, so I would like to summarize about some of agriculture machines that were used by our forebears.

First of all, when Jeju is compared to main land about some of things such as geopolitics feature, nature environment, the background of the history, environment of human beings, I investigated how different they are and what Jeju has got its own particular characteristic Jeju is located the most southern island in Korea, so that, it's different with main other land like weather, the fertility of soil geographical features, besides there has got much more humidity as well as much warmness. In addition, Jeju was formed by eruption of a volcano long time ago, that's why there wasn't a big flood in spite of heavy rai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ice field, which can be, harvested many products from it, there were Gum-Jil that is weeds growing high in good condition. This kind of condition made islanders' life hard time to forebears with being starved. There were not special industries in Jeju, thus people had to work as simple works like former, fisher, and so on. Jeju is easy to provide drinking water due to geographical feature, also its quite good condition of soil. O-Il-Jang which is traditional market Holden every one

time after five days and other businesses have been developed as well as construction of roads since 1970's, After that time Jeju islanders have worked as farmer and fisher both of them.

Secondly, I have investigated the purpose and features about feature of farming area, raising agriculture species, raising method of cultivation that was concerned with specific Jeju Island. The soil of Jeju consists of about 77% as volcanic soil that made by eruption of volcano. Therefore, the soil has been composed a lot of gravel and not enough soil, it has caused many damages by typhoons or storms and so on. Especially, soil of Jeju Island has not been firm enough, so weeds were stuck into the soil deeply. Thus, many agricultural implements that have pointed tip were used for it. Moreover, there were several kind of fields such as Jil-Wak, Jak-Ji-Wak, Tteun-Bap and so on, depending on altitude, distance, and temper of the soil.

Main purpose of the harvest from the field was to support them as other mainland. The harvests from the field were foxtail millet and barley. In addition, there were some more products harvesting such as beans, peas, mung green beans, cotton, sesame, perilla, radish and so on. These kinds of products also grew main field and even 'MeoDeuLe' is located in a house beside, also it is called to 'Wu Yeong'. Foxtail millet must be important at that time. We can understand through many things about it. For examples, foxtail millet was cultivated more than barley cultivated, Besides, the different method for harvesting, using for a ritual, "'SeKyeongNoli" (kind of humanistic ritual) which showed the foxtail millet cultivated process, Nong-Po-Je (kind of ritual for good harvesting) that held just after sown the seeds at the field, another rituals such as Je-Seok-Je, Ma-Bul-Je which concerned with cultivated millet. Though that information, we can guess that there were cereals cultures, which were affected by growing foxtail millet, and coexist together with the fishing industry, it would be able to be called to a compound culture. One of wise idea was that if the fertility of soil is not enough, forebears did not use the soil ford while, it was called " Swi-Dol-Iim", or they cultivated other crops for improving the productive capacity. In addition, they used some of muck to overcome the bad condition of the soil such as barnyard manure,

urine, fertilizer, and so on. Also they operated 'Geom Jil Me Gi' (weeding), 'Su Hwak' (harvesting), 'Tal Gok' (threshing), depending on measure of their field, having cattle or not and how many workers there were. If there would be not enough workers and cattle, they helped each other through 'Su-Nul-Eum' (mutual aid financing) its kind of traditional fraternity that is still maintained in most villages continuously.

Thirdly, I have researched their agricultural implements. I believe being used implements and their sorts must solve many curiosities something like distribution of the soil and connected implements. Thus, I'm sure that it can be seen through regional differences in Jeju Island. Moreover, through compared with other main lands, we can find out how different their feature, function, structure, stuff like these kind of things. Furthermore, I've foun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agricultural implements so far. I've summarized them as follow.

We have got a proverb that beginning about anything you do is already half of achievement. This means also that sown seeds on the field are very important and its mean is the same as the proverb. Moreover, Bak-Ga-Li (ploughing is also important as well as storage of seed, scattering, manure, Bak-Bal-Gi (the act which persons tread the field) and so on. The reason the implements were used many times. YangJuMeoLi (T-Shaped handle and a rope harness for a cow) was used for Jaeng-Gi (plough), because there have been many rocks and stones. On the other hand, Tta-Bi (Sod-breakers) and Ben-Chyu-Li (Sod-breakers; Spear shaped) have been used instesd of Jaeng-Gi, when persons worked to be not a fertile field. Tta-Bi and Ben-Chyn-Li have still used there, also Dang-Gol system (fraternity in each village) has offered to cooperate with each house so far. In addition, one of main implements which is Gwaeng-I and the other one Gom-Bae which has been used for making the soil flat have still been using a lots. Before a metal shovel is well known to dig the soil there has been used 'Gal-Le-Juk'. I've researched about 'Dok-Geo-Leum' (Pig's feces) and 'Swe-Geo-Leum' (Cow's feces) used for the manure to the soil. Some more things I've researched are such as 'Geo-Leum-Chak' (Using for being moved pig's feces), Swe-Su-Lang. Gul-che, There've used for making and moving 'Bul-Chi'. Besides, urine was used for the

manure, so that 'OjumhHang' (an earthenware pot used for putting the urine), 'OjumHeobuk' (kind of a jar for the urine). 'Ssi-Bu-Ge' (seed container; used to store all types of seeds) and Me-Mang-Teng-I (implement of scatter for seeds) have been used for storage and scatter of seeds usefully. After seeds were scatters, Seom-Pi, which was used for covering, seeds with the soil. Nam-Te (Wooden-Roller compacter) was used after sowing millet formers compacted soil with this wooden roller. These helped so much to protect the soil against strong wind and heavy rain as well as the function making them firm. As can be seen from Jeang Gi (plough), we can find out our forebears' wisdom in their life, they've improved it comfortably, other implements also were made whenever they were needed like Nam-Te (Wooden-Roller compacter), Dol-Te (the rollers of wood or stone). Moreover, we can find out native spirit of Jeju Island from many implements, as I explained already such as Geo-Leum-Chak, O-Jum-Heo-Buk, Nam-Te and so on. Especially Jaeng-Gi has reflected in the feature of geographical Jeju, because there has been lots of gravel and rocks on the soil and had to be lift them up many times, so that T-shaped handle and a rope harness for a cow must have been useful. Compared to Gang-Won-Do which is one of states in Korea that its environment is similar with Jeju Island, there were also some implements similar with Jeang-Gi such as Geuk-Jeng-I, In-Geol-I and so on. However, those implements from Gang-Won-Do have got sideways handle. As I explained, there was Geo-Leum-Chak, which used for carrying the pig's feces, so that; there was not Ddong-Jang-Gun (A person to carry the pig's feces). Also, the urine one of important manure was carried by O-Jum-Heo-Buk (kind of Jar for urine). Nam-Te for protecting the soil against the wind and heavy rain can be seen only in Jeju Island must be protected significantly. Gol-Gaeng-I, which used for picking up the weeds, it shows about feature of Jeju very strong fully.

Jeju Islander's always used Gol-Gaeng-I, whenever they worked has been done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field and kind of the products. Width of the blade of Gol-Gaeng-I has been quite narrow, because there has been considerably many gravel and rocks. As can be seen from the information, we can know that Gol-Gaeng-I is significant cultural asset to reflect natural geographical features in

Jeju. Scythe has been used to collect the weeds, which were already picked up, from the soil; it has been called 'Ho-Mi' in Jeju. Basically the transportation for carrying the weeds used human strength, but animals such as hoarse, low occasionally were utilized. In fact, there have been many fences in the fields and many gravel as well, thus San-Te (using for carrying heavy things), Chei-Gae (Man used these wooden frames to carry heavy thing).

Bae, (using for carrying) something like these things were basically used many times. Another things to carry were Ma-Cha (carriage), Jil-Me (kind of cart). Especially, legs of Ji-Ge were made shorter than any other area in mainland, because Ji-Ge had to resist the strong wind; moreover people used it, when they went up the mountain to take firewood. Therefore, these transportation means must be important our cultural assets for underst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Husks were removed from the grain by the natural wind that the wind in Jeju is well known as the strongest in Korea. Furthermore being grain shaken off dried them also was used by the wind. There has been some implement for shaking off such as Jak-Dae-Gi, Deong-Deu-Leong-Ma-Gae, Do-Ggae, which is a manual threshing device, Keul, Geol-Geng-I. Implements for being them dried are such as Eong-Meng-I; Sol-Bak (kind of implement for selecting the grain without husks) was used to get grain by the wind. The other one "Pu-Neun-Che" (winnow; is used to separate the chaff from the grain) is different shape compared to other ones, but it's the same function as others. Keul (kind of separating implement for the grain) was spread out to people, it made people's work much easier, nowadays, Com-Ba-In, (the machine that helps working comfortably to be removed husks and ground grain, both of them) has been spread out over farmhouses. Pounding and grinding have been acted for removed husks and ground grain. The act for pounding has been used Nam-Bang-A, Jeol-Gu which can say wooden mortar and pestle; used to pound grain into meal were constructed from large, hollowed ort tree trucks. Grinding has been used Mul-Bang-E (horse driven mills were run by village cooperatives), Go-Le (pound). In addition, Do-Go-Ri, Go-Le-Bang-Seok, Che and some more implements have been used to support them. The interesting point about them, Most houses have got Go-Le more than one to take the barley,

because barley was the principal food at that time. Dok-Bang-E was set up each house individually whereas; normally it was used together in village and managed like each farm house was associated in the village. Some implements for storing were used kind of things like Mek, Hang (kind of Jar), Dwi-Ju (Grain Chests; made of four wooden upright pieces and cross-boards with half the top side of the chest open). Especially, due to higher humidity in Jeju Islanders have used Go-Pang (storage for grain) that has located behind the main living room to overcome the humidity, also Earthenware jars were used to store the grain. Thus, there was no storage, which has been called Gok-Gan (Korea style store room). Forebears needed a solution different with other places of mainland against the humidity, so that they were able to find specific way for storing. Mek (Grain chest; These kinds of grain chest were made by hollowing out tree trunks as they started to rot) were used as various ways by most Islanders, on the other hand Dwi-Ju (Grain chests) were not many house used and normally rich house or the head family with a clan had it.

There has been measures for grains, the mainland in Korea, people have used, Mal (Measuring tool) which has been called Dae-Du. However four Doe (measuring tool) is still the same measure as One Mal in Jeju. Jeju Islanders' life style can be seen from Gal-Ot (persimmon dyed working clothes). Generally, normal clothes cling to people and make them sticky during hot season, so Jeju Islanders made Gal-o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Moreover, they used Pe-Leng-I (tradition hat) to protect themselves under the sun; also they used Wu-Jang (rain coat) against strong rain. Islanders have used scythes to prepare feeds for their cattle; the feeds have been called Chol or Ggol, which is called only by Jeju Island as local language. Moreover, they used Gom-Pol (implement), which used for training their calves to be unitized for the plough. As the implements for farming were explained through Islander' life, we can understand that farming implements were designed to be worked properly at the rocky soils of the Island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type of other mainland. The plough, which has a T-shaped handle, was to lift gravel and rocks at the fields; also width of the blade of Gol-Gaeng-I (hoe) has been sharp and narrow. Besides, other some tools such as Dda-Bi,

Ben-Jul-Le, Gol-Gaeng-I, Yak-Cho-Kae-Gi, are quite sharp is stepped on Mal-Te, Nam-Te and Dol-Te and to prevent from strong winds or heavy rain. The operation used many horses approximately 20~30 numbers which were put into the field to step from the edge to the center, but it was not many cases using horses, so that, when they use the horses, they unitized wooden shoes for the horses to maximize them using the operation. This operation helped to prevent the soils from being flown by the winds, also there hasn't been kept the moisture, due to entirely of infertile volcanic ash soil, but through this operation the moisture was kept on the soils. Moreover, seeds were protected from many birds which eat the seeds on the fields Natural winds have been used for threshing the grains, and the tool for this operation was Sol-Bak ( It was used for separating the grain and husk), This tool was used by most of islanders widely. Pi (Deccan grass) was principal food, so that, forebears used Nam-Bang-E, which has a wide entrance, also it was a cause about using the jar. Forebears in Jeju wore the Gal-Ot, whenever they worked, it's because Juju is an oceanic climate and there has been a lot of dust. Moreover, Islanders made Gom-Dol that used for doing the plows, and we can know the feature of farming tools in Jeju Island. There are many implements that are reflected in the feature of Jeju. For examples, Ji-Ge (Man used these wooden frames to carry heavy things) was quite useful to carry. Legs of Ji-Ge were made shorter than any other areas in mainland; it shows the features like the strong winds and heavy rain. Moreover, people carrying on the back with Ji-Ge had to get over the fence that was set up in between each field for indicating the boundary line, Thus legs of Ji-Ge had to be made shorter than others. The other implement to carry the name is Seom-Pi that it was made of wood, because wood was easy to get in Jeju, but Seom-Pi was hard to bring over the fence, so that, it only was used one time and them it used to firewood for heating and so on. In addition, there were some more things that made by wood such as Nam-Bang-E, Do-Go-Li and Du-Lip (this was used very often); these implements show the feature of natural farming tools in Jeju. The reason why those kind of implements were made was to cultivated more than foxtail millet and barley, also, pi is quite hard to take the grain without huskies because it is

surrounded several husks, so that, need more workers to remove the husks. Thus, Nam-Bang-E was used for the operation. Jeang-Gi has been changed the shape as T-shaped handle to be adapted the geographical features. Soe-Dda-Bi(ploughing tool)has been used to pick up roots of tangerine from the soil. Human excrements were used for feeds of pigs and O-Jum-Heo-Beok(urine jar)was used instead of Ddong-Jang-Gun(persons for carrying the excrements). Seom-Pi instead of Ggeung-Ge was used to cover the seeds into the soils that consist entirely of infertile volcanic ash soil. Gol-Geang-I instead of Ho-mi (hoe) has been used so far, because it needed to adapt the rocky soil in Jeju. Short legs of wooden frames (Ji-Gae) were used, Pu-Neun-Che(used for separating the grains from husks; a sieve) was used, all these implements show the features of Jeju island and they have been changed to be adapted in Jeju island, we can know the features through these implements. In conclusion, farming implements have been changed so far and would be changed continuously in the future as well. It is impossible to bring the farming implements existed by themselves and being disappeared by themselves as well. It depends on persons who need the farming implements or not. This means that people made them when they needed, but even though implements were made, some of the implements were not used any more after they were used several times.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m have been used more and more. Therefore, what it was explained is destiny of the farming implements either development or disappearance decided how much were they needed to and how many were they used by. These facts can be known through a study of the traditional farming implement in Jeju. I hope that distinctive features in Jeju are found out a lot like connection of the culture with implements through comparing to the farming and implements in the mainland. I expect that these dissolved questions would be solved within the immediate future.

## 감사의 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가꾸고 일구셨던 이 땅의 수 많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강위진, 오정웅, 김창영, 윤경노, 조맹호, 이경팔, 고석진님의 이름을 적어 제보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객지인 제주에서 자식인양 넘치는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현용준 선생님과 사모님,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주제의 선정과 흐트러진 논지의 정리 등 오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허춘 선생님의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서투른 논의를 바로잡아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김광언, 안승모, 허남춘 선생님께서 감사 드립니다.

18년 전 낫설은 제주 생활의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피주시면서, 농기구의 연구는 물론 민속자료의 조사 연구 등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고광민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농기구의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신 장주근 선생님, 개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관심을 주셨던 전경수, 이청규, 양중해, 남도영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와의 인연을 위해 애써주신 맹인재, 홍성학님께 감사 드리며, 끝없는 신뢰로 기대해 주셨던 박재일님의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함으로 지켜봐 주시는 고종건님, 김지순님, 종준스님, 조성오, 이정동님께도 감사 드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준 문영호, 강웅찬, 고승보, 김성방, 이영주, 김성곤, 김동춘, 김용수, 김근수, 안기호, 양찬우, 김명석, 김주호, 조성두, 김인성, 오진영, 양완옥, 박양덕, 박태수, 한영찬, 김승한, 정승달님의 배려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부 시절 어린 철부지를 꿈은 가진 민속학도로 가꾸어주신 성병희, 이남식, 장철수, 김명자, 임재해, 김호중 선생님께 감사 드리며, 대학원 시절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김영화, 문성숙, 윤석산, 강영봉, 김병택, 손오규, 김진영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진성기 관장님, 신타근 관장님, 조현중 전관장님과 박성중, 현춘식, 문무병, 김창화, 양종렬, 강창언, 김명철, 강창화, 김재철, 부윤자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던 우리 박물관 김윤기, 고광수, 양재박, 김인탁, 이영배관장님과 연간 백만 이상의 관람객을 전문 지식과 친절로 맞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강문규, 이윤희, 김순자, 김오순, 김동현님의 격려에도 감사 드립니다. 서투른 초고를 끝까지 봐 주셨던 최중호, 김동윤, 정연학 선생님, 윤중현, 김시은님께 감사 드리며, 없는 시간을 내어 교정에 임해주신 문순덕 선생님과 격려해 주신 좌혜경, 강정식, 양영길, 강철, 김미진님과, 농업기술원 이신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끝없는 격려로 묵묵히 지켜 봐 준 김종길, 서승우, 권두규, 이상현, 한양명, 배영동, 천진기, 이원태, 류춘규, 김지욱, 김시덕, 임형진님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을 양보하며 기다려주신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 누님, 자형, 매제, 막내 그리고 제수, 동생네 모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곁에서 기대해 주셨던 처가의 장인, 장모님, 두 분 처남네 가족 모두의 격려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누구에게 비견될 수 없을 만큼의 이해와 인내로 오늘의 자리를 있게 해 준 집사람과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